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경계를 넘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수원학
구술총서
④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경계를 넘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경계를 넘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경계를 넘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Contents

수원 피란민촌과 피란민 생활

007 수원 피란민촌의 형성과 변천
수원 피란민촌의 형성
수원 피란민 거주지의 변천
수원역 일대 피란민촌, 동산마을과 육교마을

073 피란민들이 만든 동네, 연무동 193번지
연무동 피란민촌 풍경
그들이 살던 세상
개발과 변화 : 연무동 재개발사업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정착 월남민 이야기

126 강원도 철원 월남민 유옥선
돌배기 아들을 앗아간 피란민수용소 생활

194 강원도 철원 월남민 박순옥
선생의 파고를 넘어 동창당한약방을 지켜내다

240 강원도 철원 월남민 김봉석
인민군 징집을 피해 월남 후 노무사단과 의무중대를 거쳐 영연방사단까지

304 평안북도 선천 월남민 전계준
인민군에서 포로로, 다시 국군을 거쳐 영동시장 상인으로

346 경기도 개성 월남민 최우섭
가미가제특공대와 개성 경찰을 거쳐 해병대 헌병으로

392 경기도 개풍 월남민 이경용
피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일구어낸 교사의 꿈

456 황해도 벽성 월남민 최형수
"피란 나온 사람들이 영동시장번영회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지."

506 황해도 연백 월남민 정창모
인민군 징집을 피해 월남하여 유엔 경찰로 활동하다

수원 피란민촌과 피란민 생활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

수원 피란민촌의 형성과 변천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리서치센터

1. 수원 피란민촌의 형성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정부는 피란민 대책을 즉각 내오지 못하였다. 전쟁 개시 후 보름 정도가 지난 7월 9일 국군은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였고, 정부는 7월 10일 실질적인 피란민 대책인 '피란민 분산계획 요령'을 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 각 지시에게 내렸다.[1]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피란민 구호대책 요강'에서는 대구-영천-경주-포항을 잇는 직선의 남쪽, 대구-경산-청도-밀양-창원을 잇는 선의 동쪽 지역, 기타 완전한 지역 및 제주도 내에 피란민을 수용하도록 정하였다.

피란민은 갈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수용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빈 건물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피란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사회부장관이 귀속재산 건물과 그 외의 건물에 피란



1951년 1·4후퇴 당시 수원역(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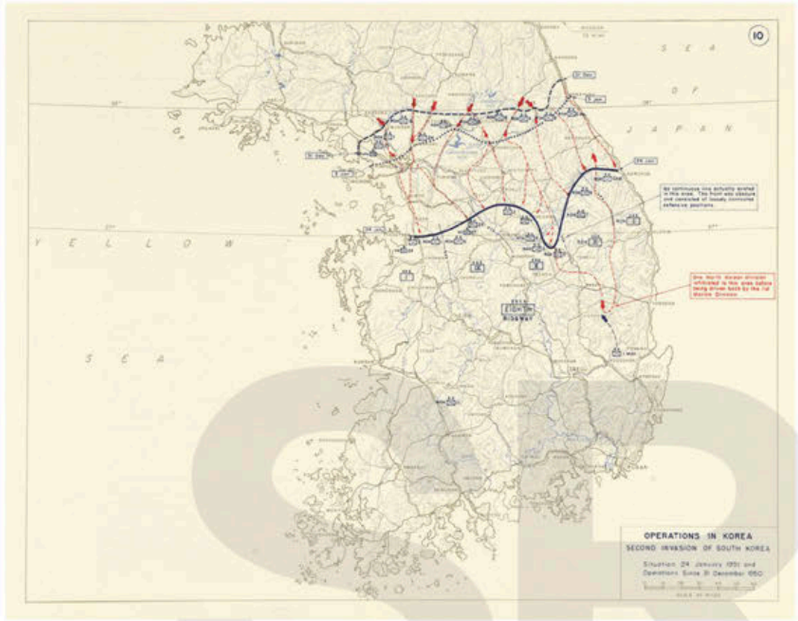


1951년 1·4후퇴 당시 수원역(국가기록원 제공)

민을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고, 피란민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게 하였다.[2]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미군과 국군은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하였지만, 곧 중공군의 참전으로 1951년 1·4후퇴가 일어났다. 한강 선에서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은 수원과 오산을 지나 평택에서 안성을 연결하는 37도선까지 철수하였다. 1951년 1월 7일 수원은 중공군 제50군에게 점령당했고, 이때 수원역은 남행열차를 타기 위한 피란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중공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피란민들은 더욱 늘어 갔고, 남하를 시작한 피란민들은 일일 평균 3만 명 이상이 반월-수원-신갈-이천-여주를 연결하는 피란민 통제선을 통과하였다. 이렇듯 전쟁 발발 직후와 1·4후퇴기에 수많은 피란민이 수원으로 밀려왔고, 수원을 경유하여 남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때 수원은 피란민들의 통과지역이었다.

1951년 1월 27일 미 제1군단이 수원의 칠보산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수원을 재탈환하자, 경기도는 1951년 2월 18일 '경기도구호대'를 편성한 후 2월 24일 구호대를 수원으로 이동시켜 안성·평택·화성·용인·수원·광주에 집결해



1951년 1월 위도 37~38도선에서 전개되는 전투(e뮤지엄 제공)

있는 피란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3] 당시 수원지구에는 15만 명의 피란민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한파와 식량난으로 아사상태에 빠져 있었다.[4]

피란민의 규모가 커지고 그 경로도 복잡해지면서 정부는 피란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5] 통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건설대가 서울로 입성한 1951년 3월 셋째 주부터 복귀하는 피란민이 추산되었고, 그 수는 4월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에 밀려 4월 25일에 '서울철수령'이 선포됨에 따라 서울에서 피란민들이 수원, 인천 등으로 몰려들었다. 결국 남쪽으로 피란 갔다가 한강 이북으로 올라가려는 북상 피란민들과 '서울철수령'으로 남하하려는 피란민들이 몰려 수원은 거대한 '피란민수용소'를 이루었다.

한편 1951년 3월 20일 수원시청이 복귀하고, 4월에는 경기도 임시청사가 수원에 설치되면서 피란민 구호가 본격화하였다. 5월 경기도 일대에 240만 명의 피란민이 모여들자 경기도청은 반월-수원-용인-이천을 운수하는 A선과 발안-평택-안성-장호원을 운수하는 B선을 정하고 이 두 선에 중앙정부, 경기도청, 시·군청 세 관청에서 의료반, DDT반, 공급반을 편성한 후 피란민에게 구호미를 무상공급하고 천막을 배포하였다.[6] 이때 반월-수원-신갈-이천-여주를 연하는 지역의 북방에서는 중공군이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북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 지역에 있는 피란민들은 천안 이남으로 피란할 것을 권고하였다.[7]

1951년 1월 유엔군에게 재탈환된 수원시 중동(e뮤지엄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센터

정부는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먼 곳으로 피란민을 남하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 때문에 구호미도 남하자를 1순위로 하여 지급되었는데, 남하자는 수원시에서 3일치의 식량을 받은 후 평택에서 가서 다시 받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피란민을 수용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기간 구호본부로부터 1만 8,000석의 구호미를 받아 가지고 있으며 배급대상을 삼구분하여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남하자를 1위, 수원 체류자를 2위, 원주민 복귀자를 3위로 정하고 비농가와 공무원 및 동 가족에게는 매일 1인당 2홉 5작씩의 유상배급을 하고 극빈자에게는 일재 구호미를 풀어 구호미와 부식비 50원씩을 배급하였었다 한다. 그러나 남하자에 한하여서는 그들의 남하를 권유하기 위하여 수일 전 3일분의 식량을 배급하였을 뿐 수원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식량배급을 중지하여 남하민의 수원 집중을 피하려는 듯한 현상에 있는데, 5일 경기도 산업국장이 언명한 바에 의하며 남하자 특배용으로 구간 확보 중에 있던 700톤의 쌀은 유엔민사처의 특명 있을 때 배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5일부터 이를 배급하기로 연락이 되어 있어 남하자는 언제나 수원에서 3홉씩 3일분의 식량배급을 받고 길을 떠나면 평택에 가서도 동량의 배급을 계속하여 수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8]

그러나 1951년 5월 수원시는 8만 6,106명에 달하는 피란민과 4만 5,887명의 원주민, 제2국민병 귀환 장정 등 20만 명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구호미가 남아 있지 않아 배급을 실시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수원시는 피란민의 수원 집중을 우려해 식량 배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수도 서울에 통하는 관문이며 서부 일대 교통의 중심지인 수원시는 이제는 북상



산자락에 천막으로 지은 피란민 움집(수원화성박물관 제공)

남하하는 피란민의 집산지이기도 하여 피란민들의 집산이합이 심하고 따라서 피란민구호도 수원을 중심지로 전개하고 있는 이즈음 전황의 호전과 함께 또다시 피란민들이 시내 각처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5월 9일 현재 시내 전체 난민의 총수는 8만 6,106명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통계에 들지 않은 추정인원까지 승하면 십만을 넘을 것이라고 수원시 당국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 수원시의 원주민인 4만 5,887명을 합하여 십오만가량의 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제2국민병 귀환 장정들이 통과하고 있는 수원시로서는 결국 피란민, 시민, 귀환 장정 등 약 20만 명을 구호 구제하여야 하게 되고 말았다 한다. 그러나 수원시에는 5월 15일 현재까지 쌀 한 톨 없이 다 긁어먹고 빈손을 들고 20만 명의 구호대상을 대하게 된 한심하고도 놀라운 형편에 처해 있다.[9]

SRI 수원시정연구원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으로 피란 온 조선일보의 전시판 발행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 應 謨
印刷人 金 源 泰
臨時發行所 水原市 朝鮮日報社

수원에서 발행된 『조선일보』

1951년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에 밀려 4월 25일 또다시 '서울철수령'이 내려지자, 피란길에 오른 조선일보사 사원들은 평판기 한 대와 활자 약간을 트럭에 실었다. 목적지를 대전으로 잡았지만 수원에서 트럭이 고장나는 바람에 피란길이 멈추었는데, 마침 전선이 소강 상태여서 수원에서 신문을 내기로 했다. 당시 수원경찰서장 최정득의 도움으로 경찰서 앞에 있던 경기도립병원 사택에 '조선일보사 수원임시발행소'를 차렸다. 그들은 서울을 떠난 지 1주일 만인 1951년 5월 3일에 "살길은 무엇인가, 수원에서 본보를 내며"라는 기사를 실은 타블로이드판(2면)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것이 『조선일보』 '제4차 전시판'이었다. 이에 따라 1951년 5월 3일자(8,582호)부터 7월 31일자(8,671호)까지 『조선일보』의 발행 주소는 '수원시'였다.

수원 시절의 전시(戰時) 편집반은 라디오 한 대를 주 취재원으로 삼았다. 몇몇 기자가 일선 취재에 나서기는 했으나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을 뒤져 구입한 헌 라디오 한 대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였다. 라디오를 듣고 쓰는 뉴스를 '알피통신'이라 불렀는데, '알피(RP)'는 'Radio Press'의 첫 글자이다. 이에 [워싱톤 ○○일발 알피-수원


全戰線은極히平穩
敵死傷七萬五千(九日間에)
敗敵中東部에移動
六百十一億弗
救護에萬全態勢
살길은무엇인가
朝鮮日報
水原
警察署
署長 崔正得
警察署長 李三龍
警務課長 金漢根
李正麟
朴周恩
道知事 李海翼
內務局長 尹源善
警務局長 崔應福
韓景祿
鐵道局長 金弘植

수원에서 발간된 『조선일보』 1951년 5월 3일자 1면
라디오를 듣고 쓴 뉴스기사를 '알피(RP)통신'이라 하였는데, 알파-수원통신으로 표기되어 있다.



防空準備에 遺憾없나?

水原에 敵機再出現

小型爆彈을 投下코 逃走

收容된 孤兒 (16)

보잘것없는 敵機

防空態勢는 完璧

如前한 買穀代의 遲拂

現札가지고도 내놓지 않아

愛護週間設置

各種新式漫談 金素集

수용된 고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광고, 수원 관련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 1951년 6월 18일자 2면



祝 續刊

水原郵逓局長 徐明煥

大韓金組聯合會 京畿道支部

市長 姜海昇

市 原 水

金永甲 安桂煥

○求氷菓機技術者

趙炳哲 禹寬命

金德基

八達藥局

金今順

丁佑鎭內科

『조선일보』 전시판 속간을 축하하는 광고와 의원·약국 광고

통신], [동경 ○○일발 RP수원], [부산 ○○일발 RP수원]이라는 표시를 달고 기사가 실렸다.

기자가 최전선에 특파되거나 피란민 대열을 따라가 르포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수원 피란민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사화되었다. 또한 1951년 5~7월에는 가족들을 찾는 수원 피란민들의 광고가 대거 게재되었고, 1951년 6월 2일자부터 7월 7일자까지 32회에 걸쳐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 이름과 나이, 살던 곳을 신문에 실었다. 이는 언론이 펼친 최초의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이었다. 이 외에도 수원으로 피란 나와 임시진료소를 차린 의원과 약국, 경기도계엄민사부, 수원경찰서 등에서 광고를 게재하였다. 전시 중이었지만 그날그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조선일보』는 인기를 끌어 발행부수가 1만 부를 넘어섰다.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찾는사람

徐貞淑 (서정숙)
新설洞 一八七로 連絡 바라오며
本籍 京畿道 龍仁郡 龍興面 甫川里
住所 서울 鍾路 新門路一街 二二七
姜聲根

찾는 사람

朴任淳(4) 金和子(5) 朴永錫(7) 金貞子(8)
서울市 樂浪洞 一五五金弘植家族
動機로 莊金東 소식을 찾아주시압

찾는사람

金點奉 (김점봉)
現住 警察署 留置場 出入 免許
臨時 連絡所 水原 三星旅館內
洪在興

찾는 사람

崔昇煥 (최승환) 當五八歲
수원 南 水原 邑 北 三星旅館 內 에 滯在 하시던 左記 住所 로 連絡 하여 주시면 謝禮 를 드리겠읍니다
住所 京畿道 水原郡 水原邑 北三星旅館內
連絡處 仁川市 中央洞 京畿道 被災民 事務 官室 內
崔昇煥

찾는사람

최 중 로

찾는 사람

李英植 (이영식)
서울 城東區 往十里 五三 番地 四統에 살던
左記 住所 로 連絡 하여 주시면 謝禮 를 드리겠읍니다
水原 郵便局 私書函 三五號
姜舜默

다섯살된사나이

오세웅 이름을 불러주면 대답하는 사나이로 키가 크고 얼굴이 검고 눈이 큰 편이며 서울 말을 씁니다 수원 제일 국민학교 부근에서 잃었읍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하겠읍니다
吳 한 석
서울 제일 국민학교 二五

찾는사람

오 한 석

찾는 사람

李英植 (이영식)
서울 城東區 往十里 五三 番地 四統에 살던
左記 住所 로 連絡 하여 주시면 謝禮 를 드리겠읍니다
水原 郵便局 私書函 三五號
姜舜默

女兒를 찾음

姜文子 七歲 女子 이지고 모두 머리 하고 흰 옷 입고 있음
姜文淑 四歲 女子 검고 눈이 크고 이마가 넓고 얼굴이 희고 키가 큼 十月 에 잃어버리어 애타게 찾고 있읍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하겠읍니다
水原市 相柳 洞 二二六番地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新村路 一七一의六
母 金 順 粉
水原警察署 留置場 臨時 移動 診療 班

찾는사람

金世英 (김세영) 六歲 男子
永登浦區 永登浦洞 一區四班 李家族
水原市 北門 洞 一區四班 李家族
方에나 水原 警察署 留置場 移動 診療 班 金 昊 方으로 連絡 하시오

찾는사람

朴任淳(4) 金和子(5) 朴永錫(7) 金貞子(8)
서울市 樂浪洞 一五五金弘植家族
水原 警察署 留置場 移動 診療 班 金 昊 方으로 連絡 하시오

찾는 사람

李福順 (이복순)
서울 中學生 (十二歲 女子)
水原市 梅山洞 三街 八七番地 趙炳哲 方
滿月洞 二四一番地에 現住하던 이 아이가 지난 八月 十五日 서울 수복 당시 어머니와 헤어지고 또는 水原에 피난하여 있다가 또 헤어지고 지금은 혼자 있읍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하겠읍니다
母 金順天 (김순천) 三四
上記 二人이 開城市 滿月洞 二四一番地에 現住하던 중 서울 수복 당시 어머니와 헤어지고 또는 水原에 피난하여 있다가 또 헤어지고 지금은 혼자 있읍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하겠읍니다
水原市 梅山洞 三街 八七番地 趙炳哲 方
李福順

찾는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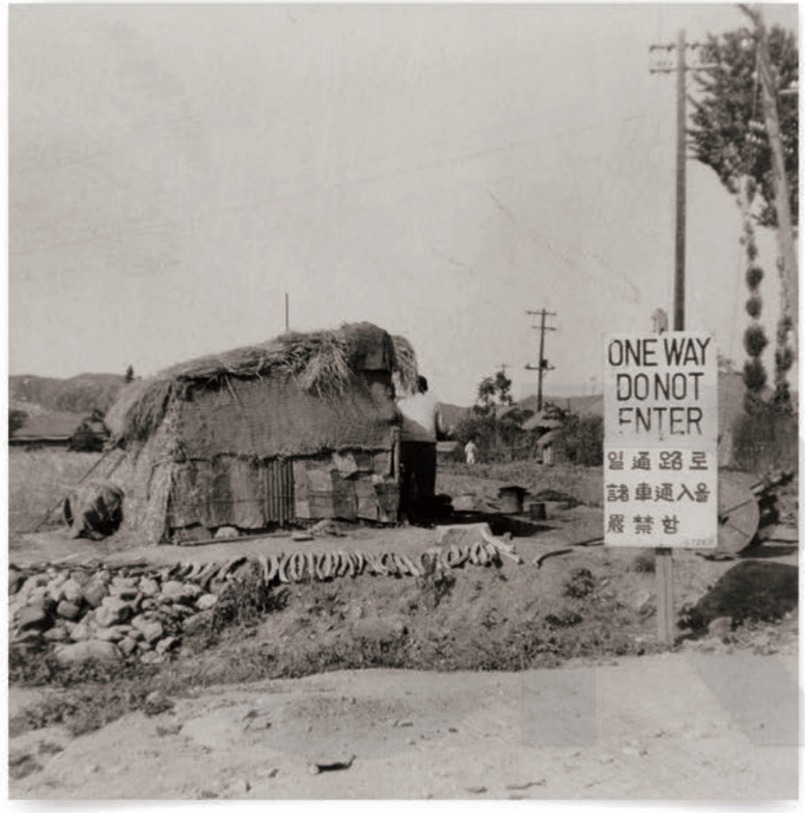
楊貞淑 (양정숙)
서울市 東大門區 祭基洞 三七七番地 柳利福 氏 次女
楊利淑 氏 柳利福 氏 次女
서울 東大門區 祭基洞 三七七番地 柳利福 氏 次女
楊貞淑

찾는 사람

郭玉實 九歲 女兒 (곽옥실)
중新暮서 있었으니 부모님의 行方을 아시는 분은 連絡 하여 주시면 謝禮 하겠읍니다
水原市 八達路 一街 五六 尹完分 方
父 郭 順

찾는사람

李允永 (이윤영) 洪性穆 (홍성목) 洪性穆 (홍성목)
서울 鍾路 里 洞 四 十七番地 洪性穆 氏 次男 洪性穆 氏 次男



길가에 자리한 피란민 움집(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에 유입된 피란민들은 여관이나 일반 민가의 방, 상점이나 기관의 건물 등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머물렀다. 하지만 많은 피란민들은 마땅한 거처를 얻지 못해 천막으로 막사를 짓거나 토굴을 파고 거주하였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경기도에서 수원시 지동에 건축한 피란민 가막사 견본 가옥을 보면 18평 대지에 30명(약 6세대)의 피란민이 거주하도록 계획되었다.[10] 피란민 토굴도 10여 명이 집단으로 거주하였고, 심지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거주민이 죽기도 하였다.

> 수원시 내의 토굴 속에서 살던 피란민 5명이 토굴이 허물어져서 즉사하였다. 즉 38 이북에서 수원으로 피란 나와 토굴 속에서 지내던 김용준 씨와 그의 처 한씨 그리고 본적 미상인 남자 2명 여자 1명이 수원시 매산로3가 35번지 토굴 속에서 20일 갑자기 토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즉사하였는데 동 토굴 속에 같이 있던 그 외 8명은 다행히 구출되었다.[11]

경기도 지역에는 피란민이 계속 늘어났는데, 경기도 내에서 피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북한 출신과 서울 출신이 비슷한 규모였다. 특히 북한 출신 피란민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었다. 유엔군들은 1951년 5월 한강 유역으로 북상하려는 피란민들을 수원에 떨궈 놓았는데, 1번국도와 경부철도를 따라 북상하던 피란민들은 도강(渡江) 금지에 따라 한강 남쪽인 수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 부동(浮動) 난민들이 수원으로의 집중률은 급작이 높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거중을 보게 된 원인은 한강 유역으로 북상하려는 부동 난민을 그동안 유엔군이 자동차로 수원에다 실어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원시와 수원서에서는 주로 작전상 지장을 이유로 하는 유엔군 측의 엄한 요청도 있고 또다시 자체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식량을 주지 못했을뿐더러 작금부터는 부동 난민의 식량 배급신청을 일시 접수치 않기로 된 데 비추어 피란민은 좌우간 수원시 내에서 떠나 달라는 권고문을 기 시와 서의 연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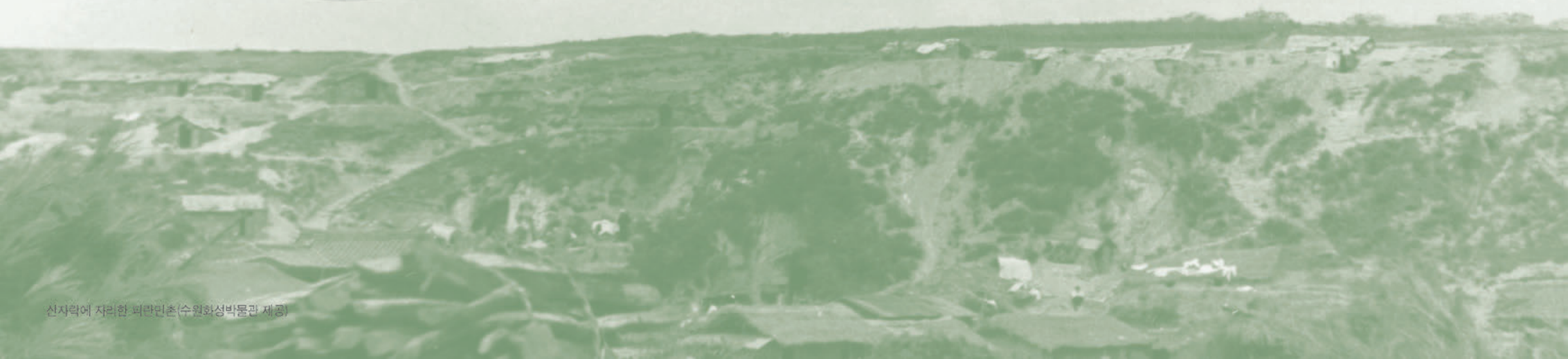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피란민들은 한강을 건너기 위해 불법 도강을 시도하였다. 1952년 1월 한강이 얼어붙자 몰래 강을 건너려는 피란민들이 더욱 늘어났으며 불법 도강을 시도하다가 강에 빠져 죽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

남하 피란민들의 마음의 고향 서울에 돌아가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강이 얼어들고 3월 귀향설과 더불어 더욱 자극을 받아 일로 높아가고 있는데 서울 경찰국 경비계에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적발 취급한 소위 밀도강자의 수는 123명에 달한다고 한다. … 1·4후퇴 당시 수원 이남으로 피란 갔던 박기홍 씨는 서울에 복귀하고자 아내 이선옥, 장녀 옥희, 장남 규진을 데리고 영등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밀도강할 기회를 노리던 중 후퇴 당시 같이 피란을 나갔던 황홍관 씨를 만나게 되어 밀도할 것을 의론한 끝에 지난 7일 하오 9시경 황 씨 가족 7명과 밤섬을 떠나 얼음을 타고 미포 강뚝을 향하여 강 중간 지점 살얼음 지대에 이르러 불행히도 빠져죽었다.[13]

1952년 2월 수원시를 포함하여 경기 남부 8개 시군의 계엄령이 해제되자,[14] 남부 지방에 머물던 피란민들이 대거 경기 남부지역으로 복귀하였는데, 특히 수원과 광주 지역 집결이 두드러졌다. 이에 피란민 구호양곡 부족 문제가 부상하였는데 경기도는 수원에 집결한 피란민을 인근 화성이나 용인의 농촌 지역으로 분산시키기도 하였다.

전라남북도로 피란하였던 미수복지 피란민들이 계속 북상하여 경기도의 수원, 광주 등지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어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북상 이유는 대부분이 고향을 한수 이북 미수복지에 둔 자로서 고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풍문을 그대로 믿고 고향에 들어갈 욕심으로 떠나온 것과 피란지인 전라남북도에서는 금년도 한재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관계로 피란민과 원주민 구별 없이 구호하는 관계로 구호가 박약하다는 것 등이다. 4월부터 북상한 피란민들의 실정을 보면 4월에는 2,700명, 5월에 1만 9,200명, 6월에 1만 7,600명, 7월에 2만 3,800명, 8월 3만 9,200명, 9월 3만 9,800, 10월 2만 8,350명 등으



신자락에 자리한 피란민촌(수원화성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로 점차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비하여 약 16만여 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반비례하여 배당된 구호양곡의 실태를 보면 지난 4월에 5,000톤에 배당되었고 그 후로는 매월 3,000톤가량이 배당되고 있어 도내 전 구호대상자에 1개월 평균 4일분에 불과한 현상으로 늘어가는 유동 피란민 구호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바 경기도에서는 이들 피란민을 정착 구호하는 견지에서 농촌 분산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닥쳐올 엄동기를 앞두고 중앙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구호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15]

피란민뿐만 아니라 1952년 7월 서울 출신 의용군도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수원까지의 북상만 허락되어 수원 구호소에 머물러야 했다.[16]

많은 피란민들이 수원에 유입되자 피란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처가 될 수 있는 난민수용소가 1951년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7월 수원에는 9개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연천·철원·개성 등 피란을 나왔던 지역별로 수용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경찰서장 박계훈 씨는 미군부대에 교섭 결과 밀가루를 배급받아서 빵을 만들어 시내 연천피란민수용소 외 8개 수용소를 일일이 방문하고 1년 이상이나 되는 피란살이의 고초를 위로한 다음 피란 어린이들에게 빵을 노나 주어 피란민들의 감사를 받고 있다.[17]

1952년 11월 말까지 수원시에는 모두 12개소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3만 1,516명의 피란민을 수용하였다.[18] 피란민수용소에는 남녀 노약자 및 부녀자, 무의탁자 등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피란민이 우선 수용되었고, 무주택 피란민도 수용되었다. 피란민수용소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였으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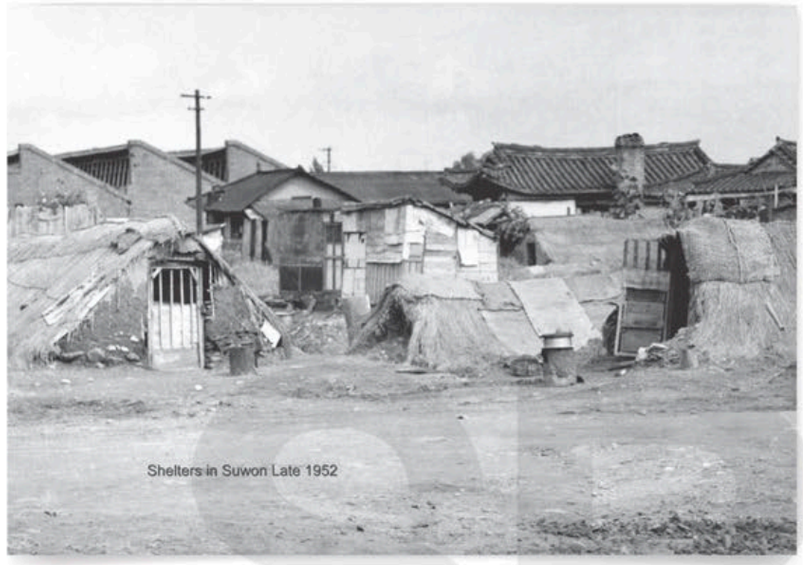


1952년 6월 30일 구호양곡을 배급받고 있는 수원 피란민(NARA 제공)

로 기존의 학교·공장,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19] 수원시공설운동장, 수원역전, 공장(수원성냥공장과 남북면업주식회사 등), 학교(수원북중학교) 등지에 피란민수용소가 마련되었다. 피란민수용소에서 피란민들은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1952년 연무동 피란민수용소, 1953년 매산로3가 35번지와 45번지 피란민수용소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였다.[20]

1951년 중반부터 1953년 7월 휴전 이전까지 수원은 고향을 향해 북상하는 피란민들의 결집지이자 잠정적 정착지 역할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남북면업주식회사(대한방직) 터에 자리한 피란민수용소(수원박물관 제공)

피란민 수원연락소, 개성피란민 수원연락소(팔달사), 철원피란민 수원연락소(화서문 부근) 등이 설치되어 피란민증 발급과 구호양곡 배급 등의 피란민 지원을 담당하였고, 경기도청이나 연백군청처럼 아직 복귀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임시청사가 수원에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 수원연락소에서는 수원지구에 체류하는 서울 피란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951년 10월에 피란종합국민학교와 피란종합고등중학교를 개소하였다.[21]

국경 아닌 경계선 한강이 가로막아 수복을 못한 채 아직도 수원에서 부모들과 함께 피란살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울피란민종합국민학교의 1,400여 명의 아동들은 닥쳐오는 엄동을 앞두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실태를 살펴보건대 명실공히 순전한 서울피란민들의 자녀로 구성된 1,400여 명의 동교 아동들은 전부 19학급으로 나누어 파괴된 수원중학교 강당을 비롯한 수개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교 교장 김종태 씨의 적극적인 주선과 아동들의 총동원으로 토막교실 4개소 신축하여 수일 후면 완성을 보아 전부 수용케 되기는 하였으나 난방장치가 전연 없을뿐더러 원래가 피란민들의 아동들이라 사친회비를 못 내고 있는 아동들이 전체의 2할을 넘으며 궐식아동이 전체의 3할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당국은 물론 학부형들은 이에 당국의 적절한 선처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22]

1951년 10월에 수원중학교 별관에서 개교한 피란종합국민학교는 학생 수가 1,400여 명에 이르렀다. 피란종합국민학교는 1954년에도 500여 명이 재학 중이었으나 3월 31일자로 해산되고 학생 중 100명은 서울로 복귀하고 400여 명은 수원 내 초등학교에 편입하였다. 교원도 10명 중 4명을 수원 내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6명은 서울학교로 복귀하였다.[23]

경기도는 1951년에 피란민들을 위해 1만 4,700호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 중 움집이 1만 3,000호이고 농민주택이 1,200호, 피란민용 긴급주택이 500호였는데, 피란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움집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과동용(過冬用) 주택으로 도합 1만 4,700호 각종 주택을 완축하였다고 한다. 이해의 경기도지사는 전기 1만 4,700호의 주택은 약 7만 5,000명에 달하는 집 없는 농민과 피란민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움집 1만 3,000호와 농민주택 1,200호, 피란민용 긴급주택 500호 등이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 한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러한 주택은 주로 안양, 수원, 양주, 발안 등지에 건축되었으며 이러한 주택의 건축자재는 정부 및 유엔에서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동 주택들의 완축으로 경기도 내 집 없는 주민들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한다.[24]

또한 고향 복귀가 어려운 피란민들은 오랫동안 피란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알선하고 직업을 소개하였다.[25] 수원시에서는 염업자와 절충하여 피란민들을 염부로 취업시키고 양곡과 주택을 제공하였으며,[26] 경기도는 대규모 사방공사를 실시하여 피란민을 사역하게 하고 토탄 채취에 피란민을 취역하게 하였다.[27] 하지만 피란민의 수에 비해 일자리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피란민 정착을 위해 주력한 사업 중 하나인 국민후생주택(國民厚生住宅) 건설사업은 유엔한국지원단(UNKRA)의 무상원조 자재로 실시되었는데, 수원시에는 1952년에 220호, 1953년에 350호가 건축되었다. 또한 유엔의 원조 자재로 반항구적인 간이주택 200호와 월동수용소(越冬收容所) 40호를 수원시 내에 건축하여 피란민을 수용하였다. 1955년까지 수원에는 유엔한국지원단 원조 자재로 9평(77동) 내지 12평(123동) 규모의 재건주택 200호가 지어졌는데, 영화동에 50동, 지동에 20동, 고등동에 22동, 세류동에 44동, 교동에 22동, 매산로1가에 24동, 매산로3가에 18동이 할당되었다.[28]

이처럼 후생주택은 수원 내에서 피란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에 지어졌는데, 건축 과정에서 자재 부족과 부실공사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앞서 귀국한 주 유엔대사 임병직 씨는 작 2일 기자와의 회견에서 유엔의 힘을



영화동에 지어진 후생주택(1966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입어 한국에 건축된 운크라 원조의 후생주택을 실지로 시찰한 결과 의외에도 동 주택들이 모두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야만적인 가옥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말하였다. 임 대사는 운크라 단장 콜터 장군 및 동 직원 일행과 함께 시흥 안양에 있는 91동의 운크라 후생주택(윤필한 씨 청부)과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50동의 후생주택(조중원 씨 청부)을 시찰하였던 것인데 벽이 무너지고 천정이 떨어졌으며 비에 쉽사리 허물어지고 마는 동 가옥들은 모두가 규격대로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1동당 350불로 건축되도록 할당된 동 주택 건립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였다.[29]

수원시 피란민의 수는 1953년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휴전 후부터 줄어들었다.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휴전 직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전인 1953년 6월에 91만 3,447명의 피란민이 있었다. 1954년에는 38선 이북 지역 피란민들의 복귀도 허가되었다. 1954년에 3월 15일부터 수원 거주 피란민 중 철원·김화·연천·평강·파주 등지의 귀농 희망자 7,372명이 복귀하였고, 11월 17일 그동안 군정이 관할하던 연천군과 포천군 일부 지역이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이곳 주민의 복귀가 가능해졌다.[30]

그러나 복귀가 불가능한 월남 피란민도 많았기 때문에 1955년에도 6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수원에 잔류하고 있었다. 또한 월남 피란민들의 유입은 지속되었는데, 월남민들은 수원이 지리적으로 고향과 가까워 심리적 근접성을 느꼈고, 가족·친척이 이미 수원에 정착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쟁 후 고향으로 복귀하지 못한 월남민들은 수원을 정착지로 삼고 생활 터전을 마련해 갔다. 이 시기에 수원은 잔류 월남민들의 영구 정착지로 전환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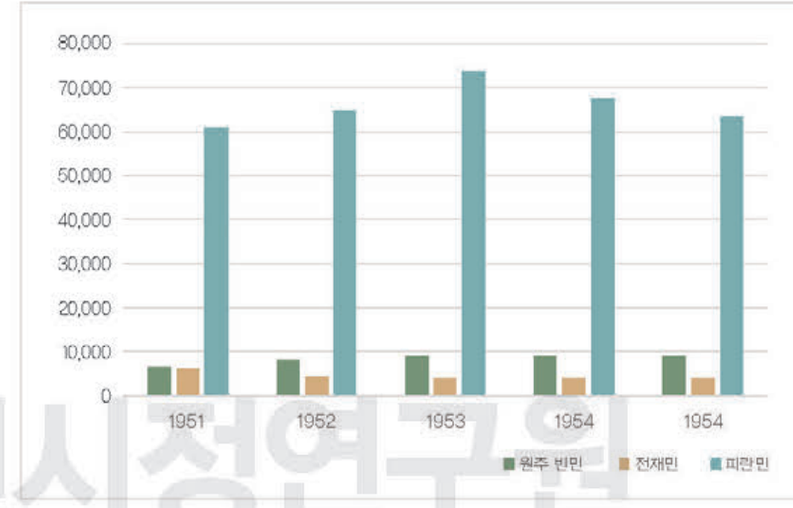
표 2 1951~1955년 수원시 구호대상자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원주 빈민		전재민		피란민		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1951	1,240	6,531	1,082	6,059	11,842	60,902	14,164	73,492
1952	1,784	8,283	895	4,412	12,673	64,764	15,352	77,459
1953	1,849	9,028	839	4,109	13,390	73,636	16,078	86,773
1954	1,847	9,023	838	4,106	12,336	67,465	15,021	80,594
1955	1,803	9,020	832	4,081	11,497	63,264	14,132	76,365

비고 : 작성기준은 1951~1954년이 12월 말, 1955년이 9월 말임.

출처 : 경기도, 『경기도지』, 1956.



1951~1955년 수원시 구호대상자

2. 수원 피란민 거주지의 변천

수원 피란민 거주지는 ① 장안문 밖 연무동과 영화동 권역 ② 수원화성 시설물 주변인 신풍동·장안동·매향동·남수동 권역 ③ 지동·인계동·구천동 권역 ④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고등동·매산동·매교동·세류동 권역 ⑤ 화홍문에서 매교다리까지의 수원천변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권역인 장안문 밖 연무동과 영화동, 조원동 일대는 수원의 대표적인 피란민 거주지이다. 연무동 193번지 일대는 수원시공설운동장 자리였는데, 방화수류정 주변부터 용연을 둘러싸고 피란민촌이 들어섰다. 연무동 피란민촌에는 강원도 철원과 김화 등지에서 온 월남민들이 주로 수용되었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서북공심돈 앞 피란민 움집(수원박물관 제공)



방화수류정 일대 피란민 가옥(수원박물관 제공)

다. 영화동은 1950년대 후반 피란민 거주지가 더욱 확장된 지역이다. 영화동 37번지는 주식회사 부국원 소유 토지였고, 영화동 125번지와 127번지는 수원인촌주식회사와 광교수리조합 토지였다. 영화동 250번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291~293번지 일대는 일본인과 수원토지개량조합 토지이다. 영화동에는 피란민을 위한 후생주택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두 번째 권역은 수원화성 성곽 주변이나 성 안의 국유지를 따라 신풍동·장안동·매향동·남수동에 형성된 피란민촌이다. 이 중 남수동 11번지에는 1954년 3월 31일 강원피란민정착사업장이 설치되어 1955년 12월 현재 83세대 46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남편이 없는 부녀자를 우선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일명 '과부촌'이라고도 불렸다. 남수동도 이때부터 피란민 거주지가 확장되었다.

세 번째 권역은 수원화성 동쪽 성벽 밖과 수원천이 연결되는 지역인 지동·인계동·구천동 권역이다. 지동의 경우 두 번째 권역의 남수동과 연결되는 성격을 지닌 곳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구천동은 다섯 번째 권역인 수원천변을 따라 형성된 피란민 거주지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권역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매산동·고등동·세류동·교동·매교동 등에 형성된 피란민 거주지이다. 이 지역의 경우 일제시기에 일본인 회사와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에 피란민 거주지가 만들어졌는데, 세류동은 황해도 피란민 정착지로 알려져 있다. 피란민들은 역전시장(당시 매산양곡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을 하였고, 그 상권이 확대되어 매산시장까지 만들어졌다.

다섯 번째 권역은 수원천 일대로, 하천부지를 따라 피란민 거주지와 간이 점포가 자리하였다. 수원천을 따라 화홍문 일대에서 매교다리까지 이어지는 피란민 간이 점포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 피란민들의 거주지보다는 생업 터전의 성격이 더 컸다. 피란민들은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을 운영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54년 수원천변 피란민 가옥(UN Photo 제공)



'하꼬방'으로 불린 수원천변 피란민 판잣집(수원화성박물관 제공)



1950년대 방화수류정 피란민 가옥(수원박물관 제공)



1950년대 피란민 움집(수원박물관 제공)



1950년대 피란민 판잣집(수원박물관 제공)



1953년 8월 24일 장안동 대화유직직물회사 앞과 매향동 언덕에 조성된 피란민 가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1953년 8월 24일 성 안 민가 사이에 설치된 피란민 가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표 1 1950~1960년대 수원 피란민 거주지(추정)

권역	법정동	번지	소유자
Ⅰ권역	조원동	495	국유지
		638	국유지-수원읍
	영화동	22	수원북중학교
		37	주식회사 부국원-국
		125	수원인촌주식회사-국
		127	광교수리조합
		250	동양척식주식회사-국
		288	경기도-수원시, 수원토지개량조합
		291	일본인-국유지
		292	일본인-국유지
		293	수원토지개량조합
	연무동	193	수원시(공설운동장)
		176	수원시
Ⅱ권역	신풍동	123	국유지
	장안동	25-2	국유지(임야)
		53	대화유직물회사
	팔달로3가	103	국유지
		126	조흥은행
		131	국유지
	북수동	232	대한민국
	매향동	6	국유지
		7	국유지
		10	국유지
	남수동	11	국유지(임야)
		98	대한민국
Ⅲ권역	우만동	596	국유지(지동 119번지)
		598	국유지(지동 143번지)
	지동	232	국유지(임야)
		261	국유지(임야)
Ⅲ권역	지동	145	국유지
		271	국유지
		276	국유지
		294	
		301	국유지(임야)
		302	국유지
	인계동	770	국유지(구거)
		847	국유지
	구천동	10	개인(차재윤)
		46	개인(차재윤)
	교동	174	일본인-대한민국
		185	심화철공업주식회사
	매교동	295	
Ⅳ권역	매산로1가	53	일본인-국
		56	동산농시주식회사-국
		57	일본인-국
	매산로2가	90	남북면업주식회사-국
	매산로3가	35	개인(홍시푼)
		45	서법사-대한민국
	고등동	253	동산농시주식회사-국
		258	동산농시주식회사-국
		265	동산농시주식회사-국
		267	동양척식주식회사-국
		268	동양척식주식회사-국
	세류동	225	국유지(철도부지)
		245	국유지
		1270	
Ⅴ권역	수원천변		하천부지

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점차 상권이 커지면서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구천동 공구시장까지 만들어지면서 피란민들이 생업 터전은 확대되어 갔다.

〈표 1〉은 피란민들의 구술과 신문기사, 항공사진, 토지대장 등을 참고로 하여 1950~1960년대 수원 지역 피란민 거주지의 위치를 추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지역에 피란민 거주지가 분포되어 있었다.

피란민들이 정착한 곳은 대개 일제시기에 일본인(회사)이 소유하였다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토지와 건물, 국가나 수원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국유지·공유지 또는 하천부지인데, 이 지역은 정부의 피란민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피란민 거주지로 제공되었다.

1950년대 수원시에는 피란민 거주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당시 수원시의 영역이 27동에 23.5㎢이고, 원 거주민이 4만 5,000명에 불과하였는데 피란민이 6만~8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 지역이 '피란민촌'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 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피란민 거주지는 1950년대 후반에도 확장되었는데, 전쟁 중 수원에 정착한 피란민들의 친인척들이 전쟁 후 수원으로 유입되거나 군 복부를 마친 남성들이 정착지를 찾아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움막이나 타인의 집에 얹혀살던 피란민들이 정착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피란민 거주지 경관이 더 뚜렷한 형태를 띠었다.

1955~1960년 수원시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아직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수원시는 2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화수류정 부근인 북수동과 동쪽 성벽 옆 남수동, 수원천변인 구천동과 수원역 주변인 매산동·고등동·세류동·매교동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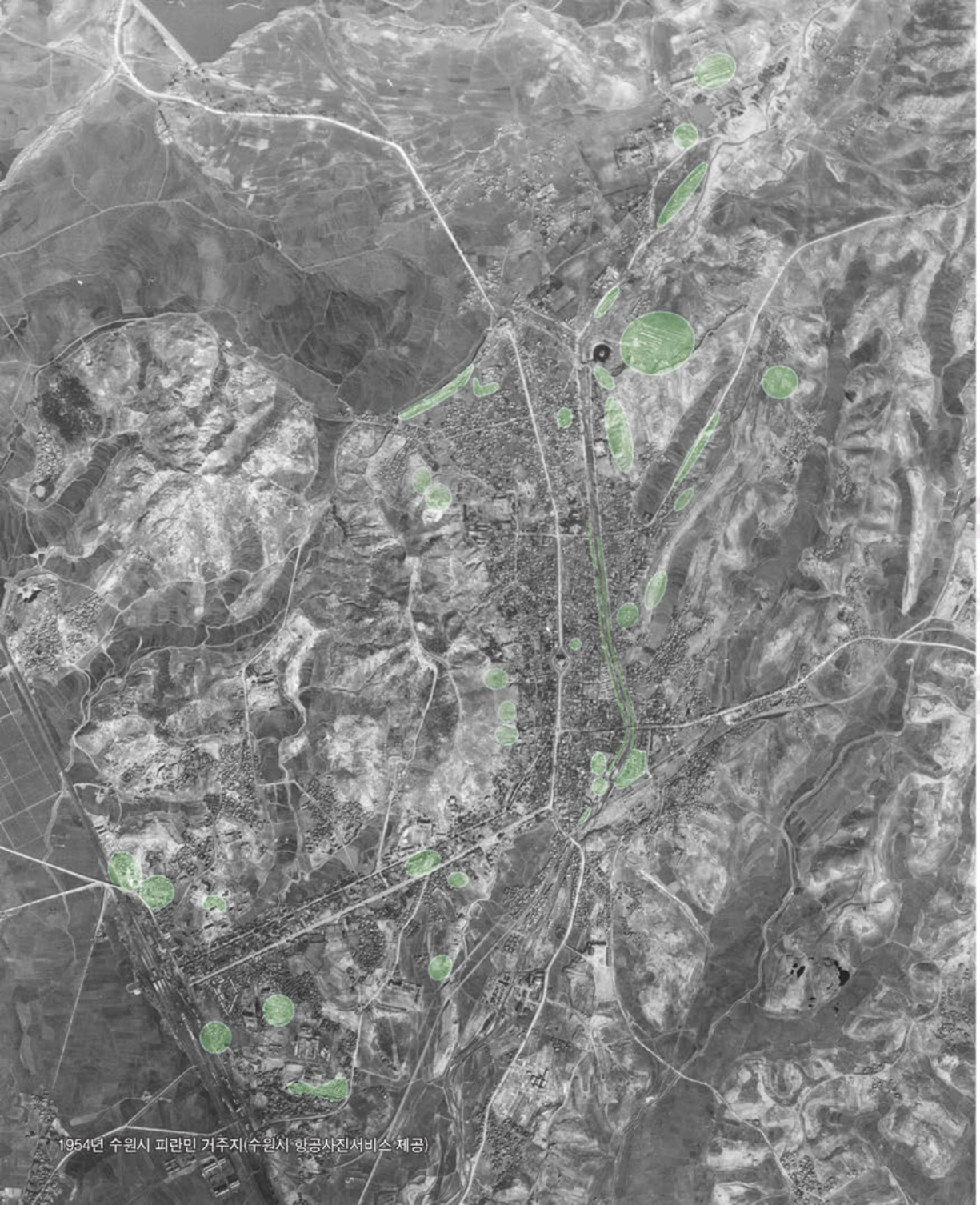
표 2 1955~1960년 수원시 인구 변동

지역	1955		1960		인구 증감률(%)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북수동	436	2,313	570	3,030	31
남창동	309	1,566	314	1,779	14
장안동	378	2,069	358	1,900	-8
신풍동	534	2,871	653	3,358	17
팔달로1가동	342	1,883	171	1,090	17
팔달로2가동			192	1,117	
팔달로3가동	282	1,666	190	1,118	5
영동			109	625	
중동	356	1,049	124	674	73
구천동			210	1,140	
남수동	697	3,511	903	4,566	30
매향동	330	1,714	386	2,033	19
영화동	733	3,769	861	4,576	21
연무동	786	3,689	835	4,240	15
교동	490	2,618	576	3,119	19
매교동	503	3,052	779	4,111	35
세류동	1498	7,678	1,928	10,113	32
매산로1가동	806	4,714	569	3,577	32
매산로2가동			494	2,648	
매산로3가동	438	2,374	586	3,190	34
고등동	864	4,650	1,158	6,379	37
화서동	305	1,690	362	1,979	17
지동	1,332	6,970	1,572	8,515	22
우만동	114	606	127	670	11
인계동	1,105	5,748	1,366	7,433	29
평동	248	1,539	342	1,881	22
서둔동	491	2,951	559	3,381	15
계	13,377	70,690	16,394	88,242	25

출처 : 수원시, 『시세일람』, 1955;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61.



1954년 수원화성 성벽을 따라 흙벽돌로 지어진 피란민 가옥과 수원천에서 빨래하는 피란민(UN Photo 제공)



1954년 수원시 피란민 거주지(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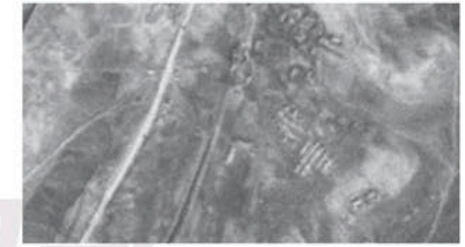
조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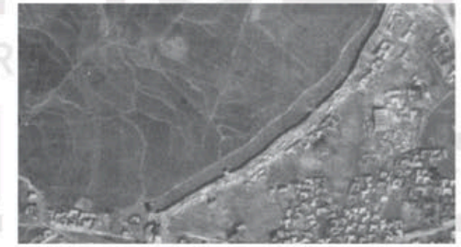
영화동



언무동



지동



장안동



신풍동



팔달로3가



구천동과 인계동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고등동



매산동



매산동



세류동

1950년대 후반이 되면 피란민수용소로 사용된 곳이 본래의 용도를 찾게 되면서 피란민 거주지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화홍문 부근의 피란민 거주지는 문화재인 화홍문을 지키기 위해 일찍부터 정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원동 피란민 거주지는 450세대가 거주할 만큼 규모가 컸지만, 육군본부에서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철거를 요청하였다.

> 화홍문이 피란민 수용소처럼 되어 나날이 변모되어 가고 있으나 그들을 내보내자면 주택지를 알선하여 주어야 하겠는데 예산관계로 속수무책이며 경기도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부기관에서 지시 있기를 기다릴 뿐이다.[31]

> 영화동(조원동) 피란민 집단수용소는 한미 육군본부로부터 동 지점에 고급부관학교를 신축하기로 되어 오는 20일까지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도에서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9일 민사처(CAC) 당국과 절충한 결과 450여 세대 중 이주 불가능한 83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구호목재 300□□□□ 무상 배부하여 줄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다.[32]



피란민 가옥이 철거된 방화수류정(1967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북중학교와 남북면업주식회사(대한방직)에 있던 피란민 거주지도 철거되면서 피란민들은 이주하였다. 팔달산 자락인 신풍동과 팔달로3가 피란민촌도 1960년대 팔달산에 산림녹화가 추진되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해체되는 피란민 거주지를 대신해 영화동·남수동·지동·세류동 등은 1950년대 후반 피란민 재정착지로 자리 잡았다.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6년 영화동과 연무동 피란민촌(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66년 수원역(고등동·매산동·세류동·매교동) 일대 피란민 거주지(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66년 수원천변과 남수동·지동·
인계동 일대 피란민 거주지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천막으로 만든 움집



움집



수원천변 판잣집



피란민 판자촌



흙벽돌집



연무동 흙벽돌집



연무동 후생주택(흙벽돌집)



연무동 후생주택(연립주택형 목재주택)



1962년 연무동 피란민촌에 지어진 간이주택(국가기록원 제공)

수원 피란민 거주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란민 주택이 지어졌는데, 피란민 주택은 형태와 건축자재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구릉이나 밭, 대지 등에 흙을 파서 거주공간을 만든 후 천막이나 움으로 지붕을 얹은 움집이다. 경기도에서는 1951~1952년 움집의 지붕을 덮은 천막으로 광목을 피란민들에게 대량으로 배급하였는데,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가장 많이 지어졌다. 두 번째는 '하꼬방'이라 불리는 판잣집인데, 침수 또는 지형적 조건으로 움집을 지을 수 없었던 수원천변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주변에 파괴된 주택의 목재와 미군부대에서 나온 깡통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세 번째는 흙집이나 흙벽돌집으로 일반 민가와 비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슷하지만 규모가 작다.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황토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었으나, 낮은 강도로 인해 내구성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흙집과 흙벽돌은 부족한 건축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으며, 강회를 사용하여 강도를 높이고 흙벽돌 기계가 제공되면서 연무동 피란민촌에는 두 가구가 함께 거주하도록 설계된 흙벽돌 주택도 지어졌다. 네 번째는 1950년대 유엔한국지원단이 제공한 목재와 슬레이트로 지어진 후생주택으로, 다가구가 살 수 있는 연립주택 형태였다. 다섯 번째는 1962년 정부가 지은 간이주택으로 시멘트벽돌로 지은 후 시멘트로 마감하고 기와로 지붕을 얹은 연립주택형 가옥이었다.

한편 1960~1980년대에 수원 지역은 도시화와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란민 거주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도시화에 따라 수원 피란민 거주지로 새로운 이주민들이 유입되었는데, 소위 '이촌향 도민'이라 불리는 이주민들은 싼 거주지를 찾아 피란민 거주지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이에 연무동, 세류동, 고등동, 지동, 남수동 등의 피란민 거주지는 이촌향도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서민층 주거지로 전환되어 갔다. 다음으로 1970년대 수원에는 크고 작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수원천 복개를 위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1972년 수원천 양변에 난립해 있던 415동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었다. 또한 1975~1979년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성곽을 벽면 삼아 지어진 무허가 불량주택 393동이 철거되었다.

피란민 거주지로 출발하여 서민 거주지로 확장되었던 지역들은 2000년대에 이르면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72년 철거되는
수원천변 무허가 건물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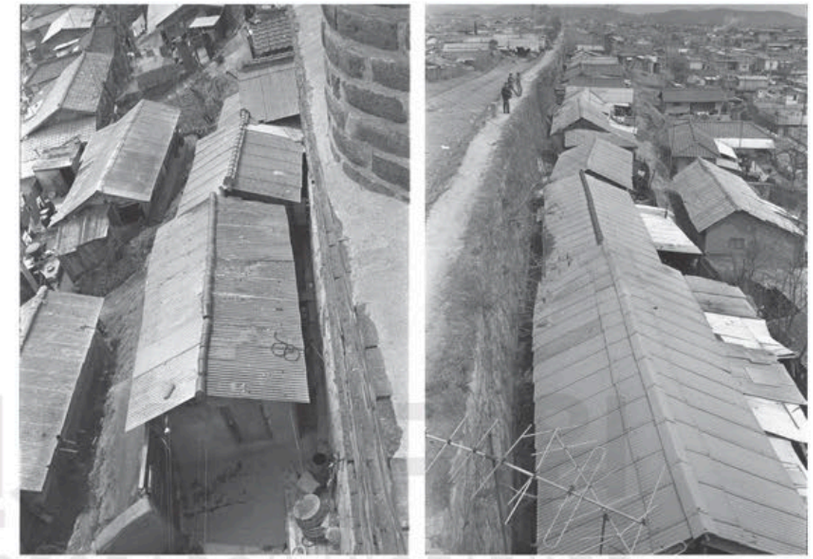
1972년 철거되는
수원천변 무허가 건물
(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수원천변 무허가 건물의 출입구(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수원천변 무허가 건물의 하단구조(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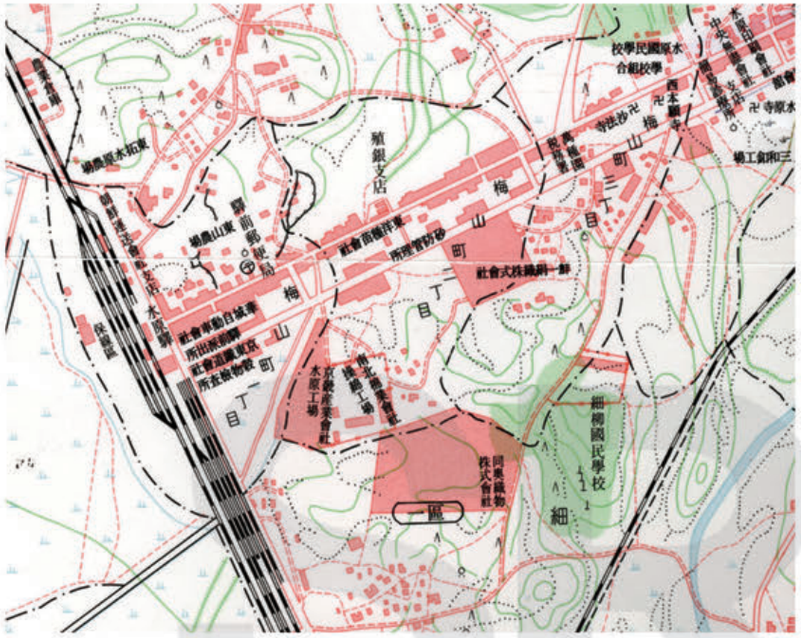
수원화성 시설물에 연접하여 지어진 불법 가옥(1978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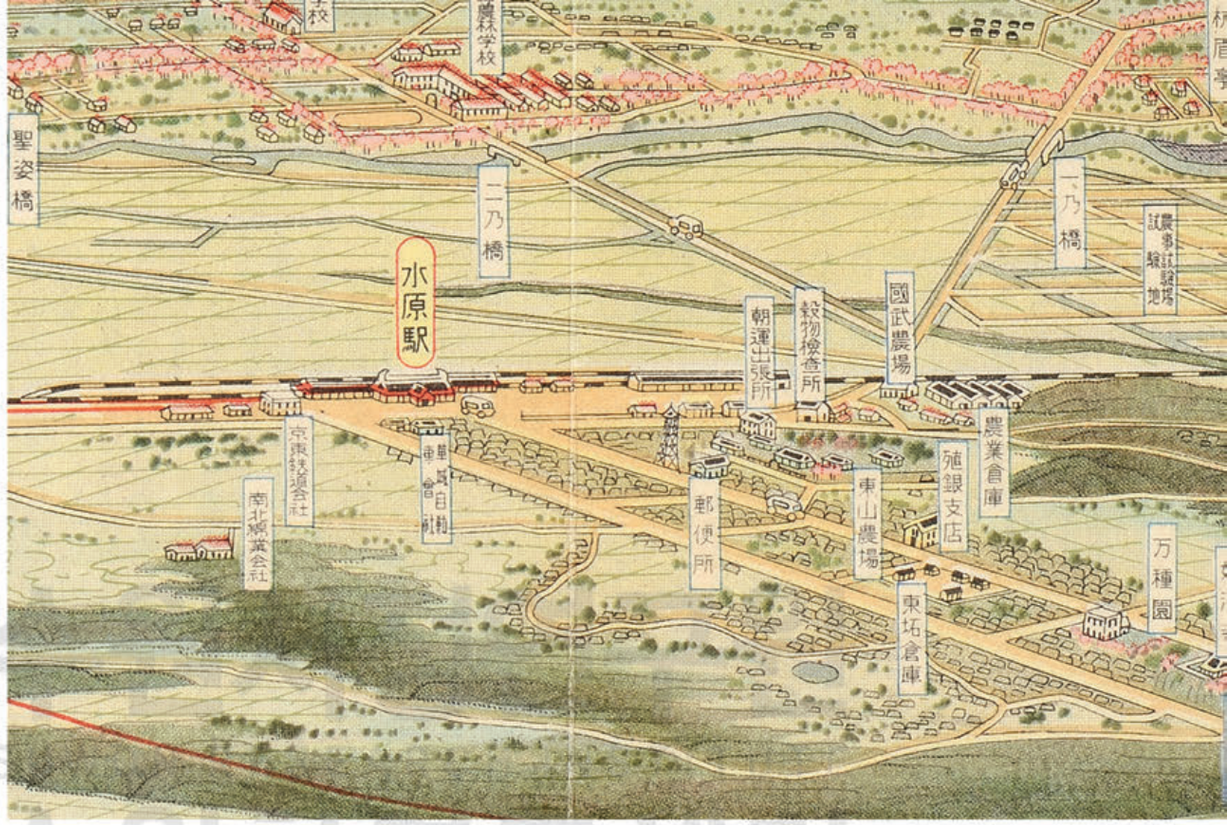
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세류동·고등동·매교동·인계동·지동 등이 재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영화동·연무동·세류동의 일부 지역만 옛 피란민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뿐 대다수 지역은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3. 수원역 일대 피란민촌, 동산마을과 육교마을

동산(東山)마을은 매산로1가 111번지(고등동 253, 258, 265번지)와 매



1943년 수원역 일대 기관과 사업체



수원역 주변에 설치된 동산농장, 동척, 국무농장(1936년, 수원박물관 제공)

산로1가 19~24번지가 일대를 가리킨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작은 동산이 있어서 '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곳에 미쓰비시 기업에서 운영하던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래한 이름이다. 동산은 미쓰비시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 1834~1885)의 호이다. 이와사키 야타로의 장남이자 미쓰비시 그룹의 3대 총수 이와사키 하시야(岩崎久彌)는 1910년대 매산리에 18필지 3만 3,969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산리 148번지(매산로1가 19-1)에는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사무소가 있었다.

'동산'이라는 명칭은 해방 후에도 사용되었는데, 동산공민학교와 동산정미소 등이 그것이다. 동산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사람들에게 기초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53년에 교장 김상집이 설립하였다.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동산정미소(매산로1가 2)는 1965년 현재 건물 규모가 1,024㎡(310평)에 종업원 인원도 100명으로 수원에서 가장 큰 정미소였다.[33]

동산공민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란민촌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55년 현재 3명의 교원이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는

수원학연구센터

데, 재학생은 총 280명(남자 138명, 여자 142명)이었으며, 이미 1회 졸업생 70명을 배출하였다.

> 구 시외버스터미널 자리 거기에 동산초등학교가 있었다. 정신이 깨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하는 곳이었다. 정확한 명칭은 동산공민학교였다. 그 당시 부모가 억척스러운 교육열을 지니고 있으면 아이가 학령을 초과해도 학교에 보냈으나, 나의 부모는 좀 달랐다. 하지만 나의 경우 철이 좀 들었었다. 스스로 학교를 다녔는데,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다들 담배도 피우고 하는 어른들이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 점심때는 미군이 보급하는 우유 가루를 가져다가 쪄먹거나 식사대용으로 큰 가마솥에 끓어 한 컵씩 나누어 주곤 했다. 지금은 우유를 먹으나, 그때만 해도 말린 건우유를 가져다가 물에 부어서 끓어 먹었다. 교장도 나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불량 학생들을 데려다가 한 자리도 주입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하지만 그마저도 없어졌다. [34]

1953~1955년 수원 피란민 정착촌 주변에 5개의 공민학교가 설립되었다. 1955년 현재 매산로1가에 동산공민학교(280명 재학), 지동 4번지에 동광공민학교(450명), 교동 2번지에 수원공민학교(428명), 서둔동 209번지에 서둔공민학교(110명), 세류동 62-2번지에 세류공민학교(126명)가 운영되고 있었다.

동산마을 인근에는 육교마을이라는 피란민촌이 있었다. 육교마을은 국도 42호선과 경부철도가 교차하는 부근인 고등동 267~268번지 일대에 형성된 마을로, 경부철도 위로 지나는 수원-인천 간 국도 42호선 도로가 육교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직후 동산마을과 육교마을에는 피란민촌이 형성되었는데, 이



농천교회가 불하받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 건물(수원박물관 제공)

상황은 『농촌교회 60년사』(2010년)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농천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인 서울농대의 이태현 교수가 주도하여 1950년 4월에 세운 교회이다. 이태현 교수는 적산 처리를 담당하는 신한공사에서 근무하던 친구 강주홍 소장을 통해 일제시기 일본인회사 농장 건물과 대지 등을 불하받아 교회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1·4후퇴 시 피란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교회 건물에 피란민 40~50명이 살고 있었다.

> 이태현 장로는 다시 신한공사 강주홍 씨와 교섭하여 옛날의 육교주유소(현재 도로) 자리에 건물 38.3평과 대지 413평, 사택 건평 33평과 대지 138평을 불하받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았다. 이 건물은 농장관리 사무실로 지어진 것으로 예배장소로는 부적당하여 당시 수원에서 유명한 오모(吳某) 목수를 시켜 개조하였다. … 1951년 1·4후퇴 시 피란을 갔다 전세가 바뀌어 수원으로 돌아오니 교회 건물 바닥을 파고 피란민 40~50여 명이 웅거하며 살고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 비워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피란민 대표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캐나다 선교부에 의뢰해서 전세를 얻을 돈을 나눠 주면 설득해서 이들을 내보냈다.[35]

농천교회가 불하받은 건물과 교회 부지는 고등동 268번지(268-6, 268-8)에 소재하였다. 이곳은 1910년대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국무함명회사 농장이 있었던 곳으로, 1940년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피란민촌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 50~60가구였던 육교마을은 100호가 넘을 정도로 마을이 커졌는데, 육교마을 주민 10명 중 1명이 농천교회 교인이었다고 한다. 농천교회는 전후 복구 사업과 난민 구호사업을 위해 미국에서 보내 온 물자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36]

육교마을에 판잣집을 짓고 정착한 피란민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방팔방 어디를 찾아봐도 일할 데가 없었다. 하다못해 똥지게를 지고 싶어도 그걸 퍼 달라는 사람이 없었다."[37] 하루 품삯을 받는 일용직도 얻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나마 피란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시장 부근에 노점을 차리는 것이었다. 수원역 바로 앞에는 1948년에 설립된 매산양곡시장(현 역전시장)이 있었는데 이곳 노점은 고등동·매산동·세류동 일대의 피란민들로 채워졌다.

육교마을에서 30년을 살았던 서울 피란민 한금택(1943년생)은 "밥 굶기



1954년 수원역 일대 피란민 거주지(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50년대 수원역 일대 피란민촌과 매산시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동산마을과 역전 피란민촌, 남북면업주식회사 피란민촌 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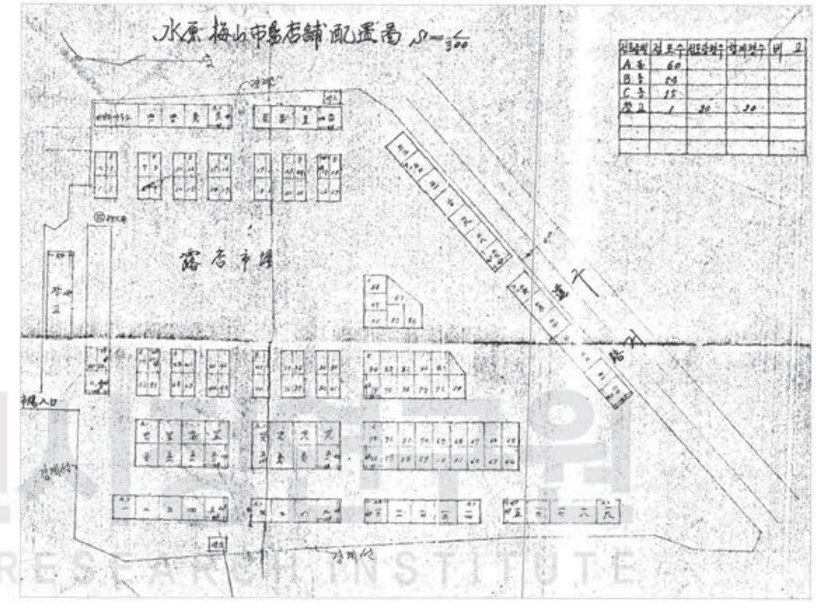
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한다. "일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목숨 걸고 도둑질을 일삼았다."고 하면서 "훔치지 않으면 굶어야 했다."고 그 시절 삶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 먹고살기 힘들다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은 젊은 아이들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강도질, 도둑질을 일삼지만 그 당시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였고 모두가 이해하던 터라 암묵리에 용인이 되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다. 나쁜 짓이라는 생각도 미처 하지 못했다. 그저 배고프니까 먹을 게 보이면 집어먹고 그런 것 정도로 생각되었다.[38]

마을 입구에는 미군 보급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가서 물품을 서리해 오곤 했다고 한다. 또한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근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주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1950년대 이미 성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는 갈탄이라는 것과 연탄, 무연탄이라는 것이 있었다. 무연탄이 원조이고, 그걸 가공한 게 연탄, 그것보다 조금 작은데 열량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 갈탄이다. 갈탄은 각 가정에서 연탄을 물에 갠 후 진흙을 섞어서 만들었다. 말린 갈탄을 그냥 넣으면 막히니까 쇠꼬챙이로 구멍을 만든 후 그걸 난로에 넣어 연료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했고, 그걸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차역에 가서 훔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 기차역에는 화물 열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무연탄 같은 거를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그 기차 칸에 구멍을 내서 연탄을 훔친 거니까, 말하자면 도둑질이었다.[39]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걸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엔 먹는 것만



수원 매산시장 점포배치도(수원시청 제공)

해결되어도 괜찮았다. 옷이 필요 없을뿐더러 있지도 않았다. 신발 같은 것도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그게 구멍이 나면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얀 고무신은 호사스러운 사치품일 뿐이었다. 양말도 구멍이 나면 꿰매서 신기를 반복하였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육교마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랬다.[40]

피란민 생활의 고단함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피란민촌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구두닦이였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66년 육교마을과 등산마을(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나는(한금택) 주로 시내에서(구두닦이를) 했는데, 역전에서도 많이들 했다.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렵다 보니 먹는 게 우선적 과제였고,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다. 피란민촌이라는 특성상 더욱 심했을 것이다. 나 또한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이야 못 배운 놈보다 배운 놈들이 더 많지만, 그때만 해도 배운 놈보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 시절이니 뭐를 더 말하겠는가. 가장 번화한 데 가서 구두닦이를 했는데, 구획이라는 게 있었다. 그렇다 보니 구두를 닦으면서 돈 좀 벌어 놓으면 힘센 놈들이 와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뺏기기도 많이 뺏겼다.[41]

구두닦이도 구획이 있었는데 목이 좋은 곳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수원 시내에서 구두닦이를 하며 돈을 벌려고 해도 나름 '횡재한 놈'한테 가서 구두를 닦아야 하는데,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역전은 그곳 나름대로 다른 구두닦이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역을 넘나들면 집단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구두닦이를 해서 돈을 좀 벌면 이를 노리는 '건달'들에게 뺏기곤 하였다.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고 그 과정이 참으로 비참했다고 한다.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사람이 악다구니가 생기더라. 좋은 말로 말하면 강해지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악해지는 거."[42]라며 일찍 철들 수밖에 없는 피란민촌 아이들의 각박한 성장 과정을 말하였다.

육교마을 일대는 1970년대 수원역 주변 도로 정비와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간구조가 변화되었다. 즉 1972년에 수원여고-육교 간 도로(현 팔달로)가 신설되었는데,[43] 이 도로(현 팔달로)는 육교마을을 남단을 가로지르며 건설되었다. 이는 육교마을을 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팔달로 북쪽에 놓은 육교마을은 계속 주거지로 유지되었으나, 팔달로 남쪽은 상업지역에 포함되었다. 이어 육교마을 북쪽으로는 저층 주택들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1971년 7월 16일부터 1978년 4월 7일까지 시행된 역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동산마을이 포함됨에 따라 농경지와 대지, 도로 등이 혼재되어 있던 지역이 정비되었다. 동산마을의 공간구조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거지역 1만 8,000㎡는 상업지역으로 조정되었다.

육교마을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되었다.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고등동 일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수원시립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270-7번지 일원 36만 2,871㎡에 4,916세대의 공동주택을 만들고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용하는 하는데, 사업기간은 2004~2021년, 사업비는 총 2조 408억 원(국비 129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90억 원 지원)으로 계획되었다.

1.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1951년 10월 15일, 49~50쪽.
2. 「피란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45호, 1950년 8월 4일 제정; 법률 제146호, 1950년 9월 25일 일부개정).
3.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4. 「수원 등지에 운집 긴급한 구호책을 긴망」, 『동아일보』 1951년 2월 28일.
5. 사회부, 「지방장관회의지시사항」, 『특별지방관회의관계서류』, 1951(국가기록원 BA0135101).
6. 「이백사십만의 난민과 대책 집단수용을 추진중」, 『조선일보』 1951년 5월 3일.
7. 「소개(疎開)는 천안 이남으로 미군민시처 민스키 대령 담」, 『조선일보』 1951년 5월 18일.
8. 「피란민에 쌀 배급」, 『조선일보』 1951년 5월 6일.
9. 「난민과 동동한 수원시, 쌀 한 톨 없는 적수공권(赤手空拳)」, 『조선일보』 1951년 5월 16일.
10. 「피란민 위한 가막사(假幕舍) 시축(試築)」, 『조선일보』 1951년 8월 15일.
11. 「土窟이 문허져」, 『조선일보』 1951년 10월 24일.
12. 「유동 피란민 수원 세류는 금지, 시경(市警) 양 당국 금명 離水(離水) 권고」, 『조선일보』 1951년 5월 26일.
13. 「한강(恨江)의 도강(渡江)은?」, 『경향신문』 1952년 1월 22일.
14.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 10개 군의 비상계엄해제」, 『동아일보』 1952년 2월 7일.
15. 「한강을 건너려는 피란민들 수원에 집결」, 『조선일보』 1952년 12월 1일.
16. 「억류자들 희망의 귀향」, 『경향신문』 1952년 7월 3일; 「도강 주선에 합의」, 『조선일보』 1952년 7월 10일.
17. 「피란아동에 빵을 수원서장이 분여」, 『조선일보』 1952년 7월 29일.
18.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42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19.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24~325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20. 「난민토막에 회재」, 『조선일보』 1952년 4월 19일; 「수원에 또 큰 불」, 『경향신문』 1953년 2월 24일.
21. 「종합조등학교」, 『조선일보』 1951년 9월 12일; 「수원종합중학 16일 개교식」, 『조선일보』 1951년 10월 20일.
22. 「결식아동이 심할」, 『조선일보』 1952년 12월 2일.
23. 「피란국민교 해산」, 『조선일보』 1954년 4월 5일.
24. 「집 없는 서름을 일소 경기도에서 만여호 완쪽」, 『조선일보』 1951년 11월 30일.
25. 『연합신문』, 1952년 4월 14일.
26. 「피란민들에게 직업을 알선」, 『조선일보』 1953년 6월 11일.
27. 「경기도에서 대규모 사방공사」, 『조선일보』 1952년 2월 15일; 「도탄채취에 피란민 취역」, 『조선일보』 1953년 12월 8일.
28. 수원시, 『시세일람』, 1956.
29. 「영리리 주생주택」, 『동아일보』 1955년 9월 3일.
30.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15~316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31. 「버림받는 문화지, 피란민들의 기거(起居)로 파손일로(破損一路)」, 『서울신문』 1953년 10월 13일.
32. 「피란민 천거에 CAC서 목재 분배」, 『경향신문』 1954년 9월 18일.
33. 수원시, 『수원도시계획보고 기본자료조사서』, 1965.
34.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3쪽.
35. 농천교회, 『농천교회 60년사』, 2010, 90~92쪽.
36. 농천교회, 『농천교회 60년사』, 2010, 107~108쪽.
37.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17쪽.
38.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5~106쪽.
39.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6쪽.
40.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6쪽.
41.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4쪽.
42.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4쪽.
43.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보고서』, 1965, 105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피란민들이 만든 동네, 연무동 193번지

김현미 인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연무동 피란민촌 풍경

수원에 들어온 피란민은 공터를 찾아 거처를 마련하였다. 거처라야 움을 파고 문을 단 움집이거나, 흙벽돌을 쌓아 양철이나 루핑으로 지붕을 올린 집, 아니면 판잣집 같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수준들이었다. 피란민들이 공터에 집을 지은 것은 이곳이 '임자 없는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개인 소유가 아닌 국공유지는 땅주인이 찾아와서 내쫓을 걱정이 없는 곳이었다. 화성 성벽 아래, 수원천변, 연무동 공설운동장 등은 이런 '임자 없는 땅'이었다.

피란민들은 기류신고를 해야 했다. 기류신고란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곳에서 30일 이상 머물러 살며 주소 또는 주거지를 갖는 것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피란민들의 기류신고는 정부에서 피란민 구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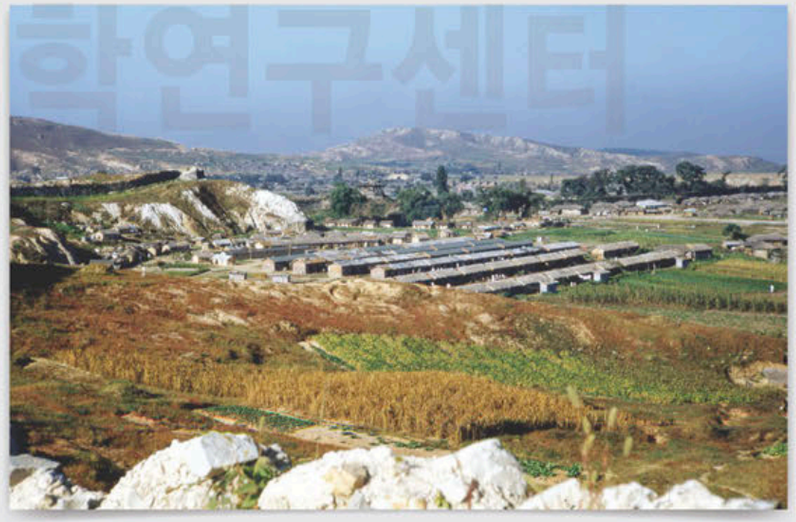
1954년 연무동 193번지 피란민촌(이상구, 2022,「연무동, 이 동네 이 골목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수원류마실)

업을 위해 조직한 출신지역별 연락소에서 맡아 보았다. 피란민들은 철원연락소, 개성연락소 등의 출신지 연락소에 기류신고를 하고 구호미를 배급받거나 정착촌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았다. 이들 연락소는 고향을 떠난 월남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고, 오랫동안 '친목계'나 '단체'의 형태로 유지되어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연무동 피란민촌에는 강원도 철원·김화·평강 지역 출신들이 주로 모여 있어서 '철원피란민수용소'라 불렸다. 연무동 193번지는 수원시 공설운동장으로 쓰이던 곳으로, 피란민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 일대 주민들을 거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성된 피란민촌이다.



용연 옆 피란민 가옥(수원박물관 제공)



1953년 지어진 피란민 주택 20동(수원박물관 제공)
경기도 사회과에서 지은 후생주택으로, 흔히 '구사택'으로 불렸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연무동 공설운동장 일대에 피난민들이 계속 모여들자, 경기도 사회과에서는 '후생주택' 20동(동당 6세대, 총 120호)을 지어 피란민들을 1953년 3월 8일부터 입주시켰다. 피난민 또는 원주극빈자 중 보호자가 없는 과부세대만을 수용하게 하였는데, 이 주택을 흔히 '구사택'이라 불렀다.

> 경기도 사회과에서는 과반 시내 연무동 공설운동장에 월동용 간이주택으로 20동을 건축하였는데 금번 동건물에는 피난민 또는 원주극빈자 중 보호자가 없는 과부세대만을 수용키로 하여 지난 8일부터 입주시키고 있는데 매동당 6세대씩 도합 1백 2십 세대가 입주케 될 것이라 한다.(「수원의 후생주택 8일부터 입주」, 『조선일보』 1953년 3월 13일)

1950년대 중반 이후 피란민촌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너진 동북공심돈 아래부터 장안문에 이르는 성벽 아래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집들이 들어서 있는 판자촌의 모습을 보았다. 용연은 피란민들의 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 화성의 성벽은 피란민들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피란민들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나왕, 미송 등의 나무판자나 깡통을 구하거나 직접 흙벽돌을 찍어서 집을 지었다. 지붕은 양철이나 루핑을 얹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하였다. 루핑은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던 종이박스로, 습기를 막으려고 가운데에 콜타르를 넣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란민촌은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취약하였는데, 하루에 2건이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지난 23일 수원시내에서 작은 불이 하루에 두 건이나 발생하였다. 이날 상오 9시경에는 시내 연무동에 있는 피난민주택에서 발화하여 1동이 전소되었다. 또 이



1968년 연무동 193번지 일대 폐쇄지적도에 표시된 후생주택(이상구, 2022,「연무동, 이 동네 이 골목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수원류마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58년 연무동 피란민 주택(수원박물관 제공)



1961년 연무동 피란민 주택 중 '구사택'(수원박물관 제공)

ORT 수원학연구센터

날 하오 6시경에는 전기 화재장소 약 2백미터 떨어진 같은 피난민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동이 전소되었는데 화재의 원인은 모두 실화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화재 하루 두 건 수원에서 발생」, 『조선일보』 1957년 5월 29일)

연무동 193번지 피란민촌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갔는데 경기도에서 지은 사택 북쪽으로 피란민 주택이 계속 건설되어 1958년에는 686세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686세대 중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가 270세대, 실직상태에 있는 세대가 290세대, 병자와 노령자 등 기동 능력이 없는 세대가 200여 세대였다. 구호양곡이 지급되지 않아 아사 상태에 놓인 난민이 태반이었다. 요구호 대상자 2,000여 명에게 3개월분 소맥 808kg과 과세용 소맥 235kg만이 배급되었을 뿐이었다.

수원시내 연무동에 집단해 있는 파난민촌에는 6백여 세대의 피난민들이 구호양곡의 결핍과 적설로 노동을 할 길조차 막혀서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란민들은 대개 철원, 김화, 평강 등지에서 남하한 피난민들로 현재 연무동에 686세대가 칩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1961년 연무대 성벽 부근에 들어선 피란민 가옥(수원박물관 제공)

세대가 270세대, 노동조차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세대가 290세대, 병자 불구자 노령자 등 전연 기동능력이 없는 세대기 2백여 세대로 최근에는 구호양곡도 나오지 않고 더욱이 눈이 쌓여 노동조차 할 길이 막혀 차디찬 냉방에서 2, 3일씩 조식을 끓이지 못해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아사상태에 직면한 처참한 처지에 있는 난민이 태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유일한 생명선으로 알고 바라고 있는 구호양곡의 실태를 보면 동 부락의 요구호대상자 2천여 명에 대하여 작년 11월 12일에 10, 11, 12 3개월분으로 소맥 8백 8킬로가 배급되었고 지난달 5일에 과세용으로 소맥 2백 35킬로기 배급되었을 뿐으로 구호양곡이란 이름뿐이지 분배랄 도리조차 없는 실정에 있어 속수무책으로 기아상태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수원경찰서에서는 이 참상을 보다 못해 직원들 봉급에서 거출하여 백미 3가마를 기증 분배하였다 한다.(「구호 시급한 난민들, 수원 연무동 600세대가 기아상태」, 『조선일보』 1958년 2월 3일)

다음은 창룡문 밖에 있었던,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피란민촌의 모습을 그린 시이다. 비록 연무동 피란민촌은 아니지만, 그 시절 피란민촌 상황은 어느 곳이나 비슷하였다.

그 시절
수원 동문 밖
서울 피난민촌은
붉은 진흙밭이었다

집들은
흙벽돌에 양철지붕
담은 해바라기 혹은 싸리나무

비가 오면
빗물보다 소리가 먼저다
진흙마당에서 나는 후두두둑 소리
양철지붕에서 나는 다다다닥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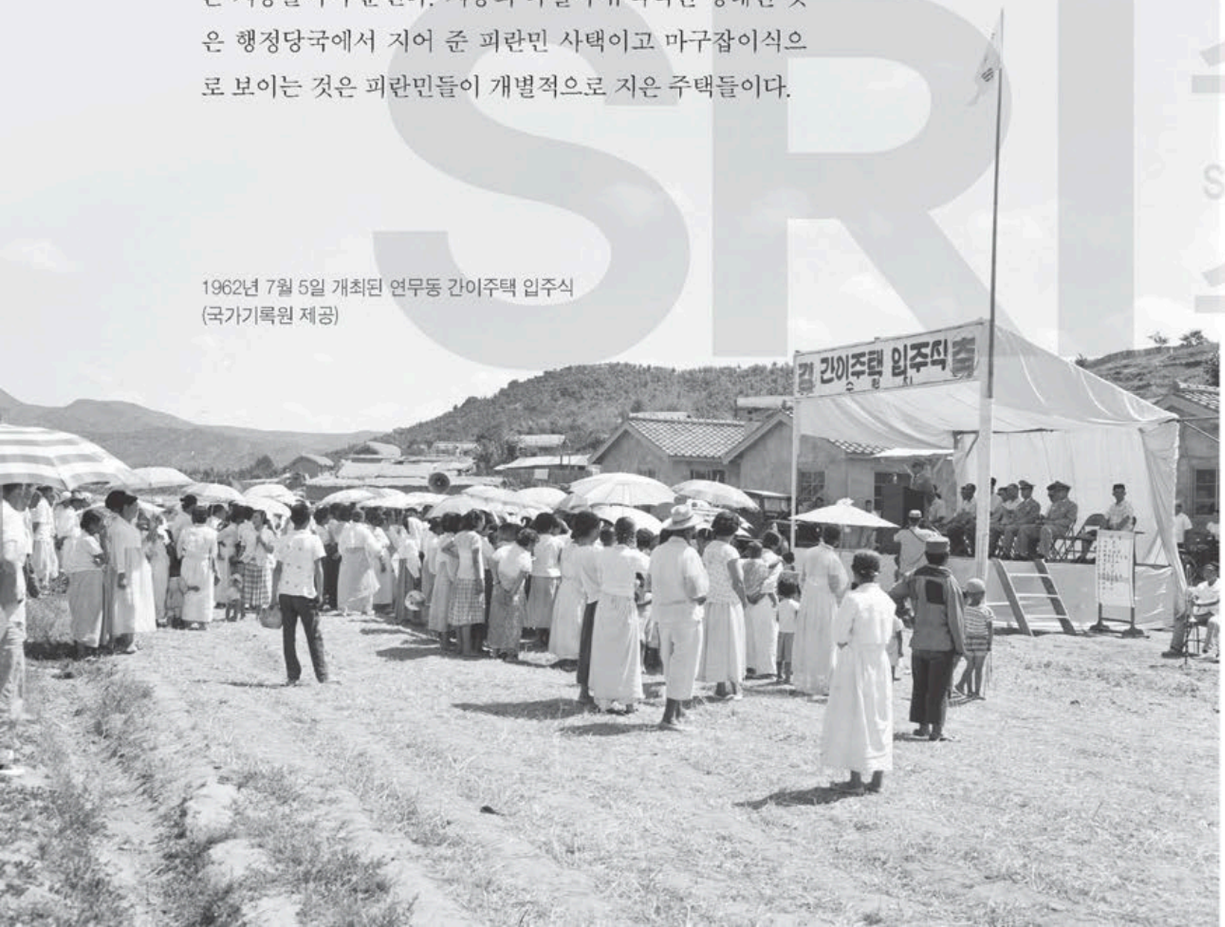
빗소리 사이사이로
꼬르륵 소리가 내 배에서 들렸다

- 서정민, 스토리문학관(storynim@naver.com)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연무동 피란민촌은 1960년대에도 피란민들이 유입이 지속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1962년 7월 5일 6동의 간이주택이 연무동 176번지에 건설되어 입주식이 열리기도 하였다.

1967년 연무동 피란민촌 전경을 보면, 성곽 비탈에는 피란민들이 일군 것으로 짐작되는 밭이 있고 평지가 시작되는 곳부터 집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규칙적으로 배열된 지붕들과 마구잡이식으로 모여 있는 지붕들이 구분된다. 지붕의 나열이 규칙적인 형태인 것은 행정당국에서 지어 준 피란민 사택이고 마구잡이식으로 보이는 것은 피란민들이 개별적으로 지은 주택들이다.



1962년 7월 5일 개최된 연무동 간이주택 입주식
(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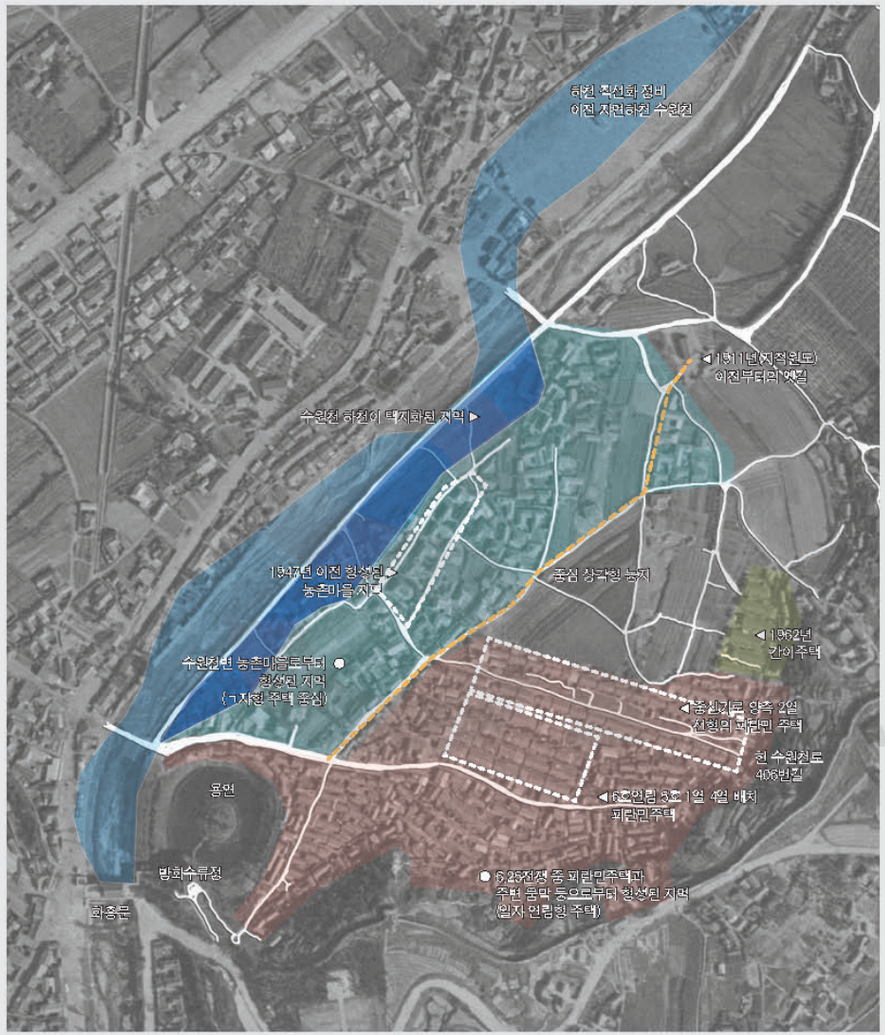


1962년 연무동 간이주택 공동우물(국가기록원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피란민 사택은 ㅡ자형 건물 한 동을 벽으로 칸을 나누고 방과 부엌을 하나씩 들인 구조로, 먼저 지은 피란민 주택은 '구사택', 나중에 지은 주택은 '신사택'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연무동 피란민촌은 연무동 193번지 공설운동장 터에서 연무동 176번지 일대로 확대되었다. 피란민 주택 밀집지와 밭을 사이에 두고 ㄱ자형 농가주택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민유지에 형성된 마을로, 피란민의 거주지역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피란민들은 수원의 원 거주민들이 피란민을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 주민들과 피란민이 싸우면 "사람과 피란민이 싸운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토박이들이 심하게 텃세를 부리는 바람에 많은



1966년 연무동 193번지 일대 공간 구성(이상구, 2022, 「연무동, 이 동네 이 골목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수원류마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피란민들은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다. 1962년 화폐개혁 당시 수원에서 구 화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연무동이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피란민들은 돈을 벌면 땅을 사거나 적금을 들어 돈을 묶어 두기보다 현금으로 보관하여 통일이 되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떠날 수 있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이 들어선 주거지에 비해 피란민촌은 공간의 여유가 없어 보인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사이로 자전거 한 대 지날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골목이 있는 정도였고, 넓은 곳이라야 동네 우물가 정도가 보인다. 1970년대 이후 '공터마당'이라 불리는 곳이 있어서 바로 앞 연무상회(현 K3마트, 연무동 192-5)에서 텔레비전을 '공터마당'에 내놓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시청했다고 한다.

연무동 피란민촌에 살던 강원도 수복지구 출신자 가운데는 원 거주지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돌아가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피란민촌에 남아서 새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 피란민들이 살다 떠난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지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전쟁 피란민은 아니었지만, 전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고향을 떠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피란민들의 자리를 채웠다.

허름하고 스러져 가는 판잣집일지라도 매매가 이루어졌다. 1950년대 중반에 연무동으로 들어온 피란민은 당시 매향동 삼일학교 뒤편 비탈에 굴을 파고 지은 움집을 4,000환에 구입했다고 기억한다. 또 다른 피란민은 이보다 한두 해 전에 연무초교 터에 있던 움집 수준의 흙벽돌집을 2만 환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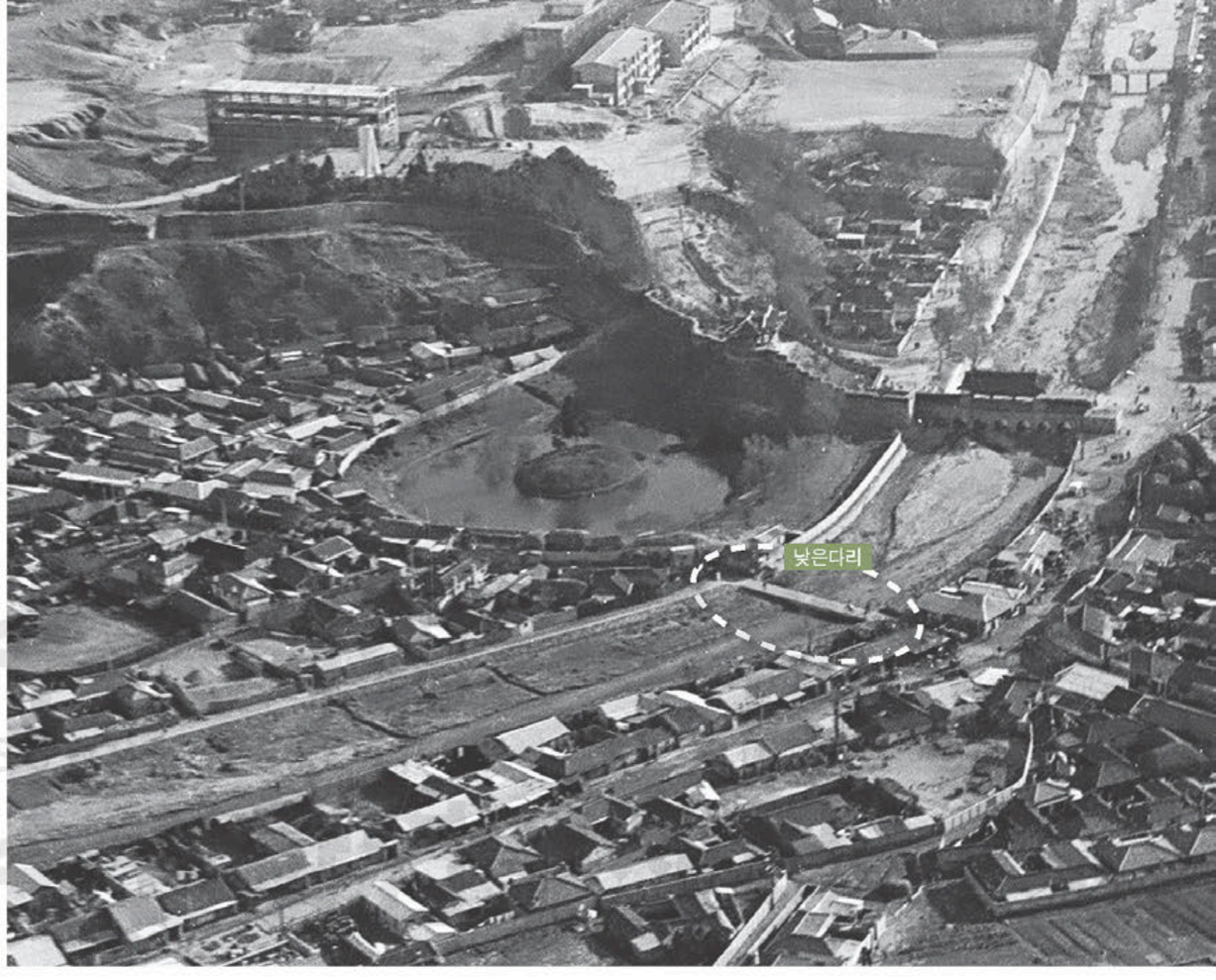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그들이 살던 세상

연무동 193번지 일대 피란민촌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난 피란민이거나 가난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온 이촌향도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이었다. 이러한 달동네의 모습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82년 5월에 당시 내무장관 노태우가 경기도청을 순시하고 상경하는 도중에 연무동과 안양 비산동의 영세민촌을 방문했다고 한다. 연무동 피란민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면 나가는 곳이었다.

연무동 피란민촌은 연무동과 영화동을 가르는 수원천 옆에 조성되었다. 방화수류정 옆의 북암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면 '화홍문'이라 불리는 북수문을 지나 영화동으로 갈 수 있었지만 멀리 돌아가야 하므로 사람들은 수원천에 다리를 놓아 건너 다녔다. 처음에는 징검다리가 놓였지만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나무다리가 세워졌다. 그런데 교각이 낮아서 사람들은 이 다리를 '낮은 다리'라고 불렀다. 비가 많이 내리면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수문에 걸려 수원천이 역류하는 바람에 다리가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곤 했다. 다행히 다리는 물에 잠겨도 지대가 높았던 피란민촌은 수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한다. '낮은 다리'는 연무동 피란민촌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수원시 택시기사에게 '낮은 다리'라고 행선지를 말하면 연무동 피란민촌임을 알아듣고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포장이 안 되어 동네 도로 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동을 가자고 택시를 타고서 나중에 '낮은 다리' 쪽으로 가자고 말하곤 했다.

수원천은 피란민촌 사람들에게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용한 공간이었다. 동네 아낙네들에게는 빨래터이자 한여름 밤에는 은밀한 샤워장이었고,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다. 난방은 산에서 가랑잎이나 솔가지를 잘라다가 불을 땠다. 광교산은 최고의 땔감 공급지였다. 남자들은 지게를 지고 가서 땔감을 해다 나무시장에서 팔기도 했지만, 여자들은 보자기에 나뭇가지



1969년 연무동 피란민촌과 '낮은 다리'(경기도청 제공)



1967년 연무동 피란민 거주지(수원박물관 제공)

나 나뭇잎을 싸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왔다. 1960년대에는 나무 대신 화력도 좋고 값도 비교적 싼 무연탄이 많이 보급되었다. 그래도 서민들에게 연탄값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부잣집들은 온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 창고에 쌓아 놓고 땔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한두 장씩 사다 쓸 수밖에 없었다.

일용직 날품팔이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피란민촌 동네 어귀에 있던 연무상회는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열었다. 일찌감치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 필요한 것을 샀고 아침상과 도시락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반찬거리를 사러 새벽부터 가게에 다녀갔다. 가끔은 연탄불을 꺼트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숯이나 숯탄을 사러 오는 집도 있었다.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가장들은 연무상회에 들러 연탄 1장과 물국수를 사 가기도 했다. 돈을 좀 번 날은 연탄 2장을 사갔다. 가게 주인은 연탄을 한 장씩 새끼줄로 매어 들고 가기 편하게 해 놓았다. 1970년대 당시 1근에 10원 하던 물국수는 가난한 가족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피란민들은 농토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날품팔이를 해서 생활을 꾸려 나갔다. 1970년경 하루 품값은 3,000원 정도였다. 1970년대는 수원에 개발 붐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건축 공사장 일이 많았다. 여자들은 주로 남의 집 식모로 일을 다니거나 보따리장사를 하였다. 수원천변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 등에서 지게꾼들은 가게 앞에 지게를 세워 놓고 기다리다가 지게꾼을 찾을 때마다 짐을 날랐다. 자본이나 기술 없이 지게와 노동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지게 품팔이였다. 연무상회 외상장부에는 이름 대신 외상 가져간 이의 직업이나 그 집의 특징을 적었다고 하는데, 우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 코 뚫는 집'이나 '소 물 먹이는 집' 등으로 적었다고 한다. 우시장에서 송아지의 코뚜레 꿰는 일을 하거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53년 건립된 후생주택과 1962년 건립된 간이주택(1967년, 수원박물관 제공)



1967년 화홍문 밖
수원천에서 빨래하는 피란민들
(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연무동 193번지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장날 팔려고 말뚝에 매어 놓은 소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밤에 몰래 소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란민촌의 아이들 중에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거나 품을 팔러 다니거나 장사를 했다. 몇몇은 학교 뒷골목에 숨었다가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현미용실(연무동 193-226)이 있는 일대가 '공터마당'이라 불리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 공터마당에 붙어 있던 연무상회는 동네에서 가장 먼저 텔레비전을 구입한 집이었다. 처음에는 가겟방에 텔레비전을 두고 살아서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가겟방으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나중에는 아예 저녁이면 공터마당에 텔레비전을 내놓았다고 한다. 1970년대 당시 국민드라마였던 '여로'와 박치기왕 김일의 레슬링 등이 방영되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공터마당 텔레비전 앞으로 모였다. 전화도 연무상회의 전화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용연 근처에 '구름향나무'로 불리던 나무가 있었는데, 용연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나무를 잘라 낸 후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쌍초상'이 났다고 한다. 한 집에서 초상이 나면 며칠 후에 다른 집에서도 초상이 났다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제품'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천을 받아다가 완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이었다. 초기에는 천 조각을 받아다가 덧신을 만들어 납품을 했는데 점차 옷을 만드는 일로 발전하였다. 연무상회 주인은 대략 50가구 정도가 제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란민촌에 공동수도가 가설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용연의 물을 사용했다. 용연 동쪽 성벽 돌 틈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이 물을 받아다가 식수로 사용했고, 용연의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물을 퍼다가 설거지를 했다고 한다. 동네에 공동수도가 놓인 후에도 상수도 공급량이 제한적이어서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용연이나 수원천의 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우물을 파면 짠 물이 나오는 곳이 많아서 동네에는 우물이 별로 없었다. 개별 상수도가 놓이기 전에 연무상회는 자부담으로 공동수도관에 연결해서 가게에 수도를 놓았다. 동네 사람들이 1원씩 내고 수돗물을 받아 가기도 했는데, 가게 일 때문에 비웠던 주인은 마지막에 나오는 벌건 물을 받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수돗물 사정이 좋지 않아 제한 급수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피란민촌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었다. 피란민 주택들은 대부분 딸린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아침마다 공동화장실 칸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여기저기서 빨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다. 흙벽돌집을 허물고 벽돌집을 신축할 때 각자 화장실을 만들면서 공동변소를 사용하는 집들이 줄어들었고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방치되었던 건물은 1990년대에 철거되었다고 한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판자촌에는 비밀이 없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리가 새어 나왔다. 벽 하나 사이로 다른 집 안방과 미주하니 사생활은 보장받기 어려웠다. 화재에도 취약해서 전기가 가설되기 전 등잔이나 초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연무동 193번지 피란민촌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동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이다. 모두가 먹고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한다거나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변변한 행사도 없는 동네였지만 주민들의 처지가 비슷해서 가난해도 살기에는 편한 곳이었다고 한다.

3. 개발과 변화 : 연무동 재개발사업

전기가 가설되기 전까지 연무동 피란민촌에서는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등잔불이나 촛불로 집안을 밝히던 시절이었으므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 특성상 급속하게 다른 집으로 옮겨 붙었다. 그래서 동네에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좁은 길을 넓히다 보니 집들이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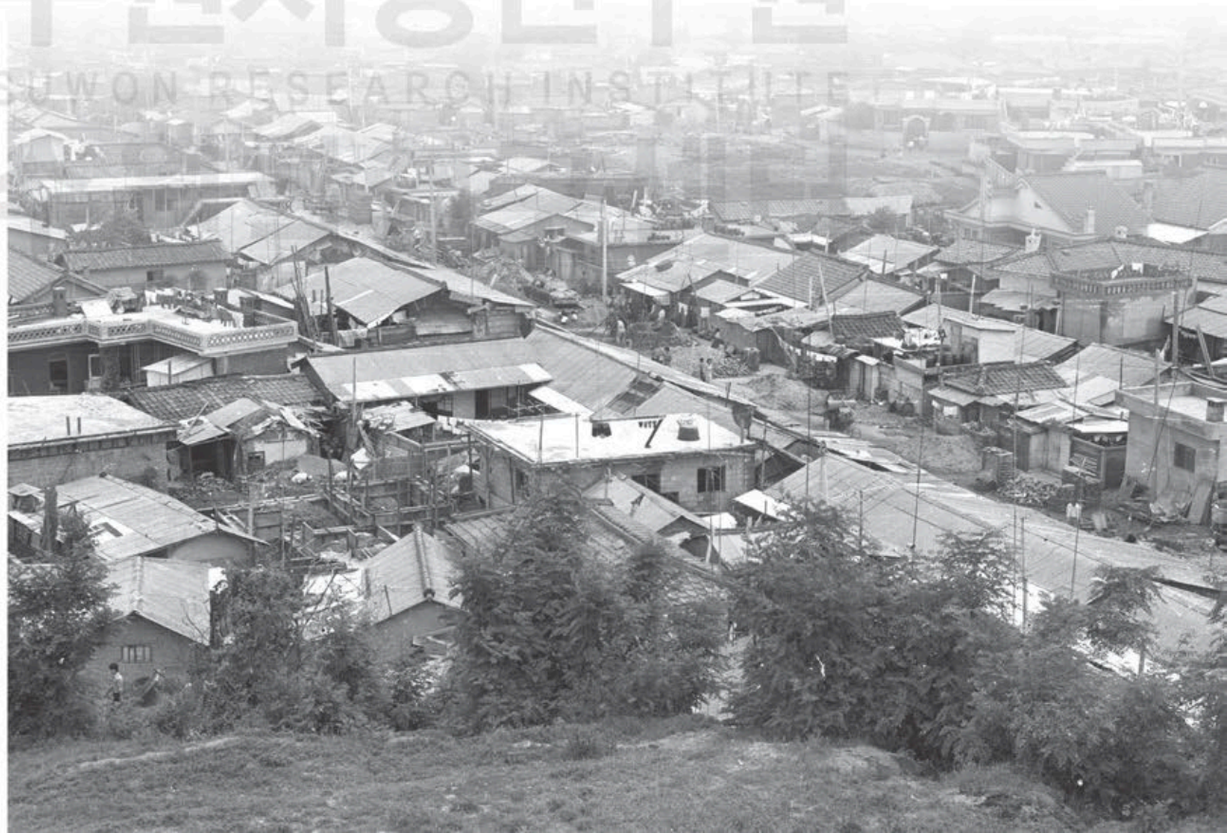
성벽 바로 아래에 들어서 있던 피란민 주택들은 화성 성곽 복원사업이나 화성 주변 환경 미화사업 등을 이유로 점차 헐려 나갔다. 용연을 둘러싸고 있던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수원천로 406번길 양쪽 2열 선형의 피난민 주택 북쪽으로는 밭이었는데, 용연 주변 정비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집을 짓는 바람에 연무동의 주거 밀집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판잣집을 허물고 다시 집을 신축할 때는 이웃한 두 집이 지붕을 하나로 올리고 가운데 벽을 세워 분리하는 구조로 짓기도 하였다. 워낙 지붕을 맞대고 다닥다닥 붙어 있던 집들이었으므로 각자 벽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면 그나마도 좁았던 집이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지붕 두 가구가 되면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었으니 그 상황에서는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만 사생활 보호는 포기해야 했다. 조금 큰 남자아이들은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려고,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하꼬방'이라 불리던 피란민 주택은 1970년대에 개량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시에서 무허가 판잣집이라도 집을 신축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 무허가일지라도 건물은 개인 소유였기에 신축을 했지만 땅은 여전히 시유지였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피란민촌 사람들에게 2차에 걸쳐 땅을 불하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원래 하나의 필지였던 연무동 193번지 공설운동장 터는 500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79년 연무동 재개발지구(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연무동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연무동 피란민촌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변화였다. 자전거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던 골목길이 넓어지고 집을 신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집을 지을 때는 품앗이하듯이 서로가 힘을 보태거나 자재를 보탰다고 한다. 피란민 주택 가운데 '구사택'이라 불리던 곳은 화홍연립주택으로 재건축되었다. 2층짜리 화홍연립주택은 모두 5동이 건설되었다. 구사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곳에 입주한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1980년 연무동 재개발지구
(수원박물관 제공)





1987년 연무동 피란민촌(이상구, 2022, 「연무동, 이 동네 이 골목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수원류마실)

SRI 수원
SUWON R
수원



1953년 지어진 구사택 자리에 들어선 화홍연립주택(1980년, 수원박물관 제공)

비가 많이 내리면 항상 잠기거나 떠내려가던 낮은 다리 대신 높고 튼튼한 다리가 새로 놓였다. 이 다리는 원래 영화동과 연무동의 큰길을 잇는 위치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하면 영화동과 연무동의 점포 몇 군데가 철거되어야 했다. 철거 대상 점포의 주인들은 당시 연무동에서 활동하던 2명의 '협잡꾼'들에게 돈을 주어 다리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했고 결국 다리는 동네가 아닌 용연 앞으로 놓였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1970년대의 일이다.

화성 주변 정비사업 등으로 집이 수용되면 사람들은 보상비를 받았다. 그러나 보상비가 적었기 때문에 연무동 피란민촌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사 나간 이들 중에는 연무동이 그리워서 전세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연무동 193번지 일대 피란민촌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판잣집과 흙벽돌 초가집이 밀집한 빈촌이던 이곳은 수원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바뀌었다. 돈을 번 사람들은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떠났다. 정든 곳을 떠나기 싫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피란민촌에 남았다. 그래서 연무동 피란민촌은 1970년대 서민 주택부터 2000년대 다세대 주택까지 시대별 주택의 형태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연무동 피란민촌에서 7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 연무상회 주인의 말에 따르면, 연무동 피란민촌을 떠난 사람 중에 옛날의 기억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자신이 살았던 집이 공원이나 도로로 변해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그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골목이나 집들이 있어 추억을 더듬고 간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연무동의 변함없는 집과 골목은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가 넘쳤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자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8년 연무동 193번지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2015년 연무동 193번지 일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정착
월남민 이야기

II

구술자의
월남 및 정착 경험



성명 출생연도(성별)	출생지 및 거주지	월남 전 주요 경험	전쟁 후 월남 과정		수원 정착 과정				구술 조사
			시기	경로 및 활동	시기	정착 계기	거주지	생업 활동	
유옥선 1929(여)	강원도 통천(출생) 강원도 철원(결혼)	• 토지개혁 후 친정 큰댁 월남 • 미군 폭격과 가족 죽음	1951년 6월	• 미군 제공 트럭과 기차 • 공주 농고-전북 전주피란민수용소	1951년 11월	• 수원에 정착한 가족 상봉 • 철원월남민 다수 정착	• 수원성냥공장(임시) • 남수동	• 철원연락사무소 (화서문 부근)를 통해 배급 • 남수동 장사 등	2012년
박순옥 1931(여)	강원도 철원	• 북한정권의 정치 탄압 • 미군 폭격과 가족 죽음	1951년 여름	• 미군 제공 트럭과 기차 • 경북 김천피란민수용소	1952년 여름	• 수원에 정착한 가족 상봉 • 남편은 군 복무 후 정착	• 북중학교(임시)-영화동 피란민촌-연무동 피란민 사택-북수동	• 주부, 바느질 부업 • 시부와 남편 한약방 운영	2012년
김봉석 1933(남)	강원도 철원	• 1947년 서북청년회 활동한 형 월남 • 본인 대동청년단 가입	1950년 10월	• 인민군 징집 후 탈영 • 국민방위군, 가평 미1사단 노무자 • 의정부 노무사단 징집 • 18연대 의무중대 하사 • 영연방사단 근무	1953년	• 군 복무 중 우연히 수원 방문 • 남수동에 가옥 구입	• 남수동 • 화서동(서문아파트)	• 서울지방법원 호적 담당 • 수원에서 세탁소 운영	2012년
전계준 1934(남)	평안북도 선천	• 1947년 토지개혁과 정치 탄압으로 큰댁 가족 월남	1950년	• 인민군 징집 후 탈영 • 포로수용소(부산, 거제, 논산 등)	1962년	• 인천 거주 후 친척을 따라 수원 정착	• 지동	• 영동시장 노점 • 점포 구입	2012년
최우섭 1929(남)	경기도 개성	• 가미가제특공대 지원 • 개성 경찰	1950년 6월 25일	• 배로 제주도 피신 • 해병대 헌병 지원 • 강화도 특공대장	1956년	• 개성시민연락소(팔달사)를 통해 수원 거주 가족 상봉 • 제대 후 정착	• 매교동	• 운수회사 취업 • 운수회사 운영 • 택시사업조합 이사장	2012년
이경영 1934(남)	경기도 개풍	• 1946년 개성으로 월남 • 남북한 공방전(5·4사건과 7·25사건)	1950년 10월	• 지인을 따라 수원 이창용 집으로 피란 • 1·4후퇴 시 전라도 임실로 피란 • 미군부대 보급대로 끌려감	1951년	• 큰형 지인이 수원 거주	• 광교 시봉골-홍사훈 토지(임시)-지동	• 큰형과 작은형 장사 • 본인 피란민학교와 수원고 수학, 대학 졸업 후 교사	2020년
최형수 1934(남)	황해도 벽성	• 1947년 38선 이남인 청단군으로 월남	1951년 10월	• 연평도 월남 후 유격전우회 활동	1952년 가을	• 작은아버지가 수원 거주	• 매산로2가(홍사훈 토지) 일시 거주 • 매산로3가 하꼬방	• 가족 장사 • 본인은 1962년 제대 후 영동시장 잡화 장사	2012년
정창모 1928(남)	황해도 연백	• 부친이 구장 • 신사참배, 징병자 배웅	1951년 1월	• 교동도를 거쳐 강화도로 피란 • 유엔 경찰(황해도경찰대) 활동 • 휴전 후 서울에서 세탁소 운영	1956년	• 수원에 고모 거주 (수원에 연백군청 피난청사 소재)	• 지동	• 세탁소 운영 • 목수	2020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



01 철원 근교의 공산군 보급창을 폭격하는 미 5공군 452경폭격비행단 B-26 폭격기 (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5월



6·25 전쟁 스위스정전연구원
SWISS KOREAN WAR ARMISTICE RESEARCH INSTITUTE
6·25 전쟁 정전연구센터

02 UN군 병사들이 제공한 트럭에 탑승하여
철원 지역 전방에서 후방으로 철수하는
피란민(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6월 17일



03 미 3사단 65수송대대에 의해 점령된 철원의 저수지(국사편찬위원회 | NARA)



04 철원의 저수지에 접근하는 미 3사단 65수송대대 경계병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SU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1951년 6월 19일



05 후방으로 피란하기 위해 철원에서 운송수단을 기다리는 피란민들
(국사편찬위원회 | NARA)



06 후방으로 피란하는 운송수단이 출발하는 철원을 향해 천천히 남하하는 피란민들
(국사편찬위원회 | NARA

6·25전쟁 종군작가단 UWON WAR CORRESPONDENTS INSTITUTE 6·25전쟁 종군작가단 원화연구센터

1951년 6월 26일

1951년 6월 27일



07 며칠간 고갯길을 넘어 전선에서 후방으로 피란하는 운송수단이 출발하는 철원에 도착한 피란민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08 후방으로 피란하기 위해 철원에 모인 한국인 피란민에게 먹을 것을 주는 UN군 (국사편찬위원회 |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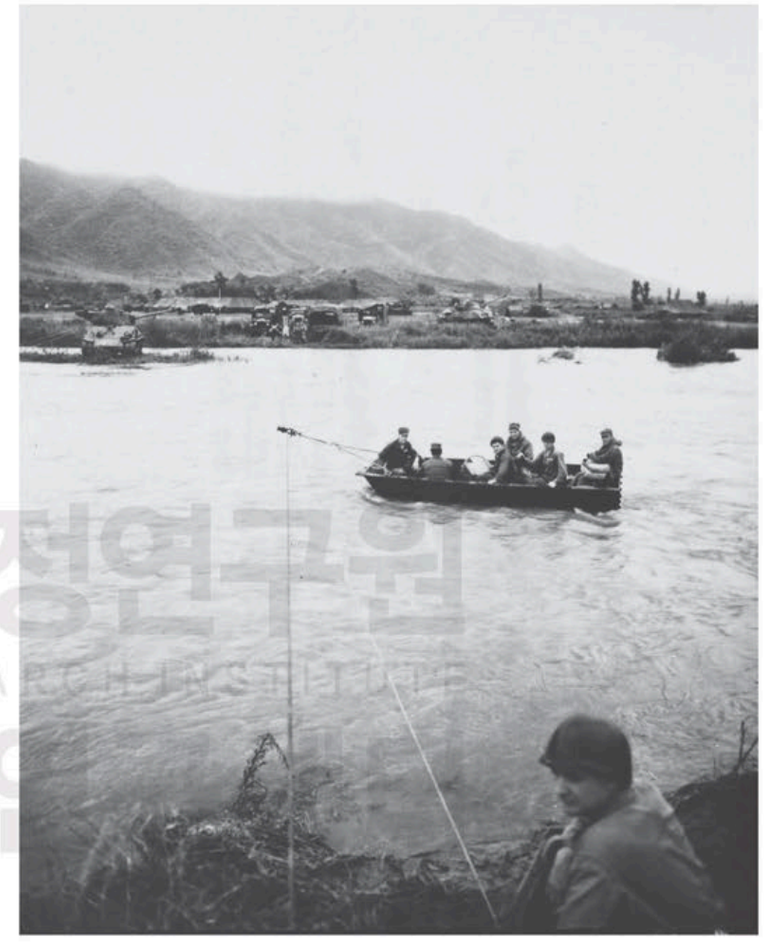
1951년 6월 27일

1951년 7월 4일



09 철원 지역에서 열린 65보병연대의 보병전술훈련을 시작하는 미 3보병사단 본부 Robert H. Soule 소장(국사편찬위원회 | NARA)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10 철원 근방에서 보급품을 수송 중인 미군 병사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8월 29일

1952년 7월 30일



11 철원 지역의 '불모고지전투' 중에 미 제2보병사단 제38보병연대가 1952년 9월 20일 밤 죽인 적군의 시신(국사편찬위원회 | NARA)



12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395를 점유하기 위해 중공군과의 전투 중 부상을 입은 한국군 제9사단 병사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SUWON STRATEGY INSTITUTE
수원전략연구센터

1952년 9월 21일

1952년 10월 8일



13 공중에서 본 철원 계곡(국사편찬위원회 | NARA)



14 철원 근방의 레이더 기지 전경(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2년 12월 23일

1953년 5월 26일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철원 월남민 유옥선



1929년(1세)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 지르메기마을 출생
1943년(15세) 부친 사망,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 염성마을로 이주
1949년(21세) 철원에서 결혼
1950년(22세) 6·25전쟁 발발
1951년(23세) 월남 후 전주피란민수용소 거주, 수원 이주
1985년(57세) 남편 사망
1999년(71세) 금강산 관광

돌배기 아들을 앗아간 피란민수용소 생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방 후 북한의 정치적 상황

유옥선은 1929년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 지르메기마을에서 아버지 유생민과 어머니 김광수 사이에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45세(1943년)에 이질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어머니는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 외갓집이 있던 염성마을로 이주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된 후 통천군 임남면 염성마을은 38선 이북 지역으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청년단과 같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북한 당국은 이런 단체들의 가입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대하였고, 정치적으로 노동당의 영향력이 커져 갔다. 북한에서는 1946년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직접 경작하지 않는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유옥선의 고향 통천군

유옥순 집안에서는 논 20마지기와 밭 2,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소작을 주어 경작한 상태였다. 이에 유옥순 집안의 토지도 몰수되었고, 당시 노동력을 가진 가족수대로 다시 분배되었기 때문에 논 5마지기와 밭 1,000평을 받았다.

한편 나이가 차자 집안에서는 유옥선에게 시집가기를 권유하였는데, 결혼이 싫었던 그녀는 무작정 집을 나와 원산행 기차를 탔다. 원산에 도착하였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은 전쟁 전 38선 이북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일부지역이 수복되어 남한에 속해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던 탓에 생면부지인 아줌마에게 잠자리를 부탁하였고, 식모 자리도 알아봐 달라고 청하였다. 며칠 후 두 노인네만 사는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하였는데, 이분들은 유옥순을 수양딸로 삼을 정도로 잘해주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 계속 사는 것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월남을 결심하고 철원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유옥순도 함께 철원으로 왔다. 그러나 철원에 머물던 지인 집도 감시가 심하여 월남할 방법이 좀처럼 생기지 않아 결국 철원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곳에서 유옥순은 남편이 될 최말봉을 만나게 된다. 철원 집주인과 안면이 있던 최말봉은 성남 사람인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9세에 철원

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유옥순보다 20살이 많았던 남편은 당시에 상처(喪妻)하여 아들 2명이 있었다. 남편은 홀아비이지만 살기는 넉넉하다며 유옥순에게 청혼하였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수양부모님들도 월남을 하지 못할 거면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며 결혼을 권유하였다. 이에 유옥순은 1949년(21세) 7월 철원읍 예천리에서 최말봉과 결혼하였다.

미군의 철원 폭격과 가족의 죽음

유옥순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전운을 느꼈다. 결혼한 다음 해인 1950년 3월 30일(음력 2월 12일)에 친정을 방문하였다가 보름 정도 머문 후 4월 15일(음력 2월 28일) 귀가할 때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 신혼집이 철길 옆에 있었는데, 밤에 기차 소리가 나면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한 달 가까이 들렸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옥순은 여동생을 다시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유옥순은 모내기하는 일꾼들에게 줄 식사를 준비하던 중 라디오를 통해 6·25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날 저녁 북한 비행기가 남한에 삐라를 살포하고 돌아오다가 비행장을 제대로 찾지 못해 철원 부근에 비상 착륙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9월에 들어 서울에서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기차에 실려 철원역을 거쳐 내포리 샘통 지역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았는데, 곧이어 미군 비행기 4대가 따라와 이 열차를 폭격하여 모두 사망하였다. 이렇게 폭격이 시작될 즈음 유옥순은 1950년 9월 8일(음력 7월 26일) 첫아들을 출산하였다.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아이를 받아 주었는데, 출산 3시간 만에 자신이 나가서 물을 길어다 겨우 밥을 지어 먹었다.

출산한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미군 비행기의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다. 아침 9시경부터 철원역 일대에 집중적인 폭격이 시작되었다. 유옥순은 집을 빠져나와 이웃집으로 피신 갔다가 소강상태가 되자 귀가하려 하였다. 이때 내무서원들이 폭격당한 철도를 복구하기 위해 철원역 일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하지만 미군의 비행기 폭격은 곧 재개되었고, 주민들은 폭격을 피해 철로에서 역전시장으로 향해 도망을 가다가 역전시장에 퍼부은 폭탄을 맞아 대부분 사망하였다.

미군의 폭격으로 철원역 일대가 초토화됨에 따라 철원읍 주민들의 대부분은 북쪽으로 피란을 떠났지만, 일부 주민들은 방공호를 만들어 대피하였다. 유옥순도 개울가에 방공호를 파서 공습을 피했다. 하지만 방공호로 모든 공습을 막을 수는 없었다. 1951년 1·4후퇴 이후 다시 폭격이 심해졌고, 이때 유옥순의 가족과 친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남편의 전처소생인 큰아들과 조카머느리·조카딸 등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유옥선은 사람들을 도왔다. 이웃에 살던 분이 전염병을 앓자 다른 이들은 모두 외면하였지만, 유옥선은 자신의 방공호에 거처하도록 받아 주었고, 이어 옆에 방공호를 파서 거주하게 하고 돌보아 주었다.

월남 과정과 전주피란민수용소 생활

방공호에서 생활하던 유옥순 가족은 국군이 들어와서 철원역전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을 남쪽으로 이송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피란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는 1주일 정도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여 옷과 항아리는 땅에 묻고, 볏가마는 커다란 나무 밑에 넣어 두고 나왔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51년 6월 9일(음력 5월 5일) 유옥순 가족 4명은 철원 주민들과 함께 한국군이 제공하는 트럭을 타고 의정부로 이동하였고, 의정부역에서 다시 화물 열차로 갈아타고 용산역으로 왔다. 당시 기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트럭을 타고 광나루(천호동)로 갔다고 한다. 용산역에 도착한 철원 피란민들은 하루를 그곳에서 묵게 되었는데 밥 해 먹을 물도 그릇도 없어 하루종일 굶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낮에 용산역을 출발한 기차는 수원역과 대전역을 거쳐 오후 4시에 간신히 전주역에 도착하였다.

전주역에 내려 전북도청에서 운영하던 전주피란민수용소로 왔는데, 이곳은 원래 실을 생산하던 제사(製絲)공장이었다. 일제시기부터 운영되던 제사공장을 피란민수용소로 사용한 것으로, 제사 기계는 건물 바깥에 내놓고 안에는 가마니를 깔아 피란민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동에 150~300명을 수용하였는데, 4~5개 동이 있었다. 피란민이 도착하자 수용소에서는 주먹밥을 제공해 주었다. 피란길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지만 너무 긴장한 탓인지 유옥선 네 가족은 부녀자들이 건넨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모두 곯아떨어졌다.



한국군이 제공한 트럭을 타고 남쪽 후방으로 이송하는 철원 피란민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6월부터 시작된 전주피란민수용소 생활은 11월까지 이어졌다. 수용소에서 유옥순은 아들의 첫돌을 맞게 되었고, 피란생활 중이지만 첫돌을 기념하기 위해 남편은 전주 시내 사진관에 가서 돌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이 생계를 위해 며칠 동안 군산에 간 사이 그만 아들이 홍역을 앓게 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용소를 순회하던 미국 의사가 방문하자, 수용소 사람들은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유옥순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망설여졌지만 아이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수용소를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폐렴 증세는 더 심해져 갔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유옥순은 죽어도 집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며 아이를 들쳐업었지만 바로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렸다.

새벽 4시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를 업고 어둠을 헤치며 큰 도랑을 따라 걸었다.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지만 큰 도랑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집에 도착하고서는 '이제 너 여기서 죽으면 엄마나 아버지가 묻어 줄 테니 편안히 죽어라.'고 아이를 뉘어놓고 밥을 지었다. 남편이 오고 나서 아이가 숨을 거두길 바랐지만 아이는 오후 3시경 사망하였고, 남편은 4시에 도착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강원도피란민정착사업장이 있었던 남수동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유엔의 원조자재로 피란민들의 정착을 위한 간이주택을 지었는데, 철원피란민연락사무소는 철원 지역 전쟁미망인들을 우선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에 이 일대는 '과부촌'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원 이주와 철원 피란민 정착촌

피란 나온 철원 사람들은 광나루와 성남·수원 등에 많이 거주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철원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 휴전 후 철원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원래 남한 땅이던 유옥선의 집은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유옥선은 1951년 11월 28일(음력 10월 그믐날) 전주에서 트럭을 타고 수원에 올라왔다. 도착하는 날은 무허가 하숙집에서 묵었다. 시댁 조카(시댁 맏동서 둘째 아들)가 수원에서 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시댁 둘째 시누이가 살던 밤밭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성 너머 남수동에 방공호를 파서 기거하였다. 그 후 둘째 맏동서네 식구 6명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한 동안 방공호에 같이 살다가 남수동에 방 하나를 구해 나갔다.

남수동(수원박물관 제공)





유옥순의 가족(유옥순 제공)

화서문 부근에 철원피란민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피란민들에게 주택 알선과 직업 소개, 배급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철원연락사무소에서는 고향별(지역별)로 헌옷과 같은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었고, 보리쌀과 강낭콩 등을 배급해 주었다.

남수동 일대에는 피란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남수동 11번지에 1954년 강원도피란정착사업장이 설치되었다. 이곳에는 1955년 12월 현재 83세대 46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즉 유엔의 원조자재로 피란민들의 정착을 위한 주택을 지었는데, 철원피란민연락사무소는 철원 지역 전쟁미망인들을 우선 거주하게 하였다. 이에 이 일대는 '과부촌'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과부들은 안 들어가고 서방 있는 여자만 들어갔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유옥순의 남편과 아들(유옥순 제공)



막내아들과 함께한 금강산 관광(유옥순 제공)

유옥순 가족은 2년 동안 배급을 받았으며, 남편은 먹고살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 덕에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킬 수 있었다. 유옥선도 알뜰하게 살림하였다. 반찬이 없어 소금으로 밥을 찍어 먹어도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고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았다. 아이를 업은 채 산판의 나무를 사다가 쪼개어 다시 작게 포장하여 소매로 판매하는가 하면 연탄 장사하는 남편을 도왔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산 유옥순은 아직도 남수동에서 잡곡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철원친목회에 가입하였는데, 이 모임은 처음에 남자들만 활동하였다. 1985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철원친목회는 초상을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부터 유옥선도 이 모임에 참여하였고, 다른 여성들도 가입하였다. 세월이 흘러 1세대 철원 피란민들이 사망하면서 결국 친목회는 해산되었다.

1999년 12월 9일 유옥선은 가족들의 권유로 금강산 관광을 갔다. 동해에서 배로 출발 장전에 도착하였다. 눈이 왔는데 아이젠이 없어서 고생하였지만, 기어서 구룡포까지 올라갔다. 머물렀던 장전에서 50리만 가면 고향 통천에 닿을 수 있었지만 갈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떠나기 전날 SBS에서 유옥순에게 피란민의 심경을 인터뷰해서 방송하기도 했다.

유옥선은 10살이었던 막냇동생과 헤어질 때 새 신발 사 달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환갑에 옷 한 벌과 반지를 해 주고 싶은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마음에 한으로 맺혀 있다. 평생 고된 삶을 살았지만, 유옥순은 베푸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향과 가족관계

유옥선 어제저녁에 손주가 6·25가 뭐냐고 묻길래 "할머니가 6·25 때 철원서 어떻게 고생 고생해서 여기까지 나왔는 줄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면담자 자손들에게 이야기 안 해주세요?

유옥선 애들 어렸을 적에는 뛰어다니느라 놀고 어른 되어서는 먹고사느라 바빠서. 그애들이 말한다고 곧이 안 들어. 6·25 때 밥 굶어서 배고파서 혼났다 그러니까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밥을 굶느냐는 애들인데 무슨 이야기를 해.

면담자 우리가 글로만 보고 TV 나오고 하는 것도 재미없게 보고 하니까.

유옥선 내가 피란 나와서, 6·25 때 철원서 쫓겨나오도록 겪은 걸 이야기하라는 거요?

면담자 그렇죠. 여기 오늘 장날은 아닌 거죠? 매일 (열리는) 시장인가요?

유옥선 여기 맨날 이렇게 해. 옛날에는 가게마다 사람이 다 있었는데 못골시장이 생긴 뒤로는 사람이 안 많아.

면담자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면, 이야기해 주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셔도 돼요.

유옥선 나는 여기 피란 내려올 때까지 내가 한 일이 다 머릿속에 있어.

면담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나요?

유옥선 뱀띠.

면담자 뱀띠면 29년생이시구나. 집은 바로 여기(남수동 쌀가게)인가요?

유옥선 바로 옆이에요.

면담자 머리는 염색하신 거죠?

유옥선 머리 파머 하러 갔더니 사돈색시가 까맣게 염색해 주더구만.

면담자 그러면 태어나신 고향은?

유옥선 강원도 통천이야.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 거기서 태어났어.

면담자 무슨 리? 무슨 부락이에요? 부락 이름은?

유옥선 염성부락.

면담자 여기는 총 몇 가구나 살았어요?

유옥선 나 태어난 데는 집 25채밖에 없었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14살 먹던 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6남매 데리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옆에 이사를 와라." 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데리고 염성이라는 데로 이사 온 거야.

면담자 그럼 원래 살던 데는 어디인데요?

유옥선 거기는 지르메기라고 있어. 통천에. 산 이름이 지르메기야.

면담자 지르메기 산이에요? 마을 이름도 지르메기예요?

유옥선 그럼.

면담자 거기서 살다가 할아버지 계신 염성부락으로 오신 거예요?

유옥선 그렇지. 나 14살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면담자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유옥선 우리 아버지 이름은 유생민인데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면담자 친정어머니 성함은?

유옥선 김광수.

면담자 형제분은 6남매?

유옥선 6남매. 이북에 5명이 있지.

면담자 혼자 나오셨네?

유옥선 나는 혼자 철원으로 시집와서 철원에서 살다가 이리로 나왔어.

면담자 그럼 6남매 중에 순서대로 말해 주세요.

유옥선 옥년이.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또 옥춘이라고 있어. 기지배, 나랑 두 살 터울.

면담자 딸 셋 낳았네요.

유옥선 딸 넷에다가 아들 둘.

면담자 그럼 넷째 동생 이름이?

유옥선 유옥노. 남동생. 막내여동생은 옥순이. 막내아들(동생)은 유응노.

면담자 돌림자는 '노'자 돌림이구나.

유옥선 몰라. 우리 아버지는 딸들은 공부를 안 가르치고 아들만 가르쳤어.

면담자 아들이 귀하게 자랐겠네요. 딸들은 찬밥이고.

유옥선 아니 그런 것도 없어.

면담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유옥선 그럼. 친정어머니하고 나하고 시집도 안 가고 애들 시집장가보내고 둘이 살다 죽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면담자 왜 시집을 안 가려고 하셨어요?

유옥선 불쌍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니까 동생들이 넷이나 되고.

면담자 마치 장녀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유옥선 내 머릿속 생각이 그래. 동생들이 넷이나 되고 우리 어머니도 천상 여자라 남에게 악한 소리 한 마디 안 하고 애들이 나가 싸우고 들어와도 역성들지도 못하고. 노인네(엄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 6남매가 어떡해.

면담자 아버님은 왜 돌아가신 건데요?

유옥선 아파서. 이질에 걸려서 열흘 앓다 돌아가셨어.

면담자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애들도 많고 큰일이었겠네요.

유옥선 우리 아버지는 6월 스무아흐렛날(29일) 제사야. 그믐날 돌아가셔서 큰 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믐날이 제사야.

면담자 아버지 제사는 따로 안 지내시죠?

유옥선 그럼 아들들 다 있는데 내가 왜 지내.

면담자 여기 내려오기 전에 큰언니는 시집가셨겠네요.

유옥선 진작 갔지.

면담자 셋째와 넷째도 다 시집가는 거 보셨어요?

유옥선 뭘 봐 6·25 날 적에 내가 22살, 내 밑에 여자 동생이 20살이고, 남자 동생이 15살 먹은 거, 여자 동생이 12살, 남자 동생이 10살이야. 내가 6·25 나기 몇 달 전에 친정에를 다녀왔어.

면담자 시집은 몇 살에 가셨어요?

유옥선 21살에.

면담자 21살이면 6·25 나기 전해에 가셨네요. 결혼한 날짜 기억하세요?

면담자 7월달.

유옥선 여름에 하셨네요.

면담자 학교는 전혀 안 나오셨어요?

유옥선 그렇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형제 중에 학교 다닌 사람 전혀 없고요?

유옥선 모르지. 이북에서 남자 동생들, 여자 동생들은 다녔지. 우리 언니하고 나만 못 다녔지.

면담자 그럼 학교 안 다니실 적에 뭐 하셨나요?

유옥선 집에서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놀았지 뭐.(웃음)

면담자 집에서 농사일은 안 하시고요?

유옥선 농사를 왜 안 해. 농사를 하니까 모내기할 적에 이웃에서 모내면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가서 품 팔아 모 심어 주고 우리 모낼 적에 그 사람들이 와서 모내주고.

면담자 할아버지가 땅이 있으셨나 보다.

유옥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던 거지.

면담자 아버님이 재산이 있으셨나 보네요?

유옥선 우리 아버지도 어려서부터 고생하다가 중간에 벌어서 땅 사고 산 사고 집 사고 소 사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45살에 돌아가셨어.

면담자 지르메기마을에서요?

유옥선 그럼.

면담자 염성마을로 이사 왔다 했잖아요, 가까워요?

유옥선 한 20리 돼.

면담자 그럼 농사지으러 거기까지 간 건가요?

유옥선 외할아버지가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로 갔지.

면담자 시집가기 전까지 계속 농사일 거들고, 집안일 하고 동생들 뒤치다꺼리 하고. 그럼 어머님은 시집오기 전까지 계속 사셨고?

유옥선 그렇지. 이런 걸 적으려면 사흘을 적어도 못 적어, 한 달은 적어야지.

면담자 사흘 동안 하죠 뭐(웃음). 말씀하시니까 어머님이 또 생각나신가 보다.

유옥선 우리 친정어머니가 37살에 혼자 되셨어. 우리 엄마가 막냇동생 낳고 나서 얼마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외갓집으로 나와서 쌀 팔아서 논 좀 사고 밭 사고 송아리 한 마리 사고. 우리 논도 20마지기 정도. 밭 2,000평 되는 거 그거 도지 주고 나왔다가 나 17살 때 8·15해방이 되잖아.

8·15해방과 토지개혁

면담자 그렇겠죠. 맞아요, 17살에 해방됐겠네요.

유옥선 8·15해방 되니까 빨갱이들이 토지개혁 한다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빨갱이들한테 다 몰수당하고 그랬지.

면담자 그때 인민위원회 만들어져가지고?

유옥선 그래. 우리 외갓집 동네로 나와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땅 팔아가지고 다섯 마지기 산데다가 논 다섯 마지기를 그 빨갱이들이 줬어.

면담자 무상으로 몰수했다가 무상으로 또 분배를 한 거죠? 다섯 마지기 분배했어요?

유옥선 열 마지기 붙여서 공출하고, 공출하고 나면 먹을 게 없어. 농사지은 거 얼마 내라고 하니까 농사지은 거 갖다주면 대여섯 식구가 어떻게 먹고살라고. 우리 언니는 시집갔다고 해도.

면담자 무상분배 받는 건 가족 수대로 분배해 주나요?

유옥선 응, 그때는 내가 17살이니까 나도 노동자다,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해준 거야.

면담자 친정어머님하고 유옥선 할머니하고 두 사람 몫으로 해서 다섯 마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기 분배받은 거예요?

유옥선 그럼, 논 다섯 마지기.

면담자 스무 마지기 뺏기고 다섯 마지기 받은 거네?

유옥선 스무 마지기뿐이야? 밭도 있고, 다 뺏겼지. 그리고 내가 우리 외갓집에 있는데 밭 1,500평 산 데서 밭은 많다고 500평 띠어서 딴 사람 주고 1,000평만 주더라. 8·15해방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야.

면담자 없는 사람들한테는 좋고, 있는 사람들은 뺏기고.

유옥선 있는 사람은 다 뺏기고, 없는 사람은 다 차지하고 그렇지.

면담자 인민위원회 생길 때, 여맹 활동 안 하셨어요?

유옥선 그때, 여성동맹이라고 있고, 청년 무슨 단이라고 있고, 그런 건 하고픈 사람들이 하는 거지. 강제로 우리에게 하라고는 안 해.

면담자 그 마을에도 있기는 했는데, 할머니는 관심이 없었네요?

유옥선 아휴, 여자들이 무슨 그런 걸 해.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면담자 그런 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거예요?

유옥선 아니, 거기 들어가면 빨갱이지 뭐야.

면담자 그땐 북한이니까 그 사람들이 실세를 잡고 그랬겠네요?

유옥선 세포위원장이니 뭐니, 다 뽑는데 빨갱이들이 다 한 거지.

면담자 그런 거 한 자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거 해야지 마을에서 힘을….

유옥선 왜? 빨갱이 소릴 왜 들어.

면담자 그때도 빨갱이 소리 듣는 게 안 좋았어요?

유옥선 거기서도 그때, 노동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었어. 민주당에 든 사람은 학대를 받고, 노동당에 든 사람은 우대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한다고 거길 들어.

면담자 그럼 할머니는 양쪽 다 안 하시고?

유옥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면담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해꼬지 하거나 이런 건 없었죠?

유옥선 그런 건 없었어.

면담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염성부락이 지금 말로 하면 읍내인가요? 아니면 완전 시골인가요?

유옥선 염성은 거기가 5일장이 서는 동네야.

면담자 그럼 좀 큰 곳이네?

유옥선 거기에는 면도 있고, 지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었어.

면담자 읍내네요.

유옥선 통천군에서 면이 우리 동네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크지.

면담자 학교 안 다녀보셔서 서운한 게 있으시겠네?

유옥선 서운하지만 뭐, 여태 못 배운 걸 어떡해. 계산은 하고 다니는데.

면담자 계산은 하시고, 아까 글씨 쓰셨잖아요, 글은 언제 배우신 거예요?

유옥선 그거야 뭐, 내 이름이라고 써놓은 거 봤으니까 그런 거지 뭐.

결혼과 철원 이주

면담자 할머니. 그럼 결혼은 21살에 하셨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중매로?

유옥선 중매로.

면담자 누가 중매 섰어요?

유옥선 그냥, 나 아는 사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그럼, 할아버지가 철원 분이셨네?

유옥선 할아버지는 고향이 여기(남한) 성남이야. 9살에 거길(철원) 들어갔대.

면담자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옥선 최말봉.

면담자 최말봉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몇 살 차이에요?

유옥선 나하고? 나하고 20년 차이지.

면담자 할아버니는 그럼 41살?

유옥선 그래. 우리 노인네(남편)는 먼저 할머니(전처)가 돌아가셨지.

면담자 사별하신 분이셨구나? 그럼 전처 애들도 있었겠네요?

유옥선 있었어. 6·25 때 두 명이 있었는데, 6·25 나던 해 겨울에 큰애는 폭격 맞아 죽고, 둘째는 여기 피란 나와서 인천서 살다가 10년 전(2002년 추정) 죽었어.

면담자 최말봉 할아버님은 원래 고향은 성남인데, 그때 철원으로 가신 거예요?

유옥선 9살 먹어서 철원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우리 시아버지가 남 보증을 섰다가 망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니까 여기서 안 산다고 형제들이 데리고 들어갔지.

면담자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형제분들끼리 집안이 망해서 철원으로? 그럼 철원에는 연고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유옥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철원) 가서 농사짓는다고 여기(남한) 살기 싫다고 철원 들어가서 산 거지.

면담자 그러면 여기 정확히 철원군 주소가 뭐예요? 그때 살던 시집온 주소가?

유옥선 몰라 나는. 철원군 예천리라고 거기 철원역 옆인데. 그래서 원산서 내려오는 기차 맨날 쳐다보고 그런 거지. 기차 철로역 앞이니까.

면담자 그럼 동네 사람이 소개시켜 줘서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몇 번 만나고 결혼하신 거예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다방에서 만나셨어요?

유옥선 거기 다방이 어딨어? 마실에서 왔다갔다 다니다가 그런 거지.

면담자 마실요? 통천하고 철원은 멀잖아요.

유옥선 아니지, 내가 철원 나왔었지. 내가 그때 철원을 왜 갔었냐면 이남으로 넘어오려고, 누가 온다고 그래서 따라온 거야.

면담자 이남 나오려고, 누가 나온다고 그래서 따라 나왔다고요?

유옥선 그래. 동네 사람들이.

면담자 왜 이남으로 나오려고 그러셨어요?

유옥선 그 집이 이남으로 넘어간다니까 나도 같이 따라 넘어간다고 좇아온 거지. 우리 수양어머니 수양아버지한테 가서.

면담자 할머니를 수양딸 삼은 수양어머니 수양아버지가 있어서?

유옥선 수양어머니 삼은 사람이 있었지.

면담자 그분 따라서 철원 나오신 거예요? 이남 나오려고? 그랬다가 소개로 할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그럼 수양어머니 되시는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유옥선 에휴, 그런 거 이야기 안 해.

면담자 그럼, 할아버지 만나서 그때는?

유옥선 농사짓고 살았지 뭐.

면담자 철원에서는 시집가서서 일 년 가까이 사신 거네요?

유옥선 철원서, 20살, 21살, 22살, 23살. 4년을 살았지.

면담자 20살에 가서가지고, 21살에 결혼하고, 22살 23살까지 사시다가. 그러면 전쟁 나고 그다음 해에 나오신 거구나.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은 분과 결혼하게 된 건가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유옥선 이남으로 넘어오려다 철원에서 걸렸다니까. 내가 통천서 그냥 "시집가라." 그래서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안 갈려면 네가 하도 극성을 떠니까 나가버려 뒤지든지 하라고 그래. "내가 죽으려면 못 죽어요." 그러고 나와 버렸어. 나와서 원산으로 왔어.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왔는데, 갈 데가 어딨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어떤 아줌마가 하나 있더라고. 애를 업고 나와서. "아줌마 오늘 저녁 잠자고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 그래서 "애기는 들어가서 하고 나 좀 재워 줘요."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 집에 영감이 그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배가 행방불명되어서 애만 셋을 데리고 그 할머니가 사는데,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색시를 들어오라 그런다고. 들어가서 "어디 식모 살 때 있으면 날 좀 해줘요." 그러니까 내일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숙 치는 집이 있더라고. 그 이튿날 거기서 자고 그 집을 데려다줬어. 하숙집을 갔는데, 어떤 여자도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 애 달린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며칠 안 있었는데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저기 어디 집이 있어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거길 갔지.

거길 갔더니 거기 두 노인네만 살아. 아들 하나는 북한으로 들어갔다나 어쨌다나. 거기서 사는데 그 노인네가 남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나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엄마 아버지 냅두고?" "우리 아버지 없고 엄마만 있어요." 그랬지. "나 데리고 가요." "너 내 수양딸 될래?" 그러니까 "그럼요 나 수양딸 될게요. 나 데리고 가세요 남쪽으로." "그래 가자." 그러고 거기서 서너 달 있다가 동짓달에 철원에 나왔어. 그 아바이(수양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거길 왔는데 그 집에 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양아바이 아는 사람이 빨갱이야. 근데 자기는 반가운 척을 하면서도 못 가게 연락을 다 해 놔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시장에 나가 돌아다녀도 뒤를 밟는 거야. 우리 수양아바이하고 수양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물에 물을 길러 나가도 감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수양아바이가 그러더라고. "애, 아무데도 못 가고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노인네(남편)가 주인네 집을 잘 아니까 들락날락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저기 하니까, 그러다 거기서 몇 달을 살다가 우리가 철원읍으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는데 거기를 자꾸 오더라고.

면담자 할머니가 마음에 드셨구나.

유옥선 자꾸 오고. 나는 그때 덩치도 크고 나이는 어려도 저기 했지. 들락날락하다가 어떻게 한 번은 자기는 홀아비인데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되냐고, 살기도 넉넉하다고 그러대. 가자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수양어머니가 "어차피 이남도 못 가는데 가라." 그러더니. 참 2년인지 1년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수양어머니 수양아바이도 못 왔어. 이남으로 못 넘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6·25가 바로 터지니까, 6·25 터지면서 그날로 다 헤어졌잖아. 그래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겠지 하고, 보고 싶고 그래도 의지하고 "어머이, 아바이" 하고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도 자식이 없으니까 반가워하고 우리 노인네(남편)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는데, 여기 피란을 나왔는데 우리 노인네가 또 원주서 살던 사람 하나가 여기 와서 사는데 안씨라고 형님이라 하고 우리 노인네를 찾아와서 술을 먹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앉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홍채복이라고 같이 철원서 살았는데 피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나와서 헤어졌다."고, "홍채복이라는 사람 아느냐?"고 그러니까 "알아. 그 우리 수양아바이인데요.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원주 있다." 그래. "아니 원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원주서 살 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거기 집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찾아갔지. 우리 막내아들을 데리고 서울역에 가서 원주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니까 두 노인네가 다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고, 서로 다니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워? 다니자는 게. 그렇게 해서 한 번 다녀오곤 몰라.

면담자 철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 많아서, 군이나 당국에서 사람들 감시 많이 했어요?

유옥선 그럼.

면담자 많이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유옥선 아니, 저기서 오는 사람이 철원을 거쳐서 안 오면 개성으로 오고, 그러지 않으면 금강산 그쪽에서 거쳐 내려오고 이러니까. 개성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지 뭐. 철원서 오다가.

면담자 북에서도 사람을 감시했군요.

유옥선 그럼 감시했지. 민주당·노동당을 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은 언제든지 감시를 했어, 못 오게. 그렇게 무서웠어. 노동당에 든 사람들은 아무 짓을 해도 감시를 안 하는데 민주당, 우리 노인네(남편)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지고는 맨날 감시받았어. 아휴 말도 말아. 그렇게 살다가 여기 나와서 그래도 애들 낳아서 장가가는 거 다 보고 살다가, 옛날얘기야.

6·25전쟁 발발의 기운

유옥선 내가 22살 먹었을 적에 우리 친정을 갔어.

면담자 21살 때 시집을 가서, 22살 때요?

유옥선 2월 열이튿날(양력 3월 30일) 친정을 갔어.

면담자 왜요?

유옥선 친정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갔다가 2월 그믐날 왔어.

면담자 2주 넘게 계셨네요?

유옥선 20일을 못 있었지, 열이튿날 가 있다가 오는데 우리 동생이 "언니 내가 집까지 따라갈까?" 그래서 "가려면 가자." 그래서 내 동생을 데리고 왔어.

면담자 누구? 옥순이를?

유옥선 아니, 옥춘이를. 데리고 와서 한 달을 있다가 보냈는가. 왜 보냈는가 하면 개가 오고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 집이 철로 옆에 있었는데, 자는데 밤중이면 기찻소리가 나면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라고.

면담자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유옥선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보름 동안을 나더니, 내가 우리 동생을 보고 "야 너 가라. 엄마 있는 데로 가라." 밤이면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난리가 난다." 그랬더니, 한 20일 넘으니까 대낮에 탱크, 장갑차, 군인이 막 들어오는 거야.

면담자 그게 6·25였군요?

유옥선 막 그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우리 동생을 친정으로 보낸 거야. 내가 데리고 있다가 어머니도 못 보고, 우리 어머니도 딸 둘을 못 보면 얼마나 저기 해. "가라. 그냥." 암만 해도 난리가 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우리 동생을 보냈는데, 우리 돌아가신 노인네(남편)가 데려다줬어. 데려다주고 한 열흘 있다가, 아니고 닷새 있다가 오더라고. 와가지고 모내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 열하루(실제로는 5월 10일)가 전쟁이 난 날이야. 양력으로는 6월 25일 날이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모를 냈는데, 아침에 내가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 "긴급뉴스, 오전 10시에 급헌(속보) 뉴스를 하니까, 라디오 있는 사람은 라디오를 틀어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를 내니까 일꾼들 밥을 해다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밥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놨어. 그랬더니, "긴급뉴스, 괴뢰군이 의정부서 어디까지 쳐들어와서 김일성 장군님이 긴급명령으로다가 우리 인민군 의정부 어디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더만.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난리 났어요, 전쟁 났대요. 여기 인민군들이 이남으로 막 쳐들어가고 의정부를 지나갔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술렁대고 야단들이지 뭐, 그 야단 통에. 나는 밥을 해다 주고 왔는데 저녁때 한 4시쯤 됐는데 막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대못만한 따끔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아이고,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는데 비행기 한 채가 남쪽에서 떠서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더니 우리 지붕으로 지나가는데 차츰차츰 가더니 여기서 저기만큼 가더니 거꾸로 박히더라고. 내가 그걸 보았지.

면담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유옥선 그래서 비행이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저 비행기가 왜 떨어졌지? 저게 이북에서 온 건가 이남서 온 건가?' 그냥 그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정부까지 쳐들어갔을 적에 비행기가 그대로 와가지고 삐라를 뿌리고 돌아가다가 비행장을 못 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떨어졌어.

면담자 북한 비행기였구나. 북한 비행기가 삐라 뿌리고 돌아가는 길에 추락한 거네요?

유옥선 거기서 고장 나서 떨어졌어. 그런데 사람은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 비행사도 안 죽고, 거기 두 사람이 탔는데 … 그게, 한꺼번에 콱 떨어진 게 아니잖아. 차츰차츰 이렇게 밀어가더라고. 그러다가 논 벽에 콕 박았지. 그러니까 안 죽었어.

면담자 그 비행기를 할머니가 직접 보신 거예요?

유옥선 그럼, 나 이렇게 해서 머리맡을 쌩하고 오니까,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차츰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떨어졌다고. 조금 있으니까 내무서원들이 앵앵거리고 거기를 올라가더니 그날로 비행기를 다 뜯어 갔어.

면담자 다 뜯어 갔어요? 뜯어서 뭘 하려구요? 고물상에 팔려고 그랬나?

유옥선 팔라고 그런 게 아냐. 이북 비행기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뜯어 간 거지.

출산과 미군의 철원 폭격

면담자 전쟁 나고 그 이듬해에 피란 나오셨는데 언제 나온 거예요? 몇 월 달쯤에?

유옥선 내가, 그때 6·25 나던 해. 임신하고 있다가 애기를 낳았어.

면담자 6·25 나던 해에 큰애를 낳았네요?

유옥선 큰아들이지. 지금 살았으면 63살이야. 그 애를 가져가지고 철원에서 농사짓고 그랬으니까, 음력으로 7월 스물여샛날(양력 9월 8일) 그걸 낳았어, 장남을. 낳았는데 그 애 낳고 나흘 만에 이남 비행기가 와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고 피란을 다 때려부신 거야. 꼬리뼈가 3개짜리 있지? 큰 비행기. 그거 3대가 들어와서 철원을 부서놓고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있다가 3대가 또 들어와서 철원을 쑥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면담자 B29예요?

유옥선 그래, B29라 그러더라고.

면담자 그러면 낳고 얼마 안 돼서 그랬다구요?

유옥선 나흘 만에.

면담자 나흘 만에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옥선 그래서 안고 피란을 떠난 거야. 말도 말아. 내가 그 애를 스물여샛날(26일) 낳아가지고, 옆의 집 할머니가 와서 잡곡밥을 해주고. 개를 새벽 2시 반에 낳는데 날이 밝아오니 아침에 조반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래 내가 두레박을 들고 저기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면담자 애 낳고 바로?

유옥선 그럼, 애 낳고 세 시간 만에.

면담자 아니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유옥선 다른 사람 누가 있어? 비행기가 와서 불 지르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해서 밥 해 먹고 살았네.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안 돼.

면담자 애기는 집에서 낳으시고?

유옥선 집에서 낳았지, 그때 병원이 어딨어. 나가면 비행기가 때려부시는데.

면담자 그렇겠네요. 그러면 누가 애기를 받아줬어요?

유옥선 옆의 집 할머니가 받아 주고, 잡곡밥 끓여 주고 아침에 날 새니까 도망가 버렸다니까.

면담자 그래서 혼자 3시간 후에 물 길러가지고?

유옥선 3시간 만에 걸레 차고 나가서 물 두레박 가지고 문 밖에 저만큼 떨어져 우물이 있는데, 물 길어가지고 밥 해 먹었어. 지금 사람들 몰라. 우리 며느리도 모르고 딸들도 몰라. 내가 이 소리를 안 하니까. 개네가 애 낳았을 적에 내가 고생한 생각하고 한 달씩 밥해 주고 빨래 빨아주고 그랬어.

면담자 딸들 애 낳을 때는?

유옥선 딸도 애 낳고, 며느리도 애 낳았을 때.

면담자 그때 그 생각 때문에?

유옥선 산구완(산모를 돌보는 일)이란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6·25 때 뭐 별수 있어? (웃음)

면담자 나흘 만에 그렇게 피란을 가신 거예요? 큰애 업고?

유옥선 그럼, 개를 낳은 다음 날 아침에 물을 길러다 밥 해 먹고, 물을 퍼다가 기저귀를 빨려고 앉았는데, 비행기가 또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 아침에 한 9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걸레를 빨다가 이렇게 뒤를 내다보니까 역전 기차 철로길을 따라서 서울서 그거 (비행기) 세 대가 들어왔어. 내가 애기를 방에다 뉘어놨는데, 저 비행기가 어디를 폭격하려고 들어왔나 하고서는 빨던 걸레를 놓고 문턱을 막 넘어가는데 시커멓게 생긴 폭탄이 비행기 뒤에서 막 쏟아지더라고. 애를 끌어안으려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와서 문턱을 두 개를 넘어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첫 문턱 넘는데 비행기 뒤에서 그거(폭탄) 쏟아지는 걸 보고 넘어서는데, 타탕 소리가 커지니까 내가 엉겁질에(엉겁결에) 어디 가서 숨은지 알아?

면담자 어디?

유옥선 옛날 집들 보면 부뚜막이 있으면 다락이 있잖아? 그 부뚜막, 솥 엎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놓은 거기 가서 머리만 감추고 있다가 일어났어. 얼마나 우스워 그게. 아니 꽁맹이를 치면 살고, 머리만 살면 사는 거야? 사람이 저기하면(무서우면) 다 머리만 디밀더라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철도역의 연탄 갖다 쌓아놓은 거, 거기다가 (폭탄) 퍼부어가지고.

면담자 그게 역 근처라 그랬구나. 역 근처라 폭격이 많았네요.

유옥선 갖다가 퍼부니까 그 폭풍으로 연탄재가 날아와서 문짝도 떨어져 달아나고 마당에 나가니까 쇠가 이만큼씩 파편 깨진 게 떨어져서 마당에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보니까 애가 그래도 거기서 자더라고. 연탄가루가 묻어서 새까맣게 되었는데도…. 물을 떠다가 수건을 적셔서 얼굴 닦아서 주고. 그런데 빨리 나가라고 바깥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그 애를 혼자서 안고 대문으로는 못 나가고 우리 소가 있었는데, 소가 뿔질을 해서 외양간에 구멍을 이만큼 뚫어놨는데, 그곳으로다가 나갔어.

면담자 외양간으로 해가지고

유옥선 그때, 우리 인천서 살다가 죽은 애(전처 둘째 아들)는 중학교 간다고 가고. 우리 노인네(남편)는 소 끌고 일 간다고 가고 나 혼자 있다가 그 애를 안고, 이를테면 여기서(남수동 쌀가게) 저기 용두각(방화수류정) 있는 데만큼 내가 애를 안고 갔어. 논 들판으로. 가니까 우리 애기 받아 준 아주머니의 작은동서가 나랑 동갑짜리가 있었어. 그 사람도 애를 가져서 배가 이렇게 불렀어. "길성 엄마 우리 작은아버지 집이니까 저기로 들어가." 그러더라고. "내가 뭘 잊어버리고 갔으니까 내가 그거 가져갈게."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들어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사람 들어오는 거 보면 비행기가 여기를 폭격한다고. 그래서 애를 안고서 내가 둑에 그냥 서 있었어. 한참 있더니 그이가 또 오더라고. "왜 길성 엄마 안 들어갔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랬더니 들어가면서 "작은아버지, 왜 애기엄마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올까 봐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아휴, 누군지 알아요, 길성이 엄만데." "어 그래?"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를 안고 들어가서 애를 끌어안고 쪼그리고 앉았어. 10시쯤 되어서 그 집을 갔는데 종일 거기 앉아서 밥도 못 먹고 거기 앉았는데 3시쯤 되니 배가 고프더라고. 3시인가, 4시 된 때인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죽어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서는 애를 안고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가다가 역전을 쳐다보니까, 까만 옷 아래위로 입은 철도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논 벌판으로 내뛰더라고.

면담자 피란 가는 거요?

유옥선 그래서 '아니, 비행기 소리가 안 났는데 철도국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역전시장이고 여기는 기차 철로길이고, 이쪽은 논, 벌판이 있었어. 그런데 가는 걸 보니까 집으로 다 가는데, '저건 집에 못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애를 안고 바로 돌아서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막 앉았는데 비행기 소리가 어디서 "웅" 나더라고. 나더니 시커먼 비행기 3대가 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애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떨어진 데를 내다보니까, 우리 동네 기찻길 역전에다가 퍼붓는데 말도 못 하겠더라. 폭탄 퍼붓는데 그렇게 퍼붓는 건 나밖에 못 봤을 거야. 그리고서는 한참 있다가 저녁때, 5시나 이렇게 됐으니까 해가 그때까지 있었어. 에이 집으로 들어가야지. 집으로 오는데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그냥. 뭐 식구가 다 죽었다고 울고. 거기서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하면은 처음 폭격 때렸을 적에, 내무서원 놈들이

복구사업 나오라고 그래. 복구사업 하러 삽 들고 괭이 들고나오라면서 집집이 다니면서 사람 있는 거 다 끌어내 갔어. 그 구덩이 묻으려고. 그때까지 기차 철로길이 안 망가졌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복구하러 간 거야, 그 사람들이 논밭에 있었으면 사는데 기차 철로에서 역전시장으로 뛰었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역전시장에다가 폭탄을 갖다 퍼부었어. 그래서 기차 철로길이고 뭐고 거기가 쑥밭이 되었어. 그때 사람 한 2,000명 죽었다고. 아주 역전 사람 다 죽었어.

면담자 다 미군 비행기인 거죠?

유옥선 남한 비행기지. 이북 비행기는 그때 삐라 뿌리고 돌아가다 하나 떨어진 것만 보고 못 봤어.

면담자 북한 비행기는 별다른 게 없었고, 남한에서 B29가 많이 와서?

유옥선 그래, 그렇게 쑥밭 만들어 놓은 거야. 하루는 이렇게 철로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에서 빨갱이 놀음하던 그 사람들이 이북으로 들어간다고 기차 도로코(トロッコ, truck, 화차)가 섰는데, 기차 도로코가 열 댓 개 됐더라고. 거기다 사람 가득 싣고 들어갔어.

면담자 서울에서 온 기차가?

유옥선 서울에서. 응, 서울에서 이제 기차가 들어가는데, 기차가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폭격하기 며칠 전이야. 그 뒤에 한 십 분 되니까 색색이 단 비행기 있지? 그 비행기 4대가 쫓아 들어오더라고. 쫓아 들어오더니, 지금 샘통이라는 관광단지로 가. 그 사람들, 간 사람들 색색이(비행기) 4대가 가서 다 죽여 버렸어. 거기서 비행기 폭격할 때 여기서 4대가 들어오지? 난 그런 거 거기서 많이 봤어. 4대가 정한 장소에 오면 비행기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 비행기가 들어갔다 올라서면 이 비행기가 들어가고, 그 전에 이 비행기가 서로 늦게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 쑥밭을 만드는 거야. 우리 집도 폭격으로 탔어. 돌을 갖다 던지고, 눈이 당산 같이 오는데 그냥 거기다 (폭탄을) 갖다가 퍼부으니까. 그냥 물에서도 타고, 눈에서도 타고 그래. 그런 데서 내가 살아 나온 거야. 우리가. (웃음)

면담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를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폭격 피해와 방공호 대피

유옥선 그래서 피란을 나와가지고, 개울에 방공호를 파고 방공호에 가 있었어.

면담자 개울가 방공호에? 애 낳고 나흘 만에 간 거예요?

유옥선 그래. 방공호를 파고 가서 있다가, 우리 동네 전체가 다 나갔어. 방공호 파고 죄다. 여기도 이르면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 위에다가 이제 이만큼씩 파놓고 가마짝으로 덮고, 비행기가 오면 못 보고 지나가게. 비행기 소리만 나면 다 기어들어 가서 앉었지.

면담자 방공호는 한 번씩 들어가면 하루 정도 있나요? 몇 시간 정도 있나요?

유옥선 방공호 들어가면 거기서 밥 해 먹고 거기서 자고 그러지. 그렇게 지내왔지. 집은 안 나오고.

면담자 그럼, 방공호는 총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때?

유옥선 그거는 자기 짓기 나름이지. 자기네 식구가 간단하면 네 식구 다섯 식구 두 식구라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네 식구니까.

면담자 할머니들 식구끼리만. 따로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구나.

유옥선 그거 아니면 마을에서 크게 파놓으면, 각자가 파는 거야. 자기네 식구대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그럼 4명이라는 건 누구누구예요? 식구 네 명이라는 건?

유옥선 우리 부부하고 인천 가서 죽은 아들하고, 내가 낳은 아들하고.

면담자 큰아들이 6·25 폭격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거예요?

유옥선 비행기가 밤에 폭격을 한 거지.

면담자 언제? 6·25 때?

유옥선 6·25 때 그랬지. 한창 들볶을 때, 6·25 나고 그해 동짓달에.

면담자 그해 동짓달이면 12월?

유옥선 음력으로 12월이지.

면담자 그때도 폭격이 많았어요? 그 겨울에도?

유옥선 폭격 안 하는 날이 없었어. 폭격을 해서 우리 집 탈 적에도 눈이 강산같이 오는데도 (폭탄) 갖다 던져가지고, 한 70여 가구가 그날 다 타버린 거였지.

면담자 1·4후퇴 때인가요?

유옥선 그때 한창 전쟁할 때지.

면담자 큰아들은 어떻게 하다가 폭격을 맞았어요?

유옥선 집에 있다가 폭격 맞았지.

면담자 다른 분들은 집에 없었어요?

유옥선 우리 조카며느리, 딸들 둘, 조카딸에 동네 사람 멸살(滅殺)을 했어. 그날 다 죽었어. 우리 집안에서도 일곱이 죽었어. 폭격을 해가지고.

면담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네요.

유옥선 그래, 내가 애를 낳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 비행기가 오고 방공호 판 데로 가서 애를 끌어안고 이렇게 엎드리지. 그런데 방공호 판 데가 요만큼밖에 더 돼? 그런데 애가 자꾸 울어. 그래서 내가, "죽어라 너. 너 죽으면 엄마도 눈 감고 죽는데, 너를 두고 죽으면 내가 눈을 못 감고 죽어." 내가 이런 소리를 수천 번을 했어.

면담자 애기한테 직접요? 속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직접?

유옥선 그럼, 애기를 보고. 듣는데 그랬어. "너 나보다 먼저 죽어. 나는 네가 죽으면 다리를 뻗고 죽지만 내가 너를 두고 죽으면 …." 그것도 봤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이 애 낳고 집에 있다가 엄마가 죽으니까 그 갓난쟁이들을 어떡해. 그런 걸 보니까.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 그 이듬해 3월 달에 염병이 동네에 돌아서, 염병을 앓아서 식구들이 죽는 거야. 나는 우리 이웃집 할머니, 앞집 뒷집서 내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다닌 어머니가 있었는데, 우리 방공호 판 데로 그 어머니가 나왔어. 다섯 식구를 데리고. 같이 밥을 해 먹는데 염병이 걸렸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에미야 나 방공호 파고 따로 나가야겠다. 애들이 암만해도 염병이 걸렸어." 그래서 우리 방공호 옆에다가 방공호 파서, 돌아가신 노인네(남편)가 같이 파서 그 다섯 식구가 나갔어. 동네 사람들이 나 보고 염병 앓는 집에 드나들고, 물 길어다 준다고. 자기도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런데 그 집에 물을 길어다 주느냐 이래. 그래서 내가 길어다주고 싶어서 길어다주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 노인네들을 굶어 돌아가시라고 그냥 놔둬요?" 그랬어. 우리 식구는 그래도 염병 하나도 안 앓았어. 나 보고 욕한 사람들은 염병 일주일만 앓으면 죽었어, 그때는.

면담자 약 같은 건 안 받았어요?

유옥선 약이 어딨어? 난리 통에 다 쫓겨 가고. 한 달 동안에 방공호 파고 있는 남자 여덟 일곱 명이 죽더라. 그렇게 죽어.

면담자 3월 달인데 그렇게 염병이 돌았어요?

유옥선 내가 "아바이, 아바이" 하면서 같이 다니던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 같이 피란 나와서 전라도 전주 가서 살다가 그 집은 원주로 가고 우리는 이리(수원)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조카딸이 원주에서 살았는데, 잔치한다고 해서 가니까 포목 가게를 하는데 광목을 열한 마 잘라서 주면서, "에미야, 내가 머리털을 뽑아서 에미 짚신을 사다 줘도 신세를 못 갚고 죽는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북에서 에미한테 신세진 생각을 하면 신세를 다 못 갚고 죽는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원주 가고 거기서 우리 집 오고 그렇게 하다가 두 노인네가 다 돌아가시고, 그 집도 큰아들이 미국 들어가서 의사가 됐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답이 없어.

월남 경위

면담자 피란은 언제 나오셨어요?

유옥선 그 이듬해 5월 단옷날(양력 1951년 6월 9일) 나왔어.

면담자 왜 그때 나오신 거예요?

유옥선 그때, 막 총소리가 나는데, 여기 국군들이 포를 쏘니까. 거기 방공호 파서 거기서 살았었어. 포를 치면(쏘면) 강을 넘어가서 떨어져. 그러니까 국군들이 여기 임박해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이제 전쟁터가 되겠다.' 하고선 그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군인들이, 깜둥이들이 철원역전에 트럭으로 들어와 있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 어떡해. 애를 뒤집어 업고 옷 대강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건 줄 알았지. 한 일주일만 있다가 들어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항아리에 옷이고 뭐고 다 묻어놓고, 벼 가마는 도랑에다가 집어넣었어. 커다란 나무가 있는 데 갔다 와서, 벼는 썩지를 않는다고, 들어오면 그거 꺼내서 널어 말려서 방아 찌서 먹으려고.

면담자 못 들어올 줄도 모르고, 그렇게 ….

유옥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데, 우리 기차 철로를 넘어서는데 검둥이들이 씹 있어? 씹 있어? 이런 소리를 해. 본척만척하고 애를 업고 사람들이 깜둥이 비켜서 철원으로 철원역전으로….

면담자 그때 4명이 나왔겠네요, 집에서?

유옥선 4명이 나왔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 거기 강이 있는데, 그 너머는 인민군들이 진격해가지고 있고, 이쪽 철원역전에는 미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틈바귀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 못 살지. 그러니까 그냥 누가 빨리 후퇴하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철원읍으로 와가지고, 우리 큰집이 거기 사는데 들어가서 그날 저녁을 하룻저녁 잤어. 자고서는 다음 날 나와가지고 5월 단옷날 우리 만동서님이 그러더라고. "동서도 빨리 나가. 나가면 거기 차가 와서 있다가 피란민들 싣고 간대." 그래가지고서 나와 보니까 깜둥이 차가 트럭들이 있더라고. 타라고, 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올라탔지 뭐야.

면담자 트럭은 몇 명이나 탔어요?

유옥선 군인 트럭이니까 크잖아. 거기 사람이 한 열댓 명씩 이십 명씩 탔지. 그래서 타고선 의정부로 왔어.

면담자 철원에서 의정부까지? 철원에서 의정부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유옥선 몰라 그건. 의정부까지 왔더니, 한나절이 넘었어.

면담자 아침에 출발해서?

유옥선 아침에 조반 먹고 나왔으니까, 한 10시쯤 나와서 탔었어. 의정부 왔는데 깜둥이들이 내려놓고는 기차 도로코 짐 싣는 차 있잖아. 거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로 들어가라 그래. 거기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짐짝 싣듯이 실어가지고는 그 차가 의정부역에서 서너, 너덧 시간 있다가 떠났는데, 어디 와서 서는지 알아? 용산 와서. 용산 와서 서서 하룻저녁을 잤어.

면담자 용산에서 하루 잤어요?

유옥선 하루 자는데, 밥을 가는 날 아침에 먹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거기서 자지. 근데 세상에 차가 안 가지. 그때 쌀은 가지고 나갔거든. 물이 어디 있어야 해 먹잖아. 아무럼 이런 양재기라도 있어야 밥을 끓여 먹을 텐데, 못 끓여 먹잖아. 그래서 그냥 굶고 있었어. 근데 애기는 배가 고프니까 자꾸 울고, 젖은 안 나오니까. 내가 먹어야 젖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날이 훤하게 샜더니 해가 중천같이 뜨니까 기차가 그때서 떠나더라고.

면담자 기차 안에 전부 다 있었겠네요?

유옥선 전부 기차서. 용산서 수원역에 들어와가지고, 한나절 넘어서 수원역엘 왔어. 기차가 안 떠나. 이거, 밥을 해 먹을 데도 없고 사먹을 데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밥을 사먹을 데도 없겠지. 또, 물이 없으니까 쌀을 가져가도 밥을 못 해 먹잖아. 근데 애는 자꾸 울고. 그러니까 인천서 십 년 전에 죽은 아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엿을 이만큼, 누가 피란 나가면 먹으려고 가져왔나 봐. "우리 애기가 젖이 안 나와서 우는데 그 엿 좀 안 줄래요?" 그러니까 요만큼 떼서 주더래. 그래서 주니까 그걸 입에다 갖다 대니까 그게 달작지근하니까 애가 막 빨지 뭐야. 빨길래 내가 뺏어가지고는 인천 큰아들 보고 너 먹으라고, 애기 목구멍에 넘어가다 걸리면 기차간에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엿을 먹고 목이 타니까 또 그냥 울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또 물을 조금 얻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대니까 빨딱빨딱 물을 마시니까 또 설사를 하네, 차 안에서. 죽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지. 그러다 수원역에서 와서 대전역에 가가지고서 차에서 이틀째 날을 잤어. 대전역에 가가지고 차가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안 떠나. 밥을 먹을래야 밥도 해 먹을 수도 없고, 다 식구들이 굶었지. 그러더니 이튿날 자고 사흘 되던 날, 낮에 그냥 기차가 그렇게 늦게 가는지 몰라. 그래서 간다는 게 전주역에 가서, 그때가 한 4시나 됐나 봐. 거기서 내려놨는데,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 중 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소독을 하는데, 소독약 냄새가 나니 애를 포대기로 싸 뒤집어쓰고 비켜서 나왔는데, 역전에 가니까 역전에서 이만큼 나와 앉아서 저기 우물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같이 피란 나온, 내가 어머니 어머니 하던 분에게 "어머니 우리 여기서 밥 해 먹고 갑시다. 여기 소금하고 된장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 앞에 한 집이 있길래 "아줌마 두레박 좀 빌려줄래요? 우리 여기 쌀 좀 가져왔는데 밥 좀 해 먹게, 사흘 나흘을 굶었어요." 그랬는데 안 줘. 많이 잃어버렸다고 안 주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애기 두벌 떠가 길잖아. 두벌 이렇게 둘러서 매는 거. 거기다가 군인들 한구통(식수통)이 있었어.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뜨니까 물이 떠지더라고. 거기서 쌀을 씻어서. 지금 쌀은 돌 없지? 그때 쌀은 돌 많았어. 그런데 애들 보고 "니네들 가서 나무 좀 해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같이 간 어머니네 애들도 둘이나 셋이나 될까. 나무 떼기를 요만큼씩 꺾어왔더라고. 그걸로 돌가마로 밥을 해가지고 된장을 꺼내놓고, "된장 먹기 싫은 사람은 소금 먹어라." 그러고. (웃음) 거기서 한 숟갈씩 먹으니까, 굶었다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 녹초가 되

더라고.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가자." 그러더라고. "어디로 가요?" 수용소로 가재. "수용소가 어디예요?" 오라는 데로 따라가면 된대.

전주피란민수용소 생활

면담자 수용소?

유옥선 수용소라고 그래. 가서 수용하고 있을 데. 그래서 애를 업고 짐 보따리를 들고 걸어서, 걸어서. 애는 업으니까 죽겠다고 울지, 안 업히려고. 죽겠다고 울지. 그래서 여기서 아마 걸어가기가 경계선 방죽 밑만큼 걸어가나 봐. 전주역에서 내려서 그게 옛날에 왜정 때 왜놈들이 고추실 뽑는 제사공장이야. 그 공장에다가 기계를 바깥으로 내놓고선, 마당에는 내 키로 한 키씩 자란 풀을 낫으로 잘라서 길만 내고, 가마짝을 뜯어가지고선 거기다가 안에다 쫙 깔아놨더라고.

면담자 가마떼기 같은 걸 깔아 놓은 거예요?

유옥선 가마떼길 뜯어가지고 쫙 다 깔아놨어. 사람이 한 300명 들어가는 그런 홀이 4개인지 5갠지 그랬어. 제사공장 그 실 뽑는 데니까 공장이 크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휴 모르겠다.' 가마짝 깔아놓은 데 가서, '죽으나 사나 여기서 죽자.' 그러고 애를 내려놓고 가서 드러누웠어. 우리 세 식구 가마 2개 깐 데로 가서 누웠어. 그러고 드러누우니까 우리 아들도 드러눕고, 우리 애기도 뉘어놓으니까 그냥 자더라고. 근데 한참 있으니까, 밥을 이만큼씩 뭉쳤더라고. 뭉치밥을. 전라도 전주 사람들이 피란민들이 여기 몇 백 명 들어오니까 밥을 해가지고, 가마솥 큰 거를 몇 개를 걸고 그 안에 들어와서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한 그릇씩 담아서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다깡(단무지)을 쭉쭉 쪼개서 몇 개씩 해서 그냥 얹었는데, 여자들이 갖다가 나눠주고 가더라고. 밥은 거기서(전주역전) 먹었으니까 무슨 밥을 먹어. '에휴 모른다.' 그러고 요만한 그릇에 담아서 덮어놓고 '내일 아침에 먹지.' 그러고선 잤어. 골아떨어져서 자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밥을 또 그렇게 가져왔더라고. 우리 갓난쟁이 돌도 안 지난 아이 밥을 가져왔는데, 그게 밥을 먹어? 그래서 내가 밥이 남길래, 누가 이거 밥 적은 사람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전라도 전주 사람들이 삼시를 해줬어.

면담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밥을 해줘요? 그 공장 직원들이에요?

유옥선 이를테면, 봉사지. 봉사활동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지사가 불쌍한 피란민들이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거둬야 한다 했대요. 도지사가 우리 거기(수용소) 있을 적에 저기 하다가 차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피란민들이 얼마나 슬퍼했는데.

면담자 근데 그건 전라북도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렇게….

유옥선 나라에서 주는 건데, 여기 온 사람을 굶기지 않고 먹여야 한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나가서 밥을 해서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거기 가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그런 게 안 나왔지.

면담자 그러면 그 제사공장은 일하러 간 게 아니라 피란민들 모여 있는….

유옥선 왜정 때 하던 건데, 공장이 비어 있는 걸 기계를 바깥으로 내놓고선 거기를 뜯어서 가마짝을 쳤지.

면담자 피란민수용소네요?

유옥선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한 500~600명씩 거기 들어갔지. 이동 저동, 한 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 200명씩, 150명씩 차지를 하고 들어갔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동은 몇 개나 있었어요?

유옥선 몰라, 그 한 서넛 개. 네 갠지 다섯 갠지 있더라고. 그때 서울서 나온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 이북서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서 나온 사람들도 거기들 다 들어갔어.

면담자 애초에 전주로 가게 된 건, 기차가 가는 대로 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무조건 전주에서 내린 거예요? 그 전에 대전이나 수원에서 내린 사람 없었어요?

유옥선 도중에 어디서 내려. 내리라는 명령이 없는데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의정부역에서 기차 타고 용산 와서 하룻저녁, 수원 와서 하룻저녁 자고, 대전 가서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떠났으니까.

면담자 그러면 그 관리하던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이에요?

유옥선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겠지. 타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다 내려놔라. 이 근처 내려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차를 탄 사람은 다 실어놓고, 그다음에 기차로 못 떠나고 트럭으로 떠난 사람은 광나루(천호동), 그 광나루에다 갖다 놓은 거야. 우리 큰집들은 자동차로 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놔서 광나루 와서 떨어졌어. 의정부 와서 우리 기차 탄 사람들은 전라도 전주, 무슨 어디로 다 분산시켜버리고.

면담자 그러면 여기 제사공장에는 몇 달이나 있었어요?

유옥선 5월 단옷날 그래서, 여드렛날(8일) 거기 들어갔어. 5월 초여드렛날, 음력으로. 거기 들어가서 5월 한 달,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 6개월을 살았나 봐. 10월 달에 여길 올라왔으니까 거기 갔다가. 거기서 애 죽고.

전쟁통에 홍역으로 앓다 죽은 아들

면담자 애 죽었어요?

유옥선 거기 가서 죽었어. 홍역 하다가 뒤끝에 폐렴이 있어서 죽었어.

면담자 돌은 지나고?

유옥선 7월 스물여섯날(26일)이 돌이라서, 이웃 사람들끼리 밥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네(남편)가 사진이나 한 장 찍어 준다고 업고서 전주 시내에 나가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홍역을 했는데, 홍역 뒤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10월, 음력 9월 초엿새날(6일) 죽었는데, 초나흘 날 우리 노인네(남편)가 생선이라도 해서 판다고 군산에 갔는데 그때 애가 많이 아팠어. 홍역 하고 나서.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애가 암만해도 못살 것 같아요. 가지 말아요.'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한 11시쯤 미국 병원, 미국 사람들이 나왔더라고. 수용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있어. 그 전에 이렇게 우리 애를 들여다보더니, 한국 사람이 개 데리고 병원으로 입원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 타면 간다고. 그러더니 수용소를 다 돌더니, 저녁 6시? 5시? 3시 반 됐나 봐. 그러더니 애를 업고 가자고 그러더라고. '오늘 저녁에 못 넘길 것 같은데 애를 업고 가야 되나? 여기서 애가 죽으면 그냥 저기 해야 되나?' 이런 걸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미국 병원인데 데리고 가 봐." 그래. 그래서 그것도 안 가다 죽으면 저기(후회) 할까 봐 그거를 업고 갔어.

거기 가니까 해가 떨어지더라고.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갖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다 내려놓으니까 바깥이 컴컴하더라고. 그것도 저녁을 굶었어. 내가 아침에 점심도 굶고. 애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서 갔는데, 그럭저럭 하다가 음력으로 9월 초나흘날(4일)이면 해가 그때 많이 짧아졌을 거 아냐. 그런데 애를 갖다가 침대에 뉘어놓고 앉아서 들여다보고, '아무래도 애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이걸 업고 도로 거기로 가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12시가 넘고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잖아. 그 사이렌이 불면 못 나가잖아. 진작 갈 걸. 4시나 돼야 해제 사이렌이 나는데. 그 해제 사이렌 날 때만 바라는 거야. 이렇게 애를 들여다보고, 개 이름이 화성인데, "화성아, 죽지 마라. 니네 아버지 좋아했는데, 니네 아버지 보고 죽어." 내가 그랬는데, 애가 눈을 번쩍 뜨더라고. 번쩍 떴다 스르륵 감고 스스륵 감고. 이렇게 보니까 애 목도 뻣뻣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빨리 애를 업고 집을 가야 하는데, 내가 왜 병원을 와갖고. 업고 가서 나 있는 데 가서 죽어야 내가 갖다가 파묻지. 그래서 한창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해제 사이렌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7살 먹은 애가 밤에 죽어서 울고불고하더라고. "아줌마 나 애 좀 업혀 줘요." 그랬더니, 애를 번쩍 들었는데 애가 고개도 흔들지 않아. "애기가 목이 굳었어요."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가서 죽을 거예요. 나 있는 데 가서 죽으면 지 아버지가 가서 묻어 줄 거예요." 그냥 그거를 업고 거기서부터 울면서 '내가 안 따라올걸, 왜 따라와서' 이불 가지고 갔던 거, 다 내버리고 애만 둘러업고서 그냥 업고 왔어. 산길 안쪽에 솔밭 쪽인데 그냥 거길, 이 길로 가면 봇도랑이 있더라고. 전주시에 큰 봇도랑이 있어. 그거 건너가는 생각이 나서 봇도랑만 찾아가면 내가 있던 데를 찾아갈 텐데.

허둥지둥하고 오니까 5~6시가 못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 있던 데가 여기서(남수동) 이르면 북수동 거리만큼 돼. 사람들이 나무 해가지고 팔아먹느라고 새벽 벌판으로 나가 거기서 불을 때는 게 번쩍번쩍하는 거야. '내가 다 찾아왔구나. 지 아버지가 왔나.' 하고선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혼자 자더라고. 15살 먹은 애가 거기서 혼자 자더라고. "아버지 안 왔니?" 하니까 안 왔대. 에이, 어쩌면 자식이 죽을라고 그래서 모진 말로다 "애 죽을 것 같아요. 가지 말아요." 소리를 못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가서 금세 갔다 온단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고 오니." 그러고선 애를 뉘어놓고, "이제 너 여기서 죽으면 엄마나 니 아버지가 갖다 묻어 줄 테니까 편안히 죽어라." 이러고선 애를 뉘어놓고 쌀을 씻어서 돌아마 거는 데 가서 밥을 해서 갖다가 놓고 아들에게 "너 먹어라." "엄마도 밥 잡숴요." "아이 난 싫어. 안 먹어." 내가 네 끼를 굶었나 봐 그 애 때문에. 그리고 애한테 가서 "죽지 마라. 니 아버지 오면 죽어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들여다보고 울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울지. "너 왜 죽을라 그러냐."고, 동네 사람한테도 애가 그렇게 칭찬받고 그랬는데 왜 죽을라 그래, 그러면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냥. 저녁때 3시쯤 돼서 눈을 감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피란 나간 집들이, 같이 간 5~7집이 한데 가서 떨어졌어요. 그이들이 우리 앞집 뒷집에 살던 노인네였는데, 내가 그냥 "아바이, 어머이" 이랬어요. 그네들이 오더니 "에미야, 애 싸서 저기 빈 방이 있어. 애들 죽으면 거기 갖다 놨다가 갖다 묻더라. 사람들 많은 데 놔둘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묶어다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옷감) 한 피를 끊어 놓은 게 있었어. 그거를 주면서 "여기다가 감아서 갖다 놨다가 묻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다가 보냈지. 그리고 옷 같은 거 입던 걸 다 갖다 태우고.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물을 퍼먹던 띠를 태우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태우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애 띠. 첫애 적에 티를 태워서 보내면 동생 낳으면 가서 그거 가지고 온다고 태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띠를 안 태우고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 아버지가 저녁때 4시가 됐는데 왔더라고. 물건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바깥에서 "아이고 화성이, 빨리 저기 들어가 봐요. 화성 엄마 있는데 빨리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을 알았나 봐. 사람들이 모두 빨리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애도 없고, "애는 어떻게 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야단쳤어. "아무리 남자들이 뭐 저거 한다고 해도, 당신도 그전에 애들 죽은 애들이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고. 나는 나이가 어려도 모진 말로다가 "'애가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으니까 가지 말아요.'라는 소리가 입 밖에 나오는데 그걸 못 했다."고. "죽어도 우리가 갖다 묻으려고 내가 병원에서 다 죽은 걸 업고 왔다."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웃집 사람들이 안고 갔더라고.

수원 이주

유옥선 그 애 죽고 음력 10월 그믐날(양력 1951년 11월 28일) 여기(수원) 올라왔는데, 여기 방죽에 성냥공장(영화동 수원성냥공장)이 있어. 거기를 왔는데, 밤 11시나 되어 트럭을 타고서 몇 가구가 올라왔다고, 트럭 밑에다 짐 싣고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네 가군지 다섯 가구가 타고서 올라왔는데, 전주서 트럭을 타고 왔는데 논산 와서 하루저녁 잤어. 하루저녁 여관, 하숙에 들어가서 자고 논산에서 여기 올라오는 게 그날 밤 11시나 10시 돼서 왔나 봐. 오니까 전주에서는 김장도 안 하고 타작도 안 했어, 벼도 안 베고. 여기 오니까 냇가 둑으로 차가 올라가는데 얼음이 얼었더라고. 얼음이 이만큼 얼었어. '전라도 전주하고 여기하고 많이 다르구나.' 하고, 여기 와가지고 내렸는데 "사람이 복잡해서 들어갈 곳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니까 보따리는 이고 냉동다리(축산물가공센터 냉동시설이 설치된 다리) 거기를 내려와서 무허가 하숙 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거기 들어가서 하숙비 주고 자고. 우리 조카가 수원에서 트럭을 끌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먼저 나왔는데. 노인네(남편)가 자고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트럭 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여기 최인순이 동생이라고 트럭 운전수 다니는 사람 못 봤냐."니까,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가니까 우리 조카가 있더래. 큰집 맏동서 둘째 아들인데 "작은아버지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엊저녁에 나와서 하숙에서 자고 "너 찾아 나왔다." 그러니까 "트럭을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트럭 타고 여기 풍덕내 지나서 밤밭이라는 데가 있어. 능골 넘어가는 데. 둘째 시누가 시집가서 살아서, 거길 가니까 우리 둘째 시누 상처(상청)를 해놨더라고.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3월에 돌아가셨다더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을 있었나 봐. 그 조카며느리가 사나워서 "나 여기 있기 싫다."고 "가자." 하고.

여기 그전에 성 너머 감씨네가 있었어. 그전에 감씨네가 여기 벽돌집 있었는데 다 헐어 버렸잖아. 거기다가 우리 노인네(남편)가 나하고 산에 가서 서까래를 자르고 밤나무를 자르고 그러다 거기다가 방공호를 팠어. 파고서 우리가 세 식구 나와서 살다가. 우리 둘째 맏동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님이 우리보다 먼저 나왔는데 부산서 살다가 우리 여기 온 지 한 두어 달 되었는데 부산서 찾아오는데 떡을 쳐서 왔어요. 아들 넷, 딸, 손주. 여섯 식구가 왔는데, 어떡해. 아이들이 방공호 파놓은 데 올라가서 뛰니까 흙이 와르르 쏟아지고. "내가 못살겠다." 바로 여기 뒤였지. 거기다가 집 여관 하나 돈을 얼마 주고 샀어. 사가지고 우리 형님네를 그리로 나가라 그랬어. 형님 거기 가서 살라고.

면담자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유옥선 여기가 남수동이지.

면담자 처음에 그러면, '수원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유옥선 수원, 거기서 여기 올라온 건 가깝게 살면 이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앵겨 들어가야지, 전주에 떨어져서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아직 막혀가지고 못 간 거지.

면담자 이북, 조금이라도 고향에 가까운 데 있으려고 수원을 택하신 거예요?

유옥선 그럼.

면담자 수원에 조카도 살고 있고, 겸사겸사해서 그러신 거예요?

유옥선 그 사람들도 우리 고향에서 같이 나온 거야. 우리 조카들, 큰집이 다 여기 나와서 수원에 와서 만난 거지.

면담자 여기가, 수원이 올라가는 길목이니까 여기서 월남민들이 많이 사셨나 봐요, 수원에?

유옥선 많이 왔어. 여기 철원 사람들 많이 왔어. 광나루 지금 성남 그쪽으로 다가. 이 동네도 많이 들어왔었어. 그런데 죽고 딴 데로 이사 가고 모두 그랬지.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 조카딸 애도 여기서 죽고. 신랑이 또 의용군 나갔다가 여기로 왔더라고. 우리 조카딸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 아들은 여기서 죽고. 두 식구가 철원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철원읍이, 금악산 옆이 철원읍이 된 거야. 거기 들어가서 농사짓고 지금도 살아. 조카사위는 죽고, 애들 육남매 낳아서 거기서 살고. 우리는 안 들어가고. 우리는 그때도 못 갔잖아.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또 막혀가지고 우리 살던 동네 철원읍엔 못 들어갔잖아. 그래서 관광 갈 적에 보니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이. 다 밭 일구고 논 일구고 그랬더라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데서나 살다가 죽지 뭐, 그까짓 것, 지금도 우리 논 붙이고 하던 게 경계선이 돼버렸어요.

면담자 경계선이요? 38선 경계선?

유옥선 휴전선 경계선이 됐지.

면담자 그러면 거긴 갈 수 있어요?

유옥선 못 가. 처다는 보지. 철망을 해서 못 간다고.

면담자 그럼, 지금은 북한 땅이에요?

유옥선 그렇지, 북한 땅이지.

면담자 철원읍 쪽이 북한 땅이 돼버렸어요?

유옥선 철원읍에서 아마 한 10리 나가가지고, 막아 버렸어 휴전선을. 그거 우리 있을 적에도 이북이었는데. 6·25 나가지고 터뜨리지(수복하지)를 못했잖아. 철원도 이북 땅에 있었어. 이북 땅인데 6·25 때 철원을 뺏은 거지.

면담자 그랬는데도, 할머니 사시던 곳은 아직 북한 땅이네요?

유옥선 아니지, 우리 살던 데는 이쪽(남한)으로 붙은 건데 지금 거기(민간인출입통제구역) 사람이 못 산다고. 거기서 조금 나가면 지뢰밭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 남북통일이나 되면 지뢰밭을 다 처리를 해야 거기 들어가서 살지 지금 거기 못 들어가. 맨 지뢰를 묻어가지고 들어가면 다 죽지 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철원 월남민 정착촌과 철원피란민연락사무소

면담자 수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월남민들이 모여가지고, 전주수용소처럼 수원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월남민들 다 모여가지고?

유옥선 저기 동문 올라가는 데 과부촌이라고 있어. 과부촌이 왜 과부촌이라면 남편들 죽고 과부들만 살잖아. 그러니까 그 과부들 집을 시에서 지어준 거야. 근데 과부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서방 있는 년들이 다 들어갔어. (웃음)

면담자 할머니, 동문 올라가는 데 과부촌이 있었다구요?

유옥선 동문 올라가는데, 지금도 거기 과부촌 집들이 있어.

면담자 거기가 월남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유옥선 철원서 피란 나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철원서 피란 나온 사람들만, 여기 철원연락소를 만들어가지고 연락소에서 강원도 사람, 철원 사람만 과부 된 사람의 집을 지어 준다 그래서 거기 수십 채 지었어.

면담자 철원연락소가 어디 있었어요?

유옥선 철원연락소가 서문 가는 데 어디 있었어. 철원연락소라고, 서문 안 넘어가고 서문 안에. 나도 구호물자 타러 갔더니, 요만한 사무실 있고, 구호물자 나오면 오라 그래가지고.

면담자 그럼, 철원 사람들만 가면 거기서 구호물자 받는 거예요?

유옥선 어, 철원 사람만 가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야.

면담자 다? 북한의 시골로 다 따로따로 있다고요?

유옥선 그때는 철원 사람이 제일 많았지. 철원서 딱 끊어져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은 다 이북으로 들어간 거야. 철원역전에서 그 근처에서 나온 사람만 나오고 근처 있던 사람은 다 이북으로 들어간 거라니까. 자기네 식구끼리도 서로 헤쳐진 거야 그냥. 그리로 들어간 사람 그리로 들어가고, 이리로 간 사람 이리로 가고.

면담자 처음에는 거기서 구호물품을 받아서 먹었네요?

유옥선 여기서 배급줬지.

면담자 배급받았어요? 배급 얼마나 나왔어요?

유옥선 한 식구에 몇 그램씩 주니까 며칠치 보름치, 보리쌀 강낭콩 같은 거. 쌀은 안 주고 순 잡곡으로 줬어. 갖다가 그냥 섞어서 우리가 해 먹고 그랬지.

면담자 할머니 그때 사시던 곳은 어디셨어요?

유옥선 밥 먹고 살던 집? 여기 성 너머라니까. 여기 성 너머에 움집 짓고 거기서, 방 요만한 거 꾸미고, 부엌 요만한 거 하나 솥 하나 걸고, 거기서 갱개산(광교산) 가서 나무 해다가.

면담자 그럼 움집 지을 때, 한 가구 있었어요, 여러 가구 있었어요?

유옥선 몇 집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여기저기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거기서 그럼 무허가 집을 짓고 사신 거죠?

유옥선 그게 무허가 집이야? 방공호지. 거기서 살다가, 그해 선달에 거기 가서 그 이듬해 7월 달에 장마가 져서 물이 꼭대기서 쏟아져가지고 허물어져서 내버리고 이리(남수동)로 들어온 거야, 이리로 들어와서 용화당에서 우리 저 아들 낳고, 딸 낳고 막내아들 낳고 여기서 삼남매를 낳았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자녀 출산과 경제활동

면담자 둘째 아들은 할머니 몇 살 때 낳은 거예요?

유옥선 24살에.

면담자 그럼 첫째 아들은 22살에 낳으셨으니까 2살 터울이네요. 그럼 여기서 낳으신 거네요?

유옥선 저쪽 방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딸하고 막내아들은 여기 이 집에서 낳았어.

면담자 그러면 애들 낳고 키울 동안에는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배급 좀 타다가 처음에는?

유옥선 한 2년인가 배급 주다가 끊어버렸어. 미국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턴 각자 벌어먹어라 그랬지 뭐.

면담자 그래서 뭐 해서 벌어먹었어요?(웃음)

유옥선 우리는 정말 노인네(남편)가 바지런스러워서 어디 가서 쉬지를 않아. 다니면서 뭘 해서라도 먹고, 애들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 마치고 우리 막내만 한양대학교 나왔지.

면담자 막내는 대학까지 나오고? 여기 두 명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때 치곤 많이 공부시켰네요.

유옥선 대학 가라니까 동생들 있다고 안 가더라고. 그래서 둘 고등학교 나오고 그런 거지.

면담자 지금 다 결혼했고요?

유옥선 다 결혼했어. 막내아들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딸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여기도 아들 둘.

면담자 수원에 오셔가지고 다른 데로 한 번도 이사 가신 적은 없으세요?

유옥선 한 번도 안 갔어. 이 자리에 앉은 지 62년이 됐어.

면담자 여기에 사셨다고요?

유옥선 여기서 그냥 62년이야. 여기 바로 뒤. 바로 뒤에 2층집인데 여기 첫 집이 아니고 뒤에 2층집이야.

면담자 여기서만 계속 사셨구나.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머니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유옥선 57살에 돌아가셨어.

면담자 그러면 계속 두 분이서 애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하셨네요. 뭐 장사?

유옥선 장사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나가 벌어서 먹고살아도…

면담자 뭘로 먹고살아요?

유옥선 우리 노인네(남편), 일이라는 건 다 다니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돈 착착 벌어다가 넣어놓고. 가을철 되면 쌀 5~6가마씩 일 년 먹는 쌀을 사는 거야. 고향에서부터 그렇게. 사람은 사는 게 쌀하고 불 때는 나무(연탄)만 있으면 먹고살고, 때고 먹어야 사니까. 난 그래도 이 나이를 먹도록 누구한테 돈 10원도 꿔본 적 없어.

면담자 할아버지가 바지런하셔서 ….

유옥선 안 꿨어. 난 반찬이 없으면 소금으로 밥을 찍어 먹어도, 누구보고 돈 꿔 달라 뭐 좀 달라. 난 우리 애들 며느리 얻을 적에도 그랬어. 나는 이 나이를 먹도록 여태 그런 소리 누구, 이웃 사람, 그래도 안 했어. 우리 앞에 선생님네가 부자인데, "은성이 엄마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갖다 먹어." 그러면 "네." 대답은 하고 안 가. 두 번 세 번 하다가 골딱지가 나면 들고 와가지고 야단치는 거야. 왜 그러네?

면담자 왜 안 드셨어요? 좀 드시지.

유옥선 난 싫어. 난 그릇 들고 다니면서 누구 집에 가서 뭘 좀 주세요, 갖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면 먹어도 "주세요." 소리는 일절 안 해. 그래서 동네서 별난 사람이야. "저 년은 먹는 거 음식도 가려먹고 남이 뭐 주는 것도 안 먹고." 나 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안 먹어.

면담자 할머니께서는 특별히 돈 벌고 하신 거, 뭘로 돈 버신 거예요?

유옥선 없어, 난.

면담자 그냥?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다?

유옥선 돈 버는 거. 우리 이 아들 나서, 저 섣달 스물여드렛날(28일) 낳았어, 음력 섣달 스물여드렛날 나서, 그때 여기가 집이 별로 없었어. 근데 나무 장사를 하더라고. 나무 장사를 모두 하길래 내가 그랬어. "우리도 나무 떼어놓고 팔까?" 그랬더니, 가을인데, 우리 노인네(남편)가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나무 잘라서 10개씩 묶어서 가져오잖아? 그럼 그걸 값 맞춰요. 그럼 떼어서 그 사람이 우리 주고 가면 거기서 우리가 돈을 조금씩 붙여서 파는 거야. 바쁠 적엔 지게꾼 100원인지 10원인지 주고 지게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넓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산판해가지고 나무를 싣고 와서 우리 보고 사라 그래. 가져오면 우리가 돈을 맞전을 잘 주니깐 이놈들이 딴 사람들을 안 줘요, 우리만 갖다 주지.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거를 팔러고, 아들은 섣달에 낳아서 그 이듬해 돌 전이지. 포대기를 떼고 길바닥에 나와서 우리 노인네(남편)는 팔면 어디 배달해달라면 배달해주지, 길바닥에 나가서 그 애를 업고 하루종일 섰다 저녁에 들어오면 갓난애가 발가락이 얼어서 빨개. 귀때기도 얼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헐벗다가 병 생기겠구나 하고 포대기를 싸서 업고 싸서 업고, 그래서 한 이탠가 삼핸가, 한 3~4년 했나 봐. 우리 딸 낳아서 저기 할 때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실어 갖다가, 참나무 이런 거를 트럭으로 베어다가 한 차에 얼마 얼마 갖다 부르거든. 그러면 그걸 내가 톱으로 다 잘라가지고, 도끼로다가 쪼개가지고, 그전에 쪼꼬리라고 요만큼씩 단 묶는 게 있었어. 그렇게 묶어. 내가 다 묶었어.

면담자 내다팔려고요? 팔기 좋게 묶는 거죠?

유옥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 팔고, 그러다가 또 우리 노인네가 연탄 장사 한다 그래서, 연탄을 그전엔 역전에 나가서 끌어왔어. 아휴, 그걸 커다란 구루마(수레)를 가져가서 100장씩 싣고 오는데, 우리 이 아들 그때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데리고, 역전 저쪽 밖에 그때 무슨 연탄인지 거기서 팔아, 겨울에 그걸 데리고 나갔어. 애를 구루마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100장을 싣고 오는데 뒤를 밀라니까, 이놈이 지금 매산학교 올라가고 내려가는 조그만 언덕이 졌잖아. 거기를 갔다가 오는데, 갔다 와서 방에 들어와서 손, 발을 비비고 그냥, 그러니까 손이 탱탱하고 발도 그렇고. 그게 방에 들어와서 녹으니까 쓰라린 거야. 같이 앉아서 울었어 내가. 더럽게 살면서 애새끼만 더럽게 고생시킨다고, 가지 말라 그랬어. 싫다고, 하지 마라, 쫓아가지 말라고. 그런데 또 어떻게 안 쫓아가. 재들 어려서 연탄 구루마 뒤를 많이 밀어줬어요.

철원친목회, 월남민들과의 교류

면담자 여기 아까 말한, 철원의 과부촌 말고, 피란민들이 모여서 살고 이런 데가 수원에 또 어디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연무동 공설운동장 옆에도 피란민촌 있었다고 그러던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유옥선 거기 있어도 여기(남수동)가 제일 많이 있었어. 거기서 살았어도 여기 와서, 철원 사람은 연락소를 여기다가 정해서 여기 와서 타다 먹고 그랬어.

면담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철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이렇듯이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유옥선 몰라. 우리 여기서 살면, 제일 오래 산 게, 내가 여기 피란 나오던 해 여기 앉은 게 그대로 여태 주저앉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살다 저기 살다. 여기 우리 뒷집, 이 집도 철원서 철원 용담서 나온 집이고. 거기 바로 뒷집의 그이도 철원서 나온 집이고. 그러고도 거기 몇 집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렸어.

면담자 그때나 지금이나 철원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건 있어요?

유옥선 모였지. 철원친목계를 놔가지고. 친목계 모임 때 들어오라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남편)가 들어갔는데, 30년을 하다가 우리 노인네가 돌아가셨어. 그때도 사람들이 한 30명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노인네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오늘 술 사는 건 내가 살게요. 우리 노인네 돌아가시는데 오셔서 수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내 여기를 다녔으면 좋은데, 여자는 없고 남자들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와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그만둘까 봐요." 그러니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철원 사람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아주머님 내외해서 시집 갈라우?" 그러면서 그런 소리 말고 오라고, 나오라고. 여기 나와야 철원 사람 보지.

면담자 철원친목계는 주로 남자들끼리만 모였네요?

유옥선 남자들끼리 모였지.

면담자 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간 거구나.

유옥선 그러면서, 철원서 나온 여자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와라 이거야. 들어오면 저기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지요." 그러고 철원서 나온 사람 여기 몇 집이 살았어. "저기 집의 신랑 안 나가면, 바빠서 못 가면 집이 대신 가서 먹고 와. 나도 가니까." "아줌마 끝내 다닐 거야?"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했더니 왜 관두냐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 나가면 나도 나갈게. 우리 집 영감 안 가면." 그러다 이제 그 말이 자꾸 돌아가니까 여자들이 15명 됐어. 그러니까 남자들 못 나갈 적에 여자가 나오는 거야.

면담자 대부분 철원이 고향인 부부인 거예요?

유옥선 아니, 여기 나와서도 장가간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친목계를 만들어 계원들이 한 50명까지 만들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또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고. 떨어져나가고, 내가 친목계 간 지가 한 11~10년 됐나? 10년이 못 됐나 봐. 8~9년 됐어.

면담자 그 전엔 쭉 하셨구나.

유옥선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 구루마를 내가 끌고 다니고 밀고 집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해요. 허리 아프던 게 다리로 내려와가지고 따로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다닌다고. 겟날 나가서 끝내 할 때까지 다니면 좋은데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파서 저 구루마를 끌고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느냐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먼 데를 못 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안 갈 테니까. 그리고 그때 그냥 나왔어.

면담자 그래서 모임은 지금 없구나.

유옥선 없지 이제. 우리 또래가 다 죽었으니까. 자식들이, 여기 와서 낳은 자식들이 그걸 알아? 모르지.

면담자 그럼 이제 수원에 들어와 살 때 수원 토박이들, 원주민들하고 월남민

들하고 이래가지고 좀….

유옥선 우리가 여기 와 사는데 여기 뒤에 살던 할머니 있었어. "피란민하고 원주민하고 같은 거 봤느냐." 그래. 그래서 그 할머니 우리한테 욕 많이 먹었어.

면담자 좀 안 좋게 그랬구나.

유옥선 "피란민은 뭐이고, 원주민은 뭐이야. 사람은 다 똑같은데. 원주민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진짜 욕 많이 먹다가 평동으로 이사 가서 돌아가셨어.

면담자 그럼 그 할머니가 유독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크게 그런 거 없었어요?

유옥선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데는 피란민 소리 많이 들었지. 피란 온 피란민 피란민이라고 이러지. 근데 그 할머니가 원 토박이야. 근데 누구 보고 말하면 "피란민하고 본토박이하고 같은 거 봤느냐."고 이래. 그렇게 했던 할머니야. 우리가 여기서 막 못돼 먹었다고 욕하고 그랬어.

면담자 피란민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초기에 피란 와서 사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교회나 이런 데서 구호물품 주기도 하고….

유옥선 몰라. 난 교회를 안 다녀. 난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면담자 아니면 서북청년단 뭐 이렇게 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유옥선 그런 거 몰라.

면담자 현재 철원 풍습 중에서 철원 음식 같은 거 드시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유옥선 철원서?

면담자 철원 음식. 고향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거 있으세요?

유옥선 몰라.

면담자 그런 거 따로 안 해요? 그럼 명절 땐 뭐해 드세요?

유옥선 명절 때 그냥 밥 해 먹고 떡국 끓여 먹고, 송편 해 먹고 그러지. 철원서도 그런 거 다 하는 거지 뭐.

면담자 철원 음식이라고 특별한 거 따로 없어요? 김치 같은 거나 나물 같은 거 따로 없어요?

유옥선 몰라 나도. 다 해 먹는 대로 해 먹는 거지. 통천서는 여기하고 다르지. 가자미식혜, 명란젓이 아니라 동태 이렇게 잡으면 양태기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해서… 거기는 우리 있을 적에 동태가 싸니까 한 30~40마리씩 사오면 그런 거 빼내는 게 많으니까 명란젓도 담가 먹고 청란젓도 담가 먹고. 거기서 그런 것밖에 몰라. 해 먹는 거 해 먹고. 식혜라고 그냥 그렇게 해 먹는 거지.

면담자 여기서도 해 드셨어요, 그럼? 가자미식혜 같은 거?

유옥선 에이, 난 그런 거 먹지도 않는데 뭐. 나 생긴 게 이렇게 생겨도 음식 얼마나 까다롭게 먹는지 몰라. 동네 사람들한테 벼루가 난(별난) 사람이야.

금강산 관광

유옥선 내가 70살에 금강산을 갔어. 정주영 씨가 소 끌고 들어갔잖아(1998년). 그때 이북서 온 사람들 명단에다가 이북 가족을 써라. 써서 어디다 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가 넣으면 앞으로 면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막내가 써서 거기로 갔다가 줬어. 근데 여태껏 못 만나.

면담자 지금 그럼 가족이 누구누구 살아 계세요? 북한에.

유옥선 엄마 살고.

면담자 살아계세요?

유옥선 아이, 돌아가셨겠지. 100살이 넘었지.

면담자 살아있는 분들이. 연락 안 돼요, 아예?

유옥선 모르지 그럼. 강원도 통천 염성이라는 데 살았는데.

면담자 그럼 아직 연락이 안 되시나 보구나.

유옥선 연락이 안 되지. 내가 금강산을 갔는데 우리 막내아들이 "엄마 금강산 가요." 그래가지고 "금강산 어떻게 가니 추운데" 이러니까, "금강산 그거 언제 중단될지도 몰라요. 엄마는 금강산을 가면 고향을 바라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막내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위 아들도 그러고. "갔다 오세요 그냥, 고향 땅이라도 한 번 디뎌 봐요." 그러면서. 그게 양력으로 동짓달 초아흐렛날 갔어. 음력은 10월 21날 가고. 세 번째 가는 배에 탔어. 동해 가서 타는 배. 여기서 관광버스 타고 거기 내려가가지고서 거기서 타고 금강산 갔어. 저녁 6시가 다 됐는데 배가 뜨더라고. 음력으로 10월 21일 떠나가지고 가는데 밤에 배 안에서 잤지.

면담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유옥선 배 안에 침대 있는데 탔는데,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아, 흔들리지도 않고. 워낙 배가 크니까. 근데 뭐 배 안에 휴양소도 있고 노래 부르는 무대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목욕하는 그런 것도 해놓고 다 해놨더라고.

면담자 북한 도착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유옥선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디뎌 보는구나.' 배가 어디가 섰는가 하면 장전(북한 고성항)이라는 곳에 갔었어. 장전이라는 곳에서 우리 친정을 걸어가면 내가 한나절이면 걸어가. 50리인데.

면담자 거기서, 친정 통천 거기를?

유옥선 그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자고서는 그 이튿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 아들도 알고 했음 그냥 아씨아(아이젠)인지 발에다가 쇠 있는 거 그거, 미끄러우니까. 그때 첫눈이 와가지고. 가서 꽉 디디니까 발목 여기까지 눈이 먹히더라고. 허리는 아프지, 암만 갈래도 못 가. 그래서 아들 보고 "너 갔다가 들어와. 나는 금강산 가까운 데서 살았으니까, 그 전에 직접 가보진 않았어도 우리 고향 옆에 백장봉이라는 산을 가면, 그것도 금강산 줄기인데 거기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너나 가 봐." 그러니까 "엄마 이왕 여기 왔는데 엄마가 그걸 못 가보면 왔다 간 보람도 없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너 가 봐, 먼저 니가 가." 그러고 다들 올라가는데 내가 뒤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미끄럽고 그러니까, 인민군 안내원 여자가 그러더라고 나를 보고. "저기 할머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남자하고 둘이 섰더라고. 그냥 가는 건 가는데, 거기 구름다리를 3개를 건너더라고. 출렁출렁하니까 무섭지 뭐야. 그래서 첫날 구룡포를 기를 쓰고 기어 올라갔어. 여기까지 왔다가 옛날 구룡포, 말봉산 비루봉을 못 올라가 보면 금강산 갔다 온 게 아니다 했는데 가야지. 기어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기겁하고 내려오고. 내가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일로 왔어." 하길래 "기어서 왔다." 그러고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 다 내려갔는데 내가 뒤에서 미끄러지니까 자꾸 앉아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고 그랬지 뭐. 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내버려 두고 갔다가 큰일 나잖아. 그래서 손을 붙들고 그렇게 내려왔어. 그 이튿날 아침에 배를 타러 갔지. 사람을 싣고 오는 배가 있어. 장전에서 금강산 들어가는 데까지 오는 배가 있더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이튿날인데, 금강산 올라가서 먹으라고 점심을 배에서 다 싸줬어. 그래서 먹고는 하룻밤 자고 바다로 나가서 구경을 이렇게 하고, '바다줄기만 따라서 가면 우리 친정을 들어가 보는데 저기를 못 가보는구나.' 혼자 앉아서 바다를 바라다보고 울었어. 내일모레 떠나려는데 서울 SBS방송에서 오늘같이 (관광 출발 2일 전에)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 첫날 가가지고 꼭대기 구룡폭포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점심을 먹는데 바깥에서 "할머니, 저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니 저 서울에서 따라온 SBS 기자예요." 그러더니 "할머니하고 얘기 좀 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막내아들이 "엄마 저기 내려가세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버스 있는 데서 저기 영동시장까지만큼 산으로 올라가. "아니 왜 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버스 있는 데까지 내려가도록 얘기 좀 하고 내려가자고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 고향이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서 50리만 가면 고향이에요. 날더러 다리가 성해서 걸어가라면 내 한나절이면 걸어갈 텐데 여기까지 왔다가 보지도 못하고 가요." 그랬어.

면담자 인터뷰를 하셨구나.

유옥선 어, 그냥 저기 하면서. 한 사람은 카메라 찍고.

면담자 그럼 TV에 나왔어요?

유옥선 나왔다 그러는데 난 못 봤는데. 그리고 나서 왔는데 대전, 서울 사람들이 "할매 금강산 갔다 왔지?" 서울서 온 사람들이 "할머니 금강산 갔다 왔지?" 여기저기서 그래. 우리 동네 사람들, 저 집도 그러고 저기 집도 그러고. "금강산 갔다 왔네." 그러니까 저기 (TV 채널) 5번에서 나왔다고. 우린 못 봤는데, 그냥 그러고. 그래서 고향 갔다 온 소감이 어떠냐고. "소감이 어떻긴 어때, 섭섭하죠. 식구들 하나 보지도 못하고 형제들이라고 보지도 못하고, 고향 땅만 디뎠다는 그거지요 그냥." 조카들 있을 거 아냐, 나이가 먹어서 저렇게 인민군 보초 서는 부대, 눈구덩이에 총대를 메고.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는데 내려오는데 저만큼씩 저만큼씩 섰더라고. 저런 것도 우리 조카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유옥선 나는 6·25 나던 해 2월 우리 친정을 갔다가 우리 동생 데리고 왔다가 밤이면 탱크가 20 몇 수나 내려오더니 그다음에는 대낮에 탱크가 내려오는데 전쟁 날까 봐 동생을 보내고, 집에서 떠나올 적에 우리 막냇동생 10살 먹은 거, 그게 지금 72살(2012년 현재)인가 먹었어. 그게 "누나, 누나 오면 나 운동화 한 켤레 사 줘." 그랬는데 돈 다 쓰고 났는데 그 소리를 해. 나는 이런 옷들을 모두 해줬거든. 그 소리가 지금 이 머릿속에 그냥 있어. 내가 이산가족을 만나려고 했으면, 만나라고 써낸 지가 15년이 됐잖아. 그 15년 동안 못 만나잖아. 만나면 내가 세상 없어도 운동화 세 켤레는 사가지고 가고, 우리 친정어머니 환갑 때 옷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을 한 벌 해주고, 반지라도 서너 돈 해준다는 걸 머릿속에다 넣고 다녀서, 그거는 돌아가셨어도 해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15년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저번에 어디? 무슨 통일부 저기라고 전화가 왔어. "할머니, 피란 나오셨죠?" 그래서 "그래요. 뭘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 여기 명단 나온 게 다 이북에 있는 식구들 명단이에요?" 그래. 이북에 있는 식구 명단인데 15년이 되도 소식도 없는데 그거 지금 알아봐서 뭐 하려고요. "나 이제 관심 없으니까 지금 나오라 그래도 못 간다. 기어서 다녀요." 그랬어.

면담자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에 동생 분들 만나면 좋겠다.

유옥선 지금(2012년) 내 밑에 여자 동생이 82살이야. 또 그 남자 동생이 76, 77살이야. 그다음에 우리 여자 동생이 74살. 그 막냇동생 10살 먹은 거 6·25 때 가보고 온 게 72살인데. 그 어떻게 살았겠어.

면담자 살아계실 거에요.

유옥선 우리 유서방네(친정)는 명이 단명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45살에 돌아가신 거야. 우리 6남매를 낳고 돌아가셨어. 우리 막냇동생 낳고 7달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 14살 먹던 해 돌아가셔서 17살 먹던 해 8·15해방됐잖아. 해방돼서 빨갱이, 소련군도 나오고, 소련군 나오는 거 보면 무섭다고 모두 대문 걸고 숨고. 8·15해방돼고 말도 못 했지 뭐. 내 눈으로 다 봤으니까. 난 사람 죽이는 것만 안 봤어. 6·25 때 사람 죽은 건 우리 노인네하고 우리 아들 전주 가서 죽은 거, 그거밖에 못 봤어. 피란에서 사람 많이 죽었는데, 말도 못 하게 죽었어. 비행기 3대가 와서, 퍼부은 거지. 처음에 3대 들어와서 퍼붓고 복구공사 나오라고 나갔다가 멸살해서 다 죽었지. 집도 다 없어지고, 철원역전도 부서지고.

면담자 그때 철도역이 많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유옥선 그걸 끊어 놔야 저기가 안 되잖아. 그래갖고 저기를 끊어 놨지. 말도 못해.

면담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말씀 감사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담 자	박현정(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유현희(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 담 일	2012년 5월 5일
면담장소	남수동 집곡기게

두번째 이야기

강원도 철원 월남민 박순옥



1931년(1세)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관우리 출생
1945년(15세) 해방, 초등학교 졸업
1949년(19세)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 이형제와 결혼
1950년(20세) 6·25전쟁 발발
1951년(21세) 미군이 제공하는 트럭을 타고 시댁식구들과 피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까지 이동 후 김천수용소에서 생활
1952년(22세) 김천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 남편의 연락을 받고 수원으로 옮겨 와 영화동 피란민촌에서 거주
1952~1955년 남편 이형제 군 복무, 시아버지는 동창당한약방 개업, 친정어머니와 상봉
1956년(26세) 첫째 아들 출생
1960년대 남편이 군포에 한약방 개업
1970년(40세) 시아버지 시망
1990년(60세) 남편 시망

전쟁의 파고를 넘어 동창당한약방을 지켜내다

해방 후 철원의 정치 상황

박순옥은 1931년생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관우리에서 2남 5녀 중 3녀로 태어났다. 동송면 관우리는 1945년 8·15해방 당시 38선 이북 지역이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휴전선 이남으로 남한에 속하는 곳으로, 현재 민간인 출입통제구역(민통선)에 포함되어 있다. 박순옥은 철원읍에 있는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10리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였는데, 일제시기에는 학교에서 일본어만 가르쳤다가 해방 직후 잠시 한글을 배웠다.

박순옥의 친정집은 철원에서 큰 방앗간을 운영할 만큼 부유하였다.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마을의 민심은 흉흉해졌고, 1946년 북한정권이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지주였던 큰아버지 댁은 토지를 잃고 월남하였다. 친정식구들도 월남할 생각을 하였지만 무서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순옥은 1949년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에 사는 이형제와 중매를 통해 결혼하였다. 남편은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시아버지는 어음면 양지리에서 '이대길한약방'을 운영하였다. 박순옥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북한정권을 반대하였고 이에 반동분자로 몰려 쫓기게 되었다. 이에 박순옥과 남편은 친정이 있는 관우리로 잠시 피신을 갔다. 하지만 이곳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박순옥은 친정오빠·친정아버지와 함께 민청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박순옥과 친정아버지는 풀려났으나 오빠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화장실에 숨어 있어서 발각되지 않은 남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철원읍 할머니 댁으로 피할 수 있었다. 남편은 방공호에 숨어 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전쟁 상황을 파악하였고 철원읍 월하리로 가면 미군 트럭을 타고 남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퇴각하던 북한군이 친정에 들이닥쳐 총을 들이대며 북쪽으로 피란 가라고 했지만 당시 친정식구들이 열병을 앓고 있는 데다 친정어머니는 폭격으로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하여 피란을 나갈 수 없었다.

한편 박순옥은 시누이를 통해 시댁으로 오라는 남편의 편지를 받았다. 시댁식구 모두 남한으로 피란을 떠나기로 했다며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 이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순옥은 열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 다리를 다친 친정어머니를 두고 차마 떠날 결심을 할 수 없었는데,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시댁이 있는 월하리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남편도 없었고 시댁식구들은 남편의 행방을 알려 주지도 않았다. 친정오빠의 생사도 모른 채 앓고 있는 친정식구를 뒤로 하고 시댁에 왔건만, 아무도 반겨 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 섭섭해서 약천 둔치에서 빠져죽으려고도 했다. 이 시기에 철원 지역은 미군의 폭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시댁식구들도 폭격으로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죽은 이들도 있었다.

월남 과정과 김천피란민수용소 생활

박순옥의 월남 과정은 험난하였다. 철원읍 월하리 정류장에는 피란민을 실어 나르는 미군 트럭이 하루 평균 5대 정도 운행하였다. 트럭을 타지 못할 경우 대부분 김화와 평강으로 이동하여 걸어서 남하하였다. 시할머니,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조카 등과 겨우 트럭을 탔다. 그러나 남편은 트럭을 타지 못하였다. 철원에 미군과 국군이 주둔하게 되자 철원 지역을 안내하기 위해 선발되어 그곳에 머물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생이별이었다.

수송 트럭에 오르는 피란민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피란민수용소가 설치된 김천시의 경북도립병원

피란 트럭은 서울역에 정차하였고, 이곳에서 다시 석탄을 운송하는 화차를 타고 사흘을 달렸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너무나 배가 고파 나중에는 어디든 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렇게 내린 곳이 김천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주위에서 알려 주는 대로 시청에 연락하여 피란민 신고를 하자, 행정당국에서는 곧바로 피란민에게 디디티(DDT)를 뿌려 방역을 실시하였다. 김천에서는 1년 정도 거주하였다. 김천시에서 도립병원 입원실을 숙소로 제공해 주었는데 방 하나에 열 명 정도 기거하였고, 구호미가 제공되었다. 철원에서부터 열병을 앓고 있던 시어머니와 작은집 사촌 시누이는 피란 도중 병이 나았지만, 당사자인 박순옥은 김천에 도착하여 심하게 열병을 앓았다. 시댁 큰고모 가족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면서 열병으로 아들이 죽은 큰고모의 화풀이를 감당해야 했다.

한편 친정식구들은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마차에 태워 걸어서 서울역까지 피란을 나왔다. 이곳에 도착한 후 건강에 문제가 없던 친정올케와 막냇동생 및 조카는 연고자가 있는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미군들은 부상당한 친정어머니와 열병을 앓던 동생을 분리하여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양쪽을 다니며 간병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미군들이 친정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는데,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친정아버지는 친정어머니의 소재를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열병을 앓던 두 동생이 회복되자 아버지와 두 동생은 광나루(천호동) 피란민수용소로 보내졌다.

수원 이주와 정착

수원에 도착한 친정올케, 막냇동생과 조카는 구호미를 받으면서 생활하였다. 해방 직후 월남한 큰댁 오촌아저씨(박동규)가 큰 도움이 되었다. 오촌아저씨는 당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시청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남편은 철원 사람이 수원으로 피란을 많이 왔다는 걸 알고 수원에 와서 가족들의 소식을 수소문하였다. 그러던 중 김천에서 이웃에 살던 사람이 수원에서 남편을 만나, 김천에 있던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남편의 편지를 받고, 김천에서 수원으로 올라오는 길은 험난하였다. 교통편이 많지 않았던 당시 박순옥과 식구들은 대전에서 하루를 보내고 수원행 버스를 타야 했는데, 저녁에 대전에 도착해 보니 버스도 끊기고 잘 곳도, 밥을 지어 먹을 곳도 없었다. 박순옥이 길을 지나는 할머니에게 염치불구하고 부탁하여 양초 만드는 방 마루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버스를 놓쳐 다시 그 집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에 머물고, 그다음 날 일찍 나와 수원행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수원역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2년 만의 상봉이었다. 먼저 온 친정의 올케언니와 조카 및 동생도 만날 수 있었고 친정아버지도 광나루에서 걸어서 수원에 와 있었다. 폭격으로 파괴된 수원북중학교 자리에 광교에서 가져온 나무로 움막집을 짓고 친정식구들(작은이모네, 큰댁)이 살고 있었다. 뒤늦게 김천에서 수원으로 온 박순옥과 남편 그리고 시댁식구도 그곳에서 같이 살았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평강, 김화, 철원 등 피란민들이

용두각(방화수류정)과 연무동 피난민가옥
(1967년, 수원박물관 제공)





용두각 부근에 자리한 동창당한약방

남수동 비탈에 제일 많이 살았다고 했다. 남편은 영화동 피란민촌에 움막을 지었고 얼마 후 수원시청이 지어 준 연무동 피란민 사택으로 옮겼다. 연무동 공설운동장이 모두 피란민 사택이었다.

피란민 생활은 힘들었다. 다행히 시아버지의 약방면허증을 피란 때 챙겨 나왔고 그걸 시청에 가서 갱신하였다. 성 안 용두각 앞에 가게를 얻어 약방을 운영하면서 형편이 나아지자 집을 매입하였다. 원래 철원에서는 '이대길한약방'이란 이름으로 운영하였지만, 수원에서는 스승의 호를 따라 '동창당'이란 간판을 걸었다.

한편 서울역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행방불명이 된 친정어머니는 대구에 있었다. 대구에 있는 미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SRI 수원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를 받았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자 퇴원을 요구받았다. 식구들과 생이별을 하고 단신으로 병원에서도 나가게 된 친정어머니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 막막함에 울었고, 도움을 받아 교회로 갔다. 친정어머니는 울면서 기도를 했다. 마침 동네 사람이 다리를 다쳐 같이 있게 되었고, 그 동네 사람을 통해 수원시청 근무하던 친척 박동규에게 소식을 넣었다.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친정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러 갈 비용이 없어 박순옥에게 왔다. 재봉질을 잘하던 박순옥은 생계를 위해 재봉 일을 하고 있었다. 재봉 일로 모아 놓은 돈을 친정아버지에게 건넸고,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보내 준 돈으로 수원으로 왔다. 헤어진 지 3~4년 만의 상봉이었다.

박순옥은 군대에 갔던 남편이 제대하고 돌아오자 그제서야 결혼 6년 만인 1956년 첫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약방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군포로 가서 개원하였지만 수원에서 출퇴근하였다, 4~5년 지난 후 세무서 뒤 교동에서 개원하였다가 1970년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동창당을 운영하였으나 1990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수원에 철원 사람들의 친목회가 있었지만, 박순옥은 집안 살림과 약방 뒷바라지로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장손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



동창당한약방

생들도 모두 성가시켰다. 수원 사람들이 피란민에 대해 텃세를 부렸지만, 약방을 시작하면서 터전을 잡은 박순옥은 그나마 자신은 고생을 덜 했다고 말한다.

19세에 결혼하여 6·25전쟁을 겪고 수원에 정착한 박순옥은 남편(이형제)이 동창당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원의 지역유지가 되었다. 슬하에 3남 2녀는 모두 결혼하였다. 몇 년 전 고향인 철원 친정집을 방문하였는데 스산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고향과 가족관계

면담자 무슨 띠세요?

박순옥 양띠(1931년)

면담자 고향이 어디신가요?

박순옥 철원이요. 동송면 관우리

면담자 여기가 지금은 북한 땅인가요? 남한 땅인가요?

박순옥 먼저는 북한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피란을 나왔죠.

면담자 학교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박순옥 철원읍에 국민학교 다녔어요.

면담자 그때도 국민학교였어요? 소학교 아니고?

박순옥 그래. 소학교 그랬는데, 중간에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면담자 동송면에 있는 거예요?

박순옥 동송면에서 철원읍에 학교에 왔다 갔다 했죠.

면담자 걸어서?

박순옥 십 리가 넘는걸.

면담자 그때 왜정 때였네요? 왜정 때?

박순옥 네, 나 6학년에 해방됐어요. 해방되던 해 왔다 갔다 세월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쭉 나가서 평화로울 때가 아니고, 저기 세월이 왔다 갔다 하니까 6년 만에 졸업했나, 5년 만에 졸업했나? 해방되던 해에 졸업은 했고. 우리가 1학년에 조선어 책을 받았는데 한 번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조선어 책은 한 번도 안 가르쳐 주고, 1학년에 조선어 책만 받았고, 그다음(2학년)부터는 조선어 책을 받지도 않고 일본어만 공부를 시켰어요.

면담자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박순옥 형제가, 언니 둘, 오빠 하나,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그래서 7형젠데 내가 맨 가운데라니깐 셋째 딸이죠, 오빠 빼놓고. 그렇게 했는데 언니가 둘 다 시집가서 죽었어요.

면담자 시집은 어디로 가셨어요? 다 북한이에요? 지금은?

박순옥 아니요, 남한이죠, 지금은. 우리 살던 데는 지금도 공간지대에요. 사람 못 들어가요. 그냥 잠깐 가서 보고는 와도. 철원읍에까지는 들어갔는데 철원읍에서 우리는 시골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갈골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사람이 농사만 지어갖고 나오지 사람은 살지 못하니까.

면담자 거기가 민통선인가 보네요. 농사만 짓고 나오고 사람은 안 사는 게.

박순옥 네, 민통선 거기 안에, 우리 살던 데는 거기예요.

면담자 지금 가족들이 거기 남아 있진 않죠?

박순옥 다들 없어요, 지금은 우리 동생 여동생 하나가 있네. 거기서 조금 나와가지고 무내리라는 데 있어요.

면담자 지금도 사세요?

박순옥 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그럼 철원에 사실 때 가족 분 중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고.

박순옥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할머니가 모시고 살았네요. 할머니 있고 아버님 어머님 계시고 7남매 있고. 그렇게 살다가 시집가서 언니들 둘 죽고, 오빠가 6·25 때 끌려갔는데 죽었을 거예요.

한약방 하던 시댁과 지주였던 친정

면담자 몇 살 때 시집을 가셨어요?

박순옥 일찍 갔어요. 열아홉 살 동짓달에 갔어요. 정신대에 끌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가서 짝이 지면 (정신대) 안 가도 된다고 하거든요. 짝이 없으면 데려간단 말이에요.

면담자 근데 6·25 때 왜 빨갱이들이 오빠를 잡아갔을까요?

박순옥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거기서 반동자로 몰려가지고, 양지리서 살았거든요, 우리는.

면담자 관우리 아니고 양지리?

박순옥 관우리는 친정. 친정은 거기서 살았지. 시집가가지고 양지리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반동분자로 몰렸어. 빨갱이가 싫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거기에 깃발 들고 나갔드랬는지.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이놈들이 붙잡으러 다녔어요.

면담자 그게 6·25 때 이야기예요? 해방되고 이야기예요? 6·25 때?

박순옥 6·25 때죠. 그때 그 난리가 났는데 철원읍으로, 철원에 시할머니네가 계셨거든. 그랬는데 우리 친정은 관우리서 살고, 거기서 거리가 산 하나 넘어선 데에 양지리란 데가 기차 정거장 있는 데에요. 시집가서 살다가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시아버지는 시할머니 있는 철원읍에 계시고, 나는 남편하고 친정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난리 때, 뒤죽박죽될 적에. 그랬는데 거기서 오빠하고 뭘 어떻게 했나 봐. 뭐 신너(시너) 불을 올리다가 들켰대나. 여기 거기서(북한) 빨갱이가 싫으니까.

면담자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옥 이형제.

면담자 원래 알던 집안이었어요?

박순옥 아니, 몰랐었어.

면담자 양지리 분인가요?

박순옥 네. 철원읍에 할머니가 계시고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약방을 하셨으니까 돈 벌어다가 크게 기와집을 지었더라고.

면담자 원래 그 시아버님부터 한의학을 대대로 해 오셨던 거군요?

박순옥 결혼하고 보니 시아부지가 약방을 하시더라고요. 철원서 하시다가 나 시집갔을 때엔 양지리에서 했어요.

면담자 양지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슨 면이에요?

박순옥 어음면 양지리일걸요.

면담자 철원읍에서 하시다가 어음면 양지리에서 크게 하셨군요. 약방 이름이 뭐였어요?

박순옥 이대길한약방. 시아버지가 이대길 씨.

면담자 그래서 어르신 존함 붙여서 한약방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계셨고 시할머니 계셨고, 남편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순옥 3남 2녀.

면담자 이분이 장남이셨나요?

박순옥 네.

면담자 맏며느리로 시집가셨네. 장손 며느리로.

박순옥 네. 큰시누이가 위에고 그다음에 우리 집 아버지(남편)니까 남자로는 장남이고 순서로는 두 번째고.

면담자 결혼은 집안끼리 중매로 하신 건가요?

박순옥 내가 관우리 있을 적에 중매가 들어왔어요.

면담자 친정집안이 좀 좋으셨나 보다.

박순옥 우리 집안이요. 우리 집안은 괜찮았지요. 죽산 박씨거든요. 충청도 죽산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죽산 박씨 하면 철원서도 알아주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할머니 일가친척들은 관우리에서 사셨나 보네.

박순옥 거기서 3대가 살았나. 3대가 관우리에 터를 잡아가지고선 다들 잘 사셨어요.

면담자 그때 말로는 땅이 많이 편에 속하셨어요?

박순옥 지주가 되어서 큰집은 먼저 쫓겨나왔죠. 동네에서 내쫓아서.

면담자 해방되고 나서 바로?

박순옥 그럼요. 그렇게 혼난 거예요. 빨갱이가 들어오면서 소작인들이 지주를 내쫓고.

면담자 무상몰수한다고?

박순옥 뺏어서 소작인들한테 다 주니까, 이 새끼들이 얻어먹고 있다가 빨갱이가 와서 뺏어 주니까 얼씨구 좋아서 춤을 추고 지랄들 했어요. 우리 지주들은 등을 지는 거야. 이전에는 소작해서 잘 드릴 테니까 밥이라도 먹게 해 달라고 굽신거리더니. 빨갱이 새끼들이 들어오면서 그거 다 뺏어서 주고 그러니깐 그쪽으로 홀딱 넘어가서. "나으리, 마님" 하던, 그러던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 오빠가 박종하거든 "야 종하야, 종하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런 발칙한 놈의 새끼들, 엊그제까지 굽신거리고 땅 한 자리 달라고 굽신거리던 놈의 새끼들이 '종하야'가 뭐야." 그러고선 할머니가 야단을 쳤지.

미군의 철원 폭격

면담자 고생 많이 하셨네, 해방되고 나서.

박순옥 비행기는 맨날 와서 폭격하고, 내가 철원읍에 시할머니한테 가 있다가 거기서 폭격에 맞아서, 나하고 같이 있던 작은시어머니가 방공호로 먼저 뛰어가 나갔는데 기관총에 맞아서 마루에서 쓰러져가지고 피를 토하고. 애기 업고 있었는데 기관총알이 두 개가 나란히 들어오면서, 애기도 머리 맞고 애엄마도 머리에 맞고, 그렇게 둘이 죽었죠. 나는 그 뒤에 겁음마질해서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나 혼자 건넌방에 있다가 웃방으로 뛰어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작은시어머니와 애기가 나둥그러져서 피가 마루에 천지야. 그래서 나는 또 가로질러 웃방으로 들어오니까 어린 시동생들이 불을 뒤집어쓰고 웅기종기 있어. 어른들이 여기 있으라고, 비행기만 뜨고 폭격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애들은 이불속에 들어가 있고, 아랫방을 보니까 우리 집 아버지(남편)도 피투성이, 시아부지도 피투성이, 작은시아부지도 피투성이. 그때 평강서 계시다가 집으로 와 계셨던 그 고모도 피투성이 돼서 다 죽는 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어, 안방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는 "죽을라고 거기 서 있냐."고 빨리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리는데 또 폭격을 들이붓는 거야. 그런데 한참을 들이붓고 간 다음에 보니까 작은시어머니하고 등에 업은 애기하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방공호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폭격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담벼락을 뚫고 총알이 시아버지 얼굴을 스치면서 쫙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얇은 얼굴로다가 얼른 이마를 딱 틀어막은 거예요. 피 안 나오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피투성이, 아들도 피투성이가 된 거야. 작은시아버지는 먼저 뛰어서 뒷방으로 해서 방공호로 뛰어갔는데, 폭격에 기왓장이 떨어지면서 튀면서 여기를 얻어맞은 거야. 시퍼렇고 뻘겋고 피가 나고 정신없이 푹 엎으러지니까 시할머니가 데려다 방으로 들어놨데요. 그래가지고 눈이 떠지지도 않아. 그럴 적에 그냥 엎어져 있었거든. 비행기가 자꾸 돌면서 폭격을 하니까. 그랬는데 비행기 폭격으로 작은시어머니가 나둥그레지면서 앞으로 피가 튀어 여기가 피투성이더라고. 그냥 다 죽는 줄 알았지. 일어나 보니까, 다들 그래도 숨 붙은 사람들은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내가 "작은엄마 어떡해, 폭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작은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나와 비명을 지르고 끌어안고는 울고 난리가 났지. 나가 보니까 집집마다 울고 난리야. 그러더니 그 사람들도 한 집에서 하나둘씩은 다 죽었어. 동네 사람 중에.

면담자 그게 6·25 나고 바로 그랬어요? 아니면 좀 1·4후퇴 이때, 언제 그랬어요?

박순옥 6·25 직후에. 6·25 때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짝(저쪽)에서 대항하고 그럴 적에 철원읍에서 접전이 났었어요.

시댁식구들의 월남 과정

박순옥 피란 나올 적에 말도 못 해. 며칠씩 굶고 피란 나오는데, 열병은 막 퍼져가지고 힘들었지. 우리는 월하리 정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철원으로 아침이면 미군 트럭이 댓 대씩 와서 (사람들을) 실어 날라 이남으로 왔어요. 그것도 못 타면, 김화나 평강 쪽으로 이동하거든. 미군 트럭이 도착하면 먼저 기어올라 타고. 난리통이었어. 서울역에서 다시 차를 타고 나왔는데 … 사흘을 내려가 김천까지 내려갔지.

면담자 경북 김천이요?

박순옥 네. 경상도요. 가다 쉬고 가다 쉬고, 광나루에도 피란민들이 바글바글했을 때 거기 갔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갔다가 뿌려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김천까지 또 데리고 나가.

면담자 그때 트럭에 누구누구 탔어요?

박순옥 우리 가족.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 다 같이 탔죠.

면담자 이형제 할아버지도 타시고?

박순옥 탔으면 같이 갔게요? 그 사람은 또 같이 올려고 차에 오르니까 미군이 데리러 온 거거든요. 국군이 주둔을 했으니까 나오는데 국군이 거기를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가 빨갱이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청년 몇을 데리고 여기가 어디며 어떤 사람이 빨갱이 짓을 했나 그런 거 알아보려고 몇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우리 집 아버지(남편)를 데리고 내려가. 그러니까 나는 (시댁)식구하고 같이 나오고 저 아버지(남편)는 떨어진 거예요.

면담자 그럼 트럭에는 마을 사람, 양지리 사람 다 같이 타고 왔어요?

박순옥 양지리 사람이 다가 아니라 월하리서 아주 집중으로 왔기 때문에 근동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머물러서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차를 하루 서너 번씩 두어 번씩 데리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면담자 인솔을 미군이 직접 했어요? 아니면 한국군이 했어요?

박순옥 한국 군인이 하고 미군은 태우면 데리고 나왔지요. 그런데 서울역에 와서 내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거기 아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열병이 많이 퍼져서 서울역에서 내려 열병 앓은 사람은 서울대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면담자 그때, 피란 나올 때가 6·25 나고였어요? 1·4후퇴 때였어요? 여름이었나요? 겨울이었나요?

박순옥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서늘했었어요. 가을 문턱이었나 그랬어요.

면담자 9·28수복이 됐었어요?

박순옥 우리 피란 나오고서부터는 난리 안 났어요.

면담자 피란 나올 때 할머니(박순옥) 애기가 있을 때였어요?

박순옥 애기 없었어요. 애기는 6년 만에 낳았어요. 피란 다 하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한 다음에서야 애 낳았어요.

면담자 애가 안 생기셨구나.

박순옥 지 아버지(남편) 군인 나갔거든요. 여기(남한) 나와서. 군인 나가서.

면담자 전쟁 나고 피란 나왔잖아요. 해방되고 한 5년간 살 때는 피란 갈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지주들 땅 다 뺏기고 그랬는데, 밑으로 내려올 생각은 그때는 안 했어요?

박순옥 오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으나 올 도리가 있어? 거기서 월남하려는 눈치만 보이면 그냥 잡아 치는데. 죽이고 방공호에 갖다가 버리고, 방공호를 경찰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여 버렸어요. 그날 오빠도 붙잡혀가고 아버지와 나도 붙잡혀 갔지. 저 아버지(남편)는 똥통에 가서 빠져서 숨어 있어서 결국 발각이 안 되고. 그 틈에 내뛰어서 철원 할머니 집에 가서, 산에 방공호를 파가지고 숨어 있었지.

면담자 그러면, 한국 군인이 막 트럭을 태워서 왜 다 피란을 보냈대요?

박순옥 거기 빨갱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깐 이리로 피란시켰죠.

면담자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내려왔네요?

박순옥 거기 있으면 빨갱이한테 붙잡히면 죽겠으니깐 미군 사람이 이남으로 데리고 나온다 하니깐 죄 철원 월하리로 몰려가지고, 차만 오면 모두 타고 나오고 그랬죠.

면담자 그래서 트럭 타고 맨 처음 온 데가 서울역이었어요?

박순옥 아니요. 서울역에서 내린 사람도 있고, 광나루 와서 내린 사람도 있고. 우리는 김천 가서 내렸다니깐요.

김천피란민수용소 생활

면담자 왜 김천까지 갔어요?

박순옥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갔으니까는. 연탄 나르는 기차, 연탄 다 내리고서는 바닥이 연탄 땅이었는데 거기에 타고 내려가는데, 자고 자고 자고. 먹을 걸 줘요? 저이들은 먹으면서 우리는 그냥 데리고 내려갔어요. 사흘을 굶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뒹굴어지잖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요. 배가 고파서 쓰러지고, 그러고선 우리가 사흘을 뒹굴다가, 우리는 굶어죽겠다 이렇게 그냥 데리고 내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내려 달라고 했어요. 아무데라도 내려서 죽이라도 쒀 먹어야 살지, 이렇게 굶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내리래. 한국 군인이 서너 명 있었거든. 근데 언제 미국 사람들이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내리래. 어떻게 서두르는지 들고 간 보따리를 죄다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차가 바로 떠나 버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그곳이 경상도 김천이래요. 그래서 어머나 여기까지 갔다 내려주면 우리는 어떡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선 시청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시청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역전에서 아마 전화를 했던가? 남자 분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시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겠어? 연탄으로 찌든 데서 사흘을 뒹굴다가 내려왔으니까 사람이 모습이 아니야. 강아지 새끼만도 못해. 새까만 게 눈만 반짝반짝했지. 그러니깐 시청에서 오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 우리 철원에서 피란민들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타라 그래서 기차에 탔는데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하면서 사흘을 왔는데 하도 배가 고프고 못 살겠으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더 갈 때 가더라도 뭐 좀 끓여먹고 가야지 어떻게 하냐고, 내려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내려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역전 대합실에.

면담자 기차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박순옥 아무것도 안 줬지요.

면담자 기차는 맨 처음 어디서 탔어요?

박순옥 서울역에서 갔다가 내려줬어요. 트럭이. 그랬는데 서울역에서 기차에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그러면 석탄 기차는 다 피란민들이 탔네요?

박순옥 그럼요. 거기 가서 내리라고 그러니깐 내렸는데.

면담자 그때가 한가을쯤이었다고요?

박순옥 저녁엔 서늘했어요. 낮에는 괜찮고 그랬는데. 시청에서 오더니만 "아이고, 이게 사람인가 뭐야." 그러더니, 모두 앉으라고 그래. 보따리 가지고 모두 마당에 앉으라고 그래. 그러더니 소독을 한다고 띠띠약(D.D.T.)을 갖다가 뿌리는 거야. 세상에 거기다 허연 걸 갖다가 뿌려 놓으니까 서로 쳐다보고 깔깔 웃는 거야. 눈만 반짝반짝하지.

면담자 시댁식구들은 중간에 하나도 안 떨어졌네요?

박순옥 시댁식구들도 다 같이. 동네에서 같이 간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름을 났나, 겨울을 났나. 그 이듬해 가을에 와서 식구 찾아가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수소문해가지고 지평리가 다다랐다고 그래가지고 부모 찾아가는 사람, 자식 찾아가는 사람, 기수 찾아가는 사람. 와서 다 찾아가.

면담자 그때까지는 어디서 사셨어요?

박순옥 김천서.

면담자 김천 어디서? 무슨 동에서?

박순옥 김천시청에서 알선을 해줬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도립병원 입원실을 주고 거기 가서 살으래요.

면담자 입원실에서 그러면 잠자고 밥 먹고 그랬다고요? 병원인데? 환자들도 있고?

박순옥 네. 병원에 입원실이 있고. 이쪽으로 두 칸인지 ….

면담자 피란민들은 "따로 여기서 모여서 살아라." 하고 줬네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순옥 그렇게 한 채를 기다랗게 방이 줄줄줄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내주더라고.

면담자 한 방에 몇 명 썼어요?

박순옥 한 방에 한 열 명 되던가.

면담자 다른 사람도 같이 썼어요?

박순옥 우리는 우리 식구만 있었어.

면담자 사람이 많으니까?

박순옥 다른 집 식구는 다음 칸에, 또 다음 칸에 그렇게…

면담자 그런 방이 몇 개나 있었어요?

박순옥 길게 있었는데 열 나므 칸 있었나?

면담자 거기서 1년 정도를 보내셨던 거예요?

박순옥 어지간히 그렇게 있었죠.

면담자 그러면 구호미 다 나오고요?

박순옥 구호미 다 나왔는데. 기차에서 내리면서 그날부터 열병이 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앓으면서 피란 나오고 작은집 사촌 시누이는 시동생하고 앓으면서, 철원서부터 열병에 걸려 아픈 사람을 죽을 쒀가지고 간간이 먹여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나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면담자 도착해서 아프셨구나, 열병에 걸리셨구나.

박순옥 도착하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흘을 굶었으니까. 그런데 기운이 없으니까 열병으로 그냥 바뀌더라구. 그러더니 열이 팍 달아오르고 얼마나 죽겠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고종사촌 시동생도 열병 앓다 죽었어요. 나는 시어머니하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세 번 네 번 개통(설사를 했다는 의미)을 했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앓고, 조금 나았다가 또 앓고. 이렇게 개통을 했어. 나는 두 번을 개통을 해서 앓았지.

면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박순옥 열이 오르고 아프고 먹지를 못하니깐 거기서 그냥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빨아요. 내가 나가 빨 수도 없고. 낙동강 그 개울물에 빨래를 이고 나가야 거기 가서 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갈 수도 없고, 말도 못 했어요.

면담자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그 사촌 시동생 한 분만 돌아가시고 나머진 다 사셨네요?

박순옥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왔어요.

면담자 그때 같이 내려간 시댁식구가 총 몇 명이었어요?

박순옥 큰고모 네는 큰고모하고, 큰아들하고 피란 나갔죠. 큰고모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남편이 미쳐가지고 나대는 바람에 겁이 나서 친정에 와서 살았는데, 작은아들은 미군 부대, 영국 부대를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피란 와서 들어오니까 어디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고, 큰아들은 거기(김천)에서 앓다가 죽었고. 큰고모가 나한테 그 분풀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집년은 살아나고, 천금 같은 내 아들이 죽었다고.

친정식구들의 피란 과정

박순옥 친정은 그때 광나루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도 열병을 앓으니까 (친정)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병을 앓은 우리 동생들을 돌보았어요. 근데 피란 전에 (친정)어머니는 철원읍 친정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거기 갔다가 폭격당해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버지는 식구들이 열병을 앓지,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져서 드러누워서 오줌똥 받아내야 하지. 나는 남편이 시누이한테 쪽지를 써 보냈더라고요. "나하고 살려면 지금 철원으로 와라, 친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영영 헤어질 줄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한 몸이니까 남편을 따라야 하잖아요. 가긴 가야겠는데 친정어머니는 그러고 있지, 친정아버지는 애들하고 열병을 앓지. 이걸 놔두고 가면 다 죽을 것 같지. 내가 울면서 이건 남편을 따라야 하나, 친정을 따라야 하나. 나 하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았는데, 다 죽으라고 놔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폭격을 당해 방앗간도 없어, 절구통을 들었다가 벼 조금씩 있는 거 찌어가지고 밥을 해 먹이고 죽을 쒀먹였는데. 어떻게 해. 친정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사니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지 아버지(남편) 따라가야지, 지 아버지(남편) 따라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지. 떠나가는 발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해. 들여다보며 울면서 울면서. 그리고 거기서 피란 때 우리는 끌려가가지고 오빠가 매를 힘대로(죽도록) 두드려 맞고, 지 아버지 내놓으라고. 지 아버지 어디 갔는지 없잖아요. 그러니깐 지 아버지가 어디서 붙잡혀서 죽었는지, 매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깐. 그걸 찾으러 다닌다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약천둔치 밑에 시커먼 물이 굽이쳐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빠져 죽으려고 했어.

면담자 누가요?

박순옥 내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철원으로 찾아가니깐 작은아버지가 시치미 뚝 떼는 거야. 그러니까는 빨갱이한테 잡혀 가서 매 맞아 죽은 것만 같은 거야. 오빠도 붙잡혀 갔지, 식구들은 다 그랬지. 지 아버지(남편)는 붙들려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나 혼자 떨어져 시집에 쫓아갔지.

면담자 남편 분은 6·25사변 날 때 뭐 하고 계셨어요?

박순옥 그때 결혼할 때? 국민학교 선생님 했었어. 국민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해방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면담자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에요? 할아버지하고.

박순옥 한 살 차이.

면담자 더 많아요? 이형제 할아버지가 더 많아요? 한 살 더 어려요?

박순옥 응, 내가 한 살 더 많은데. 그렇게 약천둔치에서 거기 갔다 오다가 거기 빠져 죽어 버리려고 했지. 그런데 팔자소관이지. 떨어져서 죽으려고 내려다보니까 물이 시퍼렇게 굽이쳐서 내려와. 찬바람에 확 올라오니까 그게 또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못 죽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면담자 그래서 시댁 가신 거예요?

박순옥 친정에서 그렇게 있다가 시집에서 시누이가 자꾸 데리러 오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가 가라고 했지.

면담자 그렇게 시누가 자꾸 데리러 와서 양지리로 다시 가신 거예요?

박순옥 아니, 양지리로 못 갔지. 철원읍으로 와야지.

면담자 월하리로?

박순옥 응, 거기 있다가 미군 차 타고 피란 나오려고.

면담자 트럭에는 누구누구 탔어요?

박순옥 우리 식구들 다, 동네 사람들하고.

면담자 식구들 누구누구 탔어요?

박순옥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사촌 시누이들. 작은엄마가 폭탄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들만 둘 남은 거야. 하나는 업고.

면담자 시동생하고 시누이들은요?

박순옥 시누이, 시동생 다 같이 나왔지.

면담자 일가족이 다 같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박순옥 그럼, 다 같이 나갔다가 다 같이 들어왔지.

면담자 친정식구들은 언제 피란 나왔어요?

박순옥 친정식구는 그다음에 아버지가, 걸음을 못 걸은 엄마를 우리 집 마차에 싣고 끌고 며칠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트럭이 아니라 마차에 아픈 친정엄마 태워가지고?

박순옥 아이들도 아프니까 마차에 태워서 걸어 걸어 서울역까지 왔더래요. 그런데 부상자와 열병 환자를 구분해서 보내더래.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마누라(친정어머니)한테 갔다가 애들한테 갔다가 하면서 돌보았다고 하데.

면담자 둘 다 서울역에 있고요?

박순옥 서울대학 병원에 가 있는데. 우리는 경상도로 가고 있어서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지요. 간호하러 왔다 갔다 하다 친정아버지가 마누라(친정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솰라솰라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런데 영어를 알아요? 무슨 소린지 모르니 그냥 있으니깐 (친정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으니 마누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열병 앓는 입원실에 가니 아이들은 드러누워 있으니까. 조금 머리 들고 일어나니깐(조금 나아지니까) 광나루로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동생들 둘과 아버지는 광나루로 보내고 우리 친정 올케와 조카와 막냇동생은 수원으로 보내더래요. 그러니까 수원역에 와 있는데 아버지하고 또 떨어진 거예요.

수원 이주

면담자 수원에 온 사람이 올케하고 막냇동생하고, 조카하고? 아버지하고 동생 두 명은 광나루로 가고?

박순옥 광나루에서 재워 주고.

면담자 누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군청 직원들이 보낸 거예요? 군인들이 보낸 거예요?

박순옥 아니죠, 거기서 피란 나올 때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떨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동생들이 아프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동생 둘을 데리고 광나루로 가라 그러니까 광나루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호미 타다 먹고 그렇게 계셨던가 봐. 그렇게 있다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식구들 찾아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 몇 명은 김천서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니까 우리 큰댁 오촌아저씨가 수원시청에, 거기는 먼저 나왔어요. 재산 몰수당해서 나가라고 내쫓아서.

면담자 전쟁 나기 전에 왔네요?

박순옥 우리 이렇게 난리 나기 전에 (오촌아저씨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 계시더라고. 그 아저씨는 학교가 높아. 고려대 나온 사람인데. 옛날에는 철원서 서울로 유학 나온 거지. 우리 외삼촌하고 그렇게 공부 잘하신 분인데, 여기 나와서 시청에서 계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지. 그런데 지 아버지(남편)가 우리 갔던 데에서 우리 뒷집 살던 사람이 수원으로 먼저 올라왔어요, 수원에 피란민이 많다 그래서. 찾으러 온 사람들이 오면 피란민이 어디 있다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네 친척만 데리고 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수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에 피란민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 집이 수원에 먼저 왔는데, 수원에 오니까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 친구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면담자 김천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박순옥 김천에서는 피란민이 수원에 많고 광나루 많고 서울에 많다. 그것만 들었지,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여기 있다는 건 못 들었죠. 그런데 우리 뒷집에서 수원에 피란민이 많다는 걸 알고 왔더니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먼저 우리가 김천에 있다는 걸 알았어. 우리 집 아버지(남편)도 식구 찾으려고 막 뺑뺑이 쳤을 거 아니에요.

면담자 김천에 같이 계셨던 뒷집 사람이 먼저 수원을 갔고, 가보니까 아버지(남편)가 거기 있으니까 알게 된 거군요.

박순옥 그렇게 알았어요. 그 집에서 수원에 가서 우리 집 아버지(남편)를 만나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어디서 느닷없이 편지가 오더만. 그러니까 우리 집 아버지가 돈을 조금 보내 여비로 수원에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 길이 아니잖아요. 몇 번 갈아타서 대구에서 여기 수원으로 올라면은…

면담자 그땐 대구에 있었어요?

박순옥 김천. 대구 김천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올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큰 보따리들을 지고 이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들 둘, 시아버지, 나 이렇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니까 수원 직통 차가 없대요. 대전서 갈아타야 수원까지 오는 차를 탄대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하룻저녁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하룻저녁을 자고 이튿날 일찌감치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아침 식사를 해 먹었거든요. 저녁도 못 먹어 배가 고프니까 논두렁에서. 거기서 그때 누구네 트럭을 타고 왔어요. 대전에 와서 내렸는데 늦은 저녁이야. 늦었어. 그래서 남들은 다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만 집이 어딨어? 어딜 가? 두 다리만 까딱하고 서로 쳐다보고. 다 가고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디 가서 하룻저녁을 자고 버스를 타야 수원 가는 걸 탈 텐데. 초행길이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가르쳐주더라고. 그런데 어디 가서 자야 되잖아요? 남의 추녀 끝에라도 웅크리고 자야 되는데, 뭘 우선 꺼내 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그런데 하얀(머리의) 할머니가 지나가더라고. 내가 염치없이 "할머니!" 그러니까 "왜?" 이러고저러고 해서 "피란 나와서 우리가 수원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가 잘 데가 없어요. 하룻저녁을 새야 내일 또 타고 수원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가는 차가 없다고 하네요. 식전에 일찍 가야 돼요." 그랬어. "그래요?" "근데 우린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하룻저녁 어디서 남의 추녀 끝에라도 지새야 내일 수원 가는 차를 타고 갈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할머니! 이 동네에서 사세요?" "네." 그래요. "네, 그러세요, 그럼 어디 마루에서라도 하룻저녁 앉아서라도 새고 갈 데가 없을까요? 할머니 너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염치없는 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를. 난리 때 피란 때 다 그렇지 뭐." 그 할머니가 너그럽게 고맙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 "고마워요."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룻저녁만 새고 간다는데 한 데서 어떻게 날을 나." 그래서 "할머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선 쫓아가니까 양초 만드는 방이더라고. 마루방이야. 근데 가을이야. 추워서 저녁이면 오들오들 떨려. 양초 만드는 방 마루에 사이로 저녁에 바람이 솔솔솔솔 나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웅기종기 모여서 하룻저녁을 샜어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면담자 그 수가 7~8명 됐나요?

박순옥 다 우리 식구만이에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시동생, 시누이, 나. 여섯 명이네요.

면담자 큰고모네는 같이 안 있었고?

박순옥 큰고모네는 그 뒤에 올라오셨을걸요. 우리 가족만 올라오고. 그 뒤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 자고 뭐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늦게 가도 이렇게 수원 올라오는 차가 있는 줄 알았죠.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서 쌀 한 됫박 사고 끓여 먹을 걸 샀어요. 가니까 그 할머니가 딸하고 같이 살아요. 그 딸이 부엌에서 아침을 짓더래요.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뭘 좀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뭘 좀 사왔는데, 밥은 우리가 솥 가져온 것도 있으니까 수돗가에서 불 때서 밥을 해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뭘 끓여 먹어야 되는데 장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그러니깐 "그러세요?" 그러면서 고추장을 퍼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 놓고서는 찌개를 지져서 그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 밥은 내가 해 먹어야 되잖아요, 며느리니까. 그래서 지져서 밥해서 갖다가 드렸더니, 맛이 있으나 없으나 정신없이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래도 꿀맛이지. 그렇게 해서 갖다 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생전 배고프신 거 모르시다가, 약방하고 귀인으로 계시다가 …. "아이고 잘 먹었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먹고서 차를 타러 나갔지, 작별을 하고서는 "고맙다." 그러고 나갔더니 수원 가는 차가 끊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가요?" "낼 아침에 식전에 오세요. 그래야 있지. 수원 가는 거 없어요." 난감하기 짝이 없지. 그 집에 또 들어가야 되니 도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저녁을 자고 그 이튿날 식전에 나와서 차를 타러 나왔더니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서는, 버스 아니라 기차였어요. 그랬으니까 여기 기차역에 내렸죠.

수원 월남민 정착촌 거주

면담자 수원역에?

박순옥 응, 수원역에서. 편지에 "내가 수원역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 와라." 저 아버지(남편)가 그렇게 해서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차가 도착할 때쯤 와서 기다리고.

면담자 때만 되면 가가지고?

박순옥 우리는 거기서 놀라고 지쳐 가니까, 오니까 정말 저 아버지(남편)가 있어요. 수원역에 와서 있어.

면담자 그러면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박순옥 한 2년 만에 만났나.

면담자 그동안에는 전혀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박순옥 네. 소식이 딱 끊겼죠. 그래 버리니까 친정이 수원에 와 있잖아요. 친정아버지가 광나루 있다가 이고 지고 해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수원을 걸어오셨대요. 동생들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올케언니하고 조카하고 막내하고만 셋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학교 칸에.

면담자 어디 학교?

박순옥 지금 북중학교. 수원북중학교. 거기 건물이 폭격에 날아가고 없더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 그러니까 이 비틀(뼈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란민들이 여기를 파고 광교 가서 나무 찍어다가 전부 움막집을 만들었더라고.

면담자 수가 많았겠네요?

박순옥 많았어요, 거기 아주 다닥다닥했었죠.

면담자 거기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었네요?

박순옥 우리 작은이모네, 큰댁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이제 만난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오니까 수원에서 떨어져가지고 수원에서 허댄(헤멘) 거야. 식구들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식구가 없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소식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해서 우리가 또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역전에서.

면담자 처가댁이랑 같이 산 거네? 할아버지(남편)는 수원에서 살 때, 식구들 올라오기 전에 누구랑 같이 살았대요?

박순옥 누구랑 살긴 살았는지 몰라도 처갓집에 왔다 갔다 했던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로(북중학교 인근) 방 이만한 데로 끌고 들어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그때까지 못 찾았어요.

면담자 북중학교가 무슨 동에 있어요?

박순옥 북중학교, 저기 광교 가는 데 옆에 있죠. 영화동.

면담자 기억을 잘하시네요.

박순옥 너무 혼나서, 지금 반도 기억 못 해요. 내가 잊어버린 것도 많고.

면담자 거기서 사셨구나, 움막 지어가지고?

박순옥 거기 지금은 전부 지어가지고 학교를 다시 하지만 그전에는 운동장 다 날아가 버리고 밑에 비틀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파고 움막 더러 짓고서는 거기 있는데, 저 아버지(남편)가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고.

면담자 다 피란민들이네?

박순옥 그렇죠. 평강, 김화, 철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남수동 비탈에 많이들 살았어요.

면담자 남수동에도?

박순옥 그럼요. 거기도 살고 영화동 거기가 제일 많이 집중해 있었어요.

면담자 공설운동장 쪽은 어디예요?

박순옥 공설운동장? 여기 연무동.

면담자 연무동. 거기도 사람들 많이 있었다던데? 연무동 공설운동장에 (피란민촌이) 있었고, 영화동 북중학교 있었고, 남수동은 어디 있었어요?

박순옥 남수동 그 비탈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피란민촌이 있더랬어요.

면담자 또, 세류동 그쪽은 없었어요?

박순옥 그런 데도 다 피란민이 끼어 있었지만 나는 잘 모르고, 여기 이 근동만 알아요. 어머니는 잃어버리고 못 찾아서, 친정아버지가 노심초사였어. 연무동 지금 얘기하는 공설운동장 거기에 구호물자, 재목들로 피란민들 집들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 한 칸 받아가지고 살았었지요.

면담자 북중학교 있다가 옮기셨어요?

박순옥 북중학교 있다가, 그 옆(영화동 피란민촌)에다가 저 아버지(남편)가 움막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연무동 피란민 사택에 와서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죠.

면담자 북중학교에는 움막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박순옥 많았어. 그 바닥에 아주 쭉 있더랬어.

면담자 여기 연무동은요?

박순옥 연무동에는 지금 운동장이 전부 피란민 사택이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여기는 정부가 이쪽으로 가라고 만들어 준 건가요? 피란민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자발적으로 모인 건가요?

박순옥 수원시청에서.

면담자 수원시청에서 "여기 거주해서 살아라." 정해 줬구나. 맨 처음에는 북중학교 근처 움막집에 있다가 연무동 피란민 사택에 있다가 돈 벌어서 온 거네요.

수원에서 한약방 개업

박순옥 아버님이 면허증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면담자 약방면허증을?

박순옥 네. 그래서 그걸 시청에 가져가서 갱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방을 했지요. 그래서 벌어가지고 여기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었어요.

면담자 그 약방을 어디서 하셨어요? 연무동에서 하셨어요?

박순옥 용두각 앞에 가게들 쭉 있지요? 거기 전에 초라한 조그만 집이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칸을 우리가 산 거예요. 아버지 약방을 하시면서, 남의 셋집 얻어가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가지고 요(화성) 안에 큰 집 사가지고 가서 하다가 이리(북수동)로 나온 거예요.

면담자 두 번 옮기셨네요?

박순옥 세 번 옮겼지요.

면담자 약방 이름은 뭐였어요?

박순옥 동창당이에요.

면담자 계속 동창당 이름을 쓰셨구나?

박순옥 고향에서부터 동창당인데.

면담자 그때 이대길한약방이었잖아요?

박순옥 내가 시집가니까 이대길한약방인데 원래가 상호가 동창당이래요, 그런데 이대길한약방이라고 내가 갔을 적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면담자 왜 이름이 동창당이었어요?

박순옥 아버님 공부하실 적에 가르쳐 준 선생님이 약방 하시던 간판이래요. 스승님네 간판이 동창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판을 딴다고, 그걸로 하신 거예요.

면담자 그럼, 북중학교 거기선 얼마나 있었어요?

박순옥 거기서는 얼마 안 있었어요.

면담자 연무동에서는?

박순옥 연무동에서도 한 2~3년 있었나. 그 정도밖에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약방을 해야 되니까 세를 얻어 나와서 약방을 하신 거예요.

면담자 처음 세를 얻어서 한 동 이름이 뭐예요?

박순옥 저기 용두각(방화수류정, 연무동) 너머예요.

면담자 용두각 너머?

박순옥 지금은 헐려서. 성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헐렸어요.

면담자 용두각 너머서 살다가 그다음에 이사 간 집이 어디예요?

박순옥 용두각 앞에. 거기 조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약방을 했죠.

면담자 그다음에 여기로 옮기신 거예요?

박순옥 그다음에 요 안에 큰 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헐렸어요. 길 나는 바람에 요 길 앞에. 그러다가 거기 있다가 또 이쪽으로.

면담자 다 동창당 이름 그대로 쓰고?

박순옥 네, 간판은 그대로예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그러면 시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박순옥 시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는 시아버지가 하고,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더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면허를 우리 집 아버지 앞으로 냈으니까, 합격이 됐으니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포 가서 했었어요.

면담자 따로 군포로 가셨구나. 여기선 시아버님이 하시니까?

박순옥 응, 그러니까 우리 집 아버지가 군포 가서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출퇴근했어요. 출퇴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출퇴근하다가 오바이트하고. (웃음) 또 그다음에는 옛날에 빨간 차, 퍼브리카 차(1967년 신진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한 승용차)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거, 그거 타고 다니다가 또 벌어서 큰 차를 산 거지.

면담자 그렇게 출퇴근하셨구나? 군포에는 얼마나 하셨나요?

박순옥 군포에 한 4~5년 했을걸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컸으니까는 여기는 내 고향 같고 군포만 해도 남의 집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 집적거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손님이 있으니까 저 집은 짜면 나오겠다, 그런 암체 같은 사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 아버지(남편)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수원으로 들어가야지, 수원은 내 안방 같고 이거는 남의 셋방 같으니까 들어오겠다고 자꾸 그래서. 군포에서 들어와서 저 세무서 뒤에서 저번에 했어요.

면담자 동창당도 있고, 세무서 뒤에서 또 했네요?

박순옥 그럼요.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여기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면허증이 어디다 하면 거기 가서 해야지, 내 맘대로 내 집이라고 들어와서 못 해요. 자리를 지정한 게 매교동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당시는 한 동에 (한약방) 하나씩이에요. 거기서 몇 년 했다가 여기가 자리가 나니까 얼른 들어왔지. 내 집으로.

면담자 그럼 시아버님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박순옥 우리 시아버지가 한 30년 넘었지. 우리 아버지(남편) 이 양반 돌아간 지가 벌써 20년, 올해 20년째거든요.

철원 피란민들과의 교류

면담자 여기 왔을 때, 철원 분들이 수원에 많이 계셨어요?

박순옥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면담자 그럼 철원 분들 따로 모임이 있었어요?

박순옥 남자들은 있었는지 몰라도 나는 안 다니니까 모르죠. 항상 안에만 이렇게 살지. 약방 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저 일에만 파묻혀서 살았지, 바깥일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남편)은 고향 분들 많이 만나셨어요? 자주 만나셨나?

박순옥 만났겠죠. 그건 모르죠.

면담자 그럼 할머니는 고향 분들, 친정식구나 시댁식구 말고는 따로 안 만났네? 친구분들 안 내려오셨어요?

박순옥 내려온 친구들은 어쩌다 한 번씩 만났지요.

면담자 그분들 중 살아계신 분 있으세요?

박순옥 있겠지요. 근데 어디서 사는지는 몰라요. 나는 남우스럽게(남사스럽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서 뭐 먹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했다간 우리 시아버지한테 당장 내쫓기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지. 모임이다 동창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몰려다니면 우리 시아버지한테 금방 내쫓겨요. 못 살아요.

면담자 그럼 계속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네요?

박순옥 그럼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끝까지 다 내가 내 손으로…

면담자 그럼 시동생들도 다 일가 이뤄서 보내신 거예요?

박순옥 그럼요.

면담자 다 여기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가정 이루셨겠네?

박순옥 그럼. 다 가정 이뤘는데 막내 시동생은 작년 무렵에 죽고, 57에 죽었나, 56에 죽었나, 그렇게 죽었어. 그리고 둘째 시동생만 있고, 시누이 금화로 시집갔는데 거기도 죽었어. 큰시누도 죽고.

면담자 여기 북중학교나 연무동에 사실 때, 월남민이다 그래서 수원 사람들과 잘 지내셨어요?

박순옥 아이고, 피란민들 뭐 잘 상대라도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면담자 그래요? 무시해요?

박순옥 그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역전에서 피란민하고 사람하고 싸웠는데 사람이 이겼대. 피란민은 사람이 아니야? 피란민은 사람이 아니냐고. 처음엔 그렇게 하더라도. 피란민하고 사람하고 싸웠는데 사람이 이겼다고. 그 모양으로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란민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일들을 했는지, 지금 피란민이 거꾸로 됐어.

면담자 그래도 여기는 한약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무시 못 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박순옥 우리는 그런 거 안 당했어요. 피란민이 옷도 못 입고 너무나도 춥고, 그러니까, 담요 뭉팅이 하나만 줘도 내가 그쪽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그런 말이 다 있었어요. 저 광교 가서 나무만 해다가 팔고 너무 배고파서 다람쥐도 잡아먹고 살았으니까. 그 움막에서 끝까지 산 사람도 있었어요.

면담자 움막에서 살 때는, 밥은 쌀은 정부에서 주나요?

박순옥 그러지. 배급을 타다가 먹었어요, 처음에는. 배급을 줬는데 ….

면담자 배급은 어디서? 수원시청에서?

박순옥 피란민연락소에서. 시청에서 줬길래 아마 거기서(시청) 나와서 여기서(피란민연락소) 배급을 줬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면담자 끝까지 계속 구호미 받아먹었어요?

박순옥 어쩌겠어, 처음에는 구호미 받아서 먹었지. 약방 시작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지. 딴 사람보다는 고생을 덜한 거야. 대신에 일을 많이 했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잃어버려가지고 찾느라고 ….

친정어머니와의 만남

면담자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박순옥 친정어머니가 대구 육군병원에 있었대요. 미군병원에. 미국 사람들이 쏠라쏠라 해서 데리고 가서 어떤 미군병원에다 집어넣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고쳐 주더래요. 근데 절뚝절뚝하면서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니깐 나가라 그러더래요. 나았으니까 나가래.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식구들이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앉아서 죽죽 울었대요. 나 혼자 어디로 가라느냐고, 나 혼자 뚝 떨어뜨려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식구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다리를 해가지고 가면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난 갈 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 없고 먹을 데도 없다고. 그러고 앉아서 자꾸 울어대요.
그러니까는 미군하고 연결된 교회래요. 교인들이 오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깐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나는 나가라는데 이제는 갈 자리가 없다고. 우리 식구들 찾아줘야지 내가 가지, 어디로 가냐고 그러고 우니까 목사가 신도들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교회로 가겠냐고 물어보더래요. 절에도 다니던 분이 교회를 알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 예수꾼이라 그랬어요. 예수꾼 소리만 들었지, 교회 가서 뭐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우선 당장 어디로 나가라는데 나가긴 해야 되는데 갈 자린 없고, 그러니까 쫓아갔더래요. 쫓아갔더니 거기서 자꾸 교인들하고 접촉해서 교를 믿으라 그러고 믿는 식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서 식구들 찾아주고 아픈 다리도 낫고 그렇게 될 테니까 목사가 "나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고 장로교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면 티끌 하나라도 물에 빠지면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식구 찾아준다니까 밤낮으로 밥도 안 잡수고 울면서 기도만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성신이 왔대나 어쨌나 자꾸 울어지더래요. (웃음) 밥도 못 먹고 울고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물건 해오는 동네 사람이 그 사람도 다리에 폭격 맞아가지고 그 사람은 뼈는 안 다치고 살만 뚝 떨어져 나갔더래요. 근데 같이 입원을 하게 됐더래요. 그것도 피란 나오면서 우리 어머님마냥 실려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이는 뼈는 안 다치고 살만 뚝 떨어져 나갔으니까는 나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막대기를 짚고 나오셨지만. 그런데 거기 같이 있는데 한 날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개를 찾더래요. 그래 (살만 다친 사람) 시아주버니가 찾아가더래요. 그러니깐 거 사람을 찾아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야. 같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은 시아주버니가 찾아와서 찾아가는데 어떡해 혼자. 그러니까 또 울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철원서 왔어?" 그러니까 "네." 그래. 이분이 우리 제수씨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동생 알겠수?" "누군데요?" 그러니까 "박동규 씨, 철원서 삼아사방앗간하고 동이상방앗간이야. 제일 크게 두 집에서 했어. 부잣집에서." 그러니깐 "우리 시동생이 박동규 씨라." 그러니까 "아이고, 알다마다요. 너무 잘 알죠. 철원서 박동규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그 사람 지금 수원에서 시청에서 과장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어머나, 나도 우리 식구 찾았다 이제," 그러고. 그이만 찾으면 우리 식구를 알 테니까. "그럼 박동규 씨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만 얘기해 주슈, 그러면 나는 식구들 찾을 수가 있소." 그러니까 "알고 말고, 그렇게 내가 해드리죠." 그러고선 거기 주소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시청에다 우리 아저씨가 계시니까 거기다 얘기하니까 우리 아저씨네는 남수동에서 살고 … 저기서 살았으니까 다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그냥 그 수원시에서 우리 아버지한테로 오셨더래. "아이고 아주머니 찾으셨어요. 형수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펄펄 뛰며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깐 우리 아버지가 울고 앉았는 거야. 나한테로 오셨어.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았는데 돈이 있어야 엄마를 찾아오지. 어떻게 하니 엄마는 찾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머나, 어디서 찾았수?" "대구에 있대, 육군병원에 있대," 그래서 내가 재봉 집에 다니는 일을 했어요. 나 자방틀(재봉틀)은 잘해요. 옷 같은 거 잘 만드니까. 피란 나와서 그런데 죄다 다녔거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아카이브

든요. 나를 누가 좀 써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삯바느질을 했었어요, 골방에다. 자방틀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 몇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방틀을 사서 있으니까, 베게 옷을 힘들잖아요, 여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옷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낮에는 밭에 나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이면 호롱불 켜놓고선 바느질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조그만해서부터 내가 자방틀 돌리고 같이 했어요, 어머니하고. 시집오기 전에는 그걸 같이 했는데, 피란 나와가지고서는 누가 재봉 집에 갈래, 그래가지고 시누이도 있고 시어머니도 저러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놀고먹어요. 용돈이 어딨어요, 돈은 써야 하고 저 아버지(남편)는 군인 나가고. 돈 부치라 그러고, 돈이 어딨어? 큰일 났지. 그래서 누가 "재봉집에 가 일을 할래?" 그러니까 내가 바느질은 잘한다고 그러니까, 자방틀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 그래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니까 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

면담자 그 돈을 주셨구나.

박순옥 응,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아버지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큰댁 아저씨한테 가세요. 아버지가 데리러 가면 비용이 드니, 엄마한테 비용을 보내 엄마가 여기로 올라오시게 하여 찾읍시다. 내가 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밖에 없다고 끌어안고 우서. 그래가지고선 올라오셔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 기간이 한 3년 4년 만에.

면담자 헤어지고 3~4년 만에 찾으신 거예요?

박순옥 그럼요. 그렇게 오랜만에 찾았죠. 그 다리 고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면담자 남편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박순옥 1990년.

면담자 계속 동창당 하시면서 동네 유지로 쭉 사셨겠네요?

박순옥 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면담자 무슨 일했어요?

박순옥 동네에서 무슨 일 나면 선두자리로 나가고. 그전에는 연탄 땠잖아요. 그럼 동네에 겨울날도 대주고, 신청해서 행사하고, 나가려면 우리 아버지(남편)가 짝을 해서 냅두고. 그런 거 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의 아버지는 그냥 자기가 후딱후딱 하면 그만이지 뭐 어쨌어, 어쨌어, 그런 소리 안 해요. 남들이 그런 얘길 하니까 내가 들었지. 동네에서 놀러 가더라도 버스 대절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다 해 줬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어.

면담자 혹시나 고향은 가보신 적 없으시죠? 나온 뒤로는 못 가봤어요?

박순옥 나온 뒤로 한 번 가봤어요.

면담자 언제요?

박순옥 몇 년 전에 갔더랬는데, 세상에 처참하기 한이 없죠. 그냥 집은 어디로 간 곳이 없고 그래도 김칫독 지하실 판 데 그런 데는 있더라고요. 풀 속, 돌담 쌓아서 아버지가 했는데, 그런데 어쩐 놈은 가시넝쿨이 나오고, 짚인지 뭔지 그냥 무슨 꽃나무도 있고 말도 못 해.

면담자 살아온 이야기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네요. 제가 모르는 사실 많이 알았어요.

박순옥 도움이 되고 말고가 어딨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있는 대로 그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로, 그것도 다 얘기를 흥미 있게 못 해요. 직선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지.

면담자 철원 음식은 뭐가 있어요? 해 먹는 거 있어요? 철원 옛날 음식.

박순옥 옛날 음식 뭐 있어, 수제비도 해 먹고 나물 뜯어다가 나물 무쳐 먹고 농사지어서.

면담자 명절에는 떡국 먹어요, 아니면 만둣국 먹어요?

박순옥 메밀만두 해서 먹었죠. 제사 지내고.

면담자 자녀분들은 몇 분이나 두셨지?

박순옥 우리 아들 셋, 딸 둘.

면담자 다 장가 시집가시고?

박순옥 결혼은 다 했지요. 애들 낳고 잘 살아.

면담자 수원이 이제 고향이겠네요? 완전히.

박순옥 그렇죠. 애들은. 나만 피란민으로 쳐주고 애들은 다 여기가 태생이니까. 여기가 고향이죠.

면담자 할머니 생각에도 여기가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철원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옥 다 나왔으니까 없죠, 이제. 철원에 고모네도 있긴 있어도, 시고모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친정도 여기 나왔기 때문에 철원은 멀어졌어요, 이제. 지금 선대 산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10월 달이면 가서 제사도 지내고 7월 달에 풀도 깎으러 가고. 그리고 철원읍의 도피안사(到彼岸寺), 대피절이라고 그래요. 그 뒤가 우리 산소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벌초하고, 가을에는 제사 지내고 그러고 와요.

면담자 수원에 사시게 된 건, 정부에서 누군 광나루, 누군 수원 이렇게 지정해줘서 수원에 살게 된 거네요?

박순옥 수원에 지정해서 산 게 아니라, 각처로 헤어졌다가 여기 오면 신고를 했어요. 연락소에 가서. 피란민연락소에 가서 신고해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타 먹어야지, 뭘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면담자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담 자	박현정(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현석이(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면 담 일	2012년 4월 11일
면담장소	북수동 동창당한의원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 철원 월남민 김봉석



1933년(1세)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출생
1946년(14세) 서북청년회 가입한 형님 월남
1949년(17세) 대한청년단 가입
1950년(18세) 6·25전쟁 발발, 인민군 징집, 국군 17연대와 의정부로 후퇴
1951년(19세) 국민방위병 제1신병교육대 입대
기평 미1사단 부대 노무지로 활동
미군 485공병대 하우스보이로 활동
1952년(20세) 의정부 예비사단(노무사단)으로 징집, 18연대 의무중대 하사로 발령
1953년(21세) 영연방사단에서 근무
수원에 정착 후 서울지방법원 호적과 근무
세탁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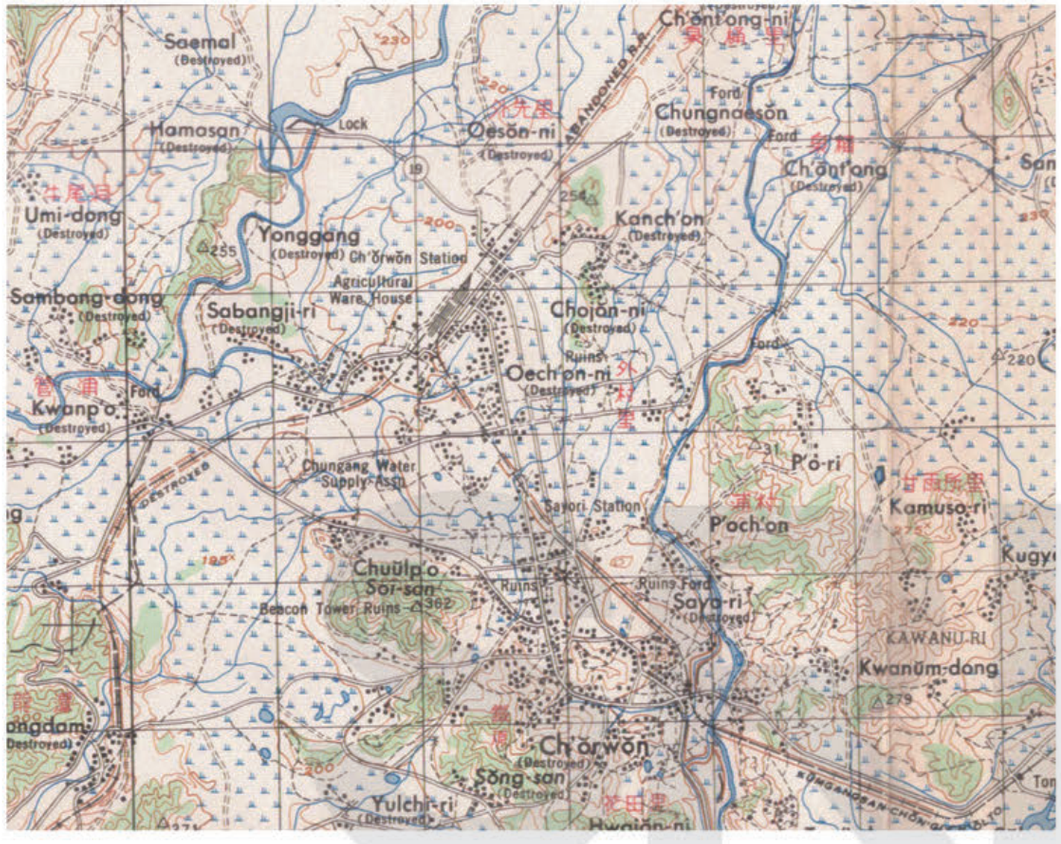
인민군 징집을 피해 월남 후 노무사단과 의무중대를 거쳐 영연방사단까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방 직후 철원의 정치적 상황

김봉석은 1933년 1월 2일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철원에서 제일 중심지였다. 일제시기에 철원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기에 일본인들은 철원에 여러 시설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들여왔다. 근처에 탄광이 많아 기차가 다녔고,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있었다. 집에 수도를 놓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 수도를 사용하였다. 일본인들은 위생을 중심에 거리 청소를 시키고, 시내버스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김봉석의 아버지는 철원 내 인쇄소에서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추어탕 가게를 운영하였다.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글자를 찾아 인쇄물의 조판(照板)을 했고, 웬만한 한문과 일본어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판일은 고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종이 재단 기술을 배운 후 일자리를 찾아 홀로



1950년대 철원읍 일대

함경남도 원산으로 갔다. 김봉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원산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외지인 원산에서 홀로 일하다가 병이 들어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그때 생긴 병환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평화식당이라는 추어탕집을 운영하였는데 읍사무소 옆이라 손님이 많았다. 1년에 두세 번 읍사무소에서 주문을 받아 일본군 도시락 500~700인분을 만들었다. 집에 쌀이 항상 남아 있었고, 남은 쌀은 몰래 여관에 팔기도 했다. 김봉석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식당은 계속 운영하였다.

8·15해방 당시 김봉석은 철원읍사무소 옆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해방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형님, 그리고 여동생 셋이 있었다. 성격이 활달하여 친구도 많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했던 형 김경득은 서북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형님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김봉석을 따로 불러 형님이 서북청년회에 가입되어 활동한 것이 발각되어 남쪽으로 월남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형님이 월남한 것은 1947년경이었다.

그 후 김봉석은 장남 역할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주로 밭농사였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편지로 형님과 소식을 주고받았다. 형님의 서명이 있는 것을 보고 진위를 판가름했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전해 주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였다. 소련군이 점령한 철원에서 형님이 월남하였기에 김봉석네는 반동분자로 요시찰 대상이었다.

형은 월남 후 중사로 시험을 보아 육사 1기생이 되었다. 육군 소위로 6사단 중대장으로 발령받아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중공군과 전투 중 총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반신불수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2008년에 사망하여 현재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6·25전쟁 발발과 인민군 징집

김봉석은 철원초등학교, 철원중학교, 철원고등학교에서 공부하였다. 6·25전쟁 발발 당시 방송에서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다고 하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지만 이미 형님을 통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거짓인 것을 알았다. 김봉석이 철원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친구들이 비밀리에 대한청년단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대한청년단은 남한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이들은 한국군이 철원에 들어올 때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치안을 담당하였는데, 본부 사무소는 철원극장에 설치되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7월 7일 철원역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인민군으로 징집되어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출발하였다. 철원에서 원산까지는 300리(66㎞) 길로, 기차를 이용하면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낮에는 기차가 달릴 수 없어 굴속에서 기다리다가 밤에 이동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래서 원산에는 3일 후 새벽에 도착하였다.

경원선 철원역 철로와 관사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이미 미군이 원산을 비행기로 공격하고 있었고, 김봉석은 마음이 맞는 7명의 사람들과 탈영해서 철원으로 갈 것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탈출 당일 새벽에 모인 것은 김봉석과 이북 정치보위대 위원을 아버지로 둔 손근홍 두 사람뿐이었다. 철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고됐지만, 전쟁 중이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지 않았다. 안변(安邊)에 도착해서 안변역 앞 여관에 들어가 식사를 한 후 도망쳐 겨우 기차를 탈 수 있었다. 둘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얻어 탄 화물칸에서는 생선 썩은 냄새가 났고 옆에는 인민군들이 있었다. 철원역에 내렸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신고당할까 봐 일부로 월정역에서 내렸다. 기차가 월정역에 2분 정도 정차하였을 때 화장실로 들어가 기차 출발을 기다렸다.

인민군이 탄 기차는 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였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주위를 살피고 화장실을 나오는데 동창생을 만났다. 손근홍은 목숨 걸고 탈영했는데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동창생을 논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자고 했다. 김봉석이 동창생을 개울로 데리고 가서 세수를 하고, 친구의 의리로 자신이 탈영한 것을 함구하도록 했다. 철원역에서 관전리까지는 10여 리, 월정역에서 철원역까지는 30~40리 되었다. 김봉석은 집(월정리 평화식당)에 도착해서 숨어 있었다.

한국군 17연대의 철원 철수와 피란 과정

한국군과 인민군이 38선을 두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였다. 그때 김봉석은 우연히 남한에서 한국군으로 참전한 철원 출신 동창생들을 만났다. 친구들에게 남쪽으로 가는 방법을 물어 보니 가려면 지금 가야 한다며 한국군이

SRI 수원시정연구원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후퇴할 때에 무조건 쫓아 내려가라고 했다.

10월 한국군 17연대가 철원에 있었다. 밤이 되면 인민군 패잔병들이 철원읍을 둘러싸고 총을 쏴댔다. 그들은 새벽까지 총을 쏘다가 해가 뜨면 다시 산으로 도망가 숨었다. 국군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한청년단에 가입했던 젊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짝을 지어 야간 보초를 서게 했다. 10월 24일부터 17연대의 대대들이 연천 쪽으로 후퇴하였다. 3일 후 나머지 1개 대대도 후퇴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인들이 김봉석 같은 민간인에게도 남쪽으로 가려거든 쫓아 나오라고 언질을 해주었다. 김봉석의 무리들과 17연대가 함께 후퇴하는 중에 미군이 철원에 낙하산으로 엄청난 양의 실탄을 떨어트렸다. 실탄을 인민군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차에 실었고, 자리가 없으면 몸에 매달고 후퇴하였다. 나오는 길에 인민군 패잔병들이 후퇴하는 한국군을 향해 총을 난사하였다. 그래도 정신없이 달렸다. 10월 말이라 날씨도 춥고 낙엽도 가득 쌓여 있었다. 한국군이 그 산을 타고 후퇴하니까 인민군이 불을 질렀다. 불길을 뚫고 새벽까지 달려 연천까지 내려왔다. 김봉석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식구들과 헤어졌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이후 1·4후퇴 때 월남하였다.

한국군 17연대와 함께 후퇴해서 연천을 지나 의정부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철원 아이들 13명이 함께 왔다. 김봉석과 친구들은 연천에서 1개 대대가 토벌하는 데 참여하였다가 빗발치는 사격에서도 벗어 놓은 로켓포를 주워와 군인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17연대에서 이들에게 통과증 비슷한 검사증을 만들어 주었다.

김봉석과 아이들이 서울로 가던 중, 행색 때문에 빨치산으로 의심받아 의정부치안대가 이들을 붙들고 구타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들이 남하하는 피란민인 것이 확인되자 풀어 주면서 평나루 쪽으로 돌아가라고 말해 주었다.

북한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연천에서 폐기한 상태였다. 당시 평나루다리가 파괴되어서 경찰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추웠기 때문에 모래집에서 자면서 매일 미주치는 경찰에게 서울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국민방위군 제1신병교육대 생활

많은 고생 끝에 서울에 도착하였지만 먹고살 방법이 없었던 김봉석은 국민방위군 제1신병교육대에 입대하였다. 제1신병교육대는 정식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모아서 만든 예비 병력을 위한 부대였다. 1,200명 정도를 모집했고, 대구까지 내려갔다. 처음 제1신병교육대에 들어가니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았다. 김봉석과 친구들은 이북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남한 교육은 이북 교육과 모든 것이 반대였다. 그래서 "뒤로 돌아!"라는 구령이 떨어지면 김봉석과 친구들만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훈련이 끝난 이후 남한강 둘레를 거쳐 문경새재를 넘어 팔공산 뒤로 대구에 갔다가 이어 경상남도 경산까지 걸어 내려갔다.

신병교육대에서 6개월 근무하는 동안 김봉석은 연대장 연락병이었다. 김봉석은 연대장인 정 소령의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김봉석이 싹싹하고 일도 잘 했기 때문에 연대장 부인이 김봉석을 잘 보아 수양아들로 삼아 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김봉석은 연락병이니까 민간인이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고, 식당에 가서 누룽지를 달라고 하면 그의 위세에 눌려 바로 내주었다. 김봉석을 그것을 같이 온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수양아들로 삼

겠다는 연대장의 제안도 함께 의논하였다. 그러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수양아들 건을 거절하였다. 1951년 3월 부대가 해산되었고, 고향에서부터 경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병역에 대한 대가를 쌀로 주었다. 임금 대신 받은 쌀 두 가마니를 팔아 하루 두 끼씩 먹으면서 경기도 가평으로 올라왔다.

하우스보이부터 영연방사단 유엔 경찰까지

김봉석과 친구들은 가평역에 도착하였다. 가평에는 미 1사단, 말대가리 사단이 주둔해 있었다. 미군부대 정문 앞에 가서 드나드는 통역관에게 일을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당을 받는 식으로 근무하였는데, 3~4월 한 20여 일 근무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들은 기차에서 실탄과 포가 담겨 있는 통을 트럭에 싣는 일을 하였는데 김동석은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일이 힘에 부쳤다. 하지만 일하면서 씨레이션(C-ration, 전투식량)을 배불렀다가 맛있게 먹었다.

미 1사단 보급부대가 문산으로 이동하자 김봉석은 미 485공병대로 찾아가 하우스보이(houseboy)가 되었다. 김봉석은 485공병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담배를 얻으면 슬링백(군용가방)에 담아 놨다가 부대 밖에서 판매하였다.

4~5월 철원에서 미군이 피란민들을 실어 와서 광나루에 내려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책임자에게 가족들을 만나러 다녀오겠다고 부탁하여 5일 휴가를 받았다. 부대에서 미군 쓰리쿼터를 내주어 그걸 타고 동대문운동장에 도착하였고, 이어 광나루로 가려 하였다. 하지만 길을 잘 몰라 수원으로 왔다. 광나루 가는 트럭을 타기 위해 매교다리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수원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는데, 김봉석은 이때의 인연으로 이후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다.

광나루에 가서 김봉석은 어머니와 3명의 여동생을 만났고, 그동안 모은 돈을 어머니에 주면서 집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후 바로 밑의 여동생은 여군을 지원하였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수원 남수동에서 집을 구입하여 피란살이를 하였다.

가족과의 상봉 이후 김봉석은 다시 485공병대로 귀대하고 근무하였다. 하지만 이후 한국군으로 징집되어 노무사단에 배치되었다. 동두천 위 한탄강의 예비사단에서 일하였는데 길 청소, 도치카, 방공호 구축, 철조망 깔기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 최전방인 덕정리에 주둔하면서 김봉석은 근무 중 심한 배앓이를 겪었는데 근무를 나가지 않고 쉬다가 회충을 토하다가 기절하였고, 의정부 사단본부 의무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입원 기간에 김봉석이 영어를 읽고 말할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된 상사가 그를 의무교육을 받게 하였고, 이에 김봉석은 위생병이 되었다. 그는 예비사단 18연대 의무중대 하사가 되었다. 1년 7개월 근무 후 부대가 해산되자 김봉석은 동두천에 있는 영연방사단에서 근무하였다. 일종의 유엔 경찰로,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매춘부를 색출하는 것이 임무였다. 하지만 영연방사단이 동두천에서 인천으로 옮겨 가면서 김봉석은 1953년경 제대하여 수원으로 들어왔다.

수원 정착 생활

군 제대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동향인 철원 출신 서기과장에게 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철거되는 수원천변 무허가 점포(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아파트 구조만 짓고 분양하는 '프레임(frame)'식 건설로 지어진 서문아파트
(1971년, 수원박물관 제공)

탁하여 김봉석은 서울지방법원에 취업하였다. 남수동에서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2년 정도 서울지방법원 호적과에 근무하였다. 직장 자체는 좋았으나 양복을 매일 입어야 했고, 비싼 식대 등 소요 경비를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봉석은 퇴근 후 친구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세탁 기술을 어깨너머로 익혔다.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되자 김봉석은 서울지방법원을 그만두고 세탁업으로 전환하였다. 처음에는 팔달로2가 백내과 자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건물이 헐려 북수동 천주교회 바로 앞으로 이전하였다. 세탁소는 11년간 운영하였다.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남수동에서 북문, 연무동에서 동문까지 피란민촌이 만들어졌는데, 영동시장 다리 건너 미나리광시장, 그 성 옆으로 쭉 동문까지 피란민들이 하꼬방을 지었다. 어머니는 원래 남수동 집에서 거주하면서 구멍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얼마 후 집을 팔고 팔달산 밑 국유지에 지은 하꼬방을 구입하였다. 김봉석은 32세에 충청도 출신 아내와 결혼하였고 자녀로는

1남 2녀를 두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 주변의 무허가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피란민들이 이주할 서문아파트를 1970~1972년 지었다. 김봉석은 1970년대 초반에 서문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피란민들은 내부시설비 20만 원이 없어 외지인에게 입주권을 팔고 나갔다. 2002년 노후한 서문아파트를 철거할 때 토지 소유권이 농림부 20%, 재무부 80%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 철거에 반대하였다. 이후 보상비를 받고 나왔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원 군민회는 초창기 회원이 40~50명 정도 되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철원군민회장의 장기 집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김봉석은 잠정적으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수원전번 정비 후 피란민들이 입주한 서문아파트(수원박물관 제공)

SDI 수원시정연구원

고향

면담자 선생님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김봉석 원래는 33년생인데 호적에는 36년 1월 2일로 되어 있어. 내가 전방(보천리 연천 소록동)에 있었거든요. 휴전하기 전에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북서 넘어와가지고 광나루에서 미군이 내려주는데, 수원에 와가지고 나를 (호적에) 올릴 때 모르고 36년생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면담자 4살을 까먹었네요?

김봉석 네.

면담자 생일은 맞아요? 1월 2일생?

김봉석 1월 2일 맞아요. 정월 초이튿날이니까, 그 기억은 정확하게 맞아요. 정월 초하루 다음 날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

면담자 그럼 어르신은 닭띠겠네요?

김봉석 네. 닭띠예요.

면담자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김봉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면담자 철원읍이면 철원의 중심가인가요?

김봉석 수원으로 말하자면 남문 근처예요. 거기가 제일 중심지야. 읍사무소도 있고, 읍사무소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지금은 수복이 안 돼가지고 동성면이 이제 제2의 철원읍이 돼 있는 거지요.

면담자 동송면이 철원읍을 대신해 중심지가 된 거예요?

김봉석 그렇죠. 동송면 쪽으로.

면담자 여기는 38선, 이북인가요?

김봉석 거기는 38 이남이야. 월정리까지가 경계선이에요. 월정리가 저기서 한 30리.

면담자 철원읍에서 30리? 위쪽으로?

김봉석 응, 위쪽으로.

면담자 관전리는 이남이긴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김봉석 농사짓는 사람만 들어가고.

면담자 거기를 통상적으로 비무장지대?

김봉석 거기는 농사짓는 사람만 패스해 주고, 들어가서 농사짓고 저녁에 또 나오고.

철원 철수 과정

면담자 철원에서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김봉석 철원 사람들은 두 갈래로 철원서 철수했어요. 6·25가 나가지고 1차 후퇴했다가 저 위에까지 전진했다가 또 후퇴하고 왔잖아요? 근데 1차로 우리도 전진 갔다가 울산까지 후퇴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전진, 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아군이 미군하고 한편하고, 철원 다시 복구하고 올라왔어요. 문제는 여기서 압록강까지 전진하고 올라갈 때, 학도병 나갔던 철원의 동창생들이 철원에 와서 군복 입고, "야, 봉석아 오래간만이다." 우린 그때 거기서 숨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인제 악수하면서 남쪽으로 가려면 "어쩌냐?" "야,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야지. 나중에 또 후퇴하면 너 못 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군이 후퇴할 때는 무조건 쫓아 내려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방으로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그 후엔 소식이 없죠. 지금 아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전사 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의정부까지. 철원에 군인들이 다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고 나니 철원에 군인들이 없잖아요? 패잔병, 인민군 패잔병만 산속에 숨어 있다가, 콩닥콩닥하고, 미군이 한꺼번에 쫙 후퇴해 버렸잖아요. 다시 또 수도에 왔잖아요. 그때가 10월 달이에요, 10월에 한국군 17연대가 철원에 있었거든요? 일개 연대가. 근데 밤이면 인민군 패잔병이 철원읍을 에워싸요. 그러고 막 총질하고. 또 새벽이면 인민군이 산으로 도망가고. 또 밤이면 우당탕탕 하고. 한국군인들 가지고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 우리가 그때 대한청년단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대한청년회 가입한 사람은 다 우익 청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이하기가 편하고, 밤이면 같이 호에 한국군, 대한청년단 한 명이나 둘이. 군인이 자면 우리가 총을, 그때 M1 총이야. 그걸 주면 그걸 가지고 밤새 쏘고 그러는데. 10월 한 27일인가 그때쯤? 27일, 한 3일 전이야. 그러니까 24일 정도에 17연대에서 2개 대대가 의정부 쪽으로, 연천 쪽으로 후퇴를 했어요. 따라서 철원에 남은 건 1개 대대만 남은 거예요. 1개 대대가 3일을 버텼어요. 그리고 연천 쪽으로 후퇴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 보고도 "가려면 우리 쫓아 나와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고 후퇴하는데, 미군 수송기의 어마어마하게 큰 뒷문이 열리면서 큰 낙하선이 떨어져요. 후퇴하는 상황인데다가 실탄을 어마어마하게 철원에 떨궜어. 2개 대대 후퇴하고 1개 대대가 먼저 거기다가 실탄을, M1총이고 박격포고 낙하산으로 냅다 던져놨어요. 그걸 본 인민군들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지. 그걸 한국군이 "다 차에다 실어라." 지프차하고 쓰리쿼터 트럭(닷지(dodge)차, 견인 능력이 약 1.25톤인 군용 차량을 말함)하고 "다 실어라." 실어도 뭐 실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총을 주고, 후퇴할 때 한국군이 패잔병하고 싸우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탄을 메래요. 전부 어깨다가 멜빵을 해서 메고, 나는 로켓포 3개를 멘 거죠. 근데 그건 좀 가벼워요. 3개를 어깨다가 꽉 붙들어 매고 자빠져도 안 빠지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쪽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니 말이야. 후퇴하는데다가 그걸 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고는 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점만 되지.

면담자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음력이죠?

김봉석 우리가 후퇴할 때, 10월 27~28일쯤 됐었어요. 10월 달, 날이 좀 으슬으슬 추울 때에요. 그래가지고 국도로 군인들 쭉 트럭, 지프차 앞에 서고, 트럭 해가지고 군인들은 또 뒤에 쭉 서고. 민간인은 그 뒤에 쭉 서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저쪽 산에서 인민군 패잔병들이 빵빵하고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쏘니까 어떡해, 지프차는 속력 내고 남쪽으로 도망가고. 우리같이 미국 소총 가지고 있는 한국군은 그 옆에 길을 내서 산 쪽으로 돌아가. 그때가 10월 말쯤이니 산에 낙엽이 쌔고(쌓이고) 이렇잖아요? 거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근데 인민군이 산 쪽에다 총 쏘고, 우리는 산에 가서 숨어 있는 거죠. (인민군이)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타 죽어라. 불이 막 타오르니까 자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저 위에서는 인민군들이 "낯선 놈은 다 쏴 죽여라." 하고. 올라가면 인민군이 있고 여기는 불이 올라오고. 그래서 옆으로 기어가. 한국군들이 몇이 불에서 그냥 …. 움직이면 바스락 소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탈출해서 새벽에 그 이듬에 연천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익 청년단체 활동

면담자 대한청년단 단증이 있었어요?

김봉석 대한청년단이라는 게, 철원에서는 옛날에 서북청년단(서북청년회)이라고 우익 단체예요. 본산이 신의주예요. 평양이 아니고 신의주가 본부가 있는데 여기 철원에도 해병대가 진주했을 때, 그때 이미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북 전체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우익 단체가, 비밀조직이 되어가지고. 언제 폭격한다, 그러면 지역마다 무기를 다 감춰 놓고 있었어요.

면담자 해방될 때는 철원이 북한이었죠? 그때는 서북청년단이나 한청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활동하기 힘들었겠네요?

김봉석 그게, 해방되어가지고 김일성이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아주 왕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소작인들이죠. "소작인들한테 당신네 땅이요?" "아니요. 지주한테서 농사지어서 소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신네 땅 한 푼 줄 테니까 우리말 잘 들으라."고.

면담자 그렇죠. 토지개혁이라고 해서.

김봉석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좋다 하고 지주들보고 뭐라 해. 그러니까 지주들도 정부에서 불러다가, "땅 얼마 가지고 있어? 부자야?" "없다." 그러니까 "다 내놔. 다 몰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들이 땅이 지 땅이 아니야. 그냥 농사만 지어먹고. 몇 마지기 하면 거기서 40% 이상은 다 정부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한 50% 정도 그거가지고 먹고. 그거가지고 돼요? 농사지은 거 조금만 주고 세금 조금 내고 다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거의 한 반 뺏어가니까 생활이 어렵죠.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서북청년단이나 대한청년단에는 주로 땅 뺏긴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건가요?

김봉석 그렇죠, 젊은 사람들. 대부분 이북의 실정을 대강 젊은 사람이 아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지금도 이북 사람들, 거의 한 80%는 반대할 거요. 겉으로는.

면담자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김봉석 우리 같이 다 아니까, 하면 안 당해.

면담자 선생님 철원읍사무소 옆에 살 때, 같이 살던 가족들이 누구누구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김봉석 우리 아버님은 해방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동생 셋. 우리 형님이 있었거든. 우리 친형인데, 친형은 서북청년회 가입으로 체포하기 한 일주일 전에 남쪽으로 도망 온 거야. 80리니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뒤었어요.

면담자 형님 있고, 선생님 있고, 그다음에 동생이?

김봉석 여동생이 셋. 여동생 3명 다 잘살아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형님의 월남과 참전

면담자 그러면 형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김봉석 우리 형님은 육사 1기생이에요. 육사 1기면 최고죠. 여기 와서 친척들이 있는데 친척들도 먹고살기 힘드니까 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먹고살려면 의식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군에 있으니까 그때 중사(中士)인가. 난 말만 들은 거예요. 중사 때 시험 쳐서 육사 1기. 그때 당시에는 육사 1기라 안 그러고 생도 1기라 그랬다구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기 몇 개월 전에 6·25가 터졌죠.

면담자 그럼 형님은 생도생으로 6·25에 참전을 했겠네요?

김봉석 육군 소위로 6사단에 발령받아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이 겨울에 투입했잖아요? 그때 중공군한테서 발 하나 맞고. 그때 대위 땐데. 총알이, 헬멧만 있으면 철모만 있으면 괜찮았는데 이런 (일반)모자를 쓰는 거 보고는 거기 딱 맞은 거예요. 이게 탁 튀면서 쭉 째지고 나간 거예요. 그때 중대장이었으니까, 중대장 맞았다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갑바(포대) 같은 데 메서 끌고 내려와서 지프차에 싣고 사단본부로 와서 헬리콥터로 평양까지 가서 응급처치 다 하고 부산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거죠. 반신불수(半身不隨)예요 반신불수. 뇌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반은 못 써요. 발은 걷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면담자 지금도 살아 계세요?

김봉석 아니, 죽은 지가 한 4년 됐어요.

면담자 계속 살아계신 내내 고생하셨겠다.

김봉석 대전 현충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장교니까. 소령 제대해서 일 계급 올라 중령으로 해서. 묘지가 사병묘지 따로 있고, 달라요 묘지가.

면담자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봉석 김경득. 서울 '경'자, 얻을 '득'자.

면담자 형님은 6·25 나던 그해에, 초반에 내려와 가지고?

김봉석 그 몇 년 전에 내려왔죠. 6·25 나기 몇 년 전에 내려온 거지. 그때 이북서 서북청년단이 전국에 조직됐다는 걸 어떻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비밀로 하나하나씩 족집게 같이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한테 자꾸 정보가 튀라고,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80리니까, 남쪽 넘어가기 쉬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6·25 전에는 심하지 않았어요.

면담자 해방되고 46~47년경에 내려가셨다고 보면 될까요?

김봉석 그렇죠. 남쪽으로 온 지가 여러 해 됐죠.

면담자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김봉석 난 철원고등학교. 철원중학교. 철원국민학교.

면담자 철원에서 쭉 지내셨네요. 고등학교 졸업은 못 하셨죠?

김봉석 고등학교 3학년 때 6·25가 터졌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방송을 해. 방송에 남쪽 괴뢰군이 38선을 월북해서 침입했다고. 그날 새벽에. 우리가 8시에 학교를 가서 있으니까 학교 방송으로 남쪽 괴뢰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10리 정도를 쳐 올라오고 있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그게 다 거짓부렁으로. 난 속으로 거짓부렁이야. 우리 형이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지. 편지가 왕래했다고요. 편지 한번 우리 형한테 주면 거기서 사인을 받아 와요. 그럼 집에서 수고했다고 돈을 얼마씩 줘요. 사인을 보면, 우리 형 사인을 알거든요. 만나고 왔구나. 그래가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아카이브센터

고 수고비를 줘요.

면담자 편지 전달한 사람한테?

김봉석 38선을 왔다 갔다 하는.

면담자 편지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김봉석 민간인인데 비밀로 남쪽에 내려와서 이것저것 물품 같은 거 사가지고.

면담자 스파이 이런 개념은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김봉석 그렇지. 남쪽 물건을 보따리로 사가지고 감춰가지고 와서 이북에서 몰래 팔아먹고, 이북에서 남쪽으로 가져가는데, 이북에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때만 해도 이북서 지주, 상인, 크게 하는 상인들. 트럭으로 물건을 잔뜩 사다가 파는 대상인들 있잖아요. 다 죽였어요. 이북에는 상권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시장경제라는 거 없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하나 장사 크게 하는 사람 불러다가 죄 죽이는 거예요. 지주 죽였죠, 상인들, 대상인들 다 죽였지.

대한청년단 가입과 활동

면담자 형님이 서북청년단(서북청년회) 활동하실 때, 서북청년단이 몇 년도에 조직된 단체인가요?

김봉석 서북청년단이, 김일성이가 진주하고 나서 신의주에서 조직된 모양이에요. 본부가 신의주래요,

면담자 그럼, 서북청년단의 신의주본부가 만들어진 건 해방하고 바로 만들어졌나 봐요?

김봉석 네. 대한청년단 그거는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깐 친구들이 "야, 너 여기 가입해." "그 뭐야?" "이거 대한청년단이야." "야 이거 하다가 괜히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그래도 괜찮아, 이거 비밀로 하는 거야." 이북서는 여기와는 다르게 비밀을 무지하게 지켜요, 이북 청년들은. 아주 그건 한결같이 절대 누설하지 않는 게 이북 청년들이었다고요.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한청년회 가입한 거예요.

면담자 선생님은 서북청년단이 아니고 대한청년단이었네요?

김봉석 대한청년단이지요.

면담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입하셨어요?

김봉석 아니 2학년 때.

면담자 제가 대한청년단 조직을 대략을 알지만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 다니는 철원고등학교가 대한청년단의 지부처럼 되어 있는 건가요?

김봉석 아니. 아는 친구들끼리 비밀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건 남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비밀로. 남쪽에 대한청년단이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래요.

면담자 가입한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대부분 철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일반 학생들도 많이 있었나요?

김봉석 철원에, 철원고등학교가 있고 상업고등학교가 있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가입하라 그러면 누설되기가 쉬웠거든. 그러니까 조금 공부도 하고, 앞일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 데려다가 가입하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입하라 그러지. 아무한테나 했다가 무식쟁이들한테 했다가 "야 임마, 나 이런 거 가입했다." 떠들어대면 대번 걸리죠. 근데 여기 한국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아카데미

군이 오니까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만세 부르고, 대한청년단원들이 뭉쳐가지고 치안을 끌고 가요. 후퇴하니까 같이 쫓아 나오는 거죠.

면담자 그럼. 대한청년단 철원지부였나요?

김봉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면담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김봉석 정확한 거는 모르죠.

면담자 정확한 건 모르고? 한 번 모이면 대략. 전체 모임 안 하나요?

김봉석 그런 건 모르죠. 대충 이렇게 하면, 철원극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 되면 한국군 호. 즉 방공호. 말하자면 호에 가서 밤을 세고 싸우잖아요? 근데 낮에는 극장에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극장이 말하자면 본부야.

면담자 대한청년단 본부?

김봉석 대한청년단 본부라 할 수도 있고, 이북 지지를 싫어하는 사람 모임이고, 40~50 되는 사람들도 거기 다들 와요. 근데 이북에 지정패들, 당원이거든요. 당원인 사람은 거기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보면 저 새끼 저거 우쭐대고 다니는 놈 있거든요. 무식쟁이들. 감투 하나만 씌워 주면 아주 으스대고, 그런 식으로 그래요. 이북도. 근데 낮에는 극장에 모여들거든요. 밥 먹고 지시사항도 받고 너는 어느 호에 가라, 너는 어느 호에 가라 그러지.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몇 십 명이 모이거든요. 저는 6·25전에 인민군도 했었어요.

면담자 인민군으로? (웃음) 그러면 선생님이 대한청년단에 가입하게 된 거는 주로 형님의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싫어하신 건가요?

김봉석 그건 아니지. 형이 남쪽으로 내튀었으니까는, 우리는 말하자면 반동분자 집이지, 요시찰 대상 집이야. 그러니깐 나야 깝죽깝죽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저 쥐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 6·25 나던 해 7월 7일 날, 비가 억수 같이 퍼붓는 날 학교에서 소집을 했어요.

전쟁 발발 후 인민군 징집과 탈영

면담자 인민군?

김봉석 응. "다 나와라. 학교로 오지 말고 몇 시까지 철원역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새벽에 원산 쪽으로 간 거예요.

면담자 징집됐네요, 인민군으로?

김봉석 응, 인민군으로. 참 불쌍했죠. 철원서 7월 7일 원산으로 새벽에 기차를 타고 떠나는데요. 원산서 철원이 300리거든요. 300리면 몇 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가는 데 3일 걸렸어.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다가 기차가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낮에 하루종일 그 속에 있다가 밤이면 또 출발하고. 밤에만 떠나고. 그래가지고 원산에 새벽에 내려온 거죠. 근데, 그때 미군이 원산서 폭격을 해서 통신망이 완전 두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산에 떨어지자마자 우리 마음 맞는 청년들 몇이서 모여서, 내일 저녁에 철원으로 튀자, 그래 조직을 한 거예요. 8명이나 됐는데 글쎄, 전부 기권하고 손근홍이하고 나하고만 새벽에 모이는 장소에 딱 둘이만 만난 거예요. 손근홍 아버지가가 이북에서 정치보위부 위원이에요. 그런데도.

면담자 아들이 이렇게 돼요? 반대를 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김봉석 응, 근홍이하고 나하고 도망을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중앙정보부나 마찬가지예요. 정치보위부 자식인데. 나하고 둘이서 원산서 새벽에 버젓이 군수 지나고 배가 고프니까는 가게 가서 뭐 좀 훔쳐 먹을래도, 뭐 있어? 가게 들어가면 이북의 백두산 사이다 무슨 사이다, 사이다만 많아. 이놈 먹으면 배가 더 고파. 소화가 되니까. 참, 길에 드문드문 자전거가 있어요, 원산 시내. "야 저거 하나만 훔치면, 너 하나 훔치고 나 하나 훔치고 해서 둘이 자전거 타고 철원으로 냅다 도망가면 하루면 간다. 저거 자전거 하나 훔치자." 그러고 이렇게 기어가다가 보니까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전거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원 사방을 훑어봐요.

면담자 그 친구가?

김봉석 나나 그놈이나. 둘 다. 그걸 못 훔치고요. 저만큼 100m 밖에 200m 밖에 사람 하나 지나가잖아요? 그럼 자전거 만지지도 못해. 그래서 암변 지역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지 뭐요. 암변에 오니까 배는 고프지, 여관으로 들어갔지요. 그때만 해도 여관에서는 재워 주고 밥을 줬거든요. 그때 시절은. 그러다 보니깐 숙박부에 쓰잖아요. 우리 인민군 나갔다가 원산 갔다가, 나 키가 작잖아요. 개 나보다 요만큼 더 커요. 그리고 난 뚱뚱하지만 개는 말랐다고요. 그래 둘이 불합격돼서 오는 거라, 숙박계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얻어먹고, 돈이 있어요? 이제 도망갈 궁리하는 거예요.

면담자 돈도 없이 들어가셨구나?

김봉석 배가 고프고, 밥 얻어먹을 데는 여관밖에 없으니까 역 앞 여관에 들어가서 밥 먹고. "야, 깊이 잠들면 큰일 난다." "빵~" 역 앞이니까 기차가 오면 기적을 울려요. 기차가 정지할 때나 기적을 울리잖아요. 기적소리가 나면 기차가 오는 거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내 뒤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적소리가 나는데. 붙잡히면 돈 내놔라 그럴 테니까 뛰어가지고 역에 가니까 진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인민군들 싣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올라탔지요. 그때 여름이니까 아래위 하얀 걸 입었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이 넘으니까, 일주일이 안 됐구나. 한 5일 정도니까, 새까맣잖아요. 철원서 원산 갈 때 곳간에 타고 왔거든요? 동태, 명태 실은….

면담자 화물칸 이런 거네요?

김봉석 화물칸. 거기서 뒹굴고 졸고 그러니까 옷이 새까맣잖아요. 그런 거를 인민군들 탄 데 가 탔으니, 인민군들이 이렇게 보면 조그만 것들이 타가지고 옷이 새까맣고. 와서 장교 하는 말이, 머리 이렇게 하면서 "머리 좀 감아. 야, 머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래. "아이고 배가 고파서요, 죽겠어요. 먹을 것 있으면 좀 줘요." 그러니까 "가만있어봐." 지들이 먹을 게 어딨어요, 우리랑 똑같지. 그렇게 우리가 월정서 내렸거든요. 철원역에서 내렸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민군 나간 놈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월정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거기서 탈출했으니까. (만약) 나에게 인민군 나가라 그러면 형제끼리 총질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내가 양보해야지. 식구들 양보하는 걸 볼 수는 없는 거야. 난 죽기 살기로 왔는데. 그래서 손근홍이에게는 "네가 집에 가면 니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까." 하고. (웃음) 근데 개는 지 아버지 빽을 믿고 도망와가지고 철원서 막 돌아다녔어요. 정치보위부 아들이니까. 그러다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정치보위부에서 "당신 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들 군대 갔는데 어떻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조사할 수밖에. "너 혼자 갔냐? 둘이 아니면 몇이 갔냐?" 그게 죽어도 안 불었어요. 참 그걸 보면 빨갱이집 자식이래도 의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개가 여기 살아서 넘어왔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건데. (친구는) 잡혀가지고 북쪽으로 갔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 그렇게 의리가 있어. 또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밤중에 우리 집에 와요. "너 나가 돌아다니지 마." "너 얘기했어?" 그러니까, "암만 내가 친구 의리가 있지. 난 죽어도 얘기 안 해, 걱정 말어."

면담자 정말 두 분이서 친구 우정이라는 게 굉장히.

김봉석 순 빨갱이 집 아들이에요.

면담자 사상적으로는 그랬어도,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김봉석 월정서, 개가 아버지하고 사상이 다르다는걸, 그걸 아는 거예요. 월정서 우리 둘이 내렸어요. 기차역을 뛰어내리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한 2분 정도밖에 기차가 안 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차 떠난다고 빨리 도로 타라는 거, 들는 척도 않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기차가 빵빵, 우리 때문에 안 가요? 가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화장실에서 한참 있다가, "야, 나와라. 나와라." 그러니까 화장실을 막 나오는데 우리 동창생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면담자 월정역 화장실에서?

김봉석 응. 가슴이 쿵탕쿵탕 해가지고. 비밀을 유지해서 철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식을 만났으니…. 근데 그 자식은 인민군을 안 나갔어요. 지도(자기도) 나하고 처지가 (다르니). 그러니까 손근홍이가 날 이렇게 잡아당겨. 난 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만"(조금만) 그러더니 개 죽이자 이거예요. 개가 죽이자 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쟬 죽이자고 나보고 그래. 저쪽으로 "논 쪽으로 끌고 가서 유인해가지고 가서 죽이자. 쟤가 터트리면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하려도 그게…. 개울이 있어. 개(친구)를 끌고, 개울에 가서 세수를 막 하고 "야, 사실은 군대 가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나온 거다. 너 이거 어디다가 학교나 경찰서에 거기다가 얘기하면 그때 너하고 우리 이거다. 무슨 수를 써도 죽일 테니까 너 각오해."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하죠. "약속해. 우리 죽인다면 죽여, 지금도 너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친구의 의리로서 안 할 테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라니까 안 한대. 얘기 안 했어요, 개가. 안 했는데, 그때 친구 죽이는 거, 저쪽에 데리고 가서 그거 하나 못 죽여요? 근데 개(손근홍)는 이북 빨갱이집 자식인데도 사람 죽이자 할 때는 벌써 이미 이북의 사상을 벗어난 아이예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국군들이 올라온 거예요.

면담자 그럼 월정에서 철원 집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돼요?

김봉석 철원역에서 관전리까지는 10리가 넘어요. 역에서 읍내까지는. 엄청 멀어요, 10리가 좀 넘어. 그리고 철원역에서 월정역까지가 한 30~40리 돼요. 지금도 월정역에 가면 미군 와서 폭격해가지고 (뼈대만 남은) 기차가 선로 위에 몇 십 년째 거기 있어요.

면담자 전시되어 있어요?

김봉석 응, 여기가 월정리면 월정리까지가 경계선이에요. 월정리서 몇 백 미터 바깥이면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월정리 다 들어와서 폭격 맞은 게, 뼈다귀만 남은 기차가 지금도 있잖아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부모님의 직업

면담자 그렇게 해서 숨어서 집으로 가셨네요?

김봉석 그래가지고 난 집에 가가지고 계속 숨어 있었어요.

면담자 어디서 숨어 있었어요?

김봉석 우리 집이 월정서 식당을 했거든요? 평화식당이라고. 일정(일제강점기)부터 식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시대에 우린 사실 잘 살았어. 일정시대에 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을 하는 바람에 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었어.

면담자 식당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김봉석 원래 어머니가 추어탕 가게를 했어요. 아버지는 인쇄소 다니고, 인쇄소에서 활판 이런 것들을 주면 벽에 수천 개 글자가 있어요. 가나다라 순서 된 거. 그래서 그걸 보고 뽑아서 활판을 짜요. 밤새도록 짜고 새벽에는 짜준 걸 가지고 인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한 거예요.

면담자 인쇄소를 직접 경영하셨어요?

김봉석 직접이 아니라 공원(工員)이죠. 한 달에 월급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철원에 계셨으면 사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 가 보았는데, 인쇄소에서 종이 자르는 기술자(재단자)가 큰 칼날을 가지고 콱하고 자르면, 이게 자를 때 제대로 잘라야지, 실수하면 종이값이 비싸니까 그 사람이 다 물어 준대요. 그래서 기술자가 아버지 월급의 곱을 탄다 이거요.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쉬운 걸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밤을 새야 되고 (기술자는) 곱을 타니깐. 저걸 배워가지고 나도 월급을 좀 높여야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철원 인쇄소를 그만두고. 기술자라 해가지고 원산으로 간 거예요. 원산 인쇄소로 가가지고.

면담자 왜정시대 때?

김봉석 거길 가봤자. 어렸을 때, 아버지 찾아서 기차 타고 가봤는데. 거기 외지에서 밥을 먹고 자고 해도 몸이 약해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면담자 병으로 돌아가셨구나.

김봉석 원산 명사십리도 그때 가보고 그랬는데.

면담자 근데 아버님이 소자(小字)를 보실 정도면 글을 다 아셔야지만 하는 거라….

김봉석 그거, 활판 짜는 사람들은 학식이 있어야지. 한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면담자 왜정시대면 일본어도 있을 것처럼.

김봉석 상당히 그거에 학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짜고 나면 아침에 나오거든요. 그럼 낮엔 놀아요. 낮에 놀다 여러 가지 문서가 오면 그걸 또 밤새도록 짜고.

면담자 아버지는 그렇게 인쇄소 하셨고, 어머니는?

김봉석 식당을 한 거예요. 평화식당이라고 추어탕 집을 한 거예요. 철원에는 미꾸라지가 많아요. 여기 추어탕 같은 건 엉터리야 엉터리. (웃음) 우리는 큰 가마가 3개예요. 작은 게 또 2개 있고, 저 맨 끄트머리 큰 거 하나는 솥 밑에 불을 24시간 계속 지펴 놨어. 새로 할 때는 불을 세게 하고선 미꾸라지를 익히고, 어느 정도 익으면 그다음 솥으로 옮겨.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독이, 큰 독이 7개예요. 담는, 취약하는 독이. 그럼 시골에서 마차로 미꾸라지를 잡아 와요. 우리 어머니는 큰 주걱 같은 걸로 쑤욱 해보면 얼마. 딱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물이 몇 프로, 미꾸라지가 몇 프로. 미꾸라지가 어제께 잡은 거냐, 그저께 잡았냐, 그그저께 잡았냐 그거에 따라서 미꾸라지가 죽거든. 미꾸라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죽으면 눈이 빨개요. 그리고 몸이 하얘져. 오래되면 점점 몸체가 하얘진다고요, 힘이 없고. 그 안에서 힘이 있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미꾸라지로 해서 우리가 철원서 먹고살기가 괜찮았다고요.

면담자 사실 때는 어느 정도 사셨겠네요?

김봉석 식당이에요. 그저 남들보다. 읍사무소에서 식당을 하니깐 1년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일본군인들 도시락을 주문해요. 그러면 한두 가마 세 가마 정도 쌀이 와요. 우리 집으로. 도시락을 해주고 나면, 500명분이다, 700명분이다 이렇게 도시락 하면 쌀이 남죠. 쌀이 밥이 되면 늘어나니까. 우리 집엔 쌀이 항상 남아요. 그럼 우리 앞에 여관 같은 데는 사원을 재우려 해도 쌀이 있어야 밥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쌀 한 가마니만 달라고. 비밀로, 알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비밀로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인심이 나빠지면, 고발해요, 동네에서. 어떤 집은 읍사무소에서 준 쌀가마니도 팔아먹는다고. 인심이 좋아야 알고도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 해방되고 나서 거기가 북한 지역이었으니까. 그때 지주나, 상업 많이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 어르신네도, 가게도 해방된 다음에 피해 보신 거는 없으세요?

김봉석 우리 식당, 그 까짓것 조금한 거. 돈이 콱콱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먹고만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면담자 뺏거나 뺏기거나 이런 건 아니었구나.

김봉석 쌀이 들어오니까.

면담자 그럼 해방 이후에도 가게를 계속하셨던 거예요?

김봉석 그렇지. 김일성이가 이북에 진주하면서 1년 내 금세 지주들 없애고, 잡아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하나씩 1년 2년 3년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쌀이고 생필품 다 거기서 사게끔. 그러니까 시장이 자연히 도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철원시장이 얼마나 컸게. 수원시장은 애기야 애기. 그렇게 컸다고, 그때 당시에.

형님의 월남

면담자 그럼 형님은 어떻게 서북청년단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김봉석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작은데, 우리 형은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 우리 어머니가 되게 커요. 싸움도 잘하고….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키가 커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사회활동을 많이 잘했다고요. 난 생긴 게 약해서 사회활동이라는 걸 못 했지. 근데 우리 형은 체구가 크니까 친구들도 많고 사회활동도 많고 그래. 그래서 서북청년단에. 난 서북청년단에 가입한 것도 몰랐어.

면담자 그렇죠. 그것도 비밀이니까….

김봉석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하고 자던 형이 없어졌어. "그 이상하다. 화장실에 갔나? 학교에 갔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이리와. 바깥에 나가서 형 얘기 일절 하지 마." 어머니하고 의논이 된 거예요. 간다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고, 돈도 여기 남쪽 돈, 장사꾼한테서 구입한 거예요.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쪽 돈으로 교환해서 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알았다." 그러고 남쪽으로 내뛰었구나.

면담자 그렇게 해서 형님은 먼저 내려가서 편지로만 왔다 갔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봉석 그러니까 우리 형이 농사짓던 거를 내가, 이 조그만 게. 거름이 필요가 없으니까 대변 있잖아요? 그걸 전부 퍼다가….

면담자 농사도 지으셨어요? 선생님 집?

김봉석 뭐 내가 해야지. 아들은 둘인데,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나 하나 남았는데 여동생 셋 있어도 이것들이 뭐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밭, 감자 엄청 많이 심었어요.

면담자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장남 역할을 하셨겠네요? 형님 내려가신 다음에는.

김봉석 농사짓고, 논농사는 한 평도 없고, 밭이 많았어. 근데 그게 지금 저쪽에 있기 때문에 파먹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못 건너가기 때문에. 그 땅 파먹으래도 누가 먹겠어. 최전방인데.

면담자 그러면 6·25 나기 전까지는 밭농사 좀 지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6·25 난 거죠? 월남을 하시게 된 게, 인민군 징집 피해서 나왔다가 내려오셨던 거예요?

김봉석 그때, 한국군이 후퇴할 때 연천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 10월 27~28일 날 나와서, 나오고 나서부터 의정부 쪽으로 내려올 때 고생이…. 지금까지 고생을 바가지로 한 거야. 그때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면담자 조금 전 연대 주둔했던 1개 대대 철수할 때, 무기 지고 내려오셨다 했잖아요. 그럼 어머니나….

김봉석 그건 산속에서 버렸지. 왜 버렸냐? 무거워서 뛸 수가 있어야지…. (웃음)

면담자 그러면 어머니나 여동생들은?

김봉석 그건 1·4 후퇴 때.

면담자 연락은 하고 왔어요?

김봉석 6·25 다음 해, 1·4 후퇴 때 미군이 철원 사람들을 트럭으로 광나루 거기 강가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미군 공병대 근무경위

면담자 광나루?

김봉석 응. 그때 나는 예비사단 101사단에 있다가 미군 부대, 485공병대라고 있어요. 미군들 다리 놓고 도로 수선하고 그러는.

면담자 강 건너기 위해서 부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김봉석 응, 다리가 떠내려가면 부교로 놓고. 485공병,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houseboy)로 내가 있었다고요. 텐트 있잖아요? 텐트 하나에 12명이자. 6명 6명. 그걸 내가 두 사람 맡아 청소해 주고 옷 벗어 놓으면 세탁소에다.

면담자 잡일 해주는 거네요? 심부름꾼처럼.

김봉석 말하자면, 집 청소해 주고 하는 애들 있죠? 파출부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자고 미군하고 똑같이 밥 먹고, 그러고선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달러예요. 그런데 마음이 착한 사람은 2달러를 줘. 또 양담배, 보르보, 차메, 제시카 뭐 이런 거 있을 때, 난 담배 필 줄 모르니까 주는 걸 모아요. 모아서 동두천에 가서 팔고.

면담자 선생님 잠깐만요, 의정부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미군 부대 가시게 된 거예요?

김봉석 의정부로 와가지고 의정부 무슨 고등학교에서 하룻저녁을 자는데, 의정부고등학교.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왔어. 눈보라 치고 그러는데 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리 철원 아이들 13명이 "야,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뭉쳐가지고 내려오는데, 의정부에 와서 보니까 의정부치안대가 "어이, 니들 일리와." 의정부치안대들이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너네 어디서 왔나?" 고 "철원 애다." 그래 가지고 미군에서, 미군 아니라 17연대에서 사인을 하나 해준 거예요. 분대에서 검사증 비슷하게 했는데, 고생해서 연천까지 왔는데 연천서 1개 대대가 그다음 다음 날 토벌하러 또 간 거야. 산속으로. 그때는 두 개야. 두 개를 메고, 그때는 로케트(로켓)포가 아니라 박격포에요. 이렇게 놓고 터트리는 거. 박격포는 엄청나게 무거워. 로케트포는 어깨다가 둘러메면 가벼운데 이건 지고가면 어깨가 날라가는 거예요. 요만한 걸 두 개를 주면, 더럽게 무거워. 그걸 이고 대대로 쫓아간 거예요, 산속으로.

면담자 토벌하러 가셨구나.

김봉석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작전한 걸 보면 말이에요. 한국군이 산속으로 그냥 두 줄로 쭉욱 서서, 산골짜기로 해서 능선으로 해서 산을 갔는데, 한 15리쯤, 산속으로 10~20리 들어갔는데 산속에서 인민군 패잔병이 "빵! 빵!" 인민군 총은 달라요. 아시겠지만 조총하고 한국군 총하고 달라요. 소리가 저 밑에서 "다쿵 다쿵" 한다고. 그렇게 막 쏘니깐 저 꼭대기서 쏘는데 맞아요, 그걸? 가만있어라 그래도 안 맞을 텐데. 그 일렬로 쭉 가는데 전부 군인들이 36계(달아나) 고랑터기로 전부 숨는 거예요. 지휘관이 정열하고는 "인마! 괜찮아. 저 정도면 괜찮아." 나는 겁이 나니까 로케트포를 메고 길에서 휴식 쉬는 거예요. 쉴 때 총을 쐈거든, 그러니까 엄마 하고 숨었어. 그래놓고 군인들이 도망가니까 계곡에 숨었어.

아 그때 이거 하나짜리(계급을 가리키는 듯)가 "야 임마, 너 메고 있던 거 어떻게 했어?" "저기 뒤에 있어요." "자식아 그걸 놔두고 오면 어떡해. 가서 가져와!" 그러니까 답 없어.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지. 가서 그걸 어깨다 메고 오니까 군인들이 박수를 쳐요. 총 쏘는 데로 가서 주워 왔다고. 사실 쏴도 안 맞았죠. 먼 데서 쏘는데. 산에서 골짜기 넘어서 쐈는데, 저기 100m에다 놓고 표지판을 쏴도 잘 안 맞는데 그게 맞아요? 좀 야속하더라고요. 총 덜 쏠 때 가서 집어 오라 그래야 되는데, 한참 쏘는 데 가서 집어 오라 그러니까, 군인들도 날 보고 좀 이따 가라고 잡아당기는데, 서서 버젓이 가서 이고서 오니까 박수를 치지 뭐예요.

거기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또 후퇴를 했어. "에이 여기 있다가는 죽도록 고생만 한다." 그러고, 거기 있던 친구들 13명이서 "야 의정부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서울로 들어가자." 그렇게 서울로 오다가 의정부서 붙들렸어요. 치안대에. "너, 이리 와. 니들 어디서 왔어? 니들 빨치산들 아냐?" 근데 이북서 제대로 머리를 못 감아서 머리가 이렇잖아. "불어!" 이마를 때리고 볼기짝으로 한 댓 대씩 때리는데, 대한민국청년단 그 뱃지, 그 까짓것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 뭐 필요 있어, 17연대의 면허도 다 필요 없어. 한 댓 대씩 때리고 하나하나씩 저쪽에 비밀실로 가서 물어보니까 다 맞거든. 철원고등학교 다니고 철원에 살고. 그래서 서울 시내로 가려는데 미아리 쪽으로. 그땐 미아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미아리에요. 저 북교로 가려는데 글로 못 가게 막고, 이쪽으로, 저기 광나루 쪽으로 글로 돌아서 가게끔 우리 보고 그쪽 뒷길로 가라 그래.

면담자 10월 말이었는데 눈이 왔었어요?

김봉석 아우,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경찰이 서울로 못 가게 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러막고 여기 광나루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삐딱해. 한쪽은 다니고 한쪽은 못 다녀.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광나루 눈이 오고 눈보라가 치니까, 모래를 파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거기 숨었어. 아침에 경찰 보면 우리 서울에 친척이 있는데 좀 들여보내 달라고. 거기서 닷새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거 좀 구해도 조금 조금씩 먹고 그랬는데, 경찰이 하도 딱하니까. 새벽에 "빨갱아, 여기서 건너왔다고 그러지 말고 저기 저쪽으로…."

면담자 괜히 자기 쪽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1신병교육대 입소와 연대장 연락병 생활

김봉석 근데 막상 서울에 들어가니깐, 뭐 피란들 나오고 어디가 어딘지. 시청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13명이 제1신병교육대 거길 들어간 거야. 거길 가면 또 먹여 살려 주니까. 그때 서울에 제1신병교육대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거길 들어간 거야. 근데 제1신병교육대가 뭐하는 거냐면, 6·25 한창 전쟁 때니깐 한 1,500명 모집해서 남쪽으로,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야차(여차) 하면 그 사람들을 총을 주고 싸우게끔. 단체로 국가에서 밥 먹여 주고 끌고 있는 거예요.

면담자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김봉석 아니지. 그냥 민간인들을 18세부터 60살 가까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야차 하면 총 주고 싸워라. 제1신병대. 우리는 그때만 해도 예비군인 줄 알았지.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북 교육을 받았으니까, 뒤로 돌아 하면 여기하고 반대예요. 그니까 뒤로 돌아 하면 반대로 돌거든? 그러면 조교가 "야 이 자식아, 무슨 돌티기를 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코 깜빡했어요."(웃음)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고 일주일 동안. 남한강 둘레에서, 문경새재 거기로 해서, 팔공산 뒤로 해서….

면담자 대구까지 내려가셨네?

김봉석 순 걸어갔지. 그때 우리가 인원이 1,200명 조금 넘어요. 단체로 가서 한 개 동네 가면 거기서 배출해 주는 거예요. 저 동네 가서 20명 밥 얻어먹어, 저 동네 가서 밥 얻어먹어. 그래가지고 동네 가면 벌써 밥을 해주는 걸 알아. 밥 얻어먹고 아침에 모여서 걸어가고. 문경새재 넘어가면 거기 인민군 탱크들, 미군 폭격에 떨어져 쓰러진 거, 길옆에. 엄청 많더라고. 문경새재 30~40리 거기 막 넘으면 문경, 경상북도예요. 충청도까지는 잘 얻어먹고 가는데 문경 탁 지나니까 동네 들어가서 밥 얻어먹으면 밥이 달라. 반찬도 아주 짜고 맛대가리도 없고. 아주 이상해. 충청도는 확실히 양반이야. 밥도 이만큼 주고는 퍼먹으라 그러고. 근데 문경 쪽 가면, 그때는 이만큼씩 먹을 땐데, 요만큼씩 주니까. (그러다) 저기 대구 밑에 경산까지 간 거예요, 1,200명이.

면담자 우와. 낙오자 없었어요?

김봉석 걸어서. 그러니까 나는 6·25 나가지고 철원선 인민군으로 원산 갔다가, 원산서 탈출해서 월정까지 갔다가, 월정서 철원에 숨어 있다가 걸어서 대구 밑에 경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몇 십 리요? 천리 길이 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 그다음 해 3월 달에 제1신병교육대가 해산됐어요. 해산돼가지고….

면담자 선생님, 그거 국민방위군 아니에요? 제1신병교육대라는 게 국민방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군 아니에요?

김봉석 아니야. 제1신병교육대라고. 1,200명. 그게 그다음 해, 거기서 밥을 얻어먹으니까 괜찮지. 근데 나는 빠릿빠릿해가지고 갈 때도 총인솔자, 나보고 "앞뒤로 다니면서 인원수 세라." 해서, 나는 호강하게 밥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얻어먹고, 저쪽 사람들은 밥을 하면 줘야 먹지만, 이 사람들, 인솔자들 몇 사람들은 잘 얻어먹어요.

면담자 3월 달에 해체됐다는 게 6·25 다음 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 해?

김봉석 그다음 해. 어쨌든 1년을 넘은 게 아니라 그다음 해 3월 달에.

면담자 몇 달 했나요?

김봉석 몇 개월 했냐면, 10월 달로 따져도 5개월 한 6개월 가까이 됐네요. 교육대에 연대장, 내가 연락병이었다고요. 내가 이래 봬도 뛰는 덴 박사예요, 아주 그냥.

면담자 연대 개념이에요? 신병대가?

김봉석 대구 밑에 경산서 한 60명이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큰 사과 과수원 바로 옆이에요. 밤이면 과수원 철조망을 뚫는 거야. 사과 훔쳐 먹다가 매도 맞고. (웃음)

면담자 그때 일 기억 잘하시네요?

김봉석 나는 그때 연락병이니까, 연대장 연락병이거든요. 대구에서 보급이 와요.

면담자 신병교육대가 경산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연대 체제로 바뀌었어요?

김봉석 1,200명이니까 이걸 대대라 그럴 수 없죠. 연대 개념이지.

면담자 연대 내에서 대대 있고 소대 있고 다 나눠져요?

김봉석 한데 다. 초등학교 하나에 다, 교실에서 담요 주면 그냥 그거 덮고.

면담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김봉석 거기서 거의 훈련만 받는 거예요.

면담자 유사시에 대비해서?

김봉석 그러죠. 산에서 땔나무 해서, 100명씩 50명씩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나무 잘라서 베고 오고, 그루마(리어카)로 끌고 오고. 때에 따라 학교 그 밥도 해주고, 나무가 있어야지 그것도 하고. 또 높은 놈들 가빈(카빈, carbine) 총이 있어요. 가빈 총이 몇 개 있고, 일본 놈 그거 뭐야, 그거 몇 개 있어. 그거를 가지고 30리 산에 가면 노루가 많아요, 노루를 잡아요. 우리는 몰이꾼이야. 이만한 땅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쪽에서 20~30명이 던져 때리면 노루가 꾹 참어. 그러면 사람들이 총 가지고 중간중간 산 중턱에 숨어 있어. 그러다가 노루가 도망가요. 도망가는 노루는 못 쏴요. 노루는 반드시 경사지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막 뛰다가 조금조금, 조금 높은 지역에 오면 딱 서. 내려다보는 거야. 내가 왜 도망가나 그러는 모양이야. 그때 쏴요 그때. (웃음)

면담자 그러면 해체된 다음에는?

김봉석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정씨인데, 계급장이 소령이야. 연대장이 소령이야. 근데 그분이 현역 군인인지, 예비군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나이는 먹었어요. 근데 그 집으로 대구에서 보급품이 오거든, 거기로, 트럭으로 실어온다고. 쌀, 고기, 배추, 먹는 건 일체. 장작 빼놓고는 연료 빼놓고는 다 트럭으로 실어와. 그러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고정적으로 실어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연대장 집이 여기라면 차가 학교 가기 전 연대장 집 앞 100m 좀 앞을 지나가요. 내가 거기 서 있어요. 그럼 트럭 운전수가 날 안다고. 내가 손 흔들면 거기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연대장 먹을 거, 쌀 한 가미 내려놔. 고기도 좀 내려놔. 집에 식구들 있거든. 보급품에서 빼서. 사실, 불법이지. 그때만 해도 난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왕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한 가마도 내려놔. 두 가마도 내려놔. 고기도 이만큼 내려놓고, 야채 별거 거기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구루마에 실어다 연대장 집에 가져가면 사모님이 "아이고 수고했어, 밥 좀 먹고 가." 그러면 밥 얻어먹는 맛에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거기서 몇 개월 하니까, 내가 한문이고 뭐고 다 알고. 이북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어를 배웠다고. 헬로(hello), 2학년 2학기까지 영어를 공부했는데 2학기 후에 영어를 폐쇄하고 소련어로 교체했다고. 영어도 웬만한 건 읽을 줄도 알고.

사모님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1,200명 안에 별동대장이라고, 학교를 지키는 말하자면 경비 비슷하게, 혹시 인민군이 패잔병이 막 총을 (가지고 난동피면 안 되니까)…. 거기 경산서 산골짜기니까 밤에 보초를 서고 그래요. 별동대장이라고. 낮에는 몇 사람 데리고 사냥 갔다 오고. 잘 잡아야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야. 노루꼴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모님이) 나보고 아들 하라 이거야. 아들 하나인데 나보고 아들 하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우리 고향 철원 애들이 내려올 때는 13명이었는데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7명이 됐다고. 개들은 나 때문에 잘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연대장의 연락병이요. 식당에 가면 주방장 있잖아요. 주방장 보고 "어이." 그러면 "네."라고 꼭 존대해. "누룽지 좀 줘." 그러면 "어이, 알았습니다." 누룽지 이만큼 줘요.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우리 친구들 주는 거예요. 밤에 모여서 그거 먹는 게, 누룽지가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누룽지 주면 잘 먹지. 반찬 없으면 반찬도 내가 갖다 달라면 갖다주고, 내가 식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야, 우리 연대장이 나보고 아들 삼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니네들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인마, 너 글로 가면 우리는 어떡해? 니 덕택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도 있고 2학년짜리도 있었거든, 난 3학년이고. 3학년짜리가 둘이나 있었어요. "야 이러면 안 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당연히 철원 들어가야 되지. 니 어머니도 계시고 니 형님도 계시는데, 니 형도 만나야 하잖아. 서울에 가면 니 형 장교로 있을 텐데." 그때 우리 형은 압록강을 막 올라갈 때에요. 막 전쟁 날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걸어서 가평까지 올라간 거예요.

면담자 거기 대구에서 나와서요?

김봉석 대구 밑에 경산서. 거기서 (노임을) 줄 때 쌀로 줬거든요.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한 말 줄 사람 있고, 두 말 줄 사람 있고, 세 말 줄 사람 있고. 이렇게 쌀로 줘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집을 가라 이거야.

면담자 신병교육대 해산하면서?

김봉석 해산할 때, 돈으로 줄 때 차비를 쌀로 줬다고.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면담자 선생님 그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연대장 아들로 갔을 텐데,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쌀 가지고 이제.

김봉석 나는 연대장이 쌀 두 가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거지, 그때 당시에 돈으로 따지면. 그걸 다 판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메고 다녀요? 그래서 돈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가 가지고 있고, 양아들로 하라고 한 거 거절했더니 사모님은 막 울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고향 들어가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눈물을 글썽거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지금도 그때 생각나시나 보다.

김봉석 나는 진짜, 그때 그러면 고생 안 했지. 고생 안 하고 공부도 더 하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내가 공부도 더 할 수 있었고, 팔자가 어떻게 될 진 몰라도. 그걸 걸어서 가평까지 하루 두 끼 먹고 올라온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침만 먹고, 저녁만 먹고 그다음에 자고.

면담자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고마워해야겠네. 마음먹어서 "난 그냥 니네들하고 헤어지고 아들 들어갈란다." 그랬으면 됐는데, 그래도 친구들 생각하셨으니까 같이 올라오신 거잖아요.

부평 미군 부대 경험 에피소드

김봉석 니들 땜에 빠진 거지. 난 그때 (수양아들) 가려고 결심했는데, 친구들이 고향 가야지, 고향 놔두고 그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 쫓아 안 가고 그래서 강원도 가평까지 걸어 올라간 거예요.

면담자 7명이서요? 며칠 걸렸겠네요?

김봉석 우선, 자는 거야 빈집이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빈집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데서나 자지만 먹는 거는, 흙을 먹어? 뭘 먹어? 두 끼로, 아침에는 밥을 사먹고, 걸어야 되니까. 저녁에 잘 때는 묵을 한 그릇씩. 묵이 싸거든. 메밀묵. 묵을 한 그릇씩 간장에다 김치 해놓고, 김치하고 먹을 때, 묵 파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김치 좀 더 줘. 그러면 아이 묵을 안 먹고 김치만 먹냐.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김치를 더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묵하고 김치에다 먹으면 밤에 자거든요. 아침에 밥 먹고, 그렇게 딱 두 끼 먹고. 그렇게 가평에 오니까 미 1사단, 말대가리 1사단. 가평역에 가서 우리 좀 써달라고. 부대 가서 미군들한테 우리 워킹(working) 할 테니까 써달라고. 컴온(come on) 컴온 컴온 그래.

면담자 그래서 하우스보이 하셨구나.

김봉석 아니, 그때는 하우스보이가 아니에요. 기차에서 실탄을 트럭 제무시(GMC)에다, 기차 곳간에서 짐이 나오면 제무시가 꽁무니를 대요. 그럼 곳간에서 그 통을 트럭에다 싣는 거를 시키더라고.

면담자 그때가 51년 3~4월 된 건가요?

김봉석 거기서 그거 한 20여 일밖에 못 했어요. 근데 먹긴 잘 먹었지. 왜 잘 먹었냐면 도둑질을 했거든요. 역 앞에 가면 미군들이 야적하는 씨레이선(C-ration, 전투식량). 씨 원 투 쓰리 포 파이브까지 있잖아요? 씨레이션 쌓아 놔요. 그러면 거기서 포탄을 트럭에다 실을 때, 오줌 누러 간다고 그러고 야적장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오줌 누는 척하고 그거 쌓아 놓은데 올라가가지고, 씨레이션이 요거만해, 그게 무겁지 않아요. 그걸 쥐어서 철조망 바깥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철조망 바깥이 지금 땅바닥 같으면 빵 소리가 나는데, 쑥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니까 풀썩.(웃음) 그래서 한 댓 개 던져 놔. 바깥에 나오거든. 일급(日給)이요, 하루에 일하면 미군들이 돈 얼마 주거든. 근데 나는 조금 나왔어. 이놈 포탄이 어찌나 큰지 이게 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이게 포탄이면 포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갈고리를 딱 쥐어.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서 트럭에다 던지는데 포탄 키가 이만한 거야. 굵기가 또 이래. 이런데다가 (나의) 키가 이러니까 들려고 해도 들어지지가 않아 내 힘으로는. 그런데다가 무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워서 질질질질 곳간에서 끄니까 미군이 걸리적거리거든. "야 내가 내릴게. 너는 저리 가라." 이거야. 저리 서 있으래. 그러니까 나는 남 하는 거 보고만 있지 뭐야. 바깥에 나오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곳간 속에서 이렇게 서 있어. 또 어떤 놈은 이렇게 툭 치면서 "해! 인마, 일 좀 해. 여기 있지 말고. 나 이런 거 못 든단 말야. 할 줄 알아야지, 못 든단 말야.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못 든단 말이야." 그러면 끄덕끄덕해. 그런데 일을 20일 하고, 미1사단 보급부대가 문산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물어 미 485공병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잘 먹다가 씨레이션 그거 되게 맛있거든요.

면담자 그래가지고 원산 가서 하우스보이 하다가?

김봉석 거기서 간 게 아니라, 가평서 걸어서 동두천 쪽으로 또 걸어온 거예요. 동두천 쪽으로 오니까 미군이 많잖아. 아주 그냥 철원 쪽에서 싸움이 한창 싸울 때, 이북하고 그냥….

어머니와 여동생 만남

면담자 미군 거기에서 하신 거 말고,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김봉석 그래가지고 485공병대 있을 때, 하우스보이 해서 돈을 모았거든.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먹지. 미군 부대에 술도 있어요. 커피도 안 먹지, 그냥 돈만 따박따박 모은 거예요. 담배 주면 담배 딱딱 보관함에다가 해놨다가 동두천에서, 전방이 어디냐면, 연천 다리 넘는데 그 옆에 485공병대가 있었거든. 거기서 나올 때, 백(bag)이 이만해. 거기다가 담배 옷 이런 거 넣고선 가져오려고 만반의 준비, 돈도 동두천에서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다 돈을 모아 놨었지.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놈들, 한국 하우스보이가 많거든. 이놈끼리 밤이면 놀음을 해요. 나보고 "돈, 다음에 월급에 줄게 좀 꿔 줘." 그러면 나 안 줬어. 냉정했어, 진짜. 꿔 주면 자꾸 꾸고, 거기서 꾸고 없어 하면 그만이지. 어디서 하소연해.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4월인가 5월 달에 철원서 미군이 우리 식구 트럭에다가 싣고 광나루 강가에다가 내려놨다는 소식을 내가 들은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우리 식구를 만나겠구나.' 그러고 내가 하우스보이 할 때 책임자한테 "내가 어머니 좀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3일 내지 5일을 비울 테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참 착해. 그래가지고 닷새를. 텐트 안에서 또 졸자(졸병)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그놈이 해야 돼. 그놈도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돈 2달러를 줘. 그것도 집어넣고. 그때는 시내버스가 없었다고. 시외버스도 거의 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동두천까지, 동두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 있어요. 그걸 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지 뭐요. 미군이 잘 얘기해 가지고, 미군 쓰리쿼터 해가지고(태워 주어서) 동대문운동장,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수원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면담자 수원? 어머니가 수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김봉석 아니, 광나루 가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걸 나는 모르고 수원에 왔다가 다시 광나루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한 거요. 직접 광나루로 건너가면 되는 건데. 지금 말하자면 거기 구천동이라 그러나? 광나루를 우리는 구천동이라 그랬어. 강 건너가 구천동이거든. 근데, 나는 수원까지 와가지고 수원서 "구천동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서 구천동 가는 트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수원서 동문 바깥에 쭉 나가면 그 동네, 트럭이 거기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야. 거기서 내려 주막집에 가서 밥을 사먹고 하룻저녁 자고 새벽에 구천동 가는 트럭을 타고 광나루까지 온 거예요. 거기 피란민들이 강가에 늘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면담자 어머니하고 여동생 세 명 다 있었어요?

김봉석 동생 셋. 넷이 다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돈 주고, 그러니까 구세주 만난 거지. 그 돈 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논두렁에다가 하꼬방(판잣집) 같은 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 임자가 남의 논에다가 그걸 지었다고 해서, 그걸 때려치우고 수원으로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지금 남수동. 거기 나무시장이라고 있어요. 남수동에 옛날에 거기 나무시장이 있었다고. 나무시장 입구에 하꼬방이 긴 게 있어요. 저기서 이만큼 길이야. 그게 개인 소유야. 그걸 산 거야, 잘 샀지.

수원에 정착하게 된 계기

면담자 어머니는 어떻게 수원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무작정?

김봉석 내가 돈을 주면서, 그 벌판에, 강가에, 추워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 "이 돈이면 웬만한 조그만 하꼬방은 살 수 있으니깐 여기 말고." 그때 남한산성 쪽 다 시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수원이니깐, 내가 수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쪽에 가서 집 알아서 거기서 사시오."

면담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직접 서울에서 광나루로 갈 수 있었는데, 빙 돌아왔다는 게, 나중에 정착하게 되는,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요.

김봉석 네, 거기로 와서 한 번 구경했거든요. 그러다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이북서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는 거 본 게 수원이야. 수원이 좀 컸거든. 어느 정도. 그래서 수원에서 몇 시간을 내가 트럭 타려고.

면담자 기다리던 때?

김봉석 지금 매교다리. 거기서 한참 보따리를 들고 몇 시간을 서서 수원을 대충 알고. 매교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광나루 쪽으로 오는 트럭을 타려고 수원에 왔는데, 그걸(집을) 산 거요. 잘 샀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 다시 하우스보이로 돌아가고, 어머니하고 여동생들이 수원 가서서 아까 말한 거기다가 하꼬방을 사신 거예요?

김봉석 응, 근데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은 여군으로 가버렸어요. 밥 하나 덜겠다고. 밑에 동생들은 어리니까 그냥 거기서 밥 얻어먹고. 우리 누이동생, 나보다 세 살 아래니까 여군으로 들어갔지.

면담자 그럼 이게 거의 6·25 나던 다음 해네요?

김봉석 그렇게 되지요.

면담자 남수동에 있는 나무시장 그쪽에 사실은 어머니가 알아서 사셨을 텐데, 그쪽에 피란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신 건가요?

노무사단 근무

김봉석 그게 이제, 나는 돈 주고 부대로 와야 되잖아요. 부대에 와서 한 2년인가 1년 반인가 근무했어요. 거기 485공병대에서. 오래 있었어. 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부에서 젊은 사람을 족집게식으로 쏙쏙 다 뽑아서 군인으로 뽑아 간 거예요. 그때는 한창 전쟁할 때니까. 그게 끌려간 게 나는 현역 군인인 줄 알았지 뭐예요. 그러고 갔는데 그게 의정부에 있는, 나는 그때는 동두천 바로 위에 한탄강 옆에 있었거든. 그게 예비사단이에요. 예비가 뭐냐면 노무사단. 길 청소하고, 길 닦고 전방에 가서 도치카, 저기 방공호 그거 구축하고 철조망, 그거 깔고 쭈욱 깔고. 그거 한 부대예요. 예비사단. 그때만 해도 노무사단이라 했다고요. 이런 두꺼운 옷 입고, 신발도 방한화 이런 거 신고, 겨울에 거기 끌려가서, 매일 연천 서북 땅 전방에 가서, 눈구덩이에 가서 철조망 짓고, 저기서 이만한 놈을 끌고, 쇠가 있어 쇠, 가죽장갑 그런 거 쓰고, 이만한 거. 미군이 준 거. 그거 끼고 철조망 둥그란 거, 그거를 쇠에다 끼워요. 그러고 그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놈은 이걸 메고 가면 언덕을 올라가니까 괜찮지만, 뒤에 있는 놈은 그게 얼굴에 탁하면 철조망에 (얼굴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에다가 새끼를 칭칭칭칭 감아 가지고 손으로 쥐고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이북 놈들을 (공격하기 위해) 포를 가지고 숨을 방공호, 그거를 땅을 파고 만들어요. 집을 지어요. 그러면 가꾸목(각목) 그걸 또 둘이 이고 올라가고 그래. 나는 철조망이 무서워서 못 하고 가꾸목을 잘 메고 올라갔지. (웃음)

면담자 선생님 그때 하우스보이로 미 485공병대에 한 2년 넘게 있었는데, 징집돼가지고 군인으로 가가지고 노무사단에 있었던 거네요. 그건 얼마 정도 하셨어요?

김봉석 노무사단에서,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 최전방에서 쭉 있다가 내가 배를 앓았다고요. 먹기만 하면 토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땐 내가 노무사단에 있을 때는 덕정리라 그랬다고요. 의정부에서 조금 올라가면 덕정리가 노무사단 주둔지야. 노무사단이 집들이 다닥다닥 있는 거기서 열 명 스무 명씩 빈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합하면 밥 온다고요. 그럼 밥 먹고, 미군 트럭이 온다고요. 미군 트럭 타고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삽, 괭이하고. 빈 몸뚱이로 가는 거는 철조망하고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전방에 가면 또 쌓아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눈이 이만큼 오는 데도 지고서 해가 어둑어둑할 때까지 (해). 그게 얼마나 고생이야. 팔달산은 저리 가라야 그냥. 그런 산을 메고 올라가니.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휘자는 군인이거든. 우리는 노무자고. 나는 그냥 배가 아프다니까, 꾀병 부린다고. (웃음) 그래서 꾀병 부리지, 그러니까 죽겠어요. "그럼 너 오늘 집 당번 해." 도둑놈 오면 뭐 집어 가니까 그래서 남았어요. 근데 옆의 방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프다니까 낮에 왔어. "어디가 아파?" 근데 뭘 부쩍부쩍 뭘 먹고 있어. 쇼빵을 쨈에 발라서 붙여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먹고 싶지 뭐요. 근데 그 자식이 안 줘. 내가 야속하다고 그러니까 "너 배 아픈데 좋은 건 사발을 먹으면 배 아픈 게 싹 낫는다. 거 회(회충)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요. 근데 맞는 소리요. 근데 이놈이 가더니 부대에 가가지고 새빨간 놈의 사발을, 식기 있잖아요 양은 식기. 그걸 하날 가져왔어. 반만 먹어도, 삼분지 일만 먹어도 되는 걸 하나 가져온 걸 다 먹을 뻔했지 뭐예요. 먹고 한 삼분쯤 있으니까 온몸이 전부가 따끔따끔해. 눈이고 귀고, 어디고 땀구멍은. 사발을 먹으니까 그게 바깥으로 내솟으니까.

그걸 다 먹고 나서, 이놈이 내가 정신없이 있으니까 쨈 바른 빵을 주더라고. 그게 사발을 먹으니까, 울렁울렁한 게 이북서 생전 회충약을

먹었어야지. 미군 부대 있을 때 회충약을 먹었어야지. 뱃속에 회가 이렇게 큰 게 수십 마리가 있는데 배가 안 아파요? 그걸 난 모르고 배가 아픈 모양이었는데, 사발을 먹으니까 회들이 놀랜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이게 회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다가 쐠을 먹었더니 이것들이…. 하여튼 이렇게 굵은 회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작고 크고. 그러다 내가 토하다 못하니까 까물어쳤지, 뭐. 그러니까 이 자식이 본부에 가가지고 저기 저 병자 하나 까물어쳤다고. 나를 의정부 사단본부로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을까지 몇 달을 있었어. 거기 의무대에서 한 서너 달 있었어요. 글씨 써보라 그러고, 영어도 좀 읽고 뭐 그러니까, "야 너 부대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의무 교육받고 위생병으로 너 있어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부터 노무원이 아니고 군인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두 달인가. 약 이름, 혈관 주사 놓는 거, 내가 혈관 주사 잘 놔요. 거기서 "너 오늘부터 하사야." 대뜸 하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사받고 딱 달고, 예비사단 18연대 의무중대로 간 거예요. 가니까 동두천 개울 건너 텐트가 여남은 개 있어. 거기 텐트 안에 입원실도 있고, 군인도 수십 명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방에서 부상병이 오면 주사 놔주고 압박붕대 가지고 약 지어 주고, 약도 발라 주고 위생병으로 거기서 쭉 근무한 거예요.

면담자 얼마 동안 하셨어요, 위생병으로?

김봉석 거기서 한 1년 7개월인가? 근데 그게 군대가 해산돼 버렸어요.

1953년 수원 정착과 서울지방법원 호적과 근무

면담자 그다음에 수원에 온 건 몇 살 때?

김봉석 해산돼서 수원에 왔지.

면담자 해산될 때, 전역하신 거예요?

김봉석 해산돼가지고 수원으로 금방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동두천에 있는 영연방사단 CIA. 거기도 UN경찰이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항포 쪽으로 매일 아침에 나와서 점심까지 돌고 들어오면, 또 교대해서 딴 패가 나가고, 점심때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민간인 집 있잖아요. 민간인 집 많은데 거기에 한국 여자들이 몸 팔러 들어온다고요. 그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색출해서 동두천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영국군들하고. 그걸 거기서 했는데 이것도 잘 있다가 영연방사단이 인천으로 후퇴해 버리지 뭐야. 그래서 집으로 온 거예요.

면담자 수원으로? 그럼 이게 전쟁 중이잖아요. 수원에 오신 게. 그럼 선생님 수원에 오신 건 52년경은 되겠네요, 53년도는 되겠다. 정전되기 전에 내려오신 거죠? 수원에.

김봉석 거기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 놀면 뭐 하냐. 실업자가 됐지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는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서울지방법원, 거기 서울지방법원에 여러 해 근무했다고요.

면담자 잠깐만요, 선생님. 아까 말한 영연방사단이 인천으로 후퇴하고 나니까 일단 수원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자리 알아봐 주셔가지고….

김봉석 일단 수원으로 왔지. 남수동 집으로. 와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는 서울지방법원 서기과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취직시켜 준 거예요.

면담자 어머님은 이분 어떻게 아셨대요?

김봉석 서기과장이 철원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백으로 내가 들어간 거죠.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나온 놈이 감히 서울지법 거길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애들이 한문을 알거든요. 대충 알파벳도 알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서울지법 뭐 호적과로 들어갔는데, 제일 하바리(꼴지)과 갔지. (웃음)

면담자 선생님 잠깐만요, 그럼 수원에 계시는 거였잖아요?

김봉석 그래서 매일 기차 타고. 출퇴근했어요.

면담자 그 남수동 집에서 사시면서?

김봉석 네.

수원의 피란민촌

면담자 남수동 집은 그러면, 그때 다 피란민들, 피란민촌이었어요?

김봉석 피란민촌은 거기가 아니에요.

면담자 피란민촌은 어디 어디 있어요?

김봉석 피란민은 거기 남수동 옆에 성(城) 있어. 지금도 성 있잖아요, 남수동 옆에 성이 북문까지, 동문까지 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연무동은 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문까지 성이 이렇게, 팔달산 올라가잖아요? 근데 성 밖 주변으로, 또 안으로 피란민들이 거기다 하꼬방을 쭉 지은 거예요. 그게 국가 땅이니까.

면담자 그러면 피란민촌은 정부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피란민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김봉석 그건 지멋대로 갔다 지은 거예요.

면담자 지멋대로. 근데 피란민들이니까 모여 산 거네요?

김봉석 거기는 국가 땅이니까, 하나가 지으니까 또 짓고 또 짓고 해가지고. 거기다 한 세 평 네 평 다섯 평, 방 두 개짜리, 하나짜리 이렇게 해서 토담집 비슷하게. 그게 자꾸 지으니까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시장서부터, 영동시장 거기서부터 북문까지 전부 하꼬방이 있었던, 성 너머 전부 난민들이 거기다가 한 거예요.

면담자 영동시장 쪽부터 북문까지 쭉 피란민촌이 있었어요?

김봉석 지금 미나리광시장이라고 알죠? 옛날에 거기 미나리광시장이라고 했죠. 지금 영동시장 다리 건너. 그 성 옆으로 쭈욱 동문까지 난민들이.

면담자 그럼 그때 선생님, 대략 하꼬방 수가 몇 가구나 됐어요? 100가구?

김봉석 많지. 성 밑에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밑창까지도. 동문에 가면 동문 바깥에 성에서 100m, 150m 떨어진 하꼬방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난민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거기다가 짓게끔 허락을 한 거예요. 동문 바깥에 저기 지은 건 시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거기는 쪽쪽쪽 나열되게 집을 지었거든. 성 바깥에 지은 건, 무질서하게 막 지은 거고. 근데 이게 성이라 하면, 성 밑창에다 지은 거 있고. 성 옆에 삐뚤게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성 바로 옆에. 그럼 그 옆길 밑창에 또 지은 거예요.

면담자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김봉석 양쪽에 하꼬방을 지은 거요. 그것도 국가 땅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멋대로 모두 짓고. 그러다가 돈 좀 생기면 하꼬방을 헤치고 제대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스라브(슬라브) 집을 짓고 자꾸만 자꾸만 해가 갈수록 변해진 거죠. 근데 하꼬방이 거기만 지은 게 아니요. 지금 장안공원에도 하꼬방이 여러 채가 있었다고. 그리고 서문아파트 거기에도 여러 채가 있었다고요.

면담자 서문아파트 있는 데요?

김봉석 네, 자리가. 근데 시에서 하꼬방을 없애려니까 집을 지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달산 밑창에 서문아파트, 서문 바로 옆에 산비탈 밀어 제끼고 거기다가 하꼬방을 지은 거야. 5층짜리 4동을 지은 거예요. 4동을 지어서 거기다가 하꼬방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글로 들어가라.

면담자 그게 몇 년도예요? 한 70년도 되나? 70년 초반에.

김봉석 그게 거기서(서문아파트) 내가 23년을 살았으니까.

면담자 선생님 남수동에 살았는데?

김봉석 남수동에 살았는데, 그게 내 집이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구멍가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수동에 포교당 큰 거 있어요. 절. 거기를 다녔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식해요. '가' 자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가게를 보면서 자기가 한글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완전히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절에 다니니깐 절에 다니면 불교책 있잖아요. 그걸 읽어야 할 텐데. 우리 집 가게 앞 개울에 쭉 가게가 있었다고. 그것도 무허가가게예요. 거기에도 개인들이 막 짓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떠들고 그러니까. 글도 자기가 배웠지, 자꾸만 외울려니까 외워지지가 않지. 그 장사꾼들이 나무시장에 뭐하니까, 그걸 몰래 그 집에 팔고, 선경도서관이 있어요. 팔달산 밑창에. 국유 땅에 지은 하꼬방, 그걸 사가지고 간 거예요. 나는 집 파는 걸 몰랐지. 싸게 산 집을 팔아가지고 국유 땅에 방 두 개짜리 하꼬방을, 거기 가서 공부한다고 그리로 이사를 (갔어). 그 바람에 서문아파트 지으면서, 우리가 하꼬방이니까 소개당해가지고 제1차로 들어간 거예요.

면담자 남수동에 있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김봉석 남수동에 있었으면 대상이 안 됐지. 그건 내 집이니까, 내 땅이고.

면담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 아닌가요?

김봉석 아니, 잘 된 게 아니라 나빴지. 그대로 있었으면 땅도 내 땅이고, 집도 내 집이니까 비싸잖아. 이건 국유 땅으로 팔아서, 하꼬방을 사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한 채를 준 거야.

면담자 그래서 23년간 사신 거예요?

김봉석 네.

세탁소 운영

면담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방법원 호적과는 몇 년이나 다니신 거예요?

김봉석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다녔어요. 거기서 암만 다녀도 나무아미타불(공염불)이에요. 남는 게 없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면 완전히 신사복에다가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매일 면도하고, 서울지방법원은 거긴 잠바 입고 못 들어가요. 난 맨 처음엔 모르고 도시락을 싸 갔지 뭐예요. 가보니까 구내식당에서 거의 밥을 안 먹고, 시청 옆에 식당. 서울역 앞에 가면 식당들이 많아요. 전부 떼로 몰려가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아주 그냥 갈비나 먹은 것 같이 이빨을 쑤시고 들어온다고,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나는 그걸 몰랐지 뭐야. 나는 호적과 제적계. 제적등본들 쭉 있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밥을 먹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쑤시개 하나씩 물고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창피하지 뭐예요. 이제 옆에 같이 있는 상사가 현씨라고, "어이 자네, 웬만하면 같이 나가서 점심 먹어." 내 월급 가지고 뭘 해요. 양복 한 벌만 해도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가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입는데 나만 잠바때기 입고 들어갈 수 없잖아.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일 면도질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면담자 직장은 좋은데 너무 나가는 돈이 많았네요?

김봉석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되다가 때려쳤어요. 수원역에서 남수동까지 올 때, 우리 친구가 세탁소를 했어요. 저녁때면 세탁소를 들렀다가 오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를 배우려고. 그때 첨에 세탁소가 4군데 있었다고. 여기 성광세탁소라고 있었는데, 거길 어깨너머로 내가 좀 다려 줄까? 그러고 다림질로 해주고 와이셔츠도 다려 보고 해보니까, 한 열흘 하니까 배워지는 거예요. 이걸 때려친 거예요. 그 월급 가지곤 도저히 친구하고 술도 못 먹어. 그래서 서울지법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난 사표 내고 얼마 지나서 그 서기과장이 이렇게 됐어요. 갈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 백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이거예요.

면담자 잘리기 전에 나온 거네요, 그러면?

김봉석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오길 잘했지. 나 있어도 자동적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끌어들인 직원들은 다 잘린 거예요.

면담자 선생님, 그래서 세탁소?

김봉석 세탁소에서 11년 했어요.

면담자 세탁소를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김봉석 직접 한 거예요. 내가 냈지. 지금 백내과 자리. 지금 팔달로지. 거기다가 세탁소를 내가지고, 거기서는 조금 했어. 거기서는 1년 반 하다가 그 집이 버스주차장이 되는 바람에 헐려가지고, 지금 여기 북수동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바로 앞에 말 마창(마구간) 하는 걸, 전부 청소하고, 거기에서 오래 했지. 난 고생 많이 했어.

면담자 아까 말한 세탁소 친구 있잖아요. 세탁소 친구 어떤 친구예요?

김봉석 세탁소 친구, 우리 한 고향이지 철원.

면담자 아까 7명이 왔다 했잖아요?

김봉석 그건, 내가 족집게 같이 뽑아 갈 때(미 485공병대 하우스보이 근무 중 징집) 그때 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소식 모르는 거예요.

면담자 나머지 6명 소식 다 몰라요?

김봉석 13명에서 다 모르고, 나하고 같이 있던 7명도 지금까지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탁소 하는 친구는 나하고 같이 7월 7일 인민군 나가가지고 원산까지 갔다가 개는 도망을 못(나왔지), 내가 도망가자고 했을 때 도망왔으면 살았는데 그냥 인민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수원서 인민군으로 체포된 거예요. 수원서 지금 농고 자리 거기 숨어 있다가 아군이 막 들어오니까 용인 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거제도수용소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승만 박사가 막 풀어 줬잖아요, 그때 나와가지고 수원에 자리잡아가지고.

면담자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봉석 전재익이요. 근데 이놈이 거기서 있다가 또 군인 간 거요. 한국군으로.

면담자 그 친구는 우연히 수원에서 만난 거예요?

김봉석 여기 친척들이 있으니깐. 우리같이 수원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소식 듣고, 와서 친척들 만나니까 여기서 정착된 거요. 그래가지고 개는 수용 포로로 나왔다가 세탁소 하다가 한국군으로 들어간 거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예요. 제대하고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먹고살면서 우리 세탁소에 와서 나는 개한테 기술 배우고, 내가 그 세탁소를 개한테 넘겨준 거지.

철원군민회 모임

면담자 그러면 수원에 사실 때 철원 분들 따로 모임 있죠?

김봉석 철원군민회라고 있지. 지금도 있어.

면담자 철원군민회는 따로 사무실 같은 거 있어요?

김봉석 있지 그럼.

면담자 어디 있어요?

김봉석 그거 지금 몰라.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거 군민회 회장이 수원시의회 의장까지 했었지.

면담자 누군데요?

김봉석 근데 지금 갑자기 안 나오네. 그런데 철원군민회 괜찮아요, 거기. 지금도 계속해요.

면담자 그럼 철원군민회 한 번 모이면 몇 명이나 모여요? 몇 백 명 돼요?

김봉석 근데 군민회가 처음에는 40~50명씩 됐는데 사람들 죽고, 이사 가고. 지금은 한 20여 명 될 것 같아.

면담자 그 모임 아직도 있어요? 선생님 나가세요? 모임에?

김봉석 나 안 나가.

면담자 왜 안 나가세요?

김봉석 왜 그러냐 하면 군민에 처음엔 좀 나갔는데, 군민회 회장도 할 만한 사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끼리끼리. 그래서 회비 모이면 지들끼리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몇 십 년을 회장을 한다는 게 돼? 회장은 좀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하면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난 그거 안 한다고. 얼마 안 됐는데, 난 탈퇴한 거야. 친구들이 다 안 해.

면담자 따로 사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있으세요?

김봉석 철원군민회 있는 친구들 다 만나지. 다 후배들이지 선배들 몇 없어.

면담자 어머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김봉석 83. 서문아파트 살 때 돌아가셨어.

면담자 수원에 사시면서 피란민이니까 유독 어려웠다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건 없었어요?

김봉석 그게 처음에 아파트 있는데 하꼬방을 해서 줬잖아요? 그거 지어 줄 때, 안에 내부까지 다 만들어서 준 게 아니에요. 겉만 싹 해서 준 거예요. 근데 내부 시설을 내 돈 가지고 해야 돼. 그때 아파트 시세가 20만 원 정도 해요. 내부 시설하려면 20만 원 돈이 들어가야 돼.

면담자 아파트 한 채 값만 들어가네요.

김봉석 그 집이 헐려서 아파트를 하나 줬으면 내부 시설도 해줘야 몸뚱이만 들어오면 살 수가 있는데, 돈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20만 원에 되팔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 서문아파트는 대부분 그런 피란민들이 많았겠네요?

김봉석 많지.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꾸밀 돈이 없으니까 권리금으로 20만 원 받고 팔고 가는 거요. 시에서는 팔아먹든 말든, 일단 주면 그걸로 끝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어쨌든 처음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무척 부러워했다고요. 그거를 하나를 했으면 하고. 이제 내가 거기서 처음 들어가 가지고 해산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용을 뻔히 아는 거지.

면담자 선생님 결혼은 몇 살에 하셨어요?

김봉석 나? 나는 서른둘. 그때 당시에는 참 늦게 한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면담자 그럼, 수원에 오셔서도 한참 만에 하신 거네요?

김봉석 아이고, 엄청 늦게 했지.

면담자 결혼하실 때 처가댁에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봉석 우리 처갓집도 충청도에서 서산에 여잔데, 거기도 6·25 전쟁통에 거꾸로 거긴 수원으로 피란 온 거야.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해서 사니까 반대하고 자시고 없지.

면담자 선생님,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담 자	박현정(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현석이(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면 담 일	2012년 5월 19일
면담장소	장안구 파장동 정다방

네 번째 이야기

평안북도 선천 월남민 전계준



1934년(1세) 평안북도 선천군 군산면 진석리 출생
1947년(14세) 정치적 탄압으로 친척들 일부 월남
1950년(17세) 인민군 징집 및 탈영, 포로수용소 수용
1953년(20세) 포로수용소 석방, 부산 거쳐 인천으로 이주
1962년 수원 이주
영동시장에서 집회상 운영

인민군에서 포로로, 다시 국군을 거쳐 영동시장 상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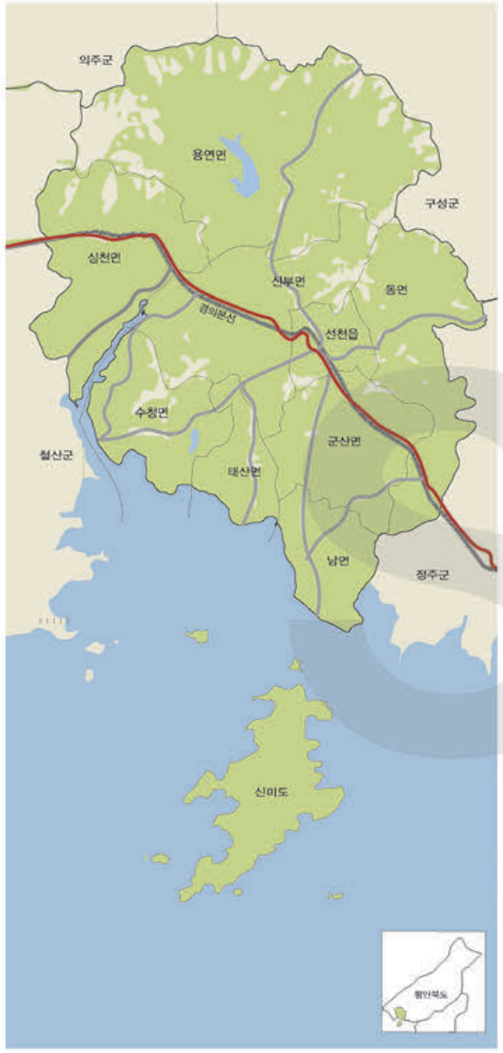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인민군 징집과 포로수용소 생활

전계준은 1934년 평안북도 선천군 군산면 진석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전익함이고, 어머니는 이명주이다. 전쟁 전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두 명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3형제 중 막내였지만 위로 두 분의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남 역할을 하며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전계준의 집안은 고향에서 부유한 편이었다. 특히 집성촌이었던 진석마을 큰댁은 토지를 5정보나 소유할 정도로 대농이었다. 하지만 해방을 맞이하고 소련군과 공산당이 이북을 점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토지개혁으로 큰집의 모든 토지가 몰수당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조선민주당, 공산당, 청우당(천도교 계열 정치단체)이 활발히 하였다. 공산당은 민주당이 남한정부와 결탁하였다는 주장을 펼



평안북도 선천군

치며 민주당 당원들을 탄압하였다. 이에 아버지와 집안사람들은 큰 고초를 당하였다. 이렇듯 토지 몰수와 민주당 탄압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큰집 조카(장손)와 작은집 형님 등은 6·25전쟁이 나기 전에 월남하였다. 아버지는 이때 고초를 겪어 생사를 오갈 정도였는데, 집을 지으려고 사두었던 재목을 팔아 아버지의 병구완을 하였지만 차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천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17살의 전계준은 인민군으로 징집되었다. 징집을 피하기 위해 전계준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자, 담임 선생님이 직접 그를 찾으러 왔다. 그는 포병부대에 배치되었는데, 고향에 있을 때부터 월남을 위한 계획을 세워 입대하였다. 인민군이 임진강까지 내려갔다가 개성으로 후퇴할 때 그는 준비한 소총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1951년 1월 부산 포로수용소 전경(국사편찬위원회)

혈혈단신으로 송악산을 넘어 인민군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하루 만에 북진하는 유엔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다. 유엔군 포로가 된 전계준은 이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고, 부산 가야수용소, 거제도, 영천, 논산 등에서 3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하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령에 따라 민간인이 되었다.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수원 정착

민간인이 된 전계준은 이미 월남하여 부산에 살고 있던 큰댁 장조카(전극안)를 찾아가 그곳에서 2~3개월 머물렀다.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인천 송월동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으로 향하였다. 아버지는 전계준이 인민군으로 징집되자,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고향인 선천에 남겨 두고 월남하였다. 일주일이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극적인 상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계준에게 남한의 군대 영장이 나왔고, 강원도 가평 너머 사창리에서 몇 개월 복무하다 인민군이었다는 이유로 제대하였다. 인천에서 상봉 당시 아버지는 40대였고 전계준은 20대 초반이었다. 아버지를 만난 이후 전계준은 인천 송월동에서 10년 정도 거주하였다.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몸을 사리지 않고 하셨는데, 49세에 인천 부두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의지처가 사라진 전계준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큰집 가족들은 일찍 월남한 후 수원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전계준은 큰집 가족들이 사는 수원시 지동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수원에 정착한 전계준은 영동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큰집의 도움을 받아 큰집 노점 옆에 노점상을 차렸다. 당시 영동시장에는 가게가 많지 않았기에 대부분 노점 형태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전계준은 라이터나 만년필 등 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였다. 큰집도 잡화를 판매했는데, 큰돈을 벌어 나중에 수원백화점에 입점하였다.

영동시장에서의 장사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정도로 잘되었다. 전계준은 30세 초반에 결혼하여 아들 2명과 딸 1명을 낳았다. 부인은 지병으로 결혼한 지 18년 만에 사별하였고, 사별 후 1년이 지나 재혼하였다.



1950년대 영동시장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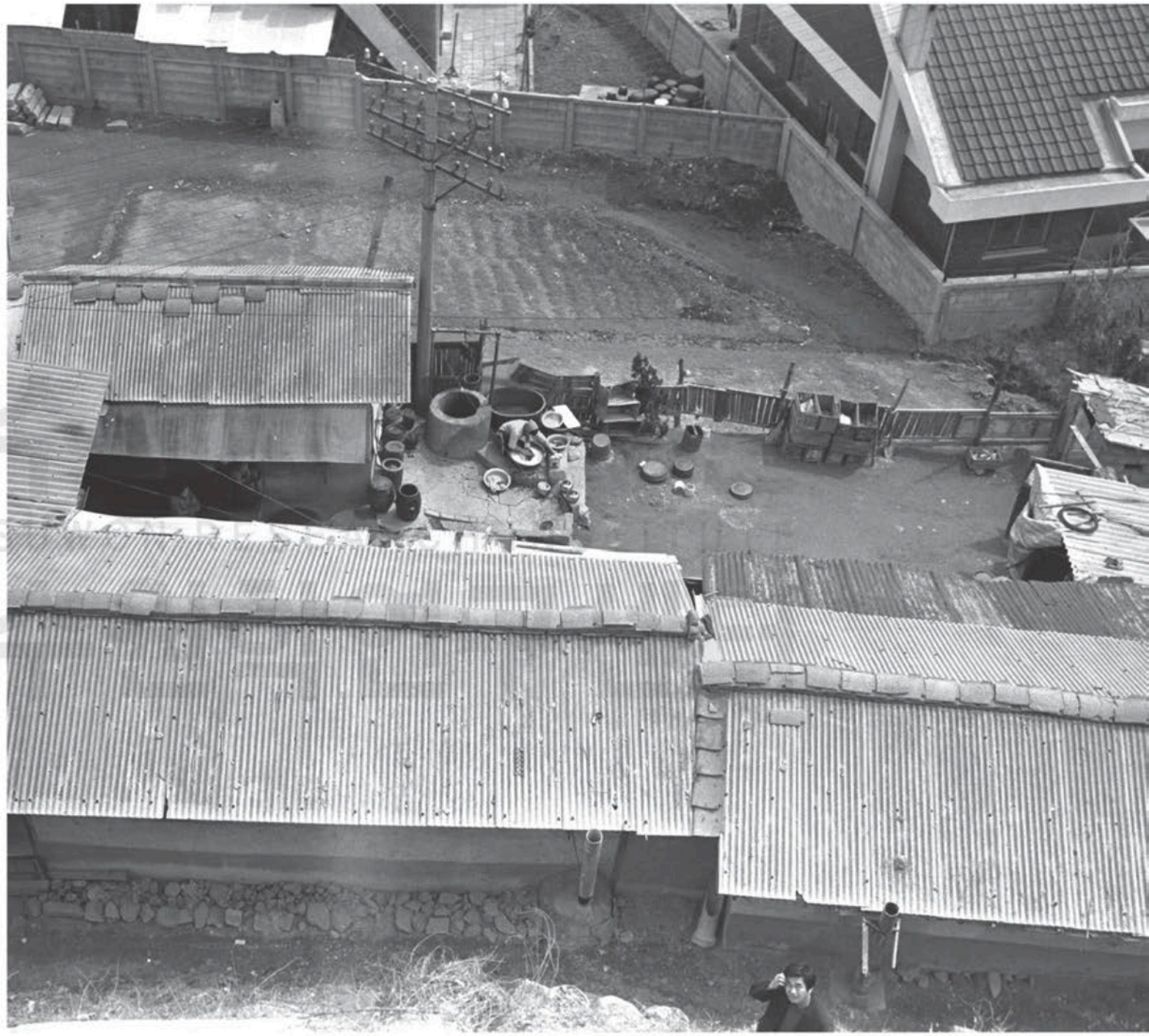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70년대까지 남아 있던 지동 피란민 가옥(1978년, 수원박물관 제공)

전계준이 거주하던 지동에는 피란민촌이 형성되었는데, 성곽 밑에서 지동초등학교까지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피란민들과의 교류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영동시장의 장사는 본인이 50대 중반까지 운영하다가 큰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하였다. 자신은 수원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이북 사람이고, 자식들은 수원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계준은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이나 금강산 관광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조부모와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전계준은 고향에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나온 걸 아직도 후회하면서 고향을 그리고 있다. 오직 그에게는 평안북도 선천의 고향과 북에 두고 온 어머니·여동생과의 상봉이 최우선이다.



수원화성 시설물에 연접하여 지어진 지동 가옥(1978년, 수원박물관 제공)

인민군 징집과 월남 과정

면담자 몇 년생이세요?

전계준 34년생 2월 27일. 개띠.

면담자 고향이 어디세요?

전계준 평안북도 선천군 군산면 진석리. 집성촌이야.

면담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어요?

전계준 그렇지.

면담자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전계준 그렇지.

면담자 선생님 아버지가 장남이셨어요?

전계준 장남이 아니었는데 3형제인데 형제분 두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이 된 거지.

면담자 셋째였는데 장남처럼 할아버지를 모시고…

전계준 응. 손이 없이 돌아가시니까 딸네는 시집가고 그러니까.

면담자 선생님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전계준 형제는 없고 여동생 둘 있어.

면담자 1남 2녀? 선생님이 장남이고 여동생이 두 명이었어요? 여동생 두 명은 내려오셨어요?

전계준 어머니랑 다 북쪽에 있어. 어떻게 된지도 모르지.

면담자 여동생하고 터울이 어떻게 돼요?

전계준 바로 밑에가 두 살 차이고, 그 밑에가 세 살 차이.

면담자 어렸을 때 학교는 다니셨나요?

전계준 그럼 학교 안 다녔을까 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나왔어. 선천고등학교.

면담자 8·15가 몇 살 때였나요?

전계준 12살인가?

면담자 6·25 날 때는 몇 살이었나요?

전계준 17살

면담자 월남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계준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뭐 다 쫓겨나오고 집안이 풍비박산되니까, 고향에 있기가 싫어지니까 도망쳐 나왔지. 인민군 나왔다가 도망쳐 나왔어.

면담자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전계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잖아. 거기 들어갔다가 도망들 나온 거야.

면담자 그럼 인민군에 징집이 되었다가?

전계준 그럼.

면담자 그때 소속은 어디였나요?

전계준 120미리 포병부대에 갔다가 도망 나왔어.

면담자 몇 달 하셨나요?

전계준 두서너 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전쟁이 6월에 났는데 입대 날짜는 기억나세요?

전계준 기억 안 나지.

면담자 인민군으로 들어갔다가 어디까지 내려왔었나요?

전계준 임진강까지 내려왔어.

면담자 부대에서 탈영한 거예요?

전계준 개성에서 송악산 넘어가서 도망친 거야.

면담자 내려와서 북진할 때? 계절은 언제였나요?

전계준 여름이지 아마. 배고파서 고구마 캐 먹었으니까. (웃음) 점심 저녁이 없잖아. 부대에서 도망 나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 배는 고프지, 내려오면서 고구마 캐 먹었으니까.

면담자 혼자 나왔어요?

전계준 혼자 나왔지.

면담자 도망가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나 봐요?

전계준 고향에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려고 작정한 거야. 집안이 민주당이야. 민주당 사건에 아버지도.

면담자 민주당 사건이 뭐예요?

전계준 공산당 애들이 하는 말이, 남한 정권하고 민주당하고 결탁했다고 하는데 그런 핑계로 민주당 당원들을 덮친 거야.

면담자 그게 해방되고 몇 년 된 사건인가요?

전계준 한참 됐어.

면담자 그 사건으로 가족 중에 누가 피해를 본 건가요?

전계준 아버지가 매 맞아서 그래서 집 지을라고 사놓았던 재료 다 팔아서 약으로 다 사고 그것도 안 돼서 개똥물 먹여서, 개똥물이 어혈 푸는 데는 제일 좋은 거야. 그걸 달여 먹으면 개똥물이 발그스레해서 그게 어혈 푸는 데 제일 좋아. 그래서 그걸 많이 먹었어.

면담자 아버님 말고 누가 또 고초를 당했나요?

전계준 큰집 조카니, 작은집 형님이니 다 도망쳤어. 그러니 이북 세상이라는 게 조카가 삼촌을 때리는 판이고 개판인데 뭐.

면담자 해방되고 나서 토지개혁 한다고 해서 재산 뺏긴 거 있나요?

전계준 뺏기나마나.

면담자 선생님 집안이 잘살았나요?

전계준 집성촌이니까 큰집은 잘살았지. 집성촌이니까.

면담자 다 농사지었죠?

전계준 그때는 다 농사지. 딴 게 뭐 있나.

면담자 땅이 몇 마지기나 있었어요?

전계준 큰집은 5정보 됐는데 그놈들이 쫓아내 버렸잖아.

면담자 선생님은 학교 다녔으니까 농사일은 별로 안 했겠네요?

전계준 나는 일 안 했어.

면담자 귀하게 자라셨나 봐요?

전계준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으니까.

면담자 인민군대에 들어가시게 된 거는 일부러 피란 나오려고 들어간 거예요?

전계준 그때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고 지방에서고 무조건 징집이야. 안 가니까 내 담임 선생님이 나 잡으러 나왔드랫어. 그런 형편인데 뭐 할 수 있겠나?

면담자 그때가 여름이었다는 거죠?

전계준 여름이지.

면담자 그러니까 인민군대에 들어가서 임진강까지 내려갔다가 개성까지 후퇴했다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계준 후퇴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튕겼지.

면담자 송악산에서? 혼자서?

전계준 그럼.

면담자 그럼 어떻게 보면 탈영병이네요?

전계준 인민군으로 보면 탈영병이지.

면담자 힘들게 나오셨겠어요?

전계준 죽기 살기로 나왔지. 소총 가지고 "너희가 쏘면 나도 쏜다." 하고 장착시켜서 나왔어. 그렇게 나왔는데 유엔군 놈들이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잖아.

면담자 어디서 잡혔어요?

전계준 송악산 넘어와서 유엔군 북진할 때.

포로수용소 생활

면담자 하루 만에 잡히신 거예요?

전계준 하루나마나 산등성이 하나 넘자마자 잡힌 거지. 그래서 포로수용소에 집어넣었지.

면담자 어디 수용소에 있었어요?

전계준 부산 가야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서 영천 갔다가 인천 왔었나? 거기서 거제 갔다가.

면담자 수용소 생활은 얼마나?

전계준 한 3년.

면담자 수용소에 서너 군데 옮겨 다니셨나 봐요?

전계준 많이 옮겨 다녔지. 부산에 갔다가 거제도에서 영천 왔다가 논산 왔다가 이 대통령 특사로 나왔지. 반공포로 나오라고 할 때.

면담자 포로수용소에서 나올 때 계절이 언제였나요?

전계준 여름철이었지.

면담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전계준 부산에 큰댁이 있어서.

면담자 부산에 큰댁이 있었다고요?

전계준 그때 민주당 탄압으로 미리 나왔잖아.

면담자 큰댁은 민주당 사건으로 그 전에 나와 있었군요?

전계준 그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

면담자 그 이야기 다 해주세요. 큰댁은 누구누구 내려왔어요?

전계준 큰댁은 전극안. 큰집 조카야. 그다음에 작은집 삼촌네 있고 그랬지.

면담자 큰집 조카하고 작은삼촌네는 전쟁 전에 미리 내려와 있었네요. 전쟁 나기 몇 년 전에 내려와 있었나요 이분들은?

전계준 전쟁 나기 2~3년 전에 큰집 조카는 여기 나와서 오래 살았지.

면담자 그래서 친척들 만나러 부산에 가셨네요?

전계준 그렇지, 거기서 아버지 만나게 돼서…

면담자 아버님? 아버님도 내려오셨어요?

전계준 내려오셔서 돌아가셨어.

면담자 아버님은 언제 내려오셨대요?

전계준 전쟁 나던 해에 내려오셨으니까.

면담자 선생님이 인민군대에 간 이후에 따로 내려오셨나 봐요?

전계준 그렇지.

면담자 그런데 왜 어머니와 딸들은 안 데려오시고 혼자 내려오셨을까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계준 그걸 아나. 나왔다가 바로 들어갈지 알았지. 이렇게 막힐지 누가 알았어, 이렇게 될지 알았으면 다 끌고 나왔지. 우리 식구는 제 발로 다 건너올 나이거든. 그런데 못 데려오고 내려왔으니까.

면담자 잠시 동안 내려오는 걸로 알았는데?

전계준 그렇지 이렇게까지 갈라질지 맥힐지 누가 알았나? 2~3개월이면 될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맥힐지 누가 알겠냐.

면담자 그럼 포로수용소에 계실 때는 아버지가 내려온지 모르고 계셨네요?

전계준 몰랐지.

면담자 부산에 큰집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고?

전계준 그렇지 그건 알고 있었지.

면담자 그래서 처음에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서 부산에는 얼마 동안 계셨어요? 몇 년 계셨어요?

전계준 몇 년은 무슨, 거기서 한 2~3개월 있었지. 그러다가 올라왔잖아

아버지와의 만남

면담자 아버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올라온 거예요? 모르고 올라왔는데 아버님을 만나게 된 건가요?

전계준 모르고 나왔지.

면담자 그럼 인천으로 갈 생각은 어떻게 하셨나요?

전계준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인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면담자 아버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홀홀단신 내려오셨다가 인천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었나 봐요. 아버님은 그때 인천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전계준 노동이지. 그때 할 게 뭐가 있나.

면담자 아버님하고 선생님하고 연세 차이가 얼마나 나세요?

전계준 23살인가?

면담자 그럼 아버님은 한 40 되셨겠다.

전계준 한창 나이지 뭐.

면담자 아버님 혼자 인천에서 노동일하면서 계셨고, 그 소식 듣고 올라오신 거네요?

전계준 그때 군대 들어갔는데 인민군이었다고 해서 다 제대를 시켰잖아.

면담자 몇 달이나 있다가 제대했나요?

전계준 몇 개월 있었을 거야.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면담자 부대 이름이 뭔가요?

전계준 11사단.

면담자 영장이 나왔어요?

전계준 인천에 와 있으니까 영장이 나왔지.

면담자 인천 어디에 사셨나요?

전계준 송월동.

면담자 송월동에 사시다가 영장이 나와 11사단에 들어갔는데, 한 몇 달하다가 제대를 한 건가요?

전계준 제대 조치를 한 거야.

면담자 그럼 11사단 근무는 어디서 하셨어요?

전계준 사창리. 강원도 가평 너머서.

면담자 그럼, 아버님은 계속 인천에 거주하셨고요?

전계준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나하고 살다가 돌아가셨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전계준 49인가?

면담자 젊을 때 돌아가셨네요.

전계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노동하다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공장이 아니라 배에서 짐 들어오는데 그거 실어다가 육지로 옮기는데, 운찌가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거야.

면담자 보상금은 좀 나오셨겠다.

전계준 보상금은 좀 나왔지만 다 한낱 물거품이지, 뭐.

면담자 선생님은 11사단 나와서 인천으로 가신 거예요?

전계준 인천에 갔다가, 군에 갔다가 그렇게 나와서 인천에서 있다가, 집안 애들 있으니까 수원으로 온 거지.

수원 정착 과정

면담자 인천에서 아버님 돌아가신 거 보고 수원에 온 건가요? 그 전에 온 건가요?

전계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가 살기가 막막하니까 집안 있는 데로 나온 거지.

면담자 그럼 인천에서 한 10년 넘게 오래 계셨네요?

전계준 그럼 송월동에서 꽤 오래 살았지.

면담자 수원에는 집안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전계준 큰집 있고.

면담자 아니, 큰집은 부산에 있었잖아요?

전계준 부산에 있는 건 종손이고. 큰집은 여기 수원에 살잖아.

면담자 수원 큰집 사람들은 누구누구 내려왔어요?

전계준 그 전에 큰집은 다 나왔지. 그랬다가 삼촌 노인네 두 분만 들어가고 아들네는 여기 수원에 살잖아.

면담자 삼촌 내외분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전계준 고향으로 도로 들어갔지. 농사 안 된다고.

면담자 고향이 어딘데요?

전계준 선천군 군산면 진석리.

면담자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전계준 처음에 내 았다가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해서 노인네 두 분만 들어가고 아들에는 그냥 남한에 남은 거지. 그러다가 헤어진 거지 뭐.

면담자 재산 뺏기고 내려왔다가 노인 두 분은 들어가시고 아들만 수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전계준 그렇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이 수원에 오신 거는 한 30~40년 되셨나요?

전계준 그렇게 됐지.

면담자 그럼 맨 처음 수원에 왔을 때는 어디서 사셨어요?

전계준 수원에 와서는 지동에 살았어.

면담자 이때가 몇 살 때쯤인 거 같아요?

전계준 그때가 스물아홉 살인가?

면담자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전계준 수원에 와서. 서른한 살인가? 서른두 살에?

면담자 그럼 그때 나이로는 좀 늦으신 거네요?

전계준 그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늦지 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사모님은 지금 살고 계시는 할머니인가요?

전계준 아니 집사람은 돌아가고, 아들딸만 낳고 돌아가고, 지금 집사람하고 재차 결혼했어.

면담자 지금 첫 번째 결혼하신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전계준 중매지.

면담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셨어요?

전계준 아들 둘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죽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

면담자 그럼 첫 번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나보다?

전계준 일찍 돌아가셨지.

면담자 몇 년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전계준 18년 살았지.

면담자 아파서 돌아가셨나요?

전계준 병으로.

영동시장 상인

면담자 그럼 수원에 오셔서 무슨 일하셨어요?

전계준 장사.

면담자 어디서요?

전계준 영동시장.

면담자 무슨 장사 하셨어요?

전계준 라이타, 만년필, 잡화.

면담자 가게가 있었어요?

전계준 그때는 노점에서 하는 거야.

면담자 영동시장이 커요?

전계준 아주 크지. 수원에서 제일 컸지. 영동시장밖에 더 있었나?

면담자 그럼 영동시장에서 장사 하겠다는 것은,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전계준 그때 큰집에서 노점상 하니까 옆에서 해라 해가지고.

면담자 당시 큰집은 무슨 장사 하셨는데요?

전계준 거기도 잡화 했지.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어서 수원백화점 들어가서 잘 살잖아.

면담자 선생님은 친척 기반이 있으니까 수원에 오시고 장사도 하시게 된 거네요?

전계준 그럼 그 집안이 있으니까 왔지. 어떻게 올 수가 있나.

면담자 영동시장 장사는 잘 됐나요?

전계준 잘 됐지. 그때 영동시장은 장사가 잘 됐지.

면담자 그걸로 애들 가르칠 만큼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전계준 그럼 장사해서 그 돈으로 살림했으니까.

면담자 그럼 아들 둘 중에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전계준 둘째.

면담자 그럼, 큰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전계준 49인가(2012년 기준).

면담자 그럼, 둘째 아들은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전계준 11살에.

면담자 일찍 죽었네요.

전계준 딸은 지금 몇 살?

면담자 딸은 40살(2012년 기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계준 첫째 부인 돌아가시고 얼마 만에 재혼하신 거예요?

면담자 1년 있다 바로, 애들은 있는데 천상 사람이 있어야 밥을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지.

전계준 첫 번째 부인은 영동시장에서 같이 장사하셨어요?

면담자 집에서 살림만 했어.

전계준 두 번째 부인은요?

전계준 집에서 살림만.

면담자 두 번째 부인은 누가 소개해 준 건가요?

전계준 소개나마나 살다 보니 만나게 된 거지.

면담자 첫 번째 부인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전계준 중매로 만났어. 그래도 수원에 유지 집안으로 괜찮았어.

면담자 그런데 선생님은 월남민인데 처가에서 반대 안 하셨어요?

전계준 반대는 뭐(웃음).

면담자 (사모님은) 괜찮은 집안인데 선생님은 장사하시는 분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크게 반대 안 하셨어요?

전계준 응.

면담자 그럼, 수원에 살고 있는 월남민들은 처음에 집단으로 모여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전계준 지동초등학교 뒤에 성 밑에 모여 살았지.

면담자 피란민들이 모여서?

전계준 그때 많이 모여 살았지, 나는 큰집이 그쪽에 있어서 거기 와서 살았으니까.

면담자 그럼, 평안북도 사람들이 여기에 많았나요?

전계준 여기는 많지 않았어.

면담자 같은 고향 사람들은 친척 말고는 만나지 않았나요?

전계준 못 만났지.

면담자 피란민 모임이 따로 있지 않았나요?

전계준 있었어도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면담자 영동시장 내에 피란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 중에.

전계준 있었겠지 뭐.

전계준 그럼 그분들하고 따로 만나는 건 없으셨고?

전계준 그럼.

면담자 네, 선생님은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언제까지 하셨어요?

전계준 근 쉰대여섯까지 했지.

면담자 지금은 뭐하세요?

전계준 지금은 애들이 하고 있지. 나는 쉬고.

면담자 그럼 애들도 영동시장에서 장사하나요?

전계준 그럼.

면담자 큰아들이?

전계준 응.

면담자 큰아들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전계준 수원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듬해 대학 다녔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면담자 선생님 고향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북도 고향에?

전계준 (큰소리로) 갈 수만 있으면 가야지 안 가냐? 이런… 내 탯줄 끊어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덴데 통일만 되면 아 들어가지 안 들어가냐.

면담자 통일되면 가고 싶으세요?

전계준 가기만 해? 세 식구가 거기 남아있는데 어떻게 안 가냐.

면담자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겠죠?

전계준 돌아가셨겠지.

면담자 동생들은요?

전계준 동생들은 모르지 살아있는지.

면담자 이산가족찾기에 신청해 보셨어요?

전계준 신청한다고 되나? 신청하면 뭐 하냐 그거 다 허상이지.

면담자 신청도 안 하셨구나?

전계준 하면 뭐 하냐. 만날 수나 있냐.

면담자 그럼 혹시 금강산 관광 갈 수 있었을 때 가 볼 생각은 안하셨어요?

전계준 금강산 가면 뭐 하냐. 거기 가서 산이나 보고 뭐 하냐. 통일되면 금강산이 아니라 고향이랑 묘향산도 가면 되는데.

면담자 통일되길 바라고 계시네.

전계준 아이고 당연한 얘기지. 조상네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안 가보냐.

면담자 그럼 여기는 아버님 제사는 선생님이 지내세요?

전계준 그럼.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다 지내지.

면담자 할아버지까지 지내세요?

전계준 그럼.

면담자 평안북도 음식 특이한 것, 여기 수원 사람들이 먹는 것 말고 평안북도 사람들이 먹는 거는 뭐가 있어요?

전계준 음식?

면담자 집에서 특별히 해먹는 북한 음식 있어요?

전계준 다 짬봉 돼서 몰라.

면담자 그럼 선생님께 수원이 제2의 고향이신 거죠?

전계준 그렇게 된 거지.

면담자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수원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면 이북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전계준 이북 사람이라고 해야지. 여기 살기는 살았어도 이북은 이북이지. 애들은 수원이 고향이니까 수원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이북이 고향이지.

면담자 남들한테 선생님 이야기할 때 고향이 북에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계준 그럼 하지 안 해?

면담자 그렇구나, 그럼 피란민이라고 영동시장에서 살 때나 수원에서 살 때나 인천에서 사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전계준 어려울 게 어딨냐.

면담자 특별히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든가 일할 때 힘든 일만 시킨다던가, 그런 거 없었어요?

전계준 그런 게 어딨어? 이남이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북으로 갔게.

면담자 어쨌든 고향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친척 분들 말고는 고향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 봐요?

전계준 (대답 없음)

면담자 선생님 그때 피란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배급 나온 거 있나요?

전계준 배급? 그런 거 몰라.

면담자 수원에 사는 친척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전계준 큰집하고 삼촌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큰집 누구? 아들? 사촌형님 되세요?

전계준 형님 되지. 형님은 지동에 계시고 조카는 거기도 지동이지.

면담자 큰집 형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전계준 전계봉.

면담자 지금 살아 계세요?

전계준 그럼 살아 계시지.

면담자 4촌 형님이세요?

전계준 6촌 형님, 난 4촌이 없어.

면담자 수원에 계신 삼촌네는 어디서 사세요?

전계준 인계동.

면담자 삼촌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살아 계세요?

전계준 돌아가셨지.

면담자 그럼 6촌 형님하고 삼촌네 집안, 이 두 집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전계준 오죽하면 거기서 나왔겠나? 집안들 다 쫓아내고 집집마다 다 나오고 하니까, 나도 학교 다니다가 고향이 싫어지니까.

면담자 그때 북한은 대부분 공산당을 했는데, 선생님네 집안은 어떻게 민주당을 했네요?

전계준 그때 3당이 있었어. 민주당, 노동당, 청우당.

면담자 청우당?

전계준 천도교 계통으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갔지.

면담자 영동시장 상인들 중에 선생님처럼 월남민들이 많았어요?

전계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야.

면담자 많지 않았어요?

전계준 응. 사리원상회가 이북 사람이고…

면담자 사리원상회는 어디 사람?

전계준 황해도 사람.

면담자 사리원상회는 뭐하는 상회인데요?

전계준 어물 팔아.

면담자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대략 이 정도 인거 같아요. 혹시 하려고 했는데 안 한 말씀 있으세요?

전계준 하나마나 뭐 할 거 있나. 오죽하면 고향에서 아버지가 막내보고 건강해라고 하고 나왔으니까 뭐… (한참 말 없음) 사람이 사람을 때려죽인다는 게 말이 쉽지. 그런 놈의 치하에서 다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면담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담 자	박현정(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면 담 일	2012년 5월 19일
면담장소	회서문 입구



01 38선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이 개성역에서 기차표를 내보이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02 1947년 38선 이북에서 내려와 개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월남민(국사편찬위원회 | NARA)

개성피란민수용소에서 먹을 것과 머물 장소를 제공받고, 소독가스를 맞은 후 남한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47년 4월 27일



03 개성 지역의 월남민 천막촌(국사편찬위원회 |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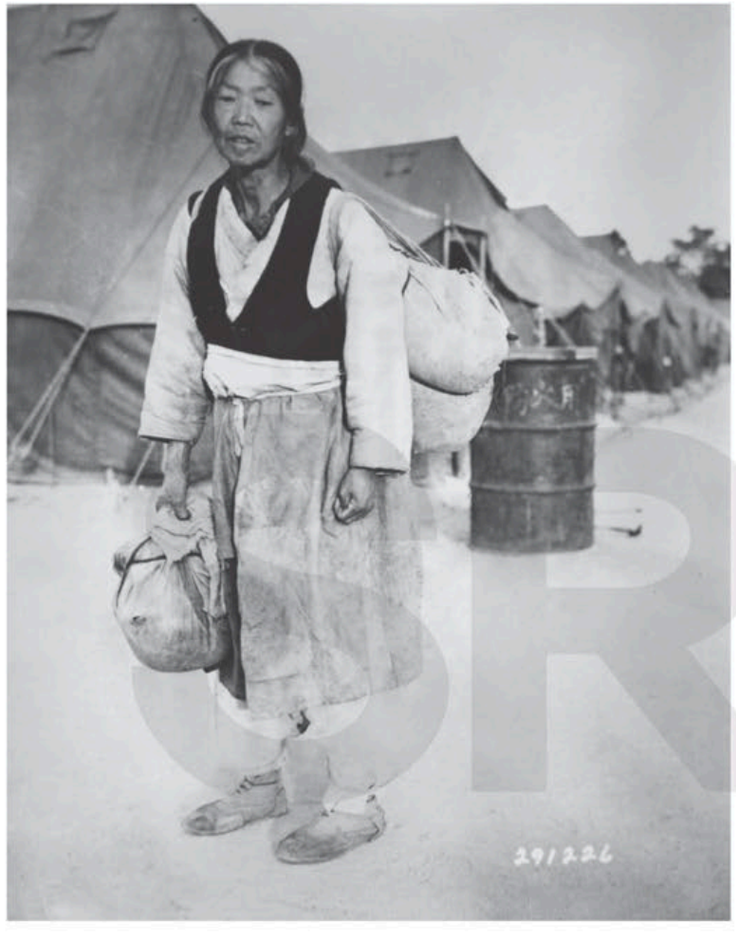


01 개성 지역의 월남민 천막촌(국사편찬위원회 | NARA)

38선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무기 또는 과다한 현금 소지 여부를 조사받은 다음 소독 여부를 조사받은 다음 38선 이남으로 향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만주나 중국 북부에서 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가족 단위, 남성, 여성으로 분리되어 텐트에 수용된다.

SUWON RESEARCH INSTITUTE

1947년 5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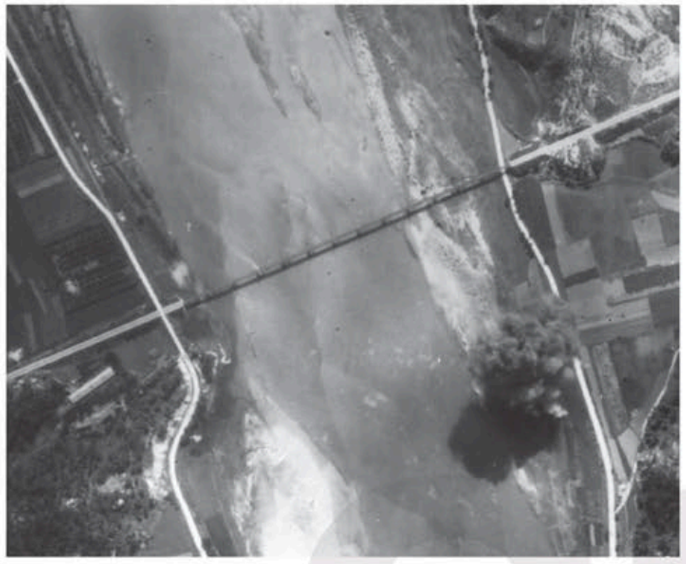


05 전 재산을 이고 천신만고 끝에 개성피란민수용소에
도착한 여성(국사편찬위원회 | NARA)



06 개성피란민수용소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받고
소독가스를 맞은 후에, 남한으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는 월남민(국사편찬위원회 | NARA)

SRI 수원
SUWON
수원학연구센터





07 폭격 직후 북한 개성 근교의 남강 철교 (국사편찬위원회 | NARA)



08 중공군 남하를 피해 퇴각하는 영국군 장갑차가 38선을 지나 남하하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10월 12일

1950년 12월 8일





09 개성에서 개최된 휴전회담을 위해 유엔군 측 대표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개성에 착륙하여 공산군 측 대표를 만나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10 휴전회담이 열린 개성의 관공서 식당(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7월 8일

1951년 7월 11일



11 개성 회담에 참석한 유엔군 사절단(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국제연합 대표 말리크의 제의에 따라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지정한 뒤, 7월 8일 예비회담, 7월 10일부터 본회담이 열렸다.



12 중국군과 북한군 대표자들이 개성 평화회담장에서 유엔과 중국 뉴스 카메라맨들을 위해서 포즈를 취하는 장면 (국사편찬위원회 | NARA)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중국공산군 소장 펑시에, 등화, 최고 북한 대표자 남일, 북한군 소장 이승조와 장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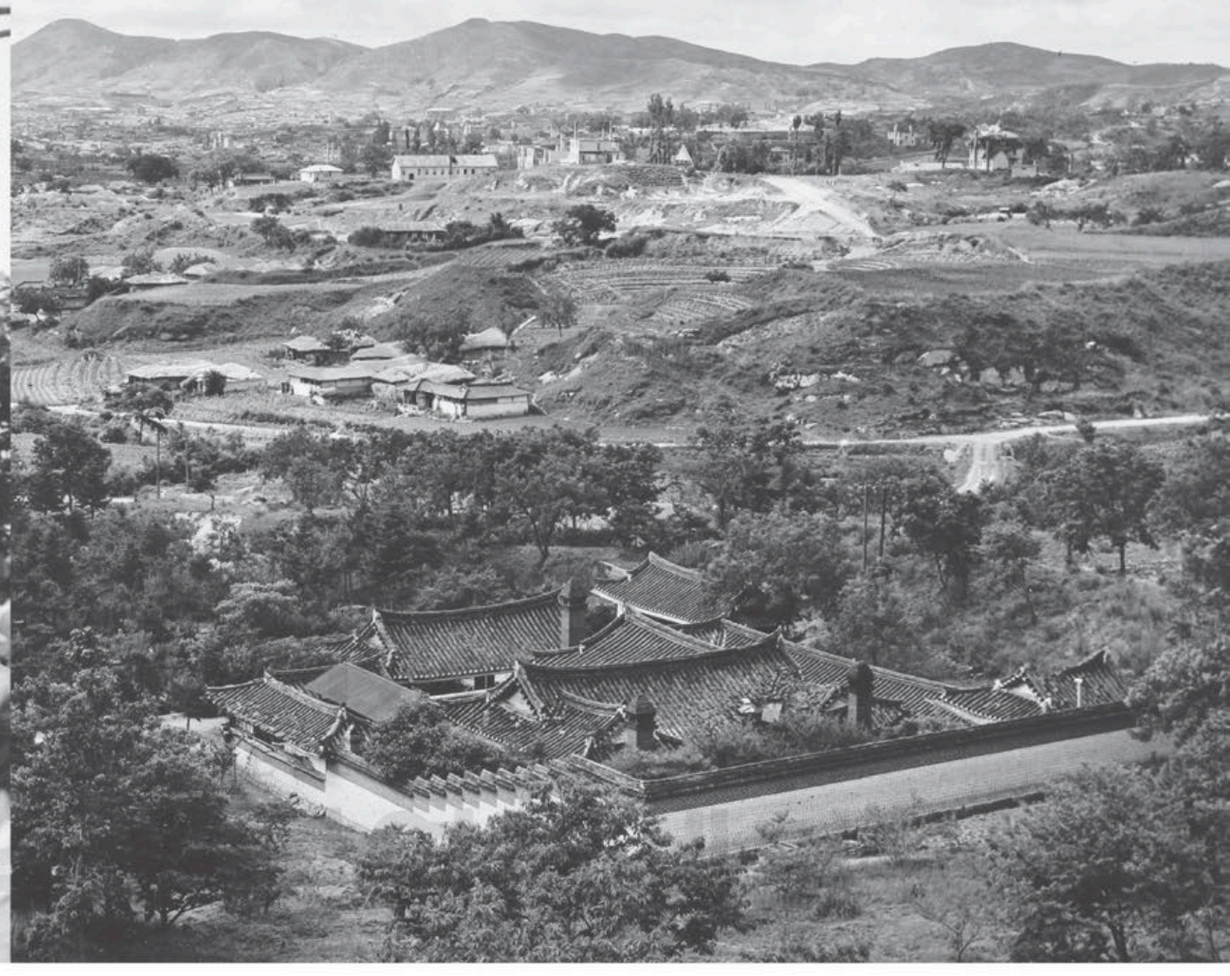
수원대학교 SUWON UNIVERSITY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7월

1951년 7월 16일



13 개성에서 열린 휴전회담의 회담장 근처의 노점 풍경(국사편찬위원회 | NARA)



14 개성 휴전회담장 전경과 유엔군 주둔지(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7월 18일

1951년 7월 19일



15 개성 휴전회담장 인근 문산리 UN군 전진기지에 착륙한 헬리콥터와 한국인 소년
(국사편찬위원회 | NARA)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큰 미 육군 군복을 입고 있다.



16 미 해병대의 폭격으로 붕괴된 개성과 홍수리 사이의 터널과 철로
(국사편찬위원회 | NARA)
미 공군 67전술정찰비행단의 저공비행 중 촬영되었다.

SRI 수원시정
SUWON RESEA
수원학

1951년 8월 14일

1952년 10월

다섯 번째 이야기

경기도 개성 월남민 최우섭



1929년(1세) 경기도 개성시 고려동 출생,
1945년(17세) 송도중학교 3학년 기미기제특공대 지원, 8·15해방
1947년(19세) 경기도경찰학교 졸업, 개성에서 경찰 근무
1950년(22세) 6·25전쟁 발발, 제주도 도착
해병대 입대, 강화도 헌병파견대장 역임
1956년(28세) 결혼 및 전역, 수원 정착
1960년대 이후 택시회사 운영,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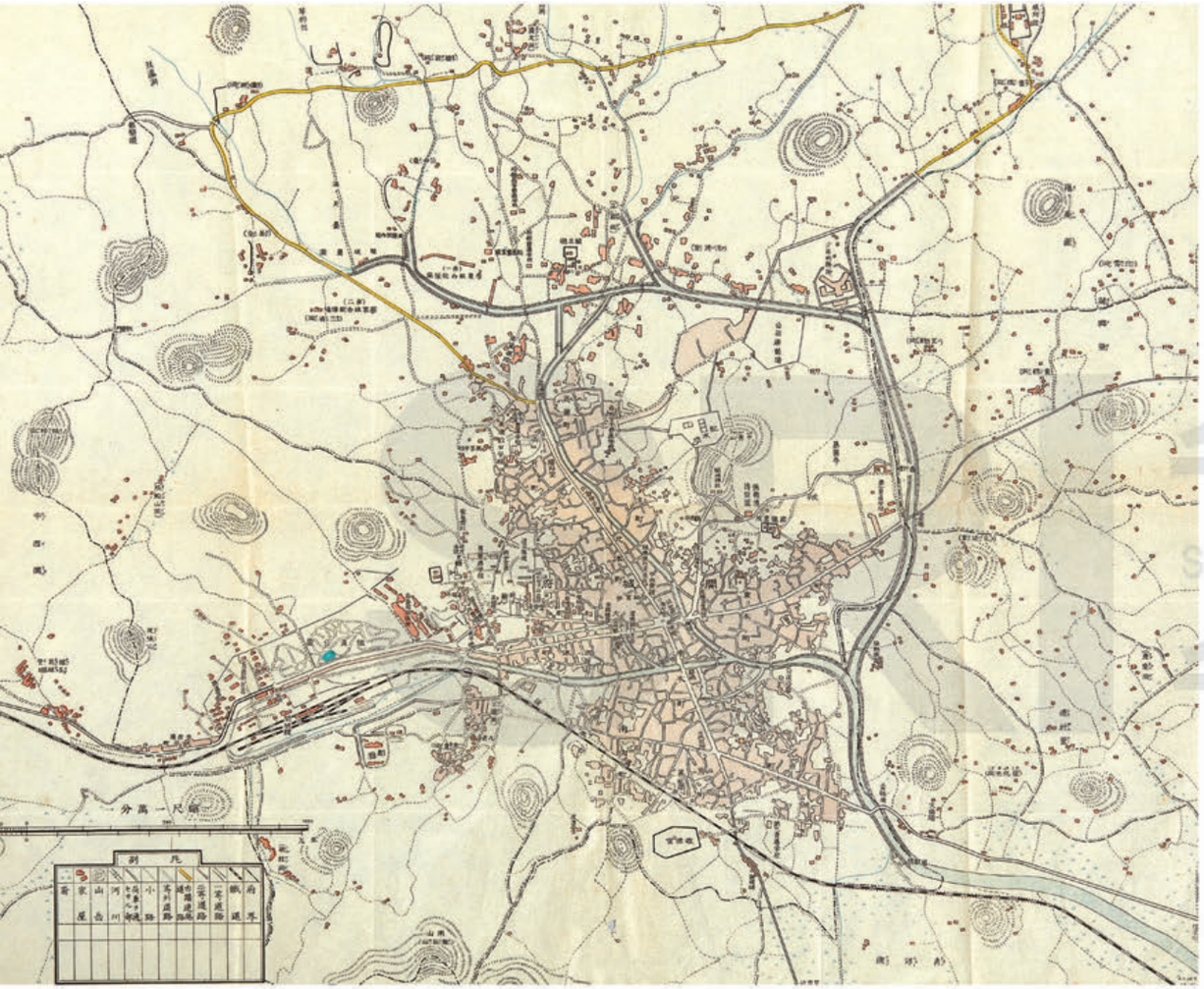
가미가제특공대와 개성 경찰을 거쳐 해병대 헌병으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부유한 어린 시절과 가미가제(神風)특공대 지원

최우섭은 1929년 개성시 고려동 190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4형제가 같이 살았다. 아버지 최명원은 4형제 중 장남이었고, 어머니 성함은 오봉학이다. 최우섭은 5남매 중 셋째 아들이다. 큰누님 최정숙은 평양으로 시집을 갔고, 큰형님 최정섭, 둘째 형님 최동섭, 막냇동생 최용섭이다. 큰형님은 개성에서 사망하였고, 둘째 형님과 막냇동생도 6·25전쟁 중 강화도에서 유격대로 활동하다 모두 사망하였다.

최우섭은 개성 원정소학교(원정보통학교)와 송도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최우섭의 아버지 최명원은 송도중학교 제1회 졸업생인데 윤치호와 동창이다. 아버지는 개성에서 손꼽히는 부자여서 최우섭은 본인의 전용 인력거를 타고 등하교하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용 자가용과 기사가 있었던 것이다.



개성부전도(『개성군면지』, 1930,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제공)

송도중학교에 배치되었던 일본인 배속장교가 그에게 소년항공병으로 나가 천황에게 충성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대표로 가미가제(神風)특공대에 선발되어 영등포 성남중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 그는 가미가제특공대 2기생으로 전체 250명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복의 단추는 5개였는데 가미가제특공대 교육생은 단추가 7개인 군복을 입었다. 또한 일본의 국화가 새겨진 일본도를 차고 차도(車道) 한복판을 활보하였는데, 자동차보다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신들의 권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1일에 가미가제특공대 훈련소를 졸업하고 20일간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휴가 중이었던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다. 만약 9월 15일 해방되었으면 최우섭 자신은 가미가제특공대가 되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방되자마자 개성시민들이 몰려와 친일파의 집이라고 때려 부수기 시작해 집안이 난리가 났다. 시민들은 아버지를 폭행했고, 특공대로 선발되었던 자신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였다. 최우섭은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하여 천장에 숨어 지내면서 1년 동안 숨죽여 공부를 하였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일본인학교만 다녀서 한글을 배운 적이 없었다. 혼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개성 경찰 근무와 6·25전쟁 발발

최우섭은 친일파로 몰려 어려움을 당하면서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1년 동안 할아버지 댁에 숨어서 공부해 드디



1948년 개성 경찰(국사편찬위원회)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구

어 경찰이 되었다. 경기도경찰학교 13기생으로 입학해 그곳에서 같은 기수 200명 정도가 함께 15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최우섭의 첫 근무지는 개성경찰직할파출소였다. 그곳에서 약 15일 근무하다가 38경비대로 배치되었다. 38선 경비를 맡았던 그는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을 다닐 때 경호에도 참여하였다. 자신은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따라서 월남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개성경찰로 근무한 지 4년차가 되었을 때였다. 1950년 6월 25일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반 개성경찰직할파출소 정문 보초를 교대하고 내무반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총소리가 들려왔다. 개성경찰서 후문 쪽에서 소리가 났고, 정문에서도 소리가 났다. 비상이 걸렸다. 알고 보니 인민군이 이미 개성경찰파출소를 포위한 상태였고 무차별 총격으로 경찰관들이 죽어 나갔다. 최우섭은 숙직실로 뛰어 들어가 헌옷으로 갈아입고는 하수도관 속에 들어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몸을 숨겼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최우섭은 살기 위해 파출소를 나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옷으로 갈아입고 개풍으로 갔다. 그리고 3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야메배'(불법적인 방법으로 타는 배)를 탔다. 당시 최우섭은 아무것도 없이 권총과 실탄 50발만 가진 채 죽기 살기로 개성을 떠났다.

최우섭은 야메배를 타고 15일 정도가 걸려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해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최우섭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혔으나 권총과 실탄만 소지하고 있을 뿐, 신분을 증명해 줄 신분증도 무엇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면서 조사를 이어 나갔고 실랑이가 붙었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가 최우섭을 불러 개성경찰서장과 내무반장 이름을 물어보고는 곧바로 전투부대인 202부대로 배속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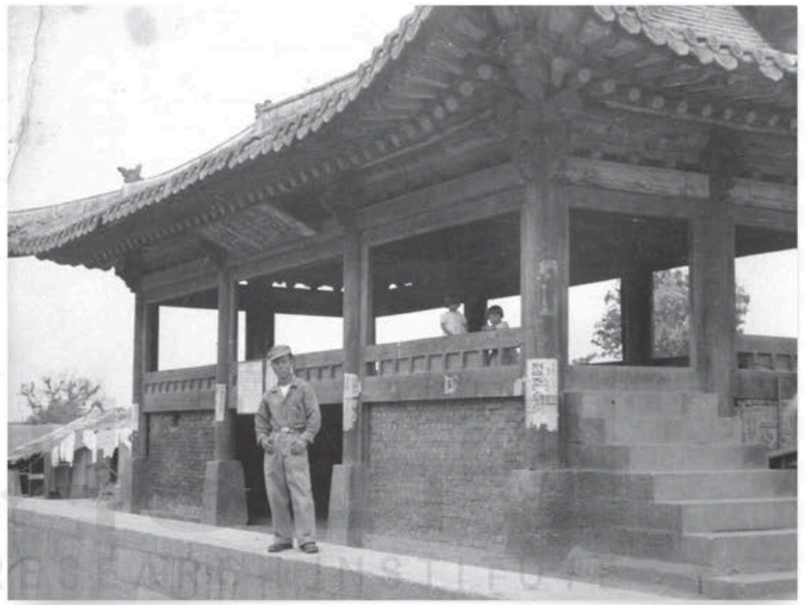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병대 지원과 강화도 헌병파견대장 시절

최우섭은 202부대원으로 지내다가 첫 휴가를 맞아 제주도 시내로 나왔다가 해병대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병대에 지원하였다. 그때 시험 문제는 애국가 1절을 모두 한문으로 쓰는 것이었다. 총 100명이 응시하여 3명만이 합격하였다. 해병대에 교육기관이 없어 대구 헌병학교에 가서 40일간 교육을 받았고, 곧 강화도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군대의 보급품이 아주 형편없어 제대로 군복이나 신발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1953년 해병대 2연대 창설(국가기록원 제공)



1955년 제대 전 수원 화홍문을 방문한 최우섭(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인천상륙작전 훈련 중 미군 고문관이 해병대원의 우수함을 보고 제대로 된 의복을 지급하였다. 최우섭은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여 서울 탈환 후 북진하여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입성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에 참여하였다. 북진하여 평안북도 박천까지 갔지만, 공무 수행 중이기에 고향 개성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강화도에는 11개 기관이 있어 민간인에게 자릿세를 받는 등 피해를 끼치자 해병대가 주관이 되어 강화도 헌병대를 창설하였다. 헌병대 초대 파견대장이 되어 강화도에 부임한 최우섭은 치안을 도모하면서 주변의 기관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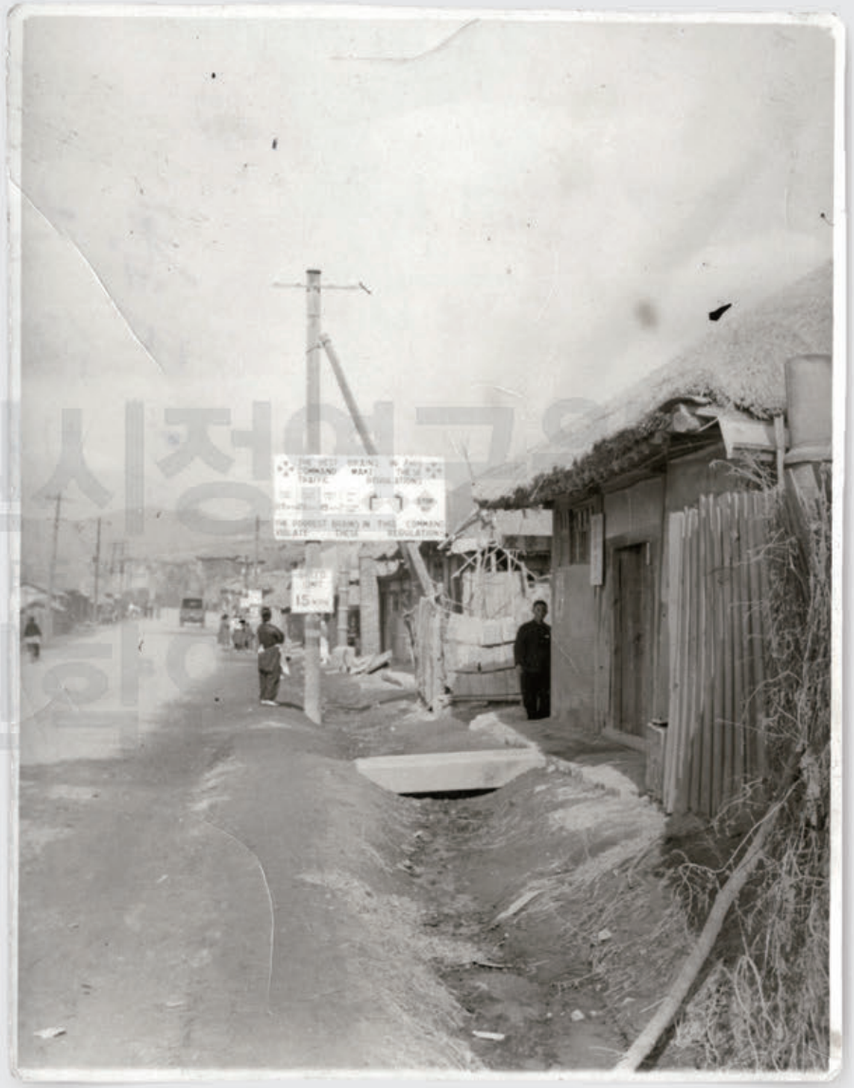
율하여 통행금지를 12시로 늦추었다. 이때 최우섭의 별명은 면도칼로, 이는 그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강화도 헌병대 초대 파견대장이 된 후 강화군수에게 인사를 갔다가 군수 비서였던 부인을 만났다. 당시 부인은 이화여대 정외과 3학년 학생으로, 불타버린 호적을 복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최우섭은 그녀의 작업하는 모습과 한문 글씨에 첫눈에 반했다. 최우섭은 강화도 외에도 인천과 김포에서 근무했는데, 해병대 생활 7년째인 1956년 결혼과 동시에 제대하였다.

수원 정착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과의 상봉은 해병대 헌병 생활 중 이루어졌다. 해병대 헌병으로 근무하던 때에 수원에 개성 피란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수원으로 휴가를 나왔다. 팔달사 개성시민연락소에 가서 명부를 보니 200명 정도의 피란민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성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내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둘째 형님과 막냇동생은 개풍군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하였다고 한다. 부모님은 이미 수원에 정착하였기에 최우섭도 결혼 후 수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매교동 이화직물공장 뒷집에 거주하였는데 가족이 총 7명이었다.

결혼 후 수원 보신당약방 아래 택시주차장에서 스페어 운전수로 일하였다. 운전은 헌병경찰 시절 잠깐 해 보았던 것이 전부였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운전하기 위해 택시가 있는 곳에서 거의 하루종일 서거나 앉아서 기회를 기다렸다. 이 모습을 본 사장이 최우섭을 부르더니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의 경찰 이력과 군대 이력을 보고서 그를 사고처리 담당인 원무과장에 임명하였다. 15일 후 다시 상무로 승진, 2년



1950년대 매교동(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서울운수 재직 시절(수원박물관 제공)

후엔 전무로 승진하여 10년을 재직하였다. 이후 최우섭은 수원시에 금성상사, 금성공사, 우일상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후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10년을 봉직하였다.

최우섭은 결혼하고 가장으로서 생활을 이어 나가느라 피란민과 연락하고 지낼 겨를이 없었다. 최우섭은 보고도 못 가는 고향 개성이 한없이 그립다. 강화도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개성 송악산이 보이고 그 아래 살던 집이 있는데, 보고도 못 가는 심정은 표현할 길이 없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평양음식을 잘하였고, 그 솜씨를 현재 손주며느리가 전수받았다. 개성보쌈, 김치, 개성만두, 개성식혜 등을 개성음식으로 꼽았으며, 특히 호박김치, 장땡이(개성장떡)를 기억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8년 부친의 장례행렬
(매교동 이회방직 부근, 수원박물관 제공)



출생과 가족관계

면담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띠세요?

최우섭 1929년생. 7월 3일, 뱀띠.

면담자 그러면 원래 고향은 태어나시던 곳이 정확히 어디세요?

최우섭 개성시 고려동 190번지.

면담자 선생님 윗대부터 여기서 사신 건가요?

최우섭 원래 고향이 개성이에요.

면담자 지금도 개성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남아 있으세요?

최우섭 별로 친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아 있죠. 재산이고 뭐고 있어요.

면담자 그럼 개성에서 사실 때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최우섭 어머니, 아버지 계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고. 다 돌아가셨지.

면담자 그럼 부친은 장남이세요?

최우섭 첫째 장남.

면담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네요?

최우섭 아버지 형제가 4형제인데 제일 위가 우리 아버지이죠.

면담자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최우섭 최명원.

면담자 어머님은?

최우섭 오봉학.

면담자 작은댁들도 다 개성에 그 근처에 살고 있었나요?

최우섭 삼촌들? 삼촌들은 다 돌아가셨죠.

면담자 삼촌들도 같은 동네에 같이 사셨나요?

최우섭 동은 따로따로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최우섭 내 형제들은 4형제. 다 없어졌죠.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면담자 선생님은 몇 째에요?

최우섭 난 셋째. 둘째는 강화에서 군번 없는 용사, 유격대 전사였어요. 넷째도 유격대에서 전사했지.

면담자 제일 큰 형님은?

최우섭 고향에서 돌아가셨고.

면담자 성함은요? 큰형님 성함.

최우섭 큰형님은 최정섭, 둘째는 최동섭, 그다음 나, 막내가 최용섭.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은 최정숙, 순서로는 맨 위지.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실 거야. 평양으로 시집가버려서. 더구나 6·25사변 당시 나는 개성 경찰이 되었어. 6·25사변 나자마자 경찰들은 그냥 죽여 버렸으니까. 거기서 아버지 핫바지 저고리 갈아입고 걸어 나와서 개풍군으로 밤이면 걸어 나와서 거기서 야메배를 탔지.

SRI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민연구센터

해병헌병대 생활

면담자 야메배?

최우섭 돈만 주면 타는 배가 있어요. 제주도로 갔어. 한 보름 걸려가지고. 제주도로 갔어도 뭐 먹고살 수가 있어? 아무리 경찰일 망정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보니까 해병대라는 걸 만든대. 그래서 해병대 지원해서 갔지. 나는 저기밖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해병생활을 7년을 했어.

면담자 고생하셨네요.

최우섭 인천상륙작전 평양탈환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지. 그래서 해병대 몇 기생이냐고 물어보면 9기생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9기생은 전멸을 했어. 9기생은 신병훈련소에서 졸업을 하자마자 끌고 올라와서 평양탈환작전에서 다 죽었어.

면담자 완전히 전멸을 했네요.

최우섭 그렇지. 조교 하나만 떨어졌어. 신병연대에서 조교로 쓸 사람 한명만 남겨 놓고 몽땅 싣고 가서 죽어 버렸어. 그래서 9기생은 없는 걸로 치고 8기. 10기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은 몇 기세요?

최우섭 1기.

면담자 해병대 창설 멤버시네?

최우섭 그럼. 옛날 생각하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탄을 실어 오는 트럭이 해병대 시체 나르는 차 때문에 길이 막혀서 오지 못했어.

면담자 제가 해병대 1기는 처음 만나 봐요. 제가 참전 군인이나 참전 경찰은 많이 만나 봤는데 해병대 1기는 처음 만나 봐요.

최우섭 그래요? 거짓말 아니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한참 북진할 때 압록강까지는 못 가봤고, 한 30리만 가면 압록강인데 (평안북도) 박천까지 갔더랬어. 나는 해병대 헌병 창설자에요. 백바가지(헌병)를 거짓말 아니라 내가 만들다시피 했어. 헌병 창설자 백바가지.

면담자 선생님 무서운 분이었네요.

최우섭 만약 친구가 헌병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 헌병이 뭐냐 하면 군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여 통수권, 대통령의 명령이야. 통수권을 엄호 보호하는 군사보안경찰을 헌병이라 그러는 거야.

면담자 그냥 단지 군의 기율이나 잡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들었지. 어르신처럼 일목요연하게 원래 본분, 사명 같은 이야기 듣는 건 처음이네요.

최우섭 부동자세의 목적이 뭐야? 차렷, 열중쉬어가 부동자세 아냐? 그게 뭐야?

면담자 (웃음) 잘 모르겠는데요.

최우섭 군인의 기본자세이므로, 내(內)로는 군인정신에 충익하고 외(外)로는 엄수 단정해야 돼. 그게 군인이 '차렷' 하는 부동자세의 목적이야. 그리고 '열중쉬어' 자세도 목적이 있는 거야. 다음 구령에 능히 응할 수 있는 준비자세. 이것이 쉬어야.

면담자 군대 해병대에서 계급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최우섭 제대할 당시에는 상사. 들어갈 때는 졸병이지. 해병대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내가 좋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개성 경찰이었는데, 6·25 나니까 개성은 20분 만에 점령당했거든. 거기서 아버지 핫바지로 갈아입고 개풍군으로 나와서 야메배 타가지고 제주도까지 간 거야. 한 보름 걸려서. 제주도 가니까.

면담자 야메배에는 몇 명이나 탔어요?

최우섭 한 300명 탔지.

면담자 그 300명은 대부분 다?

최우섭 경찰이 아니지. 다 민간인들. 돈을 이만큼씩 싸 줘야지만 타.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신분증도 없고 권총과 실탄 50발만 가지고 있었어. 만약 내가 붙잡혀 죽게 되면 (그들도) 죽여 버리고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내가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믿어 주지 않아. 신분증이 있어? 뭐가 있어? 권총하고 실탄 다발만 내놓으니. 그러니 검문하는 경찰들도 기가 막힐 일이지. 아무리 내가 경찰관이라도 우겨도 "어디 경찰이냐?" "개성 경찰이다." 더더구나 이북. 그래가지고 외출을 나오다 보니까 해병대라는 걸 창설한대.

면담자 해병대 창설은 어디서 한 건가요?

최우섭 제주도에서.

면담자 우리나라 해병대가 제주도에서 창설한 거네요?

최우섭 내가 갈 데는 저기밖에 없다 해가지고는 해병대 들어가서 인천상륙작전부터 시작한 거지.

면담자 그러면 전쟁이 나서 해방되고 나서 개성이 남한 땅이었잖아요?

최우섭 해방돼서는 남한 땅이었지.

가미가제(神風)특공대 지원

면담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최우섭 학교는 초등학교 나와서.

면담자 초등학교 이름이 뭔가요?

최우섭 원정보통학교. 거기 나와서 왜정 때 개성 송도중학교 나왔어.

면담자 송도중학교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나요?

최우섭 유명했지. 송도중학교 하면 거짓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문중학교여. 송도중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선배 윤치오 씨가 개성 송도중학교 1회 졸업생이야. 우리 아버지가 1회 졸업생이고.

면담자 선생님 집안이 농사짓는 집안은 아니신가 봐요?

최우섭 우리 집안은 뭐라 그럴까. 아버지 직업은 별로 없으셨어. 그런데 나만 타고 댕기는 인력거가 있었어. 쉽게 얘기해서 자가용이지. 초등학교부터는 인력거꾼이 나를 태워서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만큼 부자였어. 개성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부자의 하나야.

면담자 가지고 있는 땅은 몇 마지기가 되나요?

최우섭 집도 몇 채씩 있고 엄청났지. 그런데 왜정 때 하도 내가 빠릿빠릿해서, 뭐라 그럴까 동작 빠르고 말이야, 또 기계체조를 잘했어. 철봉·평행봉 아주 훅훅 날랐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중학교에 배속장교가 있었어.

면담자 학교마다? 일본인 장교인가요?

최우섭 응. 학교마다 (배속장교가 있었고). 하도 내가 동작이 빠르고 하니까 우리 배속장교가 "너는 우리 천황폐하의 아들이 돼라. 일본의 천황폐하의 아들이 돼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7살인데 소년항공병을 나가라!" 그래서 신풍(神風)특공대, 가미가제특공대라는 게 뭐냐면 원 비행기에다 (양쪽 팔을 들어 한 팔씩을 가리키며) 여기 폭탄을 둘 다는데 그 폭탄 위에 앉아서 바람을 이용해 내려가서 부딪혀 죽는 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야. 하나씩 폭탄 안고 폭탄을 의자에다 맸어. 그러니 비행기 조종사가 스위치만 누르면 집게로다가 이 폭탄이 탁 열려. 그럼 이게 내려가서 바람을 이용해서 폭격을 하는데 이만큼 쏜단 말이야. 그럼 부딪혀 죽는 거야.

면담자 사람이 죽는 거네요.

최우섭 신풍특공대야 내가. 귀신의 바람이지. 왜정 때 그게 있었어. 내가 8월 15일에 해방되지 않고 9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으면 내가 죽었지.

면담자 왜요?

최우섭 내가 신풍특공대 2기생이니까. 영등포의 성남중학교가 신풍특공대들의 학교였어. 성남중학교가. 거기서 졸업을 맡았는데. 우리 신풍특공대는 이 단추가, 어떤 군복이든 단추가 있는데 5개 아냐? 그런데 우리 신풍특공대는 7개야. 7개 단추 붙이고, 가죽 반도(벨트) 차고, 일본도 차고, 딱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는 인도(人道)로 다니지 못하게 했어. 차도(車道) 복판에 댕겼어. 왜냐? 일본도에 국화의 표시가 있어. 국화의 표시가 천황폐하의 표시야. 천황이기 때문에 칼을 누가 건드리면 안 돼. 누가 건드리면 뽑아서 쳐 죽여야 돼.

면담자 그러니까 인도로 안 가고?

최우섭 차도로 다니지.

면담자 그럼 송도중학교 졸업하고 신풍특공대로 오신 건가요?

최우섭 졸업한 게 아니라 3학년 때.

면담자 아! 3학년 때.

최우섭 똘똘하고 그래서 우리 배속장교가, 중학교마다 배속장교가 있었어, 배속장교 소개로 신풍특공대에 들어간 거야

면담자 몇 명이 가셨어요?

최우섭 나 하나!

면담자 학교 대표로?

최우섭 개성에서 지원할 때는 나 하나. 그리고 신풍특공대는 전부 일본 아이들이야. 일본 애들이 천황폐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폭해서 죽겠다고 나간 거거든.

면담자 그럼 신풍특공대 대원들은 전부 몇 명인가요?

최우섭 한 250명 되지.

면담자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건가요?

최우섭 8월 11일 날 졸업을 맡아서 20일간 휴가를 갔어. 집에. 15일 날 집에 앉아서 해방이 된 거야. 9월 15일 해방됐으면 죽었지. 해방이 되니까 개성에서는 신풍특공대로 나 하나 남았어. 친일파네 집이라고 개성 시민들이 몰려와서 때려 부수니까 나는 나대로 도망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붙잡혀 가서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피를 토하고. 나 찾아내라고 죽여 버린다고 일본을 위해서 자폭비행대를 나갔으니 친일파로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가지고. (나는 한글의) '가'자 하나도 몰랐어. 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유치원서부터 일본 학교만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할아버지네 천장에 숨어서 독학을 한 거야.

해방 후 개성 경찰 근무

면담자 그러니까 해방되고 선생님 때문에 고초를 당했네요.

최우섭 해방되고 나서 우리 집을 개성시민들이 다 때려부셨단 말야. 친일파

집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살 거 아냐. 나를 누가 건드리지 않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래서 혼자서 독학을 한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면담자 천장에 숨어서?

최우섭 나오면 죽는걸 뭐. 할아버지 댁.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되어야지만 꼭 살겠어.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도경찰학교 13기생에 들어가서 경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날 못 건드리지. 경찰관을 4년 하니까 6·25가 터진 거야. 경찰관 가족은 붙잡히면 다 죽여 버려. 우리 아버지 핫바지 저고리만 입고서 밤이면 나와서 강화도로 해서 돛단배가 있길래 올라탄 거야. 돈도 이만큼씩 내야 타. 날 보고 돈 내라고 해서 "권총하고 실탄 50발 이거밖에 없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면담자 그러면 해방되고 1년 동안 숨어서 독학하시다가 개성 경찰에 들어가셨네요. 개성 경찰에 들어가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요?

최우섭 친일파였으니까 붙잡히면 죽을 거 아냐. 그러니까 권력 때문에.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단에서 개성시를 통과해서 송악산을 넘으면 이북이야.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북으로 남북협상 다닐 때 내가 38경비대에 있었어. 바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 김구 선생이.

면담자 그냥 선생님 때문에 가족이 고초를 당하신 건가요? 선생님 말고 형제분 중에서 선생님처럼 일본을 위한 특출난 행동을, 다른 분들은 안 하셨나요?

최우섭 내 둘째 형하고 동생하고는 군번 없는 용사야. 강화에 있지? 군번 없는 용사. 전초부대 유격대. 거기서 다 전사했어. 그러니까 군 생활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말 그대로 군번 없는 용사야. 개풍군 상륙작전에서 다 없어졌어(죽었어). 나는 해병 생활을 했으니까 군번도 있고.

면담자 그럼 둘째 형님이나 막내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보상받거나 그런 건?

최우섭 보상 없지. 군번이 없는 용사야. 말 그대로. 말만 군인이지 계급이 뭔데 군번이 없으니까 소용없는 일이지. 강화 전초부대. 강화유격대.

면담자 그럼 전쟁 나기 전까지는 개성에 쭉 사셨네요. 해방되고 나니까 크게 피해를 당한 건 없는 거죠. 그 뒤로는?

최우섭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과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병대 되어가지고 헌병시험에 합격이 돼서 해병헌병이 되었어. 해병헌병으로 내가 강화도로 가서 전초부대 헌병 파견대장을, 제일 첫 번째 대장이 돼서, 강화도에 백바가지를 내가 만든 거야.

면담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개성 경찰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경찰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최우섭 개성에 있었지. 개성에 있어가지고 학교를 졸업 맡아가지고 개성 경찰이 돼가지고 38경비대에 나가 있었지.

면담자 경기도경찰학교 13기생이 총 몇 명이었나요?

최우섭 한 200명 정도 될 걸? 50년 전이니까 잘 모르지.

면담자 교육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최우섭 경찰교육? 15일.

면담자 첫 근무지는 어디였나요.

최우섭 직할파출소. 개성경찰직할파출소에 한 보름인가 있다가 38경비대로 나갔치. 거기서 이북에 왔다 갔다 하는 38경비대야.

면담자 그 당시 국경 경비는 경찰들이 다 도맡아 하셨나요?

최우섭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으나 10용사 노래가 있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육탄10용사.*

최우섭 응. 육탄10용사. 비둘기고지에는 초목도 운다. 거기 비둘기고지가 송악산 산봉우리가 쭉 있는데 제일 얕은 봉우리가 비둘기고지야. 군에서는 비둘기고지라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비둘기고개라고. 이 비둘기고지만 넘으면 박연폭포에서 흘러나오는 서서장이라는 냇갈(냇가)가 있어. 이 고개만 넘으면 서서장이라는 냇가가 있지.

면담자 38경비대에 가서 경비를 서시다가 다른 데 근무지로 나간 데가 있으세요?

최우섭 경찰관 할 때?

면담자 네.

최우섭 경찰관을 한 4년, 3년 5개월 했으니까, 개성직할파출소하고 38경비대만.

면담자 두 군데만?

최우섭 그렇게 하다가 6·25사변이 나나 보니까.

6·25전쟁 발발과 제주도행

면담자 전쟁 때 월남하셨는데 그 전에 월남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최우섭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랴 그랬고. 그때 김구 선생이 한참 남북협상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6·25사변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

*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 능선 탈환을 위해 교전 중 조선인민군 육군 특화점을 자폭 공격한 대한민국 육군 군인들을 기르킨다.

면담자 그러면 사변 때문에 월남을 한 거네요. 전쟁만 안 했으면 개성에 그냥 사셨을 텐데.

최우섭 그렇지. 6·25사변이 나니까 경찰관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쏴 죽여 버리니까.

면담자 그러면 전쟁이 났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나요? 그날 바로 알았어요?

최우섭 6월 25일 아침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6·25가 터진 거야. 그쯤에 내가 어디 있었냐면 개성경찰직할파출소에 있었어. 그러니까 개성 경찰은 한 30분 만에 점령을 당한 거야. 그날 내가 정문에 보초를 4시부터 섰어. 그런데 5시면 교대가 되잖아. 5시에 교대를 해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 경찰서 후문 쪽에서 경적을 불어. 빽빽. 경적을 불면서 정문 입초(한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고 보초를 서는 일 또는 그런 사람)를 불러.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정문 입초가 왜 그래? 그러니까 경찰서 근처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숙직 경찰들 다 깨라 이거야. 근데 벌써 인민군들이 포위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대부분 다 맞아 죽은 거지. 난 숙직실로 뛰어 들어와서 다 떨어진 바지 입고서 하수도 노깡(土管)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있었던 거야. 새벽 3시 반, 4시부터.

면담자 정말 구사일생으로 사신 거네요.

최우섭 그럼요! 구사일생을 몇 번 겪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서 아버지 핫바지 저고리 갈아입고서는 개풍군으로 나와가지고, 새벽 1시에 이틀을 굶었는지 사흘을 굶었는지 밥도 못 먹고, 가만히 숲속에 숨어서 보니까 돛단배가 오면 뭘 이만한 보따리를 주면은 배에 태우고. 그게 돈이야. 난 그냥 권총에다가 실탄만 가지고 있으니 돈도 없고 증명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

면담자 그럼 월남할 때 혼자 월남한 거였어요?

최우섭 그럼!

면담자 가족은? 결혼은 그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우섭 가족은 그 후에 1·4후퇴 당시에 피란 나와가지고 인천서 만난 거야.*

면담자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최우섭 결혼은 내가 27살에 했나? 28살에 했나?

면담자 남한에 와서 하신 거였나요?

최우섭 응.

면담자 그전에는 안 하셨고요?

최우섭 응.

면담자 상당히 늦게 하셨네요.

최우섭 전시 때인데 어떻게 해. 마누라가 강화에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강화도에 헌병 초대 파견대장이야. 마누라가 이화여대 정외과 3학년이여. 그래서 유명했어. 강화에서 여대생이 1명밖에 없어. 우리 처남도 유명해. 이경재 국회의원이 처남이야. 이경재하고 남매야. 어떻게 강화도에 가서 보니까, 그쪽에 여대생인데, 여대생인 줄 모르고 강화군청 군수에게 내가 여기 헌병대 파견대장으로 새로 왔다고 인사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잘 오셨소! 우리 여직원 오늘부터 근무를 하는데 무슨 인연인지 인사나 하고 지내."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에 흰 운동화를 신고서 일하는데 일어서서 인사를 해. 아직 학생이라고 그런데 이대 3학년 정치외교과. 그런데 이렇게 쑥 보니까 한문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강화군청이 폭격을 맞아서 10만 도민의 호적 글씨를 우리 마누라를 초청해서 쓰는 거야. 그만큼 한문을 잘 써. 쓱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문 글씨를 잘 쓸까. 저런 아이한테 장가를 들면 후손을 잘 기르겠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마누라는 15년 전에 죽어 버렸고.

면담자 그러면 전쟁 나니까 선생님 혼자 급박하게 피란을 하신 거네요?

최우섭 그럼.

면담자 선생님 가족 중에 전쟁 때 피란하신 분들 있으세요?

최우섭 그때 당시에는 만나지 못했고, 내가 해병헌병 생활을 할 때, 서울에 개성시민연락소라고 있어. 개성시민연락소에 우리 가족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명단을 봤더니 피란 나와 있더구만.

면담자 누가요?

최우섭 어머니, 아버지.

면담자 두 분만?

최우섭 응!

면담자 아까 둘째와 넷째는요?

최우섭 어렸으니까 내 가족은 없지.

면담자 누님은 시집가서 못 보고 큰형님은요?

최우섭 우리 둘째 형도 잊어버렸어. 군번 없는 용사야. 개풍군 상륙작전에 전사했는데 말 그대로 군번 없는 용사로

면담자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둘째 형이 군번 없는 용사로 전사했다는 건?

* 이후 개성 가족에 대한 상봉 장소가 인천(강화), 서울(마포), 수원 등으로 구술되고 있어 불분명하다. 이것은 큰형의 경우 강화초대파견대장일 때 서울 마포 개성시민연락소의 전사자 명단에서 확인하였고, 둘째 형의 경우 전사 소식을 들었으며, 당시 미망인이 되어 서울 독립문에 살고 있던 둘째 형수에게 건빵 한차를 실어다 준 것이다. 부모님의 경우는 1·4후퇴 때 피란 나와 수원에 거주하였는데, 최우섭이 수원에 개성피란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 팔달사 개성시민연락소에서 피란민 명단을 확인하고 매교동에 정착한 부모님과 상봉한 것이다.

SD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최우섭 강화에 가서 식구들 찾으려고 강화 초대 파견대장으로 가서 개성시민 명단을 들춰 보니까 우리 형 명단이 나오는데 개풍군 상륙작전 중에 죽어 버린 거야. 군번이 없으니까 뭐.

면담자 둘째 형이랑 막내는 전쟁 전에 얼굴 보고, 나중에 전사 소식만 들은 거네요.

최우섭 못 봤지. 그 뒤로는 헤어져서 못 본 거지.

면담자 큰형님은요?

최우섭 그 전에 개성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면담자 그 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선생님이 장남이네요?

최우섭 그렇지.

면담자 셋째인데 장남이 된 거네요?

최우섭 그렇지.

면담자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개성시민연락소에서요?

최우섭 어머니 아버지를 수원 개성시민연락소에서 만난 거지.

면담자 수원?

최우섭 아니 수원 아니다. 서울 마포 연락사무소.

면담자 그때 두 분은 언제 내려오셨대요?

최우섭 1·4후퇴 때 내려오신 거지.

면담자 다행히 내려오셔서 만났네요.

최우섭 나는 군 생활을 했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피란 나오신 것도 몰랐고, 그런데 인천에 가다 보니까 개성시민연락소라고 있길래 명단을 들춰 보니까 그래서 만나게 된 거지.

면담자 개성시민연락소가 마포에 있었네요.

최우섭 마포에 있었어.

면담자 그때 당시에는 연락소가 많이 있었나요? 개성이니 개풍이니….

최우섭 그거는 잘 모르지. 쉽게 얘기해서 나는 헌병 생활을 했으니까 빨리 군에 복귀해야 하니까, 한참 그냥 밀렸다 올라갔다 하는 판인데 뭐 자세히 알아볼 시간도 없는 거고. 만나면 만났나보다, 얼싸안고 눈물 몇 번 흘리면 그만이고.

면담자 우연한 계기에 연락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부모님과 우연히 만난 거네요. 그것도 우연이네요. 못 만나실 수도 있었는데.

면담자 두 분은 어디에 살고 계셨어요?

최우섭 남의 집 추녀 밑에 가마때기 깔고 있으니까 거지지 뭐.

면담자 남의 집에?

최우섭 그럼. 우리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이) 이북인데.

면담자 남의 집 처마 밑에 가마때기 깔고 있었다고요?

최우섭 그럼 그렇지 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헌병이니까 무서웠어. 더더구나 백바가지가 무서웠어. 어머니 아버지가 거지여. 부대에 쓰리쿼터(3/4t, 트럭 일종) 가지고 들어가서 건빵 한 트럭을 쓰리쿼터로 실어서 부모님 계신 곳에 부렸어. 그거 팔아서 사글세방이라도 얻으서. 나는 또 평양 입성식이다 뭐이다 이승만 대통령 경호해서 압록강 박천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저렇게 산 거지. 참 험악하지.

해병대 및 강화도 파견대장 시절

면담자 해병대 생활은 총 7년 했네요? 그럼 57년도에 제대했나요?

최우섭 56년도에 제대했지. 4월 7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면담자 그럼 그때까지는 헌병대로만 있었나요?

최우섭 지금도 강화에 가면 70대 이상한테 '헌병대 최대장' 하면 다 알아. (웃음)

면담자 주로 강화도 파견분대장? 계속 강화도에 계신 건가요?

최우섭 강화도에는 오후 7시에 통행금지야. 대낮에 통행금지야. 왜 그러냐? 11개 기관이 있어. 군복 입은 놈들은 전부 껄떡거려. 그러니 강화도민이 살 수가 없어. 그냥 강화읍의 장날이면 군복만 입고서 장세를 받으러 다녀. 지들이 뭔데 장세를 받으러 다녀? 그래 강화도민이 살 수가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3군 사령관을 불러서 헌병대 해라 해서, 김재규 6관구사령관 할 때 김재규가 육군헌병대위 24명을 주면서 헌병을 창설해라 했어. (강화도) 가가지고 보름 만에 앰뷸런스로 다 실어 날랐어. (그들이) 육군HID(육군 첩보부대)한테 맞아서. 도저히 여기서는 헌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섬이니까 해병대가 맡아라." 해서 해병대가 맡게 된 거야. 해병대사령관이 맡아 우리 헌병감을 불러서 "헌병대를 창설해라. 그런데 제일 독종을 내보내라. 맞아 죽어도 한이 없는 놈이 있으면 내보내라." 내가 선출이 된 거야. 내가 웃지를 않았어. 웃음이 없었어. 내 별명이 뭐였냐면 헌병대 면도칼. 왜냐하면 안경을 안 썼어. 딱 찌푸리고 있으면 이게(미간 주름을 가리키며) 가늘어진다고 해서 면도칼이라고. 해서 강화도에 헌병대를 창설한 거야. 7시에 통행금지야. 그래 서장을 만나가지고, "여보, 세상에 7시 통행금지가 어딨어. 9시 통행금지로 합시다." "아이고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지면 될 것 아뇨." 그래서 9시 통행금지가 되고 그러자 10시가 되고 12시가 된 거야. 그래서 강화도에서, 거의 60년 됐지만, 60년 전에는 유명했어, 내가.

면담자 그러면 군 생활하실 때 부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정한 거처 같은 경우는 주로 부대에서만 생활하셨겠네요?

최우섭 해병전초부대에 있을 때 있었던 거지. 그러다 제대한 거지.

면담자 그럼 근무지는? 계속 강화도에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안 가셨나요?

최우섭 인천에도 있었고 김포에 좀 오래 있었지.

면담자 다 헌병대로?

최우섭 응. 김포에 좀 오래 있었고. 김포읍에 파견대가 있었으니까.

면담자 처음에 제주도 가서 해병대 들어갔을 때 신분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최우섭 신분 확인은 해병대는 헌병학교가 없어. 그래서 육군학교에 위탁 교육을 보내. 그러면 조금 유식한 놈을 보내야지, 무식한 놈을 보내면 조금 그럴 것 아냐? 해병대는 무식한 놈밖에 없어 그럴 거 아냐? 100명이 응시해서 3명이 붙었어. 위탁 교육을 갔는데. 무슨 시험이냐. 애국가 1절을 한문으로 써라. 못 써.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쓸 줄 알아? 몰라. 그거 쓸 줄 아는 젊은 사람 없어. 예를 들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거 한문으로 쓸 줄 아는 젊은이가 한 명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말로만 무궁화 무궁화지. 옛날에 수사관은 한문을 모르면 수사관 자격이 없었어. 육군헌병학교를 간 거지. 대구에. 그래서 완전히 헌병이 된 거지.

면담자 대구헌병학교에서는 며칠간 교육을 받으셨어요?

최우섭 한 달 반 정도. 한 40일 받는 거야. 그런데 해병대에서는 헌병학교가 없거든. 해군, 공군, 해병대는 헌병학교가 없어. 위탁 교육을 받는 거지.

면담자 그러면 해병대에 들어가자마자 헌병대로 바로 들어간 건가요?

최우섭 아니지. 해병대 생활을 해가면서 시험을 친 거지.

면담자 왜 헌병대에 가고 싶으셨나요?

최우섭 왜 헌병대에 가고 싶었냐면 내가 경찰관이었거든. 6·25 당시에. 그러니까 붙잡히면 죽여 버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원에 사무쳐 있어. 왜? 경찰이면 죽여 버릴까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첫 번째 외출을 나가서 보니까 해병대라는 걸 만든대. 내가 갈 데는 저기밖에 없다.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한 거야. 해병대 그쪽도 참 기가 막혔어. 뭐냐? 보급이 없었어. 이건 정부에서 (해병대) 알기를 육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이건 하다못해 농구화 쪼가리조차 주지를 않아. (신발의) 앞부리만 있고 뒤축은 없는 것을 오락지(오라기 : 실, 헝겊, 종이, 새끼 따위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를 매서 신고 다녔어. 그러자 인제 인천상륙작전이다 해서 상륙작전훈련을 하는데 미 해병대 고문관이 우리를 보니까 참 또릿또릿한 놈들이거든 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병 신병연대 운동장 끄트머리가 바다인데 거기 갔더니 홀라당 벗겨 놓고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은 거야. "때 밀어." 그래서 때 미는 거야. 나오니까 빤스부터 새로 딱지 뜯은 것을 하나씩 입으라는 거야. 여기 USMC(미 해병대, U.S. marine corps) 미 해병대 의복 있지? 이거 붙은 거 새로 주고 농구화도 새로 주고. 아 그냥 하루아침에 해병대가 그러니까 우리 연대장이든 사단장이든 (말하길) 외출을 나갈 때 "사고들 내지 말고 잘 댕겨 들어와라." 이래야 할 텐데 "니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강병(强兵)이야. 육군 별자리라도 까부는 놈 있으면 패고 들어와." 하루아침에 개병대가 된 거야. 그래서 해병대가 개병대가 된 거야.

면담자 그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최우섭 신현준 소장.

면담자 그러면 어르신도 인천상륙작전 거기에 참여하셨어요?

최우섭 인천상륙작전 해서 마포로 올라왔지. 마포로 올라와서 서울 탈환을 해가지고 그 후에 북진하는 바람에 개성을 거쳐서 평양 입성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를 했어. 내가.

면담자 북진할 때 개성 집에 가보셨어요?

최우섭 못 갔지. 그럼. 집이고 뭐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뭐.

면담자 그럼 그때까지 가족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되었네요?

최우섭 그럼 전혀. 몰랐지.

면담자 해병대 가기 전에 배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셨는데, 해병대 가기 전까지는 제주도 어디서 사셨나요?

최우섭 제주도 시내지. 제주도 시내에 얼마 안 있었어.

면담자 그럼 먹고 자는 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최우섭 제주도를 갔는데 피란 나와서 제주도를 가다 보니까 내가 개성 경찰인데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경찰들이 올라오는 사람 싹 검문을 하잖아. 나는 권총에다 실탄 50발만 와르르 내놓으니까, "당신 뭐요?" "나 개성 경찰이요." "신분증?"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면 죽여 버리는데 어떻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느냐."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경찰관 간부가 "왜 그래?" 하니까 "이 친구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총에다 실탄만 내놓는다고. (그래서) 개성경찰서장이 "경무과장이 누구요?" 어쩌고 하면서 "몇 기생이요?" 하고 묻다 보니까 개성 경찰이야. "202부대에다 편입시켜." 202부대는 전투부대야. 그래서 202부대에 편입되어서 첫 번째 외출을 제주도 시내에 나왔는데, 해병대를 창설을 한대. '아휴 내가 갈 데는 저기밖에 없다.' 그랬지.

면담자 202전투부대는 경찰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최우섭 경찰로만. 거기도 뭐 한 1주일 있었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면담자 그러다가 해병대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셔서 또 거기서 대구 위탁교육을 받고 헌병대로?

최우섭 하여튼 참 불쌍했다. 예를 들어서 당시 해병신병훈련소 바닥은 이다 쪼가리를 쭉 이었어. 그런데 이은 틈 사이에 벼룩과 이가 꽉 차 있었어. 벼룩이 뛰지를 못해.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살이 쪄가지고. 벼룩을 잡아다가 짓이기면, 가까이서 죽이지 못해. 멀리서 죽여야 해. 창자 같은 게 다 튀어나오니까. 이런 말을 하면 창피하지만 진해에 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굴이 있어. 굴 앞에서 토요일마다 세탁을 하는데 벗고 빤스를 빠는데 거기에 서캐(이의 알)가 포도 열리듯이 열렸어. 콘크리트 바닥에 놓고 문지르면 부지직부지직 그만큼 이가 많았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어딨어. 이가 우글우글한데

면담자 그런데 그 야메배는 왜 제주도로 간 거예요?

최우섭 예를 들어서 경찰관으로서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면담자 애초에 제주도행 배를 선생님이 선택하신 건가요?

최우섭 그럼, 붙잡히면 죽일 거니까 뭐 어떻게 해?

면담자 그럼 제주도를 가야겠다고 한 건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최우섭 그렇지. 제주도에 갔기 때문에 산 거지, 거기 202부대에 편입이 된 거야. 처음에는 암만 경찰관이라고 해도 믿어 주지를 않아. 그러다 이제 내가 갈 데는 해병대밖에 없다 해서.

면담자 그럼 56년 4월에 제대하셨는데 제대할 때 근무지는 어디였나요?

최우섭 강화.

면담자 그럼 강화도에서 제대하셨고 결혼도 이미 하셨고?

최우섭 그렇지. 강화도에서 군수한테 새로 온 헌병파견대장이라고 인사를 들어갔는데 여학생이 앉아가지고 호적 글씨를 써. 그런데 강화도의 10만 도민의 호적을 새로 작성하는데, 보니까 나이는 어린아이인데 얼마나 한문글씨를 잘 쓰는지, 아이고 이런 아이하고 결혼하면 후손을 잘 기르겠지 해가지고, 결혼한 게 바로 우리 마누라야.

면담자 그런데 결혼을 처가댁에서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최우섭 쉽게 허락한 게 아니라 처갓집은 장모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바느질품팔이를 해서 대학을 가리킨 거야. 이대 정외과 3학년이야. 3학년인데 나 때문에 이대 졸업을 못 했지. 내가 낚아친 거지. 공갈 반, 협박 반, 권력 이거 가지고서 걍.

면담자 결혼하시면서 제대를 하신 건가요?

최우섭 그렇지. 제대 날짜를 먼저 받아 놓고 결혼을 한 거지. 그래서 말도 마. 엄청 고생을 했어. 내가 피란지가 여기인데 개성이 고향인데 뭐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제대를 하고, 수원시내에 보신당약방 그 아래가 택시주차장인데, 거기에 스페아(spare) 운전수를 내가 한 거야. 그때 내가 영업용 운전수 출신이 아니라 헌병대 백차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스페아 운전수가 되어가지고 며칠 운전수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2층에서 내려다보고 나 하는 동작을 자꾸 보더니, 여보게, 여보게 불러. 그래서 올라갔더니 자네 이력서를 한 번 써와 봐. 그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갔더니 전직 경찰에, 전직 헌병에. "자네 사고처리 할 줄 아나?" "예." "자네 오늘부터 운전하지 마. 원무과장을 해라." 그래서 운전대를 놓은 거야.

면담자 선생님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최우섭 결혼은 스물여덟 살에 했지.

결혼과 수원 정착

면담자 그럼 수원에 오신 거는?

최우섭 수원에 온 거? 그때 바로.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어가지고. 팔달사에 절이 있지.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었어.

면담자 그럼 부모님을 만난 건 마포에 있던 연락사무소였고 제대하고 나서는 수원에도 팔달사에.

최우섭 그렇지. 그래서 수원에 온 거지.

면담자 연락소가 인연이 돼서 수원에 정착하게 된 거네요.

최우섭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사장이 참 엄청나게 똘똘한 놈이거든. "저런 놈을 직원으로 써야겠다." 해서 "원무과장을 해라." 그래서 원무과장 보름 만에 상무가 된 거야. 상무 2년 하다가 전무를 10년간 했어.

면담자 완전히 초고속 승진이네요.

최우섭 그렇지. 그렇게 전무를 10년 하다가 수원시 내 택시회사 사장을 15년을 했지.

면담자 택시회사 사장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최우섭 그렇지. 시내에 금성상사, 금성공사, 우일상사를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한 10년 했지. 수원시 신풍학교 옆에 빨간 큰 벽돌집이 있어. 그것이 경기도 택시사업조합이거든.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거기 계단 올라가면 내 이름이 있어. 거기 건립비에 있어.

면담자 그럼 제대하고 나서 계속 수원에 정착해서 사셨던 거잖아요. 수원 지방에 제가 듣다 보니까 월남이나 피란민들이 정착촌을 이루어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면담자 연무동 종합운동장 옆에 피란민촌 정착촌이 있었다고 하던데?

최우섭 응. 공설운동장 옆에. 포도밭 옆에.

면담자 에. 혹시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거나 같이 내려오신 분들하고?

최우섭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먹고사나 하고, 그런 건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 개성시민연락소 같은 곳도 찾아다니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먹고사나 결혼을 하고 사글세방에서 일곱 식구가 사는 거야.

면담자 그때 살던 곳이 어디였나요?

최우섭 매교동에 이화직물공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뒷집이야.

면담자 매교동은 어떻게 알고 가신 건가요?

최우섭 매교다리에서 내려다보면 아래 또 다리가 있어. 매세교. 매세교 못미처 냇가 옆에 살았어.

면담자 그곳은 누구 소개로 가시게 된 거예요?

최우섭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피란 나와서, 남의 집.

면담자 그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수원에 계셨어요?

최우섭 응.

면담자 그래서 오게 된 거구나. 아버지 어머님이 이미 터를 잡으셨네요?

최우섭 응.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는 수원에서 돌아가셨어.

면담자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왜 수원에 자리를 잡으신 건가요? 서울에 안계시고?

최우섭 피란 나와서.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으니까 수원에 팔달사가 개성시민연락소야.

면담자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여기에 연고가 있거나 친척이 있어서 온 게 아니네요. 그냥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어서 인연이 되어서 아까 매교동에 자리 잡고 사글세방에 살고 계신 거예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최우섭 응. 그러자 나는 나대로 현병생활을 할 때 수원에 개성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 그래서 수원에 휴가를 나왔어. 우리 식구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팔달사 개성시민연락소에 가서 명부를 들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명부를 보고 찾게 된 거지.

면담자 선생님 마포에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최우섭 마포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못 찾았어.

면담자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찾으셨네요. 어머니, 아버님이 1·4후퇴 때 내려오셨단 사실도 그때 알고?

최우섭 그렇지.

면담자 그럼 건빵 갖다주면서 먹고살라고 한 건 언제인가요?

최우섭 내가 건빵 실어 주고 할 적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 형수를 만났어. 둘째 형수를. 둘째 형은 전사를 했고 둘째 형수는 서울 독립문 옆에 미군부대에 세탁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세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독립문 옆에 헌병검문소가 있었거든. 그래서 형수를 알게 된 거지. 형수는 남의 집 추녀 밑에서 살고 있길래 건빵 한차를 싣고 나와서 팔아 쓰시오 그랬지.

면담자 그럼 형수하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안 사셨네.

최우섭 처음에는 같이 못 살았지. 몰랐지. 피란 나온 것도 몰랐지. 서로.

면담자 다 따로따로 피란 나오셨대요?

최우섭 따로따로 나왔다가 나중에 합친 거지.

면담자 그랬다가 매교동에 7명이 살았다는 것이, 매교동 7명이 누구누구죠?

최우섭 어머님, 아버님하고, 그렇지 뭐.

면담자 형수는요?

최우섭 강화도에서 형이 전사하는 바람에 자기 친정식구들 찾으러 간다고 나가가지고는 없어진 거고.

면담자 동생은 결혼을 안 했어요?

최우섭 응.

면담자 그러면 매교동에 사시면서 가족 이루고 택시 사업하시면서 계속 사신 거네요. 그럼 여기 사시면서, 개성시민연락소는 사시면서 크게 관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고향 분들을 따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최우섭 고향 사람? 많이 만났지.

면담자 언제 어디서요?

최우섭 팔달사. 거기가 개성시민연락소니까 거기서 뭐 옆에 집에 추녀 밑에 가마때기 깔고. 형편없었지 뭐.

면담자 그럼 개성 분들은 다 거기 계셨어요?

최우섭 그렇지.

면담자 몇 분이나 되었어요?

최우섭 한 200명. 그런데 여기저기 혼자 살더라도 낮만 되면 팔달사에 모이는 거야.

최기호(최우섭의 아들) 개성친목회라고 있었지. 지금 영동시장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개성친목회라는 단체가 있었어. 50년도에.

면담자 선생님은 어떻게 아세요?

최기호 들었죠.

면담자 선생님, 개성 분들이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많이 하셨나요?

최우섭 개성 사람들이?

최기호 포목상 하시던 분들이 다.

최우섭 민병찬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연구센터

최기호 네.

면담자 포목상 하시던 분은 지금 살아 계세요?

최우섭 죽었지.

면담자 어르신은 경찰이나 군 생활 경력으로 택시 사업을 하셨던 반면에, 다른 분들은 살기가 어려웠을 텐데 대략 어떻게 사셨을까요?

최우섭 피란 나와서 나는 군 생활하는 바람에 친구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친구 찾아볼 새도 없는 거고. 제대하고 나서도 내 식구 밥 한 끼 먹이나 그 생각뿐이지. 화려하게 놀아본 적도 없고.

면담자 선생님을 개성분들 연락소에 왔다 갔다 하실 뿐이지 거기에 매달려서 어울리지는 않으셨네요?

최우섭 어울리지 않았지. 나는 그전에 서울에도 있었고 문산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가족들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을까.' 그 생각뿐이었지 뭐.

면담자 수원에 사시면서 월남민이라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나요. 수원 사람이라 그래서?

최우섭 그것도 없고, 난 제대하고 나와서 해병대 헌병대에서 백차 가지고 장난하는 바람에 운전을 배워서 할 수 없이 택시 스페어 운전수로 나간 거야. 거기서 운전하려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낮에는 응달에 앉아 있고 더울 때는 햇볕에 앉아 있고 하는 판이지. 그런데 사장이 2층에서 항상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 동작을 보고 날 좀 올라오라고 그래. 그래서 올라갔더니 자네 이력서를 써가지고 와 봐. 그래서 써가지고 갔더니 전직 경찰에 전직 헌병에 화려하니까 자네 사고 처리할 줄 아나? 에. 오늘부터 운전하지 마. 그래가지고 인제.

면담자 그러면 본인이 생활을 영위해나가느라 급급했던 것 같고, 혹시 정부나 교회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월남민들을 도와준다거나?

최우섭 그런 것 없었어.

사회사업

아들 아버님이 하셨죠. 오산중학교에 장학금을 거의 10년을 하셨나?

최우섭 오산여자중학교 장학회장을 거의 12년을 했어. 180명을 공부 가르쳤어.

아들 장학금을 매분기마다 주셔서 상패도 집에 가면 있어요.

면담자 어떤 이유로 장학금을 주신 건가요?

최우섭 그게 오산에 금성공사라고 택시회사를 만들었어. 어떡하면 조금 요만큼이라도 좋은 일을 할까 했더니 남상조라는 선생님이 있어. 평택교육장을 했어. 나하고 초등학교 같이 졸업했어.

면담자 그분도 개성 분이시구나.

최우섭 남상조 교장이 나는 오산에다 금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평택교육장을 하고 있고. 그래 내가 농담조로 "야 뭐하나 좋은 일할 것 하나 없냐?" "진짜냐? 좋은 일 얼마든지 많이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오산여자중학교 장학회장을 만글어 준 거야. 그런데 중학생 그쪽 등록금이 얼마나 돼? 얼마 안 되지. 그래도 나는 180명을 가리키니까 한번 등록금을 낼 때 뭉탱이로 싸가지고 가야 해. 그럼 오산여자중학교에서는 나를 단상에다 세워서 장군 나팔을 불러서. 학생 1,000명, 학부형 1,000명 불러서. 그렇게 호강스러운 생활을 했어.

면담자 특별히 월남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건 아니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최우섭 그럼. 남상조 교장 때문에 그쪽으로 손을 뻗은 거고.

면담자 오히려 정부에서 월남민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선생님이 사업 영위하시면서.

면담자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월남민들이 남한에 정착을 잘 하기 위해서 구호물품을 줬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는 못 받으셨나요?

최우섭 못 받았어.

면담자 수원에 개성 분들이 많이 사시나요?

최우섭 수원에 개성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개성시민연락소에 자주 가지 않았고. 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한눈팔지 않았어.

면담자 그럼 지금도 그런 모임에 안 나가세요?

최우섭 지금도 개성사람들을 별로 만날 수가 없고. 다 죽었고. 딱 한 명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구봉균 교장이라고 매향여고 교감으로 있다가 고양시 교장으로 갔다가 지금은 정년퇴직한 사람이지. 초등학교부터 나하고 동창이야.

면담자 초등학교 동창. 주로 이분하고만 교우 관계를 유지하시고 수원에 있는 다른 월남민들하고는 크게 연락을 안 하시네요. 수원에 월남민 모임이 있지 않나요?

최우섭 그런데 잘 나가지 않으니까 몰라. 연락도 없고.

면담자 선생님 자녀분은 총 몇 분이세요?

최우섭 아들 하나 딸 둘 있어.

아들 (핸드폰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게 국가유공자 증서에요. 참전용사증.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이게 금성공사 공로패가 아버님 집에 가면 많아요.

면담자 이병희 국회의원하고 친분이 있으셨나요?

최우섭 그럼. 가깝게 지냈지.

면담자 그분 국회의원 하실 때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하신 적 있나요? 선거 때 도와줬다거나?

최우섭 이병희하고 남경필 아버지(남평우).

면담자 이병희 국회의원 그분도 북한 분이신가요?

최우섭 이병희 국회의원은 피란민이 아니고 용인인가 고향이 이천인가 보다 이천.

면담자 거기 보좌관 하셨던 우봉제 씨 아세요?

최우섭 알지. 가깝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서로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면담자 선생님은 이곳 수원에서 지도자, 엘리트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셨나봐요?

최우섭 수원의 지도자들은 많이 알았죠. 왜냐면 인제 내가 태권도협회에도 인연이 있어요. 지금 태권도협회장 황광철도 나하고 같이 태권도협회 창설을 했어. 그래서 내가 부회장을 10년 이상 하다가 황광철에게 인계해서 황광철이 태권도협회장을 27년째 하고 있어.

아들 우봉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지도자층도 아니었죠.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다가 수원에서는 유지라고 볼 수 없었는데 근래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름이 올라온 거지.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면담자 그분 고향은 어디세요?

최우섭 고향은 모르겠는데.

면담자 여기에 전쟁 이후에 서북청년단 수원에도 있었나요?

최우섭 서북청년단이 그때 있었는데 (나는) 오직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 머리에 있지. 그런 단체생활은 안 했어.

면담자 수원에 서북청년단이 있기는 있었나요?

최우섭 응.

면담자 선생님은 교회, 종교 안 믿으세요?

최우섭 안 믿어요. 먹고살기 바쁘지. 언제 교회에 나가서 뭐.

면담자 선생님은 군대 계시고 사업하시고, 사업하신 걸 바탕으로 장학사업 하시고. 장학사업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뭐 하셨어요?

최우섭 단체생활은 좀 했어요.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태권도협회, 민족통일협의회. 내가 수원 민족통일협의회 초대 회장을 10년을 했어.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옛날에 있었어.

면담자 지금은 없어졌나요?

최우섭 없어졌지 다.

면담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최우섭 한 100명이나 했나.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장삿속으로 혹시 아는 사람 좀 매일려고(만들려고) 기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무슨 민족통일을 위해 뭘 해야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없어요.

면담자 그럼 수원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나가시고 했나요?

최우섭 수원에 단체생활은 택시사업조합 했지. 신풍학교 옆에 택시사업조합 건물이 있어. 계단 올라가면 거기 건립비에 내 이름이 있어요.

고향 풍습과 통일 염원

면담자 선생님, 수원이 제2의 고향이네요?

최우섭 제2의 고향이지.

면담자 통일되면 북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최우섭 아우 말도 마오. 강화에 가면 개성 시내가 직통으로 보여. 망원경으로 보면 개성 송악산이 보이거든. 그거 망원경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울고 왔는지. 그 송악산 바로 밑창에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이 보이는 것 같애. 망원경으로 보니까. 아유. 그런데 그것도 평양이나 함흥, 신의주 그러면 멀어서 못 간다고나 하지. 이건 눈앞에 개성이 이남이었는데 그걸 눈앞에 보면서 못가니.

면담자 남아 있는 분은 누님밖에 없는데, 가족은 모두 남한에 내려왔는데, 고향이 보고 싶은 거네요.

최우섭 그럼. 누님은 평양 사시니까 뭐.

면담자 여기 사시지만, 혹시 고향의 풍습을 따르거나 고향의 음식을 먹는다거나?

최우섭 그런 것 없어.

아들 왜요.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개성보쌈김치·개성만두·개성식혜. 현재 그걸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면담자 어머니한테 이어받으셨나요?

아들 할머니가 해서 아흔다섯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음식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배워서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집에서 직접 담가요.

면담자 개성 음식은 주로 언제 해먹나요?

아들 만두는 명절 때. 그다음에 김장철에는 보쌈김치. 그게 손이 많이 가죠. 그다음에 호박김치.

면담자 호박김치는 뭔가요?

아들 호박을 넣어서 김치를 찌개를 끓여 먹는 게 개성식이에요.

면담자 물 넣어서 찌개처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아카이브센터

아들 늙은 호박을 잘라서 김치를 버무려요. 숙성시켜서 그걸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이 담백해요. 그거 먹어 본 사람들은 다 먹고 싶어 해요.

면담자 그게 개성 음식인가요?

최우섭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먹어요. 그리고 장땡이(개성장떡)라고 해서 된장을 쪄가지고 그다음에 고기, 각종 양념을 해서 똥글똥글하게 해서 그걸 햇볕에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먹는 거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걸로 도시락 반찬해가지고 다녔어요. 그거 한 개만 있어도 도시락 반찬이 됐어요.

면담자 약간 동그랑땡처럼?

아들 그렇죠. 지금도 집에 있어요. 해 먹어요. 노인네(아버지)는 잘 모르시죠. 주로 개성 음식을 많이 해 먹어요.

면담자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수원에서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직접 모셨어요?

최우섭 예.

면담자 선생님 너무 귀중한 말씀 잘 들었어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담 자	박현정(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현석이(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면 담 일	2012년 4월 11일
면담장소	수원시 현대1차아파트

여섯 번째 이야기

경기도 개풍 월남민 이경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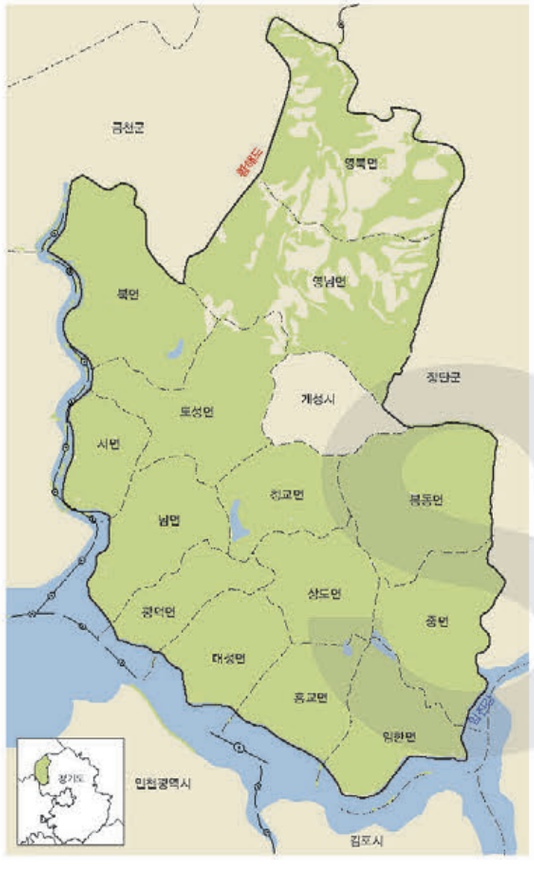
1934년(1세) 개풍군 북면 개래동 출생
1946년(13세) 38선 이남 지역인 개성으로 이주
1948년(15세) 개성상업학교 입학
1950년(17세) 6·25전쟁 발발, 10월 수원으로 피란
1951년(18세) 1·4후퇴 시 전라도 임실로 피란 후 수원 복귀
미군부대 보급대 생활
피란민종합학교 재학
1953년(20세) 수원고등학교 3학년 편입
1954년(21세) 수원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입학
1957년(24세) 군 입대
1961년(28세) 교사 발령

피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일구어낸 교사의 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리연구센터

개풍군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경용은 1934년 개풍군 북면 개래동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경용은 개풍군 북면의 강남소학교에 다녔는데, 한 학년에 한 학급이 있었고 일본인 교사가 가르쳤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시기였지만 동네가 워낙 시골이라 신사가 없었다. 학교에서 참배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참배시설도 딱히 없었다. 학교에서 학예회, 합창, 연극도 했고 운동장 귀퉁이에는 밭이 있어서 토마토, 배추, 우엉 등을 학생들이 함께 길렀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토끼, 닭, 꿩 같은 가축들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아 다 같이 키웠다. 가을이면 농산물 품평회를 했는데, 각자 지은 농산물 중에 잘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강당에 전시하였고, 1~2등은 상품도 받았다. 시골집에는 책도 없고 신문도 없었지만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책이 가득하고 체육시간엔



이경용의 고향인 개풍군

운동을 하고 소풍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경용은 학교생활이 굉장히 즐거웠다.

이경용은 공부를 잘했고 학급 임원을 맡아 일본인 교사와 친한 편이었다. 선생님의 집에도 놀러 가서 밥 지어 먹는 법을 배웠다. 하루는 선생님이 하숙하던 방을 옮기는데 이경용과 친구 몇 명이 가서 도와드렸다. 그날 선생님이 수고했다며 책 한 권을 주었다. 포켓용으로 나온 교육학 책이었다. 그때 이경용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학교생활도 재미있는데다 선생님한테 예쁨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더더욱 교사가 되고 싶어졌다.

해방이 되었지만 교육과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음악시간에 김일성 노래와 북한 애국가를 배웠고, 사회시간에 김일성 장군이 했던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이경용의 고향은 너무 시골이라 라디오도 없었고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부모님도 딱히 정치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

가족과 함께 개성으로 이주하다

이경용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는데, 아버지가 개성 시내에 갔다가 해방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경용의 고향 동네는 38선 이북 지역이었지만, 해방 직후에는 38선 이남 지역인 개성과 수월하게 왕래하였다. 동네에서 소나 곡식을 가지다 38선을 넘어 개성에서 팔고, 개성에서 옷 같은 공산품을 사왔다.

하지만 김일성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자 1946년 이경용 가족은 38선 이남 지역인 개성으로 이주하였다. 결혼해서 개성에 살고 있었던 큰형이 분위기를 살피며 가족들에게 내려오라고 권유하였다. 개성시 서흥동은 평산 이씨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이경용 가족도 서흥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고향에서 개성으로 올 때 가족들은 따로따로, 차례대로 내려왔다. 우선 큰형네 근처에 살 집을 마련한 후 어머니가 먼저 내려왔고, 이경용이 그다음이었고, 작은형과 아버지는 농사를 마무리한 후 마지막으로 내려왔다. 이경용은 새벽에 7명의 마을 사람들과 같이 내려왔는데, 도중에 소련군에게 불잡혔다. 이경용은 틈을 타 빨리 도망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을 쥐어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

개성에서 어머니와 작은형은 농사 외에도 여러 잡화를 사다 팔았다. 황해도 연백에서 쌀을 사다가 개성시민들에게 팔고, 전남 목포까지 기차로 내려가서 해산물을 사와서 팔았다. 점포를 둔 게 아니라 사온 물건들을 도매상에게 넘기는 것으로 일종의 도매유통업 같은 형태였다. 여기서 돈을 벌어 꽤 큰 집을 샀다고 한다.

이경용은 이후 개성상업학교에 진학하였다. 시험 경쟁률은 3 대 1이었는데, 개성상업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은 보장되었다. 개성상업학교는 6년 과정

이었는데 5학년쯤 되면 대개 은행에 취직되었다. 학교의 정기 수업이 끝나면 부서 활동이 있었다. 이경용은 2년 동안 밴드부에서 보컬을 맡아 노래를 불렀다. 학생들은 대부분 정치 활동이나 사회주의에 관심이 없었다.

개성에서 수원으로, 피란의 기억

이경용은 개성상업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 6·25전쟁이 나서 수원으로 내려왔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개성 시내에서는 총격사건과 같은 충돌이 있었다. 5·4사건과 7·25사건이었다. 5·4사건 때는 서로 포(砲)를 날려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개성 시내에 포가 떨어지면 학생들을 전부 귀가시켰다. 주민들은 각자 집안 마루 밑에 가족들이 모두 들어갈 만한 방공호를 팠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통금시간이 12시였다. 12시가 되면 소방서에서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은 새벽 4시부터 사이렌이 계속 울려댔고, 그 소리에 전쟁이 일어난 걸 알게 되었다. 이경용과 가족들은 전부 하천 하수도관으로 향하였다. 하천의 하수도관은 높이가 1.5m 정도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하수구 속으로 대피하였다. 6시쯤 되어 날이 밝으니 위장한 인민군들이 하수구로 와 총을 겨누고 나오라고 하였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경용은 학생이라 먼저 집에 보내 주었다고 한다.

얼마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고, 큰형도 개성 사람이고 별다른 문제 없으니 집에 돌아왔다. 당시 작은형은 물건을 떼러 가서 집에 없었다. 이렇게 이경용의 가족들은 다행히도 다 무사했지만 남아 있던 젊은 사람들은 경찰서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아침 8시쯤엔 개성 시내가 완전히 점령당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소집하였다. 연락을 받고 올 수 있는 학생들만 모였는데 전교생 약 1,000명 중 절반 정도만 모였다. 그런데 다 모이니 선생님들은 없고 북측 사람들이 올라와 인민군으로 지원하라고 했다. 당시에는 6월 1일이 학기 초였는데 이경용이 3학년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다. 상급생 중에 집안이 좌익사상에 가까운 학생들은 인민군에 지원한다며 강당으로 올라갔지만, 이경용은 다시 돌아와 개성 외곽 친척집에 있는 땅굴에서 숨어 지냈다. 7월부터 9·28수복까지 국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 석 달 동안 친척과 친척의 매형까지 셋이서 숨어 지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망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밥을 갖다 주었다. 10월에 개성 시내에 유엔군이 돌아다닌다는 소식 이후에야 이경용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국군이 북진해서 인민군들도 밀려 올라가니 개성 시도 안전해졌다.

이경용의 큰형은 장사를 하며 사귄 친구가



이경용 가족에게 머물 거처를 제공해 준 이창용이 운영하던 치과 (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많았다. 친구 중 한 명이 7·25사건 때 수원으로 내려가 양복점을 열었는데, 그 친구가 이경용의 큰형에게 수원으로 내려올 것을 권하였다. 큰형은 친구의 권유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수원에 내려가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이경용의 가족은 개성을 떠났다.

수원에 내려올 때는 남한정부에서 피란민들을 기차로 운송해 주었다. 10월 13일, 이경용 일가는 개성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반 만에 신촌에 도착하였다. 신촌에서 수원까지는 걸어서 이동했는데, 이틀 정도가 걸렸다. 수원에 도착하고 보니 10월 16일이었다. 수원에 오자마자 이창용 치과를 운영하던 이창용의 집에서 머물렀다. 치과가 있는 이층집 골목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창용 네 집이었다. 이창용 네 집은 피란민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다. 이창용 의원이 피란민들을 위해 방을 내준 덕에 이경용의 여덟 식구는 방을 얻을 수 있었다.

석 달 정도 있다가 1·4후퇴가 터지면서 다시 남쪽으로 피란을 갔다. 남쪽에 갈 때는 형님 둘과 이경용 셋만 멀리 내려가고 나머지 식구들은 광교산 너머 시봉골이라는 촌마을까지밖에 못 갔다. 여자들과 아버지는 몸도 약하고 연로해서 멀리 못 가니까 차라리 외진 곳에 있기로 한 것이다.

이경용과 그의 형들은 수천 명의 피란 행렬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피란 행렬 도중에 날이 저물면 마을에 찾아 들어갔다. 묵을 방을 구하면 운이 좋은 것이고 없으면 헛간에서도 잤다. 나올 때 집에서 챙겨 온 돈으로 끼니를 때웠다. 공주에 갔을 때 농고 내 잠사시설에 피란민들이 수십 명씩 있었다. 공주에서 머물다가 전라도 임실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중공군이 후퇴하여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자 광교산 시봉골로 올라와 가족들을 만났다. 한 달 정도는 매일 대포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수원이 어느 정도 안전해졌을 때 수원시로 돌아왔다.

1951년에 휴전회담 개최 장소를 원산으로 할지 판문점으로 할지가 쟁점이었다. 휴전회담 전에는 개성이 낮에는 유엔군, 밤에는 인민군에 점령되었다. 당시 개성 시민들 중에는 피란을 못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남쪽의 가족들이 낮에 올라가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경용 네 가족도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고 시도하였다. 작은형인 이기용이 개성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려고 강화도에 방을 얻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휴전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결정되었다. 개성이 공산군의 차지가 되면서 이북



1951년 휴전회담 장소인 결정된 개성
(국사편찬위원회 | NARA)

SRI 수원시정연구원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이경용은 아직도 회담 장소가 원산으로 결정되어 개성 시내를 유엔군이 차지했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또 휴전회담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을 텐데, 하며 '만약'의 경우를 떠올리곤 한다. 피란 갈 때 연백으로 시집간 누나는 함께 가지 못하였다. 피란 내려온 가족은 아버지, 형 둘과 형수 둘, 조카 둘에 본인까지 8명이었다.

가족도 모르게 붙잡혀 간 보급대

수원 시내로 나와 지내려고 보니 먹고살 궁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다 이경용은 장사를 해볼까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지만 조금이라도 가족들 생활에 보탬도 되고 그래야 자신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영동시장에 시장조사를 하러 가보니 빵에 잼을 발라 파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피란민들이 갖고 나온 옷을 사서 다시 팔기도 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경찰관이 그를 붙잡았다.

경찰에게 잡혀 갑자기 미군트럭을 타게 되었다. 50명을 태운 트럭은 잿더미가 된 용인을 지나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밑에 다다르자 멈추었다. 이경용을 제외하곤 대부분 30~40대쯤 되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한강 부근 전투에서 미군들의 군수물자를 운반해 줄 보급대로 끌려간 것이었다.

이경용 또래는 본인을 포함해서 3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은 삼일중학교 학생이고, 한 명은 수원중학교 학생이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을 차에 태워 한강 부근으로 데려갔다. 미군들이 대포를 설치하고 포를 쏘는 등 전투를 치르는 동안, 보급대원들은 미군들의 가방을 옮겨 주어야 했다. 몇 달 동안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미군들과 함께 다녔고, 미군들이 죽으면 시체를 운반하였다.

솔뫼산에 있을 때는 새벽에 수원비행장 쪽에서 제트기 한 대가 오더니 솔뫼산에 폭격을 날렸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으니 솔뫼산이 불바다가 되었다. 얼마 후 오전에 그 산을 올라갔는데 중공군 시체가 지천에 깔려 있었다. 할 수 없이 그 시체들을 밟고 넘어 가는데, 가다 보니 중간에 신발들이 보였다. 중공군이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신발이었다. 이경용은 죽은 사람들의 새 신발을 신었다. 녹색 국방색 천에, 밑창도 고무가 아닌 돼지가죽을 사용한 신발이었다. 어쨌든 새 신을 신으니 발이 가벼워져 경기도 연천까지도 갔다 왔다.

이경용이 보급대에 있었던 3개월 동안 그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이경용이 가족들에게 알릴 새도 없이 잡혀 와 소식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이경용이 나가서 소식이 없기에 죽은 줄 알았다고 한다. 경기도 광주에서 연천까지는 미군들과 같이 갔는데 3개월을 고생한 어린 이경용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통역관을 붙잡고 자신이 중학생이니 공부할 수 있게 보내 달라고 사정하였다. 통역관이 미군장교와 대위한테 전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경용 말고도 다른 중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경용과 학생들은 허가를 받고 보급대를 나올 수 있었다. 미군은 이경용과 중학생들을 지프차에 실어서 미아리고개까지 실어다 주었다. 나오면서 돈 2만 5,000환을 받았는데, 쌀 한 가마가 15만~20만 환 할 때이니 이경용이 받은 돈은 쌀 두어 말 정도의 값이었다.

지프차에서 내린 중학생들 셋이 걸어서 수원까지 내려왔다. 북문 쪽으로 수원에 들어와 도착한 후 학생들과 헤어졌다. 나중에 참전용사 신청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을 찾으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경용은 개성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들은 수원 사람들이었으니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집 짓고 장사하고, 수원에 자리 잡기

집으로 돌아온 후 수원에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수원 시내도 폭격을 맞아 집이 불타고 무너진 곳이 많았다. 이경용의 작은형 집도 폭격으로 인해 다 주저앉아서 빈터가 되었다. 그때 큰형의 양복점 친구가 홍사훈 집을 소개해 주었다. 수원중고등학교 이사장 홍사훈은 수원 제일의 갑부였다. 홍사훈은 돈도 받지 않고 피란민들을 자기 집에 살게 해 주었다. 홍사훈 집 방 한 칸에 큰형 가족과 이경용이 살았고, 홍사훈 집 마당에는 이경용의 작은형이 움집을 지어 살았다. 집이 커서 이경용 가족과 다른 피란민 가구를 포함해 세 가구가 살았다.

홍사훈 소유 가옥에서 1년 정도 살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가게를 얻어 집을 옮겼다. 지동시장 부근 수원천변 양쪽 길에 쭉 판잣집이 생겼는데 그쪽으로 나온 것이다. 이경용의 형들은 둘 다 농사를 짓다 장사를 시작하였다. 작은형인 이기용은 시골에서 쌀과 잡곡을 사들여 가게에 늘어놓고 소매로 팔았다. 큰형 이화용은 처음에 시계점을 하다가 쌀집으로 바꿨는데, 이후 제과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제사 때 쓰는 약과나 산자를 만들어 팔았다. 인천에 아는 형님이 살았는데 거기서 제과점 장사하는 것을 보니 돈도 잘 벌고 서울 영등포로 물건도 넘기더란다. 큰형 이화용이 인천에 가서 약과 만드는 것을 배워 온 후 형과 형수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수원시장과 오산시장 등에서 판매하였다. 처음엔 가족끼리만 하다가 나중엔 인부도 고용하였고, 장사가 잘 돼서 지동에 기와집도 세웠다.

수원천 주변에는 피란민들이 '하꼬방'을 지어 장사를 하였다. 수원천을 따라 화홍문에서 매교다리까지, 한쪽은 남수동에서 광교 가는 도로 쪽까지 판잣집이 만들어졌다. 작은형은 남수동과 지동시장 중간쯤에서 장사를 했고,



1950년대 영동시장 싸전거리(수원화성박물관 제공)

큰형은 지동시장 바로 입구에서 장사를 했다. 점포를 시작할 때 각자 개인이 기둥과 판자를 사서 하나하나 점포를 만들었다. 정해진 구역이 없으니 다들 형편 되는 대로 만들었다. 피란민들이 땅을 점유한 것이었지만

전쟁 중에 피란민이 집도 없고 거리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 시(市)에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만든 점포는 권리금을 받고 사고팔기도 했다. 어쨌든 아무도 소유지와 관계없이 건축물 자체를 사고팔기도 했다. 대체로 한두 평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더 크게 짓고 온돌방도 만들었다.

온돌을 데울 땐 나무를 때야 했다. 남수동 천변에 나무시장이 열리면 수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천변 피란민 가옥(UN PHOTO 제공)

십 명이 와서 나무를 팔았다. 그래서 광교산 시봉골에서 나무를 지게에 지고와 팔기도 했다. 나무시장은 아침에 열렸는데 아침에 다 팔리고 동이 나면 장을 파하였다. 나무 장사꾼들은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돌아갔다. 나무를 구매하면 집까지 배달도 해 주었다. 사람들은 나무를 부엌에 가져다 쌓아 놓고 사용하였다.

전쟁 속에서 이어 간 학업

이경용은 1951년 9월 서둔동 피란민수원종합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다시 학교를 다녔다. 수원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자기 학교로 돌아갔지만 피란 온 타지 출신 학생들은 서울농대에 설치된 피란민종합학교에 들어갔다. 500~6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수원종합학교는 농사원 건물을 7~8칸 정도로 나누어 학년만 구분하여 수업을 했다.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음악시간에는 서울농대 임업시험장인 송림원에서 수업하였다. 공부하다 비행기가 뜨면 소음 때문에 수업이 안 돼서 그냥 쉬었다. 전쟁 중이니 하루에 비행기가 몇 시간씩 떠다녀서 수업의 흐름이 끊기곤 했다.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모였는데, 서울의 일류학교 교사였다. 이경용은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였다. 이경용은 서울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됐는데 배재고 학생 한 명, 경기고 학생 한 명, 보성고 학생 한 명, 그리고 이경용까지 넷이서 잘 어울려 다녀서 사총사라 불렸다. 수복 이후 서울 학생들은 다 제 학교로 복귀하였다.

개성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경용은 종합학교를 2년 정도 다닌 후 1953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동시장 앞 무허가 점포(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년 수원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종합학교에서 이수증명서 같은 문서를 받아 수원고등학교에 가면 편입이 비교적 쉬웠다. 이때는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며 수원 지역도 점차 정상화되어 갔고 학사 운영이나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었다. 1954년 2월에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경용은 1954년 4월에 중앙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였다. 대학교 4학년 때 군입대를 해서 3년 동안 복무할 뻔했는데 학적보유병(學籍保有兵)이라 2년 만에 제대하였다. 학적보유병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3년까지 존재했던 병역제도로, 대학 재학생이 입대할 경우 복학을 조건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



교사시절(이경용 제공)

켜 주는 것이다.

이런 피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경용은 1959년 용인중고등학교로 발령받아 교편을 잡았고, 교사가 되고자 한 꿈을 이루어냈다. 이후 수원북중학교로 발령받아 수원에서 교직을 이어 갔으며 1999년에 매원중학교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면서 교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가족 관계와 어린 시절

면담자 몇 년생이세요?

이경용 34년생.

면담자 고향은 어디이신 거예요?

이경용 고향은 개풍군 북면 개래동.

면담자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이경용 형제는 제가 삼형제. 저 위로 두 분이 계셨고, 저가 이제 막내.

면담자 아버님하고 또 할아버님이나 이런 분도 같이 사셨어요?

이경용 할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피란 나올 때 아버님하고, 두 형님하고. 형수님들 하고. 그 뭐야 누님은 피란을 못 나오셨고.

면담자 그러면 저기 형제분들 있고, 누나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경용 누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제 저기 개성에서 황해도 연백으로 출가하셔서 거기서 사셨고. 우리 피란 나올 때는 거기는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만 이제 아버님, 두 형님, 나, 그다음에 형수님 두 분, 그리고 조카 둘 여덟 식구. 우리 여덟 명이 이제 같이 피란을 나왔어, 수원으로.

면담자 그 혹시 거기가 집성촌이었어요?

이경용 그렇죠. 우리가 평산 이씨인데 평산 이씨네가 개성에 좀 살았었죠. 38선 북쪽에 개성 시내에서 12㎞ 지점에, 개래동(開來洞). 거기가 내 원 고향이에요. 개성서 와서 이룬 마을이라 해가지고 개래동인데, 경기도 개성시가 워낙 우리 그 종친들이, 평산 이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개성 시내 와서 내가 중학교 1, 2, 3학년까지 다니다가 6·25사변 나서 피란 나왔지.

면담자 원래 개풍군 고향에서 초등학교까지를 다니셨던 거네요?

이경용 그렇죠. 개풍군 북면.

면담자 북면 그때 국민학교인가? 소학교였던 거죠?

이경용 그렇죠, 소학교.

면담자 북면소학교를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 시내로 (오신 거에요)?

이경용 이제 개성시로 와서 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갔죠.

면담자 그래도 집안에 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니까, 그래도 사실 만하시니까 그때 학교도 보내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 중학교는 웬만한 사람 다 갔죠.

면담자 그 시기에 개성은 그랬어요?

이경용 예.

면담자 그럼 형님들도 다 중학교는 가시고?

이경용 형님들은 중학교 못 나오시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되는데, 우리 형님들은 그 해방 전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오시고, 중학교도 못 가셨어. 그러고 농사지었지요.

면담자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원래 선생님 네 집안 땅이었어요? 아니면 소작을 받으셔서?

이경용 소작이요, 소작. 소작농이었지, 소작농.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생활

SRI 수원정착연구원 SUWON RESETTLEMENT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은 못 하고 그냥 근근이 이제 생활한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해방되고서, 이북은 이제 공산권이 되니까 개성시로 넘어온 거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거야. 그래서 개성시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 맞고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수원으로 피란 온 거죠. 여덟 식구가. 어머님하고 조카들도 일부 개성에서 피란 못 나오고, 거기서 돌아가셨고.

면담자 그러면 그 개풍에 계시다가 개성시로 이사를 하실 때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같이 가신 거잖아요?

이경용 그렇죠.

면담자 그때 이사를 맨 처음에 아버님께서 "이제 이사를 내려가야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경용 그렇죠. 왜냐면 그때 내 원 고향인 개풍군 북면 개래동은 38선 이북이고, 개성시에는 큰형님이 사셨어.

면담자 왔다 갔다 하셨죠? 초반에.

이경용 그냥 아침에 와서 일 보고 저녁에 가고 뭐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래서 38선이 생기면서 그 러시아군들이 38선을 지키고, 이쪽에는 미군들이 지키고. 그때도 이제 뭐 초기에는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장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소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전부 개성 갔다가 가서 팔고, 여기 와서 그냥 옷이며 이런 상품들 사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 김일성 정권이 공산정권이 강화되면서 자유가 없고 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전부 개성시로, 형님 있는 데로 다 넘어온 거죠. 그래서 개성시에서 두 형님 네, 큰형님 네하고 우리 작은형님 네하고 같이 개성시에서 살다가 6·25사변 나면서 수원으로 피란 온 거죠.

면담자 그 개풍에 계실 때는 소련에서 군정을 세우잖아요? 소련 군정이 생긴 거라든가 이런 거를 생활하면서 좀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이경용 나는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모르고.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38선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미소(美蘇) 간에. 그리고 우리 원 고향은 이북이 됐고, 김일성 치하 이북이 됐고. 우리 큰형님 사시는 개성시는 대한민국, 자유주의 대한민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됐으니까. 45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46년도에 이북서 그 초등학교를.

면담자 졸업을 하신 거죠?

이경용 잘 다녔죠. 4학년, 5학년을 다니다가 그다음에 우리는 개성시로 넘어와서 개성 시내에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졸업하고 중학교.

면담자 네. 선생님, 일제시기 때 학교를 초등학교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학교 들어가셨을 때 기억이 좀 나세요? 들어갔던 것, 처음 기억, 학교 들어갔을 때 기억?

이경용 그때는 우리 개풍군 북면에 초등학교 하나였어. 강남소학교. 강남이 거기 예성강이 있어요. 예성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남소학교. 한 학년이 1학급씩, 그래서 6학년이 6학급 된 거야. 그니까 개풍군 북면에 전체에서 한 학년 한 학급씩이 다녔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일본 선생. 그때는. 교장도 일본 사람이고 선생도 대부분 일본 사람이고, 물론 한국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일본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했고. 신사참배 있었죠. 근데 우리는 시골이라. 그 뭐 신사(神社)도 없었고. 그 교장선생님이 일본 사람들이라 가서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면담자 봉안전(奉安殿, 신주나 화상을 모신 곳) 같은 거, 봉안전이라고 해가

지고 왜 신사참배하는 데 학교 안에 그런 참배시설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이경용 학교 안에 참배시설은 없었어요.

면담자 교장선생님이 했던 거는 어떻게 했어요?

이경용 그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어. 배워서.

면담자 학교를 처음 들어가셨을 때에는, 들어갈 때 그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

이경용 면접시험 봤죠. 면접시험 보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만 6세에 애들을 한 학급 뽑는데. 그게 학급 수가 한 학급이니까 지원자가 오버되니까, 면접시험에서 떨어지고. 물어봐가지고 똘똘하면 합격을 하고, 대답도 못하고 똘똘치 못하면 못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

면담자 그 안에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경용 그럼요. 남녀공학이지. 한 학급에 남녀공학. 그때 자리는 여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면담자 면접을 봤을 때 물었던 거라든가 이런 건 뭐였나요?

이경용 먼저는 이름 뭐냐고 묻고, 그다음에 가족이 몇이냐 하고, 그렇게 물어가지고 똘똘하면, 대답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하면 합격, 대답을 못 하면 불합격되는 거지.

면담자 학교 활동 중에서 기억나는 활동은?

이경용 매년 학예회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을이면 학예회에서 합창, 독창, 그다음에 연극, 이거 세 가지. 그다음에 농촌이니까 가을이면 농산물 품평회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네 "집에서 농사지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잘 된 것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학교 강당에다 쭉 전시를 해가지고 1등, 2등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상품 줬어. 그리고 학교에 농장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라, 배추, 도마도(토마토).

우리 시골집에는 도마도 구경도 못 했는데 학교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도마도, 그다음에 닌징(홍당무)이라고 일본 우엉,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학생들이 같이 물도 주고, 거름도 퍼다 주고 그래가지고 키우고.

면담자 학교 안에 학교 농장이라고 하는 밭이 있어서?

이경용 그렇죠. 학교 안에 운동장 귀퉁이에 밭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축도 토끼, 닭, 꿩 이런 가축도 길렀어요. 그래서 내가 2학년, 3학년 때 돌아가면서 다섯 명씩 당번으로 저녁에 먹이를 줘야 되잖아. 먹이도 주고,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밥 짓는 거를 배웠는데.

면담자 학교에서요?

이경용 그럼 학교에서 자야 되니까. 선생님이 "밥은 쌀 넣고 이렇게 손을 담가서 손등까지 물이 차도록 하고 밥 지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선생님하고 같이 밥 지어서 먹고, 저녁에 동물 먹이 주고, 보호하고 이제.

면담자 선생님 사택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경용 그렇죠. 사택에서 그건 거기서 배운 거죠.

면담자 당번 날만 가서 주무시는 거죠?

이경용 그렇죠, 당번 날만 자는 거죠.

면담자 그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도 이런 분들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이름도 기억이 나는 선생님?

이경용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반장, 부반장을 해서 어느 날은 선생님이 이제 하숙을 하는데 일본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남으라, 해가지고 그 짐을 내가 옮겨다 줬어, 이렇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교센터

같이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꿈이 선생. 이다음에 크면 내 국민학교 선생이 돼야 되겠다, 그때 내가 그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 선생님이 사랑해주시고 책을 한 권 주시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그때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해방 후에 뭐 또 남쪽으로 오가는 바에 다 그냥.

면담자 어떤 책을 주셨는데요?

이경용 그때 그게 요만한 무슨 그 뭐야? 요만한 포켓용. 그 무슨, 교육학에 대한 무슨 책이에요, 이제. 일본 말로 다 돼있어요. 자세히 내용은 속에 읽을 줄은 모르고. 아무튼 책을 선생님이 주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해방 전에는 우리 지금은 참 이리 잘 살지만 농촌에는 더 군다나 참 못살았어요. 우리 시골집에는 책도 없고, 신문도 보질 못했고, 근데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책이 있지, 또 체육시간에는 농구, 배구 운동하지. 소풍 가지. 이런 학교생활이 집에서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는데, 학교 오면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교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좋게 보여져가지고. 아 나는 이다음에 커서 선생이 돼야 겠다, 돼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꿈을 그렇게.

면담자 일제 말기에 동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징용, 징병이나, 이런 것 많았잖아요. 선생님 혹시 주변에서 징용, 징병 갔던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기억나시는?

이경용 그런 건 내가 어려서 못 들었고요. 내가 아버님, 우리 집 바로 앞에. 그 우리 동네에 구장. 지금은 이장. 구장님이 사셨어요. 그래 우리 아버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징용을 이제 그 배당을 하잖아요? 일본 어디 징용 가는 데 몇 명, 뭐 이렇게 징용하는. 그러면 구장이 동네 상황 봐서 그걸 또 지명하잖아요? 우리 아버님하고도 그 당시 와서 걱정하고 얘기하고 그런 걸 내 들은 건 있지만. 우리 똑같은 마을 사람들은 한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를 보내고 그러나.

면담자 선생님이 45년에 개풍군에 계셨을 때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군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 정권이 이제 막 들어서는 즈음에 학교를 다니셨는데. 학교 교육에서 일제 시기하고 다른 교육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노래를 가르칠 때도 다른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경용 그때 교육과정이야 이제, 국어, 산수 초등학교서는. 역사, 지리. 음악, 체육. 내가 별로 느낀 거는, 음악시간에 김일성 노래, 애국가 배운 거, 다르다는 거 그거 느끼고. 그리고 사회시간이지, 김일성 장군이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백두산 어디서 어떻게 싸웠다, 그런 거 얘기한 거 좀 다르고. 국어시간에 똑같지 뭐.

면담자 아까 일제시기 때는 동물을 키운다든가 이런 방과 후 활동들이 그런 게 있다면, 일제시기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는 소년단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도의 그런 활동들은 하신 게 없으세요?

이경용 그런 거 없어. 학교에서 5시간, 6시간 수업 끝나면, 곧바로 4㎞ 집에 와서 농촌이니까 일해야 되고. 그냥 그렇지.

면담자 선생님, 해방이 된 거를 어떻게 아셨던 것 같으세요? 해방이 됐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거나 이런 기억이 나세요?

이경용 그거야 부모님한테 듣고 알은 거죠. 우린 시골이라 무슨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때는 신문도 없고. 시골이라 라디오도 없고. 문화시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전부 소문으로. 이건 우리 아

버님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다는데 그 다음날인가 우리 마을 전체에 라디오 있는 집이 없었어. 라디오 있었으면. 방송에서 그걸 듣고 알았을 텐데. 그래서 아버님이 개성 시내는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개성 시내 들어가셨다가 친족들한테 듣고서 와서, 야 이제 해방이 됐다, 우리 일본 놈들한테 지배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면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선생님은 어렸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지되거나, 어른들끼리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니까 정치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 뭐 러시아 들어오는 것, 그다음 38선이 그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어른들끼리 하셨던 기억이?

이경용 그런 거는 농촌이라 우리 부모님들이 정치에 관여하고는 먼 거고. 나는 어려서 부모님들 형님들 하신 말씀이나 듣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았으니까.

면담자 형님들한테 들은 것도 좀 있으세요?

이경용 형들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정치에 관심 있으시나. 큰형님은 어려서 농촌에서 성장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개성 와서 장사하시고 사셨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이 46년 돼가지고 개성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작은형님도 내려오고 온 식구가 다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경용 그래, 그렇죠.

면담자 근데 집은 개성 시내 큰형님이 이제 사는 주변에다 따로 마련하시고?

이경용 그렇죠, 큰형님 네 집 있고. 또 우리 작은형님, 우리 아버님 같이 사는 집 있었고.

면담자 집 가옥 구조라든가 이런 게 기억이 나세요? 선생님 혹시 그리실 수 있으세요? 개념도 정도로. 개풍도 한 번 그려주시고, 개성도 하나 그려주실래요?

이경용 고향집도 이제 'ㄷ'자, 그래서 여기가 마당, 이건 장독대. 이거 여기 방이 있고, 여기 부엌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여기가 대문, 여기가 외양간 있고, 여기 집 있고, 그리고 울타리, 방 하나, 방 둘, 여기는 부엌, 광, 방, 여기는 주방하고.

면담자 아. 그다음에 개성으로 가실 경우에는, 개성에서는 이제…

이경용 개성도 여기도 'ㄷ'라. 여기도 대문 있고. 여기는 방, 여기 주방, 여기 방 둘, 여기도 방. 여기도 광 있었고. 여기는, 장독대가 앞마당에 있었고. 여기는 도시라 울타리가 없고.

면담자 꽤 큰 건물이네요. 개성시에서 이 정도 평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걸 다 사서 들어가신 거예요?

구술자 네. 아버님은 뭐 연세가 많으셔서. 한량이시라. 친구들 만나서 토론,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시고. 작은형님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어머님하고. 여기 와서도 어머님하고 작은형님하고 상업해가지고 이제.

면담자 상업 활동들을 뭐 주로 많이?

이경용 (작은형님은 황해도) 연백에서 쌀 사다가 개성 시민들한테 소매하고, 목포니 이런 데 가서 해산물도 이제 사다가 팔고.

면담자 그러면 점포를 따로 별도로 두셨어요? 아니면 집 있는 데서 그냥 파셨어요?

이경용 사가지고 오면 도매 집으로 넘기고 그러는 거지.

면담자 소매가 아니셨네요? 그냥 이름 없이 간판 없이 하셨어요? 아니면 누구네 상점, 이런 상점 이름이?

이경용 우리는 점포가 없었으니까, 오면 도매 집에 그냥 가는 거지. 거기서 계산해 가지고 돈 얼마 받고. 형님은 집에서 하루 이틀 쉬다가 또 가서 이렇게 하고.

면담자 이동해 주는 형태의 상업 활동을 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제 46년쯤에 내려오셔서 개성에서 사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때 거기서 졸업을 하시고 학교는 어디로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이경용 중학교는 개성상업학교.

면담자 거기 진학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경용 그 시험을 보는데, 한 3대 1이었어요. 그때 내가 개성상업, 일본 사람들이 서울상업, 인천상업 해서. 아주 취업률이 좋았어. 그래서 개성상업만 나오면, 그때는 일제시대에는 6년인데, 5학년이면 전부 취업되는 거야. 은행으로. (내가) 성적이 좋았어. 우리네 형편이 이북서도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았었고, 그래서 내가 꿈은 교사였는데, 개성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업학교 가면 은행 취업이 100%다. 또 돈도 많이 번다." 그래서 갔는데, 3학년 때 이제 피란 나와서 수원으로 내려와서, 적적해가지고 내 공부를 했지만.

면담자 개성상업학교가 혹시 개성상공회의소 쪽에서 운영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거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였던 거예요?

이경용 국가죠. 공립학교니까.

면담자 공립이었군요. 여기 다닐 때는 중학생쯤 되면, 그래도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여러 활동들이 좀 있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좀 생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경용 그때는 해방 직후라. 조금 지나서 미국 교육제도가 들어오면서 알씨유(RCU), 보이스카우트, 이런 특별활동 그런 게 있는데, 해방 직후에는 그런 특별활동이 없었어. 방과 후 활동이 없었어. 학교에서 정기 수업 6시간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특별활동에 참가를 (했어) 난. 내가 밴드부. 왜냐면 노래 음악을 좋아해서. 해방되고 나서 개성 시내에서 무슨 행사, 개천절이고 무슨 행사 있으면 학생들이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 밴드부가 제일 앞장서잖아요. 앞에 밴드부에서도 이 슬라이드(금관악기)가 제일 앞장서. 그래서 '야 신난다.' 이래가지고 밴드부를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한 2년 동안 밴드부 들어가서 행진하면 앞에 서서 부르고 그랬어.

면담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풍군에서 46년쯤에 먼저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경용 우리도 개성 시내 형님이 사셨기 때문에 왔지. 그런 그 연줄이 없었으면 못 왔어. 난 이북서 살다가 죽었을 거야.

이종철(이경용 아들)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큰형님이 그래도 개성에 나가서가지고 상황 돌아가는 걸 봤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공산화되고 있다." 그렇게 돼서 부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경용 그런 것도 좀 있지. 그리고 이북서는 우리가 자유가 없고, 이건 말이야. 이북서는 어디 여행의 자유도 없잖아요.

면담자 그 시기에도 그랬어요, 45년에도?

이경용 그때는, 나는 그건 못 느꼈어. 그때는 그건 없었어. 해방 직후에 바로는 없었어. 나중에 공산정권이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면서 그래 생겼지. 그때는 우리 원 고향에서 개성 시내 38선이 있을 때도 러시아 놈

이 경계에 총 메고 경계한대도, 밤에 몰래, 우린 넘어가고 장사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채소고 곡식이고 농사지어서 개성 시내 가서 팔고, 여기서 옷감이고 제수, 제사지낼 때 되면 과일이고 이것도 사오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아마 2~3년 지나면서 강화돼가지고 그냥 못 올려주고. 나도 애초에 고향에서 넘어올 때 러시아 군한테 붙잡혔는데 뭐.

면담자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경용 붙잡혀가지고. 나 혼자 온 게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그니까 마을 사람들은 전부 집에서 농사지은 것, 쌀 두 말이고 서 말이고 개성 시내 와서 팔고, 뭐 사 가려고 오고. 나는 그때 개성 시내(에) 형이 사서서 이사 오는 걸로 다 결정이 돼서, 나는 책상 하나 덜렁 메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오다가 러시아 경비하는 놈이 총 메고 있다가 오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잡혀갔어. 갔는데 그때가 새벽이지. 그니까 러시아군이 경계할 때 밤에도 다 (보초를) 서지만, 운이 좋으면 무사통과되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야.

면담자 선생님 네 가족끼리 이제 같이 내려올 때, 38선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경용 그렇죠, 밤에 몰래 왔죠. 우리 어머님이 먼저 나오시고 그다음에 내가 나오고, 난 학교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작은형님하고 아버님하고 조카들은 맨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넘어왔어.

면담자 그럼 아까 선생님 책상 가지고 내려오실 때, 선생님만 동네 분들 그날 내려갈 분들하고 같이 먼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경용 그렇지. 그랬어.

면담자 그럼, 선생님 내려갈 때 아버님이 몇 시에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거기서 같이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경용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갔지, 그렇게. 그 러시아 놈이 붙들었는데, 러시아 놈 옆에서 초소에서 밥 먹고 자면서 있었지. 두 놈이 총 메고 여기 초소에서 근무하는데, 38선이 서해바다에서 동해바다까지 길잖아요. 이게 구역 있는데, 왔다갔다해. 운 좋으면 이놈이 없을 때면 가는데,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이제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다 겁이 나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이놈이 "밥을 먹으라." 하더라고, 그 초소 저 안으로. 그때 그냥 뺑소니.

면담자 그래 도망을 치신 거예요?

이경용 그럼. 그래서 살아남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걸리면 선물 같은 것 주고 다 통과하고 그랬어. 초창기엔 이렇게 쉬웠어. 38선 넘나들기가 쉬웠어. 근데 나중엔 강화되면서 뭐.

면담자 그때 같이 내려가셨던 분들의 숫자가 좀 기억나세요? 내려가실 때 마을 분들 몇 명 정도가 같이 내려가셨던 기억이 나세요?

이경용 일곱 명인가. 일곱.

면담자 그러시구나.

이경용 어머님이 먼저 계시니까. 와서 여기서 학교 때문에 먼저 왔지.

면담자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다니셨던 건데, 중학생쯤 되면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 반 친구들이나 이런 학교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경용 중학교에서도 그런 건 내가 못 느꼈어. 내가 그때 중학교 때 부반장을 했는데, 반장은 생물 선생님의 아들이었고, 개도 아버지가 선생이니까 정치에는 그런 관심이 없어.

면담자 3학년쯤 다니셨을 때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이라든가, 첫 기억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전쟁이 딱 났을 때.

이경용 6·25 난 날. (그림을 그리면서) 개성시는 이 38선 이남이에요. 여기

수원시대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송악산이 제1봉우리. 높은 봉우리인데. 이 밑에 이게 여기가 이게 개성 시내. 이 송악산 바로 밑에 이제 고려시대 도읍 만월대. 만월대가 여기 있고, 우리 집은 아마 이만쯤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남대문. 한석봉이 남대문이라고 쓴 게 있고, 개성시장이 여기 있고. 우리 집에서는 (개성)역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시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게 있었어. 그때 개성 시내에서는 5·4사건이 있었고, 7·25사건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북 놈들, 여기 우리 국군이 있었고, 이놈들이 38선에서는 가끔 6·25 전 일어나기 전에도 가끔 충돌이 있었어요.

면담자 맞아요.

이경용 이놈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도 가고. 5월 이거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5월 4일 날, 전쟁이 났어. 그래서 저놈들이 여기 국군, 남한 군인 진지로 포 쏘면 우리 여기서도 포 쏘고. 그래서 밤에 전쟁이 일어나면 시뻘건 불덩어리가 그냥 확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가서 구경도 했는데. 그리고 또 그다음에 7월 25일 날, 이거 사건이 컸어. 이게 6·25전쟁 이전이에요. 10용사사건이 그게 7·25사건이에요, 10용사 노래도 나왔거든. 저 북한의 진지에 서 상사가 아홉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수류탄을 감고, 북한 저기 초소에 들어가서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10용사, 열 명의 용감한 용사를 찬양하는 노래가, 10용사 유행가가 한창 나와서 유행도 했었어요.

면담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개풍, 개성에서 사시면서 다 아셨었어요?

이경용 그럼. 이런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개성 시내 포가 떨어져요. 북한 놈들이 쏜 거. 그러면 학생들 전부 귀가시키는 거지. 학교에 (포탄이) 떨어지면 학생 전부다 죽잖아. 그래서 이 사건 때 학교에서 수업하다 말고 집에 귀가를 했고, 개성 시민들을 전부 집 안에다가 방공호를 팠어요. 왜, 북한에서 포 쏘면 시내 와서 떨어지니까. 그래 우리도 큰 마루 밑에다가 방공호를 파고. 소방서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대포 포탄이 시내 어디 떨어지면 가족들이 전부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어.

면담자 가족 모두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로 방공호를 팠던 거죠?

이경용 그렇죠. 이만하니까. 그니까 이 방 반 만하게 팠어. 6·25전쟁 전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 밤 12시면 소방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통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은 아침에 4시쯤 됐는데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러고 총 쏘는 소리가 그냥 밖에서 들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우리 집 앞에 여기가 큰 하천이고 여기는 하수도관인데, 높이가 한 7은 안 되니까 한 1m 50 되게 이런 하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전부. 우리 식구만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하수구 속으로 다 피하는 거야. 포탄이 개성 시내 여기저기 떨어지지. 국군하고 인민하고 총 쏘는 소리 "다다다다" 들리지.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숨었어. 그니까 38선이 개성시와 가까우니까, 인민군들이 바로 여기로 넘어온 거야.

면담자 이게 전면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옛날처럼 그렇게 교전 정도 오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경용 그때는 이건 전면전이라고 생각했죠.

면담자 그때 '이거는 그냥 큰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경용 그럼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아침 6시쯤 되니까 환히 밝았잖아요. 밝으니까 인민군들이 위장망 다 하고 풀 꽂고, 모자에 꽂는 거 말이지, 와서 우리 그 하수구 밑에 가서 총 겨누고 다 나오라는 거야. 그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러니까 그 안에 아마 100여 명이 있었을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다 나오래. 나오니까, 나는 중학생이니까, "학생 나와. 학생 집으로 가. 가서 공부하래." 그래서 난 겁이 나서 그냥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이 안에 있었고. 그때 우리 큰형님은 개성시에 사니까 아무 문제없었고, 작은형님은 그때 집에 안 계셨어. 그때 물건을 하러 목포인가 어디 가셨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집으로 먼저 와서 벌벌 떨면서 돌아왔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또 돌아오셨고. 근데 여기서 젊은 사람들을 인민군이 전부 붙들어가지고 경찰서로 다 데려갔다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데려가서 죽였다고.

면담자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이경용 데려갔죠, 그럼.

면담자 의용군이나 이런 인민군으로 데리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죽였어요?

이경용 아니. 그 경찰서에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조사를 했겠지. 직업이 뭐냐, 저 뭘 했냐.

면담자 그 얘기가 들려왔어요, 나중에?

이경용 그건 당연히 다 죽이는 거, 그거 아는 거지.

면담자 그럼 동네 분들 중에서도 그때.

이경용 그때 우리 동네에는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우리 옆집에는 여자하고 애들만 살았고, 그때 여자는 이대를 다녔고, 아들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는 젊은이들이 나만 중학교를 다녔고, 우리 집 바로 집 뒤는 우리 육촌 누님 네, 거기는 딸만 있었고. 그래서 볼라.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젊은이들은 전부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그러시더라고.

면담자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젊은 사람들을?

이경용 거기 가서 신분 조사해가지고, 신분이 확실하면, 놓아 준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은 전부 끌고 가다 죽이고 그랬다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개성만이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그 놈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

면담자 인민군들이 이쪽에 와서, 여기를 점령한 거잖아요?

이경용 그죠. 개성 시내면 아침 8시경에 완전히 개성 시내가 점령.

면담자 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이경용 그러고 6·25전쟁이 나서 전부 피신 가고, 숨고들 그러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서야, 아마 한 달 후인가 학교에서 학생들 소집한다고.

면담자 "다시 와라, 이제 학교가 열겠다."

이경용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학생들을 강당에다가 다 모아 놨는데 연락 받은 애들만 온 거지. 전교생이 그때 1,000명 됐었나.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 거기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방송으로 틀고, 또 애국가도 틀고. 그래 우린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 그냥 방송으로만 이렇게 틀어주다가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목을 바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인민군으로 지원하라는 거야. 그해에는 6월 1일이 학년 초였어. 내가 6월 1일 날 3학년에 올라간 거야. 그니까 2학년 마치고서 한 달밖에 안 됐지. 이건 중학교 2학년이 뭘 알아. 근데 그러면서 의용군, "학도의용군 지원자들 나와." 그때 상급생들. 나는 2학년이지만 6학년, 5학년, 4학년 이런 학생들은 나이가 뭐 열여덟, 열아홉, 스무 살 이러고. 고3이니까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래 됐을 거야. 나는 그때 열여섯 살인가 그렇고. 또 가정환경이 좌익 사상 집 애들은 "나가자." 하고 강당 무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서 몇몇 학생들이 군중심리에 "나가자." 하고 위로 올라가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냥 집에 왔어. 그래 와가지곤 내가 학교 안 가고 저기 친척집에 가서 숨어서 지냈어.

면담자 친척집도 그 개성 쪽에?

이경용 개성 시내 우리 집 있으니까. 우리는 개성 시내고, 여기는 동보, 동보여. 이쪽에서 농사짓는 우리 친척집이 있었어요. 거기 집에 가서 9·28 때 국군이 들어올 때까지 이었어요. 친척집에 나하고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인용이라고. 나하고 이인용하고 이인용의 매부 셋이서, 여자들은 관계없으니까. 인민군 북한 내무서나 어디서 발각되면 인민군으로 자꾸 잡아 가니까, 이 집 뒤에 땅굴이 있었어. 땅굴 속에서 석 달 동안 생활을 했어. 그래서 밥은 가족들이 해서 이제 한 사람은 노상 대문에서 주변 감시하고, 아무도 안 올 때 밥 갖다 줘서 우리 세 사람이 먹고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9월 28일 수복되면서 난 다시 집으로 왔지.

면담자 아까 학교로 오라고 연락이 왔었던 거잖아요?

이경용 내가 한 번 학교 갔었어.

면담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와라." 이렇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경용 그때는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받으셨는데 가족이 어떻게 그 연락망이 돼서 왔어.

면담자 그러면 서울 먼저 수복이 된 게 9·28수복이고, 10월쯤 됐을 때 개성에 유엔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식이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연락을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이경용 연락 못 받았어요.

면담자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이경용 연락도 못 받고 땅굴에 있는데, 개성 시내에 유엔군이 먼저 들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있는 데는 아직도 인민군이 있는 거야. 나중에 개성 시내 유엔군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척집에서 소식을 듣고 와서, 시내에 유엔군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지.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지.

면담자 전쟁 중에 의용군 뽑아가고 그런 거 하셨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억이 나세요?

이경용 그런 선생님은 없었어, 그때.

면담자 그러면 누가 와서 "의용군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경용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망을 통해서 학생들 등교하라고 이제 와서 나도 갔는데, 그때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도 못 봤고. 선생도 다 숨는 거지.

면담자 그럼 누가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경용 그건 이북서 어떤 놈. 학교 점령한 사람들.

면담자 군인들이. 그니까 내무서나 이런 쪽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이경용 모르겠어, 그때는. 학교니까 교육 계통 사람들이었을 거야. 이북의 선생들이 왔을 거야. 학교를 다 점령했으니까.

면담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전선이 안 좋아져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 전쟁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경용 그거는 개성 시내에서는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 들었으니까. 내가 고향 살 때는 라디오고 신문이고 문화시설이 없어서 몰랐지만 개성 시내에서는 매일 들었으니까. 알고.

면담자 전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듣고 있으시다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이경용 소문들이, 개성시에 아까 5·4사건, 7·25사건 얘기했죠? 5·4사건이 일어날 때 돈이 있는 사람들, 부자 잘사는 사람들은 몇 년 전에 5·4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벌써 집 그냥 팔고 서울, 인천 뭐 이렇게 미리 이사를 했고. 그다음에 2차로 또 이 사건이 나니까 또 돈 있는 사람들 가고. 그래서 "아무개 네가 어디로 이사 간다더라. 인천으로 간다더라." 친척이 인천에 있으면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서울 있으면 가고. 그다음에 무슨 수원에 있으면 수원으로 이사 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유로운 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6·25사변 때까지 있었던 거지.

면담자 그러면 이제 내려갈 때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잖아요?

이경용 그렇죠. 그때 열차로 피란민들을 다 이제 운송해 줬어.

면담자 누가 어떻게?

이경용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성 시내에서 기차 타고 서울 신촌까지 와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수원까지 왔는데. 수원에 오게 된 동기는 뭐냐면, 우리 큰형님이 그 상업 활동을 하셔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그 친구 중의 한 사람이 7·25사건이나 뭔 사건일 거야 아마. 이 사건 때 이 사람은 좀 여유가 더 있으니까 미리 이사한 거야, 수원으로. 그 사람은 양복점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내 친구가 수원에 미리 가서 양복점을 하고 있는데, 수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개성 시내에서 피란 올 때, 짐 싣는 화물열차에 타고서 (서울) 신촌까지 와서 내려서 걸어서 수원까지 왔어.

면담자 화물열차가 뚜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경용 뚜껑은 조그맣죠.

면담자 뚜껑이 없던 걸 탄 거죠?

이경용 뚜껑도 없고 그냥 뭐 보따리, 피란 보따리 싣고, 사람 싣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아주 꽉 차가지고, 근데 신촌을 오니까 미군 헌병들이 총 쏘면서 다 하차시키는 거야. 그래서 신촌서 내려서 걸어서 그냥 저기 한강 배 타고 건너가지고, 또 걸어서 수원까지 왔어.

면담자 그러면 이제 "정부 쪽에서 몇 월 며칠날 모여가지고 다 내려간다." 이런 소식을 먼저 전해서 그 소식에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예요? 내려오게 그걸 해준 거예요?

이경용 그럼. 국가에서 그 피란민을 위해서 열차를 내준.

면담자 피란민 열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경용 그렇죠.

면담자 그때 이제 같이 내려오신 분이?

이경용 그때는 어머님하고 조카들은 못 내려왔어. 왜냐면 집이 두 채 아니야? 큰형님 네 집하고, 우리 작은형님 네 집. 시내에서 집 두 채면, 그게 총 재산인데. 그러니까 "나는 여자고, 나이도 많으니까. 나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때 상황으로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못 갈지 몰랐어. 그냥 잠시 한 달이고 두 달 후에 다시 피란 갔다가 돌아올 줄 알고, "내가 집을 지킬 테니까 너희들만 가라."고 그래가지고.

면담자 그래서 큰형님, 작은형님하고 아버님하고 선생님하고, 네 분이 내려오셨던 거예요?

이경용 네 분, 조카들하고. 여덟.

면담자 조카들하고 같이.

이경용 그럼, 남자 조카, 여자 조카. 여덟 명이 내려왔어.

면담자 그러면 내려올 때 노선이라든가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큰형님이 결정을 하셨겠네요?

이경용 그렇죠. 그런 건. 큰형님 때문에 수원에도 정착이 된 거야.

면담자 여덟 분이 다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수원으로?

이경용 그렇죠. 기차 타고.

면담자 그러면 개성에서 신촌역까지는 금방이죠. 저 철도로는?

이경용 그렇죠, 한 시간 반.

면담자 한 시간 반하고, 그러면 신촌에 떨어져 가지고 수원까지 내려오는 거는 며칠 정도 걸리셨던 거예요?

이경용 그 며칠 정도는 아니고 이틀인가 아마. 그래서 우리가 수원 와서. 10월 13일 날 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16일쯤 아마 수원에 왔을 거예요.

면담자 수원에 맨 처음에 도착해서는 어디에 머무르셨어요?

이경용 이창용 치과. 그분 내가 고마운 것이 이창용 치과가 이층집이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골목 들어가면 초가집이 있었어요. 이창용 그 사람네 치과.

면담자 치과에서 운영하던?

이경용 그 집에서 피란민들을 위해서 그냥 방을 내줬어. 그래서 방 한 칸에 우리 여덟 식구가 거기서 생활했어. 그러다가 석 달 생활하니까 1월 4일 날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서울서 피란가라." 하니까 우리도 그때 다시 또 남쪽으로 피란을 갔지.

면담자 맨 처음에 여기 수원에 왔을 때, 이창용 치과에서 집 내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고 가셨나요?

이경용 아까 얘기했지, 우리 형님의 친구가 먼저 수원에 와서 양복점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큰형님은 친구가 이제 수원서 양복점을 하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데로 피란을 가야지. 고생 덜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오니까, 그 사람 양복점이 이창용 치과네 바로 옆집이야. 그러니까 이창용 네하고 가깝게 다 지낸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네가 피란 왔는데, 이창용이 수원서 병원하고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때는 돈도 안 받고 방도 그냥 빌려주고 그랬지. 그래서 고마운 거지.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피란가고 또.

면담자 석 달 머무시는 동안에 이제 어쨌든 먹고 사시는 것은 어떻게?

이경용 집에서 돈 갖고 나온 거로 이제 쌀 사다 먹고 그냥.

면담자 그래서 이제 1·4후퇴가 막 진행돼서 다시 피란을 가시는데, 피란은 이제 걸어서 가셨어요? 어떻게 차 타고?

이경용 걸어서 갔지. 남자만. 나하고. 형님 두 분. 세 사람만 걸어서 남쪽으로 가고. 우리 아버님하고 형수님 두 분하고 조카들은. 저 시봉골에 있었어, 시봉골이라고.

면담자 용인인가요?

이경용 광교산 그 뒤 너머에. 거기 촌마을로 피란 가신 거야.

면담자 광교 쪽으로요?

이경용 광교산 바로 위쪽이 아니라 더 너머야. 거기 지금 행정구역은 고기리야. 고기리 쪽이지. 고기리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 시봉골 마을이 있어요.

면담자 거기 알고 간 건 아니고, 어떻게?

이경용 거기는 알고 간 게 아니죠.

면담자 그냥 가, 여자분들(하고) 아버님하고 연로하시니까 멀리 못 가니까.

이경용 조카들하고. 시내는 위험하니까. 거기는 산골이고 하니까, 안전할 거다. 그리고 피란을 가신 거지, 그 마을로.

면담자 그럼 형님하고 선생님은 쭉 내려가는데….

이경용 셋이서 걸어서. 이제 공주 가서, 공주 시내 농업학교 그 농고에서 잠사(蠶絲), 누에치는 시설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피란민들이 수십 명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이, 거기 한 삼십 명은 모였을 거야. 우리도 방 하나 차지해가지고 묵고 또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전라도 김제 쪽인가, 그쪽까지 가니까 중공군이 남하하다가 유엔군이 저항하니까 중공군이 후퇴를 하는 거야. 후퇴를 해서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임실 거기까지 갔다가, 우리 세 사람이 다시 올라온 거지. 올라가가지고 시봉골 가서 가족을 만난 거지.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달이고 지내니까, 그때 한강에서 대포 소리가 매일 펑펑 들리는데, 그래 유엔군이 한강을 점령하고 중공군을 쫓으면서 한강을 넘고 또 북쪽에 가니까 이제 수원이 안전하게 돼서 수원시로 나온 거지. 시봉골에서 또 몇 달 지냈지.

면담자 공주를 거쳐서 임실까지 가시는 건데 그 가실 때, 혼자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피란을 어떻게 가라고 하는 그런 걸 정부나 이런 쪽에서 좀 알려주는 게 있었어요?

이경용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

면담자 전혀 없었어요?

이경용 그런 건 없었어.

면담자 내려갈 때 집안 식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걸어갔어요?

이경용 그럼요. 수천 명이 그냥 이렇게.

면담자 피란민 그 길이 행렬을 따라서 계속 가신 거예요?

이경용 그럼. 그렇게 가죠. 가다가 날이 저물면 마을 찾아 들어가서 방이 있으면 정말 그날은 운이 좋은 거고, 없으면 헛간에서도 자고, 뭐 그랬어.

면담자 피란하실 때 주변에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서 죽거나 그런 것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경용 우리는 그런 거 목격을 못 했어.

면담자 식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이경용 식사는 쌀 사다가 해 먹는 거지. 집에서 돈 갖고 나온 거 이제.

면담자 수원에서 내려가서 용인 고기리 있는 쪽까지 다시 오는 과정이 몇 개월 정도, 시간적으로 얼마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경용 그렇게 얼마 안 걸린 것 같다. 유엔군이 바로 북진을 하니까.

보급대 생활

면담자 형님 중에서는 징집이 된다든가, 국민방위군으로 간다든가 이런 분은 없으셨어요?

이경용 없었어요. 연령이 다 넘어서. 나는 시봉골에서 몇 달 있다가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수원 시내가 안전한 지역이 되니까, 먹고살아야 되죠, 돈은 갖고 나온 거 다 썼고.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수원 시내 시장에 나갔다가 나는 잡혀 갔어.

면담자 어디에요?

이경용 경찰이 나와서 가재. 그래 수원경찰서로 끌려갔어. 가니까 미군 트럭에 타래. 내가 미군 트럭에 타가지고 용인시에 가니까, 용인 전부 불타가지고 그냥 잿더미고. 거기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밑에 광주에 가서 내려, 다 내리래.

면담자 트럭에 선생님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경용 나는 그때 애기고. 전부 30대, 40대 어른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한강에서 지금 전투를 할 때야. 미군들 그 군수물을 운반해 주는, 그때는 보급대라고 그랬어. 군수물을 보급하는 대원. 그래가지고 중학교 2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학년 그때 나같이 어린 애가 세 명이 있었어. 나하고, 삼일중학교 학생하고 수원중학교 세 명이. 처음에 가서는 그분들도 몰랐어. 그냥 한 50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잡혀 갔는데, 광주에 가니까 내리라고 그래. 근데 대포 소리는 쿵쿵 앞에서 들리는데 밤이 되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내리고 보니까 이제 한강이야. 한강인데 미군들이 전부 대포를 북쪽으로 설치해 놓고 포 쏘고. 군인들은 이제 총 쏴야 되니까, 짐이 있으면 불편하게 되니까. 미군들 그 가방을, 우리들이 전부 운반해 주는 거야. 미군들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운반해 주는 도우미인데, 그때는 보급대라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지고 몇 달 동안 미군들하고 같이, 미군들이 죽어 가고, 시체 나르고 운반하고 그 속에서 연천까지 미군들하고 같이 갔어. 갔다가 한 3개월 걸렸어. 나중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거기 통역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붙들고 그냥 사정한 거야. "나 중학생인데 가야 되겠다,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군 장교하고 책임자한테, 대위인데 가서 얘기하니까 부르더라고. 다 보더니 신분증, 그때 학생증이 있으니까, 내보여 주고 그러니까 데려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미군이 지프차까지 내줘가지고 세 놈이 타게, 그때서 알은 거야. 거기에 삼일중학교, 수원중학교 두 놈이 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야. 나같이 중학생이니까. 그래 세 놈이 미군 지프차를 타고 서울 미아리, 미아동. 미아리고개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거야. 그리고 니들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세 놈이 터벅터벅 걸어서 수원까지 왔어. 그래 내가 6·25 때 죽을 뻔했다고, 미군들하고.

면담자 그 부대 이름이나 이런 건 혹시 기억?

이경용 그거를 내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 비군인(非軍人) 무슨 6·25 참전

용사 신청을 지난번에 하려다, 증인이 두 명 있어야 된대. 근데 그놈들. 학교를 같이 다녔으면 알지만, 나는 개성서 다닌 학생이고, 그래 알 수 있어야지. 그래 증인 없어서 내가 그냥 신청을 못 하고.

면담자 그러니까. 차 타고 가시다가 이제 광주에서, 광주까지 간 거잖아요, 남한산성. 거기에 멈춘 거죠? 멈춘 다음에 거기서 조사를 하거나, 이름을 적거나 그런 적 있으셨어요?

이경용 그건 없지. 경찰서에서나 아마 그랬을 거야. 경찰서에서 명단 다 작성. 한강에서 전투를 하니까, 광주 거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니까 미군들 물자들을, 미군들의 백(back)이며, 뭐 이런 걸 우리가 대신 지고서 운반해 주고 그랬지.

면담자 그러면 광주에 군인이 있었던 거예요, 미군 부대가?

이경용 그렇죠.

면담자 미군 부대가 광주에 있었고, 그 미군 부대를 따라서 쭉 올라가지고 한강 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배 타셨어요?

이경용 다리가 임시 가교. 고무다리 건너는데, 중공군이 그냥 생포돼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옆에서는 미군들이 호(壕)를 파고 있고. 그 산이 소나무가 많아서 솔뫼산인데, 그 안에는 중공군이 우글우글한 거야. 그러니까 유엔군이 이제 중공군을 생포해가지고 잡아 내려오고, 한강 남쪽에는 대포도 그냥 여기저기 설치하고 그냥 쏴대고 말이지.

면담자 거의 막 전투상황이었네요?

이경용 그럼요. 최일선 전투장에서. 그래 옆에서는 총 맞아서 혹인이 쓰러져 죽고, 부상당하고 하는 거 그거 같이 보면서 내가 연천까지 갔었다고.

이종철 그래서 보훈원에 물어보니까, 보훈원에서는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죠, 증거.

이경용 근데 증인이 두 명 필요하더라고, 그 서류가.

면담자 인보(人保)가 필요한 거죠, 인보.

이경용 내가 뭐야, 중학생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체험담 들으면 인정이 될 거야. 피란 나와서 개성서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의 기술이 아주 엉망이라, 한국의 운동화 같은 게 지금은 한국 신발이 세계의 메이커로 1년, 2년도 신고. 그때는 몇 달 신으면 이놈의 바닥이 꼭 고무가 형편없어서, 피란 나와서 1년이 다 다니니까 운동화가 다 떨어지고 새. 그래서 솔뫼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밤에 그렇게 중공군이 포위돼서 오고 그러고 밤을 샜는데, 아침 새벽이 되니까 수원비행장에서 쌕쌕이를, 제트기, 쌕쌕이라고 그랬어. 쌕쌕이가 오더니 소나무가 꽉 찬 솔뫼산에 폭격을 하는 거야.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으니까 솔뫼산이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10시쯤 돼서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니까, 중공군 시체가 그냥, 넘고 밟고 갔어. 근데 신발이 운동화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공군 시체가 널부러져 있는데 보니까, 중공군들이 여분으로 신발들을 이렇게 한 사람이 한두 개씩 갖고 나왔더라고. 그 신발이 이게 옆에 있는데 보니까 새 거지, 안 신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화를 벗어 버리고 그걸 신었다고. 중공군이 여분으로 갖고 나온 신발을. 근데 그 신발이 그놈들은 어떻게 제조됐냐면, 이 천이 녹색 국방색이고, 바닥은 고무가 아니라 가죽이더라고, 돼지가죽, 그걸 했더라고. 근데 가볍긴 하지. 그래 그걸 신었는데, 그걸 신고 연천까지 갔다 오고 그랬지. 그것도 몇 달 신으니까 그것도 금방 뚫어지더라고.

이종철 그때 거의 그렇게 죽다 살아난,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지. 가족한테 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잡혀 가가지고 한 3개월을, 가족은?

이경용 가족한테 어떻게 알려. 내가 시장에 혼자 와서,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느냐, 관찰하기 위해서 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저쪽에서는 쇼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파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서는 피란민들이 갖고 나온 옷을 사서 또다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무슨 장사를 해서 돈 벌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또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시내 시장에 갔는데, 그전에 수원에 영동시장 하나밖에 없었어. 가는데 이 뒤에서 경찰관이 "야 인마!" 그래 잡혀간 거야. 잡혀가서도 가족한테 알릴 수도 없는 거지.

이종철 그게 말이 되냐고. 거기서 기록이라도 해가지고 가족한테 알려주든가.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약간 받긴 또 받았대요.

이경용 돈들 받았지. 그때는 내가 2만 5,000환인가 받았어.

면담자 진짜요. 일당 계산으로 해가지고 내려올 때 한꺼번에 줬어요? 아니면 나눠서 줬어요?

이경용 한꺼번에. 나 내려올 때.

이종철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이경용 그러니까 보급대들 무슨 봉급 타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한창 전쟁 때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행정이 없었고. (고향) 간다니까 이놈 그동안 몇 달 쓰고 그랬는데, 노비(路費)라도 하라고 지금은 원이지만 그때는 환. 2만 5,000환인데, 그거면 쌀 두어 말 값 됐을 거야. 쌀 한 가마에 20만 환인가 했으니까.

이종철 그렇게 막 데리고 차출해 나가는 거는 국군이나 그 인민군이나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냐. 그냥 막 끌고 가는 거 아냐. 집에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애가 나가서 소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정착 과정

면담자 가족들이 수원에 다시 자리를 잡은 건데 그때는 어디에 사셨어요?

이경용 그때는 시봉골에서 피란을 하고, 우리 가족이 모여서 수원 시내에 들어왔는데, 수원 시내도 비행기에서 폭격해가지고 집들이 전부 불타고, 무너지고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움집에 있었어, 움집. 여기 남문 쪽 있죠. 거기서 올라오면 그전에 종로예식장이 있었어. 종로예식장 그 집터가 수원서 제일 갑부, 수원중·고의 이사장 홍사훈, 거기 교장선생님이 홍사운, 수원에 제일 갑부였지. 그분의 집이 컸었는데,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내줘서 큰형님 네가 사셨고. 또 작은형님 네는 그 앞의 집이 폭격 맞아가지고 폭삭 주저 앉아가지고 빈터가 된 거야. 그래 거기다가 땅을 파고, 여기저기서 이 기둥, 이 나무 저걸 주어다가 움집을 만들었어. 이 움집에서 생활을 했어.

면담자 홍사훈 씨네는 어떻게 알고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이경용 여기 먼저는 양복점 그 형님 때문에 했고, 그때는 우리 형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알아가지고 거기에 방을 하나 얻게 됐어. 돈 안 받고 그냥 거저.

면담자 혹시 거기에 홍사훈 씨네 집에 다른 피란민들도 거기 있었어요?

이경용 집이 크니까. 세 가족이 살았나…. 저쪽에는 할머니 혼자서 사셨고.

면담자 홍사훈 씨네 사모님 혼자 사신 거예요?

이경용 아니요. 그때 홍사훈 씨네 가족은 거기서 안 살았고, 우리 이쪽에 피란민 한 가족 팀이 살았고, 우리 살았고.

면담자 그럼 홍사훈 씨를 뵌 적이 있으세요?

이경용 근데 나는 홍사훈 그 가족 말만 들었고, 그 가족이 몇 분이고, 그분 아드님이 일본 유학하고 6·25 때인가, 6·25 전인가 이북으로 넘어갔고, 일본 가서 유학한 사람들이 좌익사상, 독서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면담자 홍사훈 씨 아드님이 월북했던 이야기나 이런 거는 언제 적에 들으셨어요?

이경용 그거는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는지…, 한참 후죠.

면담자 거기가 홍사훈 씨 집이었다는 걸 언제쯤에 그걸 알게 되셨어요?

이경용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면담자 홍사훈 씨네 집에서 얼마 정도 사셨던 거예요?

이경용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장사하면서 또 가게로 옮겼지. 지동다리 옆에 하천께 전부 판잣집들 짓고, 그리로 나온 거지.

면담자 지동시장 있는 그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용 그래. 수원천 양쪽에 판잣집 쭉 있었죠, 거기가.

면담자 그 판잣집들 중의 하나를 이제 점포를 하신 거네요? 오시자마자 형님들이 혹시 장사 중에 뭘 하셨는지?

이경용 우리 작은형님은 쌀장사. 쌀, 잡곡. 시골서 들어오는 거 사다가 가게에 전시해 놓고 소매 받고. 또 큰형님은 제과업을 했어요. 제사 때 쓰는 산자, 약과 이런 것. 그 제과를 집에서 만들어서 수원시장, 발안, 오산 시장에 이렇게.

면담자 만드시는 건 누가 만드셨어요?

이경용 형님, 형수님. 또 나중에 인부 두어 명 쓰고.

면담자 큰형님하고 작은형님 성함이?

이경용 이화용.

면담자 그다음 작은형님이?

이경용 이기용.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그러면 형님들은 계속 장사를 하셨겠네요. 영동시장 근처에서?

이경용 그럼.

면담자 처음에 그 (수원)천변에 집,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경용 그건 난 모르죠. 형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난 중학생이고. 그때는 허가도 없었고, 피란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땅이 없으니까, 하천에다 기둥 세우고 여기를 메꿔가지고 여기를 가게를 만들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만드니까 그다음 사람 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양쪽에 쭉 판잣집이 생긴 거여. 화홍문에서부터 남문, 매교다리까지 하고, 저쪽에는 남수동 거기서부터 쭉 수백 호가 거기.

면담자 남수동이 지금 수원화성박물관 앞에 있는 다리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 가게들이?

이경용 그렇죠. 이쪽에는 화홍문서부터 쭉 있었고. 저기 건너서는 남수동 저기 광주 가는 도로 그 밑으로 쭉.

면담자 그럼 형님은 어느 쪽에서?

이경용 작은형님은 남수동에서 내려오다가 지동시장 있는 데 못 내려서 중간 지점에 있었고, 우리 큰형님은 이렇게 돌아 내려와서 지동시장 바로 입구 그 주변에 있었어.

면담자 홍사훈 씨네 집에 있다가 다 같이 한꺼번에 이쪽에 판잣집을 짓고 다 이사를 하신 거예요?

이경용 그렇지. 살림살이는 움집에서 하다가 이제 천변에 가게를 만들면서 이제 작은형님 네도 나오셨고, 큰형님도 우리 이쪽으로 나오셨고. 살림집은, 우리 큰형님 네는 가게에서 그 앞 동네에 방 하나 얻어서 생활했고, 나는 그 가게에서 생활하고 잠을 잤고. 작은형님 네는 가게에서 쌀장사를 하셨고, 큰형님 네도 거기서 쌀장사를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제과업으로 업종을 바꿨는데, 살림은 팔달산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었고.

면담자 그러면 수원천변에 있는 판잣집들은 주로 점포 형태로 이루어진 거였군요?

이경용 그거 점포지. 기둥 여기 4개 세우고, 판때기(널판지)로 이렇게 밑에 깔고, 여기에 쌀, 좁쌀, 팥, 콩 이렇게 전시해 놓고, 여기 도로니까 팔고 그랬으니까, 여기 방 만들고 살림하고 할 수 있나, 여기는.

면담자 면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경용 면적이 한두 평, 두 평.

면담자 그 정도밖에. 이렇게 길게 두 평 정도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개인이 지었어요? 아니면 누가 지어주는 사람이?

이경용 지어주는 사람 없어, 다 개인이야. 개인이 기둥 사다가 기둥 4개 세우고, 이건 전부 그냥 찍고, 톱으로 자르고, 판자때기 사다가 이렇게 박고.

면담자 선생님도 그거 만드실 때 참여하셨어요?

이경용 저는 어려서 그냥 형님들이 했죠.

면담자 그러면 먼저 세워진 판잣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세울 때는 다시 우리 집 기둥을 그 기둥 바로 옆에다 세우고 짓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둥을 뭐 이용해서 거기다 하나요? 그니까 다닥다닥 붙는지? 약간 떨어져 있는지?

이경용 그거 다 자기 소유인데 따로따로. 여기 판잣집이 하나 지었으면 그다음에 지을 때는 자기가 기둥 이렇게 세우고 또 짓고, 또 그다음 사람들도 자기가 기둥 세우고 짓고, 이 사이는 떨어지고 그러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요즘 집들 중에 담을 하나로 두고 양쪽 집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듯이, 그 판잣집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어서 옆의 집하고 공간이 없이 다닥다닥 붙여서 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니 집, 내 집이니까 좀 띄워가지고 구별을 하게 지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경용 그건 내 땅도 아닌데 떨어져라 지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간이 있는 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짓고 써.

면담자 시의 하천 부지인데, 공유지거든요. 공유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시에서 허락을 받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점유한 건데,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예요?

이경용 그렇지. 그때는 전쟁터인데. 그리고 피란민이 집도 없고 아니면 거리에서 얼어 죽고 그럴 땐데 그걸 막을 수가 있나.

면담자 없었죠.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한 건데, 이제 전쟁 바로 직후에 피란민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그게 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하천의 공유지에다 이거를 점유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이걸 인정해 준다든가, 건물 자체의 소유권은 인정해 준다든가, 또는 사고팔 수 있게, 아니면 아예 그것조차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경용 난 그건 못 들어봤어. 근데 내가 (생각하건대) 나중에는 소유권 행사들을 했을 거야. 내가 기둥 6개를 꽂고, 판자를 사다가 얼마가 들었다. 또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일은 권리금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가게를 팔고 사고 한 일 있다는데.

면담자 네, 팔고 샀어요?

이경용 그 일 있었어, 그때는. 팔고 사는 게 있었죠.

면담자 그니까 어쨌든 땅은 아니지만 건축물 자체는 사고파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뤄졌었던 거죠?

이경용 이루어졌지.

면담자 그럼 점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크기였나요?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고, 이렇게 차이가 났었나요?

이경용 내가 볼 때는 욕심이야 크게 짓고 싶지. 근데, 크게 지으려면 크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데니까 대부분 크기가 한두 평 정도야.

면담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좀 크게 짓기도 하고?

이경용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조금 크게 짓고. 그래서 그 안에 물건을 또 지켜야 되니까, 한쪽에다 불 때는 온돌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면담자 야간 경비를 서는 거네요?

이경용 그렇지, 야간 경비.

면담자 그게 이런 기둥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빈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닥 놓고 다시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 보면 여기는 요즘 필로티(piloti) 구조처럼 여기가 뻥 뚫린 데가 있고, 그리고서 건물 하나가, 이렇게 방 하나가 들이는 형태인 거죠. 여기를 드나들 때는 이쪽으로 문 하나만 있는 거죠? 이 도로변 쪽에서 이렇게?

이경용 도로변에서는, 문짝이 왜 여러 개…

면담자 선생님이 사셨던 곳에서는 들어가서 방을 어디다 놓으신 거예요?

이경용 방은 이제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에 문짝이 이렇게 네 짝 해서 이렇게.

면담자 유리 문짝으로 하신 거예요? 네 짝 유리문, 옛날에 이렇게 옆으로 드르륵 미는 그거?

면담자 미는 거요, 아니면 이렇게.

이경용 빼는 거지. 빼서 한 쪽에 세워 놓고, 내려도 놓고.

면담자 이렇게 들어서 놓는 거?

면담자 옛날 철문이요. 유리가 아니고?

이경용 옛날에 그냥 판때기, 판자문이지.

면담자 낮에는 장사를 할 때는 문이 없이 그냥 장사.

이경용 낮에는 장사를 해야지, 다라 놓고 하고.

면담자 그래서 네 짝짜리인 거예요?

이경용 그렇죠. 저녁에는 여기 쌀이 몇 십만 원 있으니까, 이걸 다 닫아야지. 그리고 빌 때는 여기다 자물쇠로 잠그고 가고.

면담자 근데 여기 거주하신 이곳에 온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경용 여기선 내가 불 때고 하면 바닥이 이제 뜨뜻해서 겨울에도 여기에서 자고. 나무 땠고.

면담자 그럼 나무 어디다 해서?

이경용 나무는 파는 데가 있지. 이 시골에서 나무 해가지고 천변에 나무 파는 사람이, 수십 명이 쭉 나무 팔고 그랬어.

면담자 여기가 남수동 천변에 이렇게 나무시장이 열렸던 거예요?

이경용 그래 이쪽에 다.

면담자 양쪽에 다 나무시장이 있었어요?

이경용 그럼. 내가 얘기한 시봉골에서 나무를 지게에다 지고 와서 팔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면담자 나무시장은?

이경용 연탄 나오기 전에 전부 나무 땠지 뭐.

면담자 나무시장이 하루 종일 열렸어요? 아니면 아침에만 열렸어요?

이경용 아침에 오면 다 팔리지.

면담자 아침에 다 팔리고 이제 장이 파해지는 거죠? 선생님이 직접 여기 나무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신 적은 있으세요?

이경용 그렇죠. 나무 사다 때고 그러는 거지.

면담자 얼마 정도씩 어느 주기로 가서 사셨어요? 그리고 장작 파는 단위가 (있어요)?

이경용 아니, 지게 있죠, 지게. 불쏘시개 같은 거는 소나무 두툼하게 묶은 거. 뭐 그런 거.

이종철 무게로 팔던가. 뭐 개수로 팔든가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경용 그건 내가 산 게 아니라고. 형님들(이 구입했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도 지게 지고가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경용 여기서 그 사람들이 집에까지 갖다 주지. 나무를 사서 어디다 보관하느냐? 그건 뭐 가게 한쪽에다 놓고, 살림집은 동네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면 거긴 부엌이 있으니까, 부엌에 갖다가 쌓아놓고 때고 그렇게 했지.

면담자 형님들이 빨리 자리를 잡은 건데, 선생님은 어렸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를 다시 가야 할 상황이기도 했는데, 학업을 언제쯤에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이경용 그건 내가 미군 부대에 잡혀 갖다 와가지고, 형님들하고 같이 장사를 하는데, 그때 쌀장사하기 전이다. 수원 시장에서 시계포를 했어요, 큰형님이. 제일 처음에는 시계, 그다음에 쌀, 그다음에 제과.

면담자 그리고 작은형님은요?

이경용 쌀장사 하셨고, 그다음에 제과.

면담자 그러면 두 분 다 제과점으로 가셨네요?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경용 따로 따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다

면담자 그럼 선생님은 언제쯤 학교를 다시 가시게…

이경용 여기 시장 나왔다가 잡혀 가서 미군들하고 갔다가 왔다고 했죠? 그니까 그것이 51년 9월.

면담자 51년 9월쯤에 이제 학교를 다시 가신 건데 서둔동 종합학교로 가신 거예요?

이경용 예, 종합학교. 그때 3학년에 편입했지.

면담자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신 거죠? 그때 종합학교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경용 그때 수원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수원 원 본토인들은 다 자기 학교 다니러 갔고, 서울은 아직 안정이 안 됐지. 수복이 안 된 거지. 그래서 한강 이북 학생들, 우리도 개성이니까 한강 이북이지. 피란 온 개성, 문산, 금천 이쪽에 학생들하고 서울 시내 학생들이 종합학교에 (다녔지.) 수복이 안 됐으니까.

면담자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였어요?

이경용 여기 학생들이 그때 한 500~600명 됐을 거야. 서울 전체 학생이니까. 우리 개성만 해도 중학교가 몇인데. 개성에 중학교 있지, 문산에 중학교 있지, 금천에 중학교 있지, 또 고양, 또 의정부에 중학교 있지, 포천, 이런 한강 이북에 학생들은 자기 원교에 다니지 못하니까 여기서 다 수용한 거야.

면담자 저희가 종합학교 얘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들었는데 종합학교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종합학교가 서울농대 건물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 건물 전체를 다 종합학교가 썼던 거예요?

이경용 전체는 아니죠.

면담자 그러면 몇 칸 정도가 교실이나 또는 교무실로 썼던 거예요?

이경용 그때 글쎄요. 한 7~8개.

면담자 그때 반들이 전쟁 전 학교별로 운영을 했어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경용 학교별 아니야.

면담자 학교별 아니고 그냥 다 모아서? 학년만 나누고?

이경용 그렇죠. 나도 서울에 경기, 서울, 배재, 휘문 학생들하고. 내 친구들이 배재고, 그다음에 경기고, 보성고. 그때 학교 다닐 때 사총사였어, 그때 삼총사 영화가 있어가지고, 삼총사라는 말이 유행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4명이 노상 어울려서 사총사. 저기 가면 "저기 사총사 떴다." 해.

면담자 그러면 옛날에 다니던 학교와 상관없이 반이나 학년, 그다음 학생수에 따라서 나눠서 학교 수업을 했는데, 매일 수업이 있기는 있었어요, 선생님?

이경용 그럼, 매일 수업.

면담자 그런 선생님은 종합학교를 1년 정도 다니셨어요?

이경용 예. 수업은 제대로 됐죠. 교실이 부족해서 음악 시간에는 내가 이홍렬 음악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잠사실에서 저쪽으로 가면 송림원이었어요. 농대 임업시험장. 소나무가 그냥 빽빽하고, 그때 전쟁 중이니까, 하늘은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냥 떠다니잖아. 그래 거기서 이홍렬 선생님하고 음악 공부하다가 비행기 뜨면 잠시 쉬고 그랬는데.

면담자 그때 교사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 학교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모이신 거예요?

이경용 그때 선생님들, 서울서 전부 일류학교 선생님들이지. 직장이 없잖아. 서울이 수복되어야 자기 학교로 가는 건데, 서울 자기 학교는 못 가니까, 서울에 수십 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피란을 와서 수원에 와 있는데, 그때 유능하고 그런 분만 먼저 취업을 하셨을 거야, 아마.

면담자 그때 같이 수업 들으셨던 선생님들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경용 이홍렬 음악선생님하고, 그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잊혀지지 않는데, 이후섭 선생님이라고 수학선생님, 그분은 경기고등학교인가, 근무했던 분이 있고.

면담자 종합학교의 특성상 학생이든 교사든 다 피란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서울 정도에 사는 학생들은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경용 서울 학생들은 수복되니까 다 자기 학교로 복귀됐지. 개성은 아직 못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종합학교에서 한 2년 다녔으니까. 수원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지. 그래가지고 수고를 졸업했어요.

면담자 그러면 수원종합학교가 몇 년간 운영이 된 거는?

이경용 한 3년. 서울이 수복되니까 바로 갔고. 나같이 개성, 문산, 금천 이런 학생들은 고향 수복이 안 되니까 이 지역 학교로 편입, 나는 수원고등학교를 가고.

면담자 종합학교가 서울 학생들이 빠져 나가면서 일시에 교사, 학생들이 빠져 나가니까, 종합학교가 그때 문을 (닫았나요?)

이경용 난 잘 (모르겠고).

면담자 그럼 선생님은 1951년에 종합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1953년쯤에 여기 학교 그만두시고. 수원고등학교로 가신 거예요?

이경용 그래, 그렇죠.

면담자 수원고등학교 졸업이 언제였어요?

이경용 내가 54년인가.

면담자 이때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셨어요, 종합학교 다니실 때?

이경용 나야 여유가 없으니까 도시락 없이 그냥 다닌 거지. 그때 대부분 피란 학생일 텐데. 내 친구들도 배재 다니던 학생은 수원이 원 집이야. 자기 아버지가 은행원이었고. 그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싸갖고 다녔고. 보성 다니던 이상희 형, 두 학생은 수원이 집이구나. 한 학생은 부모님이 충청도 어디에 수학 선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수원에 자기 집이 있고.

면담자 잘 사셨구나. 그러면 수원고를 들어가실 때 종합학교 2년을 다녔다라고 하는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 종합학교에서 이제 발급받으셨어요?

이경용 그렇죠, 그래서 증명서 가지고 가서.

면담자 그때 수원고에서는 이렇게 종합학교 나온 분들의 학력을 인정이 되면 편입이 되는 경우가 쉬웠어요, 그때?

이경용 그럼 6·25 전쟁터니까. 그때는 편입시험 그런 게 없이. 그리고 서울 가니까 수원 학생도 6·25사변 때 군대 나간 학생도 있고, 피란 가서 부산 가서 거기서 편입해서 다니는 학생도. 자리 결원이 많잖아, 그니까 오면 다 받아주고 그랬죠.

면담자 선생님 한 1년 정도 수원고에 가가지고 (공부)하셨는데, 수고가 그때 수업이 제대로 이뤄졌었어요?

이경용 그럼요. 수원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학교도 그때, 선생님들도 내가 가니까, 우리 개성서 피란 나온 선생님이 수고 선생님으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성함은 기억나세요? 선생님.

이경용 최웅래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면담자 이분이 개성 분이세요?

이경용 예. 개성, 피란 나오신 분이에요. 개성공립학교 교사들은 여기 나와서, 공립학교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고. 사립학교도 자리가 있으니까 공립학교 선생들을 우대해 주지.

수원 내 개성시민회

면담자 피란 오셨을 때 개성연락사무소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 있었다든가,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경용 나는 (가본 적은)없는데. 처음에는 수원에 개성시민회가 있었어.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이 모여서 광교에서도 모여서 행사도 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어.

면담자 50년대, 60년대까지도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이경용 그럼.

면담자 언제까지 운영됐었는지 기억나세요? 수원지구 황해도민회는 있는데, 개성 분들만 따로 모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경용 네. 있었어요. 처음에는 개성 시민들만도 한 200명 그래요.

면담자 수원 쪽에요?

이경용 50명 그래요, 많았어요. 근데 나중엔 다 흩어지고. (인원이) 적으니까 황해도하고 연합해서 모이고 그랬는데, 그전에 개성시민회 모임 때는 55년쯤 결성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60년도까지 잘 됐어요. 그 후 다 흩어지고 개성 시민들이 얼마 없고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안 나가고 그랬는데.

면담자 1년에 한 번씩 모이시면 뭐 하세요?

이경용 서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고향은 어디에 언제쯤 가게 될 거냐?" 그런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고서 체육대회니 그런 행사는 없었어. 가족들 다 나오니까, 이제 소풍 겸 나와서 만나가지고 서로 안부 묻고.

면담자 휴전되기 전에 수원으로 피란 나온 사람들 중에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가족이나, 내려오지 못한 가족이 내려왔나,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혹시 안 찾아 가셨어요? 연락사무소 개성연락사무소?

이종철 그 얘기를 해야지. 큰아버지가 저쪽 강화도에 가서 할머니 모시고 나오려고 몇 번 그 기회를 봤다고 그랬잖아?

이경용 그거는 우리 가족 찾기 위해서, 그거는 휴전되기 전이지. 휴전되기 전에 유엔군하고 북한하고 휴전회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회담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원산 그 바다에서 배에서 휴전회담을 하냐, 아니면 판문점에서 하느냐, 옥신각신하다가 판문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판문점 휴전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개성시에는 낮에는 유엔군이 들어가고, 밤에는 인민군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는 유엔군이 들어가니까 가족을 모시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도 작은형님이, 휴전선 직전이지, 개성시에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려고 강화도에 가서 방을 하나 얻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휴전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되면서 유엔군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개성시는 판문점 북쪽이니까. 그래서 어머님을 못 모시고 나왔다고. 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때 휴전회담 장소가 원산으로 되고, 개성 시내를 유엔군이 차지했으면 우리는 고향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고.

면담자 처음에 수원쯤에 왔을 때, 수원에 피란민들이 있었는데, 피란민들 상황이나 이런 게 얼마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하나는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배급이 있었어요, 피란민들한테 구호 형태로. 그거를 좀 받으셨어요?

이경용 우리는 못 받았어. 선생님들도 공무원이 아니야? 교육공무원? 원 학교를 가야 학생을 가르치고 월급이 나올 텐데.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직장이 없잖아. 그래서 공무원들은 배급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못 탔어.

면담자 그렇죠. 다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 네는 그래도 좀 생계가 되고 그러니까 배급 대상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경용 응. 그때 아마 공무원들만 줬을 걸. 피란 나온 사람들, 우리 같이 전부 움집에서 살고, 방 한 칸 세 얻어 살고. 누가 부자, 돈 있고 뭐 어떻게 알아. 공무원들만 배급 줬을 거야.

면담자 수원 쪽 사람들하고 친해지거나 이러는 시기가 수원고등학교도 다니시면서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경용 수원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귀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서 끝나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놀러 가고 그러질 못했어. 끝나면 바로 집에서, 제과업 형님하시는 거 같이 하고. 또 팔러 트럭 타고 발안시장, 오산시장, 평택시장 이렇게, 돌고.

면담자 그거 들고 그쪽 시장까지 가서 물건을 주고 그런 걸 하셨었던 거예요?

이경용 그럼. 그니까 집에서 제과 만들면 그거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시장에 갖다가 도매로 주는 거죠. 그다음 번에 가서 수금 해오고 그런 거지.

면담자 혹시 제과 가게 이름 같은 게 있어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상호(商號)?

이경용 상호. 우린 그건 없었어. 저쪽에서는 이씨네 뭐.

면담자 수원 이씨네, 이런 거예요?

이경용 그래, 그렇죠.

면담자 쌀장사 하시다가 왜 제과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경용 그건 우리 인천의 형님네가 사셨는데 그분이 제과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버시더라고. 거기서 영등포, 서울로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 집에 넘겼는데, 종업원이 한 열댓 명 되고, 물건이 차로 나가고. 그래서 형님이 그걸 가서 배우신 거야. 약과, 산자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신 거지.

면담자 맨 처음에는 식구들 중심으로 하시다가 외부에 다른 분들 인부를 쓰기나 그러기도 하셨어요?

이경용 형님의 처남 내외, 그다음에 한 댓 명 외부인사 썼지.

면담자 장사가 잘 됐나 봐요?

이경용 그래서 처음에 판잣집에서 시작해서 집도 두 개, 지동에 기와집 큰 집 돈 벌어서 사고 잘살았어요.

마침내 교사가 되다

면담자 이제 수원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진학을 또 하신 거예요?

이경용 수고 졸업 맞고 중앙대학을 졸업했어요. 54년 4월에 중앙대학교를 국문과 4학년 때 (군 입대). 그때는 3년 복무 기간이. 나는 그때 학보제도(學籍保有兵)가 있어가지고 2년 정도 나와 가지고, 4학년에 복학해서 졸업하고서 그게 28살 처음에 용인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했죠.

SRI 수원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개성에서 나서 수원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연락되는 분들 있으세요?

이경용 우리 조카들 친척은 많이 있지.

이종철 그다음에 저기 종친회 같은 거요. 지금 하거든요.

면담자 종친회를 하세요?

이종철 그럼요.

면담자 그분들 대부분이 개성에서 오신 분들이겠네요?

이종철 예.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저쪽 경상도도 있고, 저쪽 전라도도 있고. 그때 피란 가서가지고 거기서 정착한 분들이.

면담자 그런데 수원에서 정착하신 분들은?

이경용 우리 종친회 회원들은 수원에도 여러 명 있지. 우리 평산 이씨인데, 평산 이씨네 조카들이 홍철이, 성철이, 광철이, 문숙이, 서신이, 봉용이. 우리 집안에만 해도 한 20명.

면담자 그럼 큰형님하고 작은형님은 제과업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이경용 큰형님이 제과업을 계속 하시다가 나이가 육십이 넘고, 몸이 건강이 나쁘니까 않으셨고. 작은형님도 중간에 그만뒀었어. 나이가 많으니까.

면담자 집에서 하던 형태 그대로 끝날 때까지 계속 집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공장을 따로 짓거나?

이경용 공장 따로 없었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공터가 크고 넓어서 여기다 창고를 짓고, 여기서.

면담자 이 집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종철 본적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지동 290번지.

면담자 지동 290번지. 선생님은 계속 지동 쪽을 중심으로 거기에 주거지가 있었던 거네요. 장사도 그 근방에서 하시고?

이경용 그렇죠.

면담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발령을 받아서 용인으로 가시고. 용인이 첫 발령지였으면 수원 쪽도 이제 오시잖아요. 수원 쪽에서는 첫 발령지가 어디였어요?

이경용 1970년 수원북중, 거기서 5년, 그다음 수원여고 와서 6년.

면담자 선생님 몇 년에 정년하셨어요?

이경용 99년도.

면담자 마지막 학교가 어디였던 거예요?

이경용 매원중.

면담자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담 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 담 일	2020년 10월 16일
면담장소	화서동 자택

일곱 번째 이야기

황해도 벽성 월남민 최형수



1934년(1세)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항산리 출생
1945년(12세) 8·15해방
1947년(14세) 38선 이남으로 월남
1949년(16세) 추화초등학교 졸업
1950년(17세) 연안농업고등학교 입학, 6·25전쟁 발발
1951년(18세) 작은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언평도로 피란
1952년(19세) 수원으로 이주 후 매산로2기에서 움막 생활
1953년(20세) 어머니와 여동생 월남, 매산로3가에서 하꼬방 짓고 가게 운영
1959년(27세) 군 입대
1962년(29세) 수원 영동시장에서 정사
2002년(69세)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사무국장
2005년(72세)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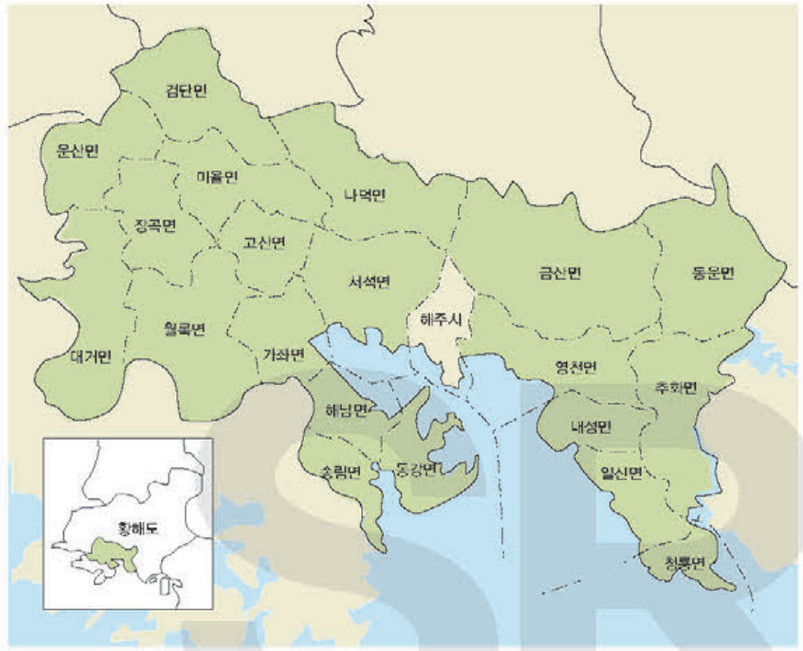
"피란 나온 사람들이 영동시장번영회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6·25전쟁 발발과 월남

최형수는 1934년 5월 11일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향산리 문해골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해주 최씨 집성촌이었으며, 조부모도 함께 살았다. 형제는 5남매로, 최형수가 장남이고 남동생 두 명과 여동생 두 명이 있었다.

1945년 해방 당시 최형수는 추화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추화국민학교는 38선 이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 분단되어 길이 막히게 되었다. 38선 이북에 작은 분교가 생겼지만, 그 학교를 다니지 않고 2년간 학교를 쉬었다. 최형수는 1947년 38선 이남 지역인 청단군으로 월남 후 다시 추화국민학교로 다녔고 1949년에 졸업하였다. 1950년 3월 중학교 과정으로 60리 거리에 있는 연안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3개월이 지난 후인 17살에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최형수의 고향인 황해도 벽성군

아버지와 최형수는 1·4후퇴 때 고향에서 나오고, 어머니는 두 여동생과 1953년 휴전될 때 월남하였다. 6·25전쟁 당시 인민군이 산악지역부터 공격하여, 평야지대였던 연백평야는 이후 진공을 받았기에 피란을 늦게 나왔다고 한다.

최형수는 1951년 10월 작은아버지·남동생과 함께 작은아버지 친구들이 있던 연평도로 월남하였다. 유격전우회인 8240부대(구월산부대)에서 3개월 정도 활동하였다. 유격전우회는 총은 지급받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연평도를 나와서는 용매도에 가서 두 달 정도 지내다 인천을 거쳐 수원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1953년 7월에 월남하였다. 이들이 고향을 떠날 때 아예 월남할 생각으로 길을 나선 것은 아니었다. 며칠만 피신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고, 최형수와 아버지 등 가족들을 찾아 다시 고향에 간다는 마음으로 피란을 나왔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어머니, 사촌 두 명은 집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 남았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바닷가까지 걸어 나온 뒤 조개를 캐는 척하면서 용매도로 걸어 들어갔다. 최형수 집안은 갈살았기 때문에 최형수 가족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용매도에 갔을 때 섬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최형수와 아버지의 거취를 알려 주어 인천으로 넘어갔다. 인천에 도착한 어머니는 아버지 친구인 민장을 만나 가족들이 수원에 거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원 정착과 황해도 피란민촌

1952년 가을 최형수는 셋째 작은아버지가 사는 수원으로 들어왔다. 이북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6·25전쟁 때 월남한 셋째 작은아버지는 수원에 정착하여 신곡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의지처가 되었다. 유격전우회를 따라 백령도에 갔던 아버지도 수원에서 만났다.

수원에는 많은 피란민들이 살았는데, 황해도 피란민은 황해도피란민수용소가 있는 세류1동에 가장 많았다. 수용소라고 해서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고 주위에서 나무를 얻어 방을 만들고 깡통이나 씨레이션(C-ration, 미군 전투식량) 박스로 지붕을 덮은 모양새였다. 정부에서 피란민수용소에 특별히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후반 고려영수학원 시절(최형수 제공)



1950년대 후반 서호(최형수 제공)



1960년 군대 시절(최형수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
수원

더 지원을 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형수는 세류동 피란민수용소에 들어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생활하였다.

최형수는 수원에 온 후 매산로2가에서 거주하였다. 피란민들은 땅을 파고 지붕을 가린 움막, 기둥을 세우고 보로 박스(종이박스)로 지붕을 가린 하꼬방(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최형수는 처음에 남문으로 수원역 가는 길 언덕에 씨레이션 박스로 움막을 지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 동생, 마을 사람 한 명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곳은 남양 홍씨 소유 밭으로, 많은 피란민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전쟁 중이라 수원시청에서도 피란민들이 허가 없이 거주하는 것을 묵인한 상태였다. 휴전 후 어머니가 수원에 도착하자 매산로 3가로 이동해 하꼬방을 짓고 함께 살았다. 이때 최형수 가족은 거처를 옮기며 작은 잡화가게를 열었다.

교사였던 셋째 작은아버지는 월급을 모아 잡화가게를 열고, 미군부대에서 나온 초콜릿 등을 구해 판매하였다. 광교산에서 해 온 나무를 파는 남수동 나무시장에서 나무장사도 하였다. 수원에 온 월남민들은 시장이나 골목에서 잡화 등을 팔았다. 많은 피란민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갔고, 피란민들이 주축이 되어 영동시장번영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최형수는 수원에 정착하면서 피란민종합학교에 진학하였고, 이후 경기공업고등학교(서울 마포), 고려영수학원(수원문화원 및 화성주유소 자리), 수원향교 등에서도 수학하였다. 경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최형수는 건설회사 취업하였지만 수입이 좋지 않았기에, 수원으로 내려와 장사를 하였다. 1959년 군에 입대하여 2년 6개월 동안 육군 5군단 의무부대 위생병과 운천에 파견 근무하다가 1962년 제대하였다. 제대 후 최형수는 수원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29세에 결혼하였다.

황해도민회와 5도민회, 고향에 대한 그리움

황해도민회의 전신은 '연우회'라는 모임이었는데, 연백군민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이었다. 연백군의 읍사무소가 있던 연안 출신의 공직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형수의 부친보다 연배가 높았던 김종준, 임병록, 최도현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하였다. 황해도민회의 결성은 1958년으로 추정된다. 이 외 연백군민회(황해도민회 내 군민회)는 인천에 많은 회원이 있으며, 벽성군민회는 서울에만 있다.

황해도민협회에서 총회를 할 때 초창기엔 700~800명이 모였다고 한다. 대의원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였는데 40~50명이 모였다. 5월 5일 황해도민의 날이 되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총대회를 개최했는데, 2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 연백군민회와 벽성군민회 모임도 서울에서 열리는데, 수원 황해도민도 그 모임에 참석한다.

최형수는 2002년부터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사무국장을, 2005년부터 회장을 역임하였다. 하지만 수원지구 황해도민회의 임원은 2012년 현재 40명 정도이고 회원 대부분은 고령이다. 월남민 2세와 3세는 고향이 수원으로 이북 고향에 대한 향수나 애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연백군과 벽성군 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 38선과 휴전선이 겹치는 지역이라 처음에는 남침하는 길목이었고, 휴전할 때는 더 많은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의 격전장이 되었다. 고향인 벽성군 문해골이나 황해남도 청단(군)의 경우 전쟁의 여파로 소속(북한이나 남한)이 달라지는 비운을 겪었다.

최형수는 월남 후 북한에 가본 적이 없다. 아마 남아 있던 사촌들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척들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었는데, 못 만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세계 평화의 종 관람(최형수 제공)



황해도민회 행사에 참석한 수원지구 월남민들(최형수 제공)

났다고 한다. 최형수는 이산가족 신청을 해서 상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북에서는 대부분 월남한 가족들을 반역자로 생각하고 월남한 가족들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한다. 솔직하게 이산가족을 신청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것조차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향과 월남

면담자 선생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최형수 34년 5월 11일.

면담자 호적하고 실제하고 맞나요?

최형수 그럼 맞지.

면담자 그럼 6·25 때가 17살이었네요?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고향 주소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형수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향산리 207. 우리 동네가 동화은행장 안영모 씨가 이웃에 살았어. 가까이서. 그 양반이 상업은행장 오래 하다가 동화은행장 설립하니까 동화은행장을 맡은 거야.

면담자 같은 이웃이었어요?

최형수 응 거리가 우리하고 100미터나 됐었어.

면담자 마을 부락 이름이 뭐였어요? 향산부락인가요?

최형수 향산리는 리고 우리는 문하리, 문해골이랬으니까.

면담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최형수 우리는 부모님이 다 나오셨고.

면담자 선생님 마을이 집성촌이었나요?

최형수 고향에서는 그랬지. 집성촌이지. 해주 최씨 집안들이 살었지.

면담자 마을이 컸나요?

최형수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해방될 때는 20여 호 살았으니까 큰 거지.

면담자 같이 살던 분들은 조부모님 계셨어요?

최형수 그럼 같이 못 나왔지만, 할아버지 계셨지. 할머니도 계셨고.

면담자 아버님이 장손이세요?

최형수 그렇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1·4후퇴 때 나오고, 어머니는 53년도 휴전될 때 나왔어. 이걸 알면 좋을 거야. 황해도 연백지구 알아요?

면담자 예.

최형수 연백군 전체하고 벽성군 일부가 6·25사변 이후부터 휴전될 때까지 오히려 이북 정치권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 평야 지역이라. 이 사람들이 산악지역을 먼저 침공을 했어. 저 양반 2명(사무국장과 다른 1명 가리킴)이 전부 연백군 출신들이야. 우리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살던 분들이야. 그 사람들도 피란을 다 늦게 나온 편이야.

면담자 6·25 이후에 산악지역 중심으로…

최형수 1·4후퇴 때 중공군들이 밀고 나왔잖아. 산악지역으로 먼저 하고 평야 지역은 간단하니까 그대로 밀고 나오기가 간단하잖아. 그리고 서해 바닷가는 유격대들이 많았잖아. 섬들에. 진공을 못 했어. 그 사람들이 늦게 했지.

면담자 그럼 이북에서 해방될 때는 12살이었죠?

최형수 12살인가? 해방 전에 일정(日政)시기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해방이 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38선 지역에 살았는데 우리 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해골은 38선 너머 이북이었어.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 그런데 내가 남쪽으로 38선을 넘은 것은 48년도에 넘어왔어요. 여기 와서 정부 수립하는 것을 봤지. 우리 정부가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고 이북은 47년도에 한 거야.

면담자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이 더 빨라요. 48년 8월 15일이고 이북은 48년 9월 9일이에요. 9·9절이에요.

최형수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7년도에 이북이 정권 수립을 하고 김구 선생이 왔다 갔다 하다가 못하고 결국 48년도에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한 거야. (사무국장에게) 정부 수립일자가 7월 며칠 아닌가요? 건국회 회장을 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48년 7월 17일인가 될 거야. 건국한 날짜가.

면담자 7월 17일은 우리나라 제헌절인데.

최형수 아니지. 가만있어 봐.

면담자 제가 알기로는 48년 9월 9일이 북한정부 수립일이고 우리가 더 빠른데.

최형수 아니야. 한번 알아봐야지 내 말이 맞을 거야.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48년 7월 17일이 제헌절이 맞을 거야. 정부 수립일이니까.

면담자 선생님 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48년 9월 9일이에요. 어쨌든 해방될 때는 3학년 다니시다가 해방됐네요?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초등학교 이름이 뭔가요?

최형수 우리 벽성군에 제일 남쪽에 있는 게 추화면이 제일 남쪽이야. 거기 추화국민학교.

면담자 그때도 국민학교였어요?

최형수 그럼. 난 이북에서 2년 쉬었다가 넘어와서 또다시 다닌 거야.

면담자 여기 와서?

최형수 (지도를 그림 : 38선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고향은 이북 땅이고 추화국민학교는 이남에 속함) 일정시대에는 소학교라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청단이라는 벽성군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있었어.

면담자 청단이 면인가요?

최형수 아니, 추화면에 청단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장터가 있었다고. 5일장이 열리는 곳이야.

면담자 한마디로 읍내네요.

최형수 38선이 있어서 면소재지라도 컸어요. 면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우리 청단하고 38선까지는 3㎞밖에 안 됐어요. 우리(문해골)는 38선에서 (북쪽으로) 1㎞ 떨어져 있어. 그래서 다시 (38선 이남으로) 넘어왔지. 47년도에 월남을 해서 청단에 와서 살았는데 6·25가 터졌어.

면담자 청단은 남쪽이고 문해골은 북쪽인데, 내려온 거는 해방돼서….

최형수 해방될 때는 문해골에 살았는데 38선이 형성된 거는 한 3년이 지나서 형성되었거든. 초창기에는 차차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38선이 생긴다. 김구 선생이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고 38선이 생기면 안 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47년도에 38선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서는 군인은 창설이 안 되고 경찰만 있었지. 그런데 이북은 인민군 창설을 먼저 한 거야.** 인민군을 여기다 드

---

* 38선은 1945년에 설정되어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최형수는 194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혼돈하여 구술하였다. 1946~1947년에 '분단정부 수립 반대'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실패하고 분단정권이 수립된 것을 38선이 형성되었다고 말하였다.

** 조선로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에 창건되었다.

문드문 배치를 한 거야.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에 초소막을 짓고 인민군들이 한 2명씩 보초를 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왔어요.

면담자 그때는 못 넘어가게 하지 않았나 봐요?

최형수 아니, 못 넘어가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 비울 때, 군부대가 주둔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 비울 때가 많거든. 그리고 골목마다 다 할 수가 없어. 인민군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찰이 48년도에 드문드문 초소를 만든 거야. 군인은 그다음이고, (사무국장에게) 국방군이 언제 창설했어요? 기억 안 나요?

면담자 국방군은 48년도 10월 넘어서.

최형수 그다음에 우리 청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암자리에 많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벽성군에 가까운 데 옹진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섬으로 나올 때 미군 배들이 실어다가 인천에 내려주고, 또 강화도로 해서 넘어온 분들하고 함께해서 집성촌이나 마찬가지로 형성해서 (사시지). 옛날에는 미군들이 밀가루 포대에다가 악수하는 사진이 있어. 유엔에서 보내 준 거지. 바닷가 개간할 때 그이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이들이 곧잘 살아.

면담자 강화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형수 강화도로 넘어온 사람도 있고 섬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는데 옹진 사람들은 대부분 섬으로 넘어왔고,

면담자 미군 배 타고?

최형수 여기 연백지구하고 그 밑에 연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강화도로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면담자 선생님,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문해골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추화국민학교 다니시다가 청단에 넘어온 건 언제라는 건가요?

최형수 그게 다시 말하면 청단에 있는 소학교를 다니는데 해방되니까 막히게 됐단 말이야. 중단이 됐다 말야. 그래서 (38선 이북에) 조그마한 분교를 만들었단 말야. 38선 이북에 학교를 만들어 줬다고. 그런데 그 학교를 가지 않았지. 여기 본교가 있으니까, 한 2년인가 안 다니고 47년도 정도에 해방된 지 2년 만에 다시 청단으로 넘어와서 10리 길을 도보로 다녔지. 청단으로 넘어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면담자 그럼 통학을 한 거네요?

최형수 그렇지 학교를 다닌 거지. 여기서는 가까우니까.

면담자 그럼 졸업은 하신 건가요?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몇 년도에 졸업하셨나요?

최형수 6·25 바로 전에.

면담자 49년도에?

최형수 그렇지, 49년에 졸업을 해가지고 연안이라는 도시에 가서 연안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2년을 낙제한 거지. 연안농업고등학교 17기로 지내다가 한 3개월 학교 다니다가 6·25를 만난 거라.

면담자 연안농고는 38선 이북인가요?

최형수 이남이지. 일단 우리가 47년도에 넘어왔으니까 6·25는 50년이니까 50년 3월 달에 입학을 한 거지. 그전에 9월 달이었는데 한국이 되면서 다 3월 달이 되었는데 고치지 않고 있지. 그런데 우리 절기로서는 9월 달이 좋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야.

면담자 그럼 선생님만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전부 다?

최형수 전부 다 내려왔지.

면담자 그럼 문해골에서 청단으로 아예 이사를 다 한 거네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최형수 이사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47년도, 48년도에는 넘어 다니기 편했어. 큰 길 있으면 그 옆에 조그만 길로 넘어와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38선이 그렇게 수월했어. 그런데 그 중에도 개성의 송악산이라든가 연안의 산 이런 데는 고지가 높아서 경찰이 있어서 넘어 다니기 어려웠지. 그런데 우리는 조금 쉬웠어.

면담자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최형수 5남매

면담자 선생님이 몇 째에요?

최형수 내가 첫째지. 첫째 동생이 3년 아래(남동생). 연년생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여동생이 있고(해방둥이). (이남) 넘어와서 생긴 애가 올해 59인가, 지금 캐나다 가서 사는데(남동생).

6·25전쟁 발발과 연평도 8240부대 활동

면담자 그럼, 청단에 사시다가 전쟁 났을 때는 연안농업고등학교 다니실 때였네요?

최형수 그거 이야기 듣고 싶어?

면담자 네.

최형수 문해골 살다가 넘어와서 옛날 초등학교 들어가서 2년 낙제해서 다시 들어가서 3학년에 들어갔으니까 6·25를 만나던 해 중학교를 60리길 되는 연안농업고등학교 들어가서 3개월 있으니까 6·25가 난 거야. 3월달에 개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고향, 청단으로 가서 6·25를 만나서 지내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벽성군의 일부가 청단인데 38선하고 얼마 안 되니까 연백군의 일부로 흡수가 됐어. 그래서 벽성군 추화면이 연백군 추화면이 됐어. 그게 6·25 났을 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개울 하나로 경계였었는데 연백군이 된 거야.

면담자 추화면이 벽성군에서 연백군으로 바뀐 거네요.

최형수 그런데 지금 5도청에서는 추화면을 벽성군으로 해서 나는 벽성군 소속이야. 그때 실제로 6·25 전에 연백군 추화면으로 행동을 했지. 그러다가 넘어올 때는 전부 갈라져서 왔지. 나는 연평도까지 갔었어요. 작은아버지 따라서. 거기서 유격전우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용매도에 있다가 인천으로 올 때도 개인 중선(中船)을 탔어. 중선이 뭐냐면 나무 배 중에서 큰 걸 중선이라고 그래. 목선 중에. 그게 뭐냐. 고기잡이배인데 연평도에는 조기가 참 많았거든. 지금이니까 영광 조기라고 하지. 영광 조기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조기가 팔뚝만한 거였거든. 이런 조기(손바닥만한 크기)는 조기라고도 하지 않아. 연평도 조기는. 지금도 그거이 백화점에는 더러 있다는데. 10마리 한 두름에 보통 30만 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 탤런트는 그 조기만 사다놓고 먹는다는데. 참 그때는 우리 그쪽 사람들은 그 조기만 먹어 봤지. 지금처럼 요런 새끼 조기는 안 먹어 봤어.

면담자 연평도는 작은아버지 따라가셨다고 했는데 왜 연평도까지 가시게 된 거에요?

최형수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그때 연세가 여기 나오면 군인은 아니고 노무자로 들어갈 나이거든. 그러니까 연평도 친구들이 연평도에 와라. 우리 작은아버지는 해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 우리는 연안으로 갔지만 작은아버지는 해주에서 학교를 다니셨단 말야. 그러니 친구들이 같이 연평도, 백령도로 피란을 나갔어. 장산곶 알죠? 장산곶 그짝으로 가고

옹진 나간 그쪽이 가까우니까 친구들하고 거기로 간 거지.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따라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휴전되는 날 인천으로 해서 (나와서) 수원에서 만났지. 나는 작은아버지를 따라 나왔어.

면담자 선생님 혼자요?

최형수 우리 동생하고.

면담자 그럼 선생님하고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따라서 연평도로 가서서 유격전우회?

최형수 유격전우회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지.

면담자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최형수 8240부대라고 있었어요.

면담자 8240부대. 그런데 선생님이 군인으로 가신 건 아니죠?

최형수 그렇지. 군인으로 간 건 아니지. 그것은 군인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모임을 가지고 구월산에 드나들면서 구월산부대라고 했지, 거기서는. 지금은 8240부대나 구월산부대나 똑같이 유격전우회라고 그러지.

면담자 자발적인 부대이네요.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정식 군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최형수 응.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유공자 대우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면담자 선생님은 안 받으셨어요?

최형수 내가 받을 것이 되나? (웃음) 해 준다는데 모르겠어.

면담자 8240부대 활동은 몇 달이나 하셨어요?

최형수 거기서도 3개월씩 했지. 더 할 수도 없어서 3개월씩을 많이 했어. 오래한 사람은 한 6개월 되었는데 우리는 중간에 나왔어요.

면담자 그때 총 지급받으셨어요?

최형수 총은 개인 지급은 없었고,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갔다 나왔지.

면담자 그럼 연평도로 가신 게 정확하게 1·4후퇴 이후인가요?

최형수 그렇지. 우리가 갈 때가 51년도 10월 달쯤 될 거야. 1·4후퇴 이후지.

면담자 50년 아니고 51년이에요?

최형수 그럼 1·4후퇴가 51년도니까.

면담자 그럼 가을경에 가신 거네요. 51년도 10월 달쯤에 작은아버지 따라서 남동생하고 연평도에 가서서 유격전우회에 가서.

최형수 거기서 밥 얻어먹었지.

면담자 유격전우회 나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형수 용매도에 가서 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고.

면담자 용매도.

최형수 용매도 왔다가 인천으로 온 거예요. 인천에 셋째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교직 생활하는 양반이. 그 양반이 수원에 와 있다고 그래서 밥 얻어먹으러 이리 왔지(웃음).

수원에 오게 된 계기

면담자 그럼 인천에 가서는 얼마 안 있다가 수원으로 오신 거예요?

최형수 그렇치. 그걸 믿고 인천에 오면 밥은 먹고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몇 개월 있으면 들어갈 줄 알고 아무데나 밥 얻어먹을 수 있는 데 찾아가는 거야. 그랬는데 (셋째 작은아버지가) 수원에 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시다고 해서 수원으로 찾아온 거지.

면담자 그럼 수원에 오신 거는 한 52년 봄쯤 되겠네요?

최형수 음(한참 생각하심) 휴전이 언제 됐지?

면담자 53년 7월.

최형수 그렇게 됐으니까 가을철 되겠는데. 우리 어머니 오신 걸 따지면 52년 가을철에 왔겠어. 어머니는 휴전되는 53년 7월에 왔으니까.

면담자 어머니가 나머지 형제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네요?

최형수 우리 여동생 2명 데리고.

면담자 아버님은요?

최형수 아버님은 여기 와서 만났지.

면담자 아버님은 어떻게 내려오셨대요?

최형수 아버님은 백령도까지 가셨어. 유격전우회 때문에. 구월산 갔다가 별로 활동 안 하시고 이리 넘어오셨어.

면담자 그럼 셋째 작은아버지 때문에 여기 오신 거나 마찬가지네.

최형수 그렇지, 수원에 온 거는 셋째 작은아버지 찾아서 온 거지.

면담자 그럼 수원에 오셔서는 이분이 수원에서 계속 교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최형수 그때 이북에서 교사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전부 발령을 내줬어.

면담자 (교사자격을) 인정을 해준 거네요.

최형수 그때 여기 초등학교에 이북서 나온 선생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먼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북한 정권이)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히니까. 이렇게 만져 보고(악수하듯이 손바닥을 훑은 동작을 하면서) 손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아 동무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져서 고운 손은 "아 당신은 고생 안 했구만."

면담자 작은아버지는 해방되고 바로 내려오셨나요?

최형수 6·25 때 먼저 나왔지. 평택까지 갔다가 발령받아서 수원에 계셨지.

면담자 어디에 계셨대요?

최형수 신곡국민학교에.

매산로 움막집과 하꼬방 생활

면담자 그럼 처음 오셔서 거주지는 어디셨어요?

최형수 지금 내가 사는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매산로3가 48-1에 사는데, 매산로2가에 살았어.

면담자 그게 무슨 동인가요?

최형수 매산로2가라니까. 2가에 살다가 3가에 올라왔어. (같이 수원 지도를 보며) 매산로3가, 여기가 매산로2가, 수원역은 매산로1가. 우리는 매산로2가에 살았었어.

면담자 매산로2가는 셋째 작은아버지가 살던 곳에 같이 살았나요?

최형수 그렇지. 같이 살았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지금 수원세무소라고 있어. 나이가 그때 17살이 되었으니까 기억을 하는데. 그 앞에 홍씨가 큰 집을 지었는데 그 앞에 밭이 있었거든. (지도를 보며) 도청에서 남문으로 수원역으로 가는 길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때 수원에 남양홍씨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고등학교 창설한 남양홍씨들이 이 근처에 전부 땅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수원세무소가 홍씨 집안이. 이 큰 도로를 일본 사람들이 낸 거야. 낼 때 수원세무소 자리를 국가에 기증했다는 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야기가 있어. 확실한 건 몰라.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사람 땅이 있어서 지금도 집을 한 채 지었더라고. 암튼 그 자리에 밭이 언덕이 있었는데 그걸 파고서 움막처럼 짓는 거라. 보로바꾸(종이상자)라는 말 모르지?

면담자 네.

최형수 그때 박스 만드는 것을 일본말로 보로바꾸라 그래. 케이스(상자)를 바꾸라고 그래. 그때 레이션박스라고 해서. 박스가 영어 아녀? 레이션박스가 뭐냐면 한 박스에 감자 다져서 소고기 간 것, 커피 한 봉지, 설탕 한 봉지, 비스킷도 들었고, 여러 가지 간식 들은 것, 전방에서.

면담자 씨레이션 말하는 건가요?

최형수 그렇지. 씨레이션, 그것이 한 박스에 6개씩 들었어요. 그 뚜껑 속에 골판(지)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흔했어요. 미군부대가 있었거든. 수원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흔해서 그걸 구해서 지붕에다 그걸 많이 올리고 살았어.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깡통을 가지고 다 이어서 함석을 만들어서 전부 지붕을 만들어서 살았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그걸 이어서 거기서 살았지. 그러다가 거기서 한 2~3년 살다가 하꼬방(판잣집) 지어서 거기서 보로박스 지어서 살았지.

면담자 언덕길에 움막을 짓고 사셨다고 했는데 선생님 집만 그랬나요. 아니면?

최형수 몇 집이 그렇게 살았지.

면담자 거기는 피란민이나 토박이 가릴 것 없이 그냥?

최형수 그때 당시는 수원이 5만(명)이 안 됐어. 5만이 되면서 수원시가 된 거거든. 김한복 씨가 수원시장 할 때. 문화원 가면 다 알 거야. 김한복 씨가 초대 시장했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단속을 해서 아무나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지. 영동시장도 형편없었지. 다 여기저기 아무 데나 사람 기거할 데만 내놓고 장사하고 그랬지.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 할 거야.

황해도민 정착촌

면담자 그럼 어쨌든 피란민들 따로 모여서 사는 건 아니고?

최형수 모여서 살던 데는 세류초등학교 알죠? 세류초등학교 지나가면 세류1동이야. 거기가 황해도피란민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도 정부에서 수용소라고 해서 크게 지어준 게 아니라 나무들 얻어가지고 조그맣게 방을 지어서 깡통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덮은 사람도 있고 레이션 박스로 지붕을 덮은 사람도 있고. 여기도 똑같애. 철원군민수용소가 그랬어. 다 그냥 그걸 하꼬방이라고 그래. 전부 그렇게 짓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하나 양성화시켜서 벽돌로도 집을 짓고 몇 십 년 동안 산 거야. 그리고 황해도 피란민들은 거기하고 화성군에 저짝. 고색동 알아요?

면담자 이름만 들었어요.

최형수 거기를 지나면 비행치라고 있어요. 거기가 황해도 피란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기 봐. (지도를 봄) 수원역에서 나가면 고색동 아냐? 수원비행장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화성시 배양동)에 집성촌(피란민 정착촌)이 있었어요.

면담자 그럼 이곳은 행정구역상 수원인가요?

최형수 아니치. 화성이지. 수원비행장에서 고색동으로 나가는 길에 지금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밥도 해먹고 거기서 하꼬방 지어놓고 많이 살았어. 황해도 사람들이.

수원시 시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면담자 여기가 황해도민 정착촌이 있었다는 곳이라는 거죠?

최형수 응.

면담자 그럼 황해도민 정착촌 중에서 가장 큰 곳은 세류1동인가요?

최형수 수원시 내에서는 세류1동이 제일 많았지.

면담자 황해도 분들이 왜 세류1동으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최형수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류동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다가 지금은 세류1동사무소가 옮겨졌지만, 그때 세류1동사무소 뒤에가, 그때 대한방직 알겠소? 대한방직 뒤쪽으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지. 그 도로가 뚫렸는데 요번에 다 헐렸어.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사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기가 참 그렇더라고.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활동

면담자 그럼 대략 황해도민협회에서 파악하기로 수원에 황해도민들은 몇 명이나 계신 거 같으세요?

최형수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국장에게) 초창기 황해도민 총회할 때는 700~800명씩 모였죠? 광교에서 할 때 안 가보셨어요?

사무국장 나는 안 가봤어.

최형수 안 가보셨구나. 그때는 황해도민 총회하면 700~800명이 모였다고.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한 집에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회원들도 임원진이 수원지부 도민회를 하면, 임원진이 대의원들인데 매주 월요일에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고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40~50명이 모였는데 근래에는 20~30명밖에 못 모여요.

면담자 대의원들 모임 하면요?

최형수 응.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조문선 회장님이 맡다가 내가 맡은 지 7년 정도 돼요. 딴 사람하고 교대하고 싶은데 다들 하려고 안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해주면 좋은데 다 회비 받아가지고 하니까 힘들거든. 서로 안 하려고 하지. (웃음) 또 연세가 많을수록 고향에 대한 그거가(애착이) 많은데. 우리 2세들은 고향을 모르니까 생각도 안 해.

면담자 2세들은 수원을 고향으로 생각하나요?

최형수 2세, 3세들은 다 그렇지. 우리가 2세나 마찬가진데 우리의 2세들은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젊은 층에 속하거든.

면담자 선생님은 고향을 물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황해도라고 하세요?

최형수 그럼.

면담자 선생님의 자제분들은요?

최형수 이놈들은 수원이라고 하지. 우리 막냇동생이 여기서(수원) 낳아서 간혹 이북 이야기를 하는데 이북 이야기는 안 통한다는 거라.

면담자 같은 형제인데도 벌써?

최형수 저번에 5월 5일 황해도민의 날이에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중앙회를 중심으로 5도청이 있는 건 알아요?

면담자 알죠.

최형수 5도청 황해도민회가 주관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총대회를 해. 체육대회를 해. 그때 모이는 사람이 2만 명씩 된다고 하잖아. 다녀가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 애들은 참석하려고를 안 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정연구센터

면담자 주로 어르신들만 모이시겠네요?

최형수 그렇지. 우리 막냇동생이 해방둥이인데도 잠실 2단지 사는데 거기 오라고 해도 잘 안 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무슨 저기로 가냐고. 그니까 70세(1943년생) 미만들은 향토율(향토애)이 부족해서 참여하려고 안 해. 부모들은 나오는데 거기 친구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적어도 73~74세는 되어야 반갑다고 그렇지. 70세 미만은 별거 없어.

면담자 선생님 지금 가시면 친구들은 있어요, 지금도?

최형수 그럼. 많지.

면담자 초등학교 친구들?

최형수 응. 내일은 동두천 황해도민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면담자 선생님이 직책을 맡고 계셔서.

최형수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이 가게 되지.

면담자 선생님이 직책을 맡으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죠?

최형수 7년이라고 했잖아.

면담자 황해도민 수원지부 회장 된 게 7년 되신가요?

최형수 응.

면담자 그럼 몇 년도에 맡으신 거죠? 2005년에 맡으셨나?

최형수 도민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면담자 그건 언젠가요?

최형수 (수첩을 보시며) 2002년이네.

면담자 도민회라는 건 경기도민회인가요? 황해도민회인가요

최형수 황해도민회.

면담자 그럼 황해도민회 사무국장을 2002년에 맡으신 거고.

최형수 그리고 회장이 된 거는 (수첩을 보시면서) 2006년도에 맡았나 보네.

면담자 아. 그럼 회장하신 지 7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최형수 2005년인지, 2006년인지 헷갈리네. 아, 2005년 5월 달. 우리 중앙도민회 행사를 하고서 내가 맡았거든.

잡화가게 운영과 정부의 월남민 지원

면담자 그럼 선생님은 매산로에서 움막에서 사시다가 그 근처에 하꼬방 짓고 사셨나 봐요?

최형수 움막은 땅을 파고 지붕을 가린 것을 움막이라고 그러고, 하꼬방은 기둥 세우고 보로박스로 이은 것을 하꼬방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움막생활을 한 것이 거의 1년 반쯤 했을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움막은 춥지가 않아요.

면담자 그런데 선생님 움막이 잘 상상이 안 돼요.

최형수 예를 들어서 세멘트(시멘트) 집보다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 더 좋다는 것이, 아프리카도 보면 집이 다 토담으로 지었거든. 왜 그러냐 이게 온도가 희한해요. 흙집은 열을 덜 받고 전달하는 걸, 한기도 덜 받고. 그래서 (겨울에) 따뜻해. 여름에 서늘하고. 희한해. 기와집보다 볏짚으로 이은 집이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다 야자나무 잎으로 덮지. 함석으로 덮은 사람은 근래에 와서 그러지. 그전에는 없잖아.

면담자 그럼 움막에서 1년 반 사실 때 식구들이 전부 함께 살았나요?

최형수 아니, 그때는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남동생하고 셋이서 살고, 또 우리 마을에서 같이 나온 사람 한 사람하고 넷이서 살았어. 그때 우리 어머니는 휴전되는 날 나와서 옮겼지.

면담자 어머니 오시기 전까지는 움막에서 사시다가 어머니 오시니까 하꼬방에서 사신 건가요?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하꼬방은 그 옆에 지으셨어요?

최형수 그것도 매산로2가에 살다가 3가로. 그래서 도로변에 나가서 제대로 가게를 차린 거야. 점포를.

면담자 가게 하셨어요? 무슨 가게? 잡화상?

최형수 잡화 가게.

면담자 그걸로 경제활동을 하신 거네요? 참, 움막을 짓는 거는 허가가 없어도 되나요?

최형수 그럼. 그때는 허가가 뭔 필요 있어? 정부에서 그 사람들 굶어죽지 않으면 좋게(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꾸 아사자가 나타나면 곤란하잖아. 그때는 정부가 도와줄 돈이 없잖아.

면담자 정부 지원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최형수 지원은 못 받았지.

면담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철원연락소, 개성연락소 이런 데는 등록을 하면 배급을 받았다고 하던 데요?

최형수 그것이 아까 집성촌 이야기했잖아. 황해도피란민수용소에 가면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넉넉히 제공을 받지 못하였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손 악수하는 UN에서 보낸 밀가루 포대 그거나 가끔 한 번씩 받고, 딴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면담자 그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최형수 그렇지. 그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가지고 왔어요. 이북에서. 그런데 38선 이남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 화폐를 그대로 썼잖아. (이북) 집에 있는 것 꾸려서 나왔지. 여기서 도와준 건 별로 없어. 나는 밀가루 포대 한 번 받아 본 건 있지만 거기서 받아 본 건 없어. 우리는 작은아버지 때문에 알랑미(안남미)라고 들어봤지?

면담자 네.

최형수 그게 월남 쌀이거든. 그런데 6·25 되고 나니까 솔직히 우리가 필리핀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6·25 후에 많이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은 저렇게 됐습니다만. 미군들이 나가지만 않았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경제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 필리핀에서 이것저것 도와줬지 아마. 건물도 지어주고.

면담자 안남미.

최형수 그렇지. 꼭 안남미만 아니고. 그쪽에 들어온 걸 미군들이 그걸 받아서 UN에서 공무원들에게 싹 배급을 줬지. 그런데 안남미라는 게 메져(끈기가 적다). 남쪽에 가면 손으로 밥을 꼭꼭 눌러서 먹거든. 우리 한국 쌀은 찰기가 있어서 숟가락으로 뜨면 덩어리가 돼서 그렇게 먹는데 안남미는 손으로 쥐어서 먹느라고 그런가 봐.

면담자 네. 그러시다가 매산로3가로 옮겨서 하꼬방 지어서.

최형수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조그만 가게를 차려서 뭐부터 하느냐 미군 부대에서 나온 초코렛부터 시작해서, 돈도 좀 월급 타는 거 있으니까.

면담자 월급?

최형수 우리 작은아버지가 월급 타니까 처음 1년에는 쌀가게도 조금 했지. 그리고 광교산에서 나무들 비어다가 쪼개서 쌓아 놓고 말리면 나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도 팔고… 무슨 장사라고 할 수도 없지. 남수동 아나?

면담자 네.

최형수 남수동이 전부 나무 장사하는 데야.

면담자 네, 저도 나무장사 하시는 분 만났어요.

최형수 만나 봤지?

면담자 네. 광교산에서 나무 띠어다가.

최형수 띠기는 뭘 띠어 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무조건 베어 오는 거야. 지금 소나무들이 다 요렇게 됐어. 그때 당시는 도청 짓기 전에 맨 먼저 공설운동장을 만들었어요. 그 주위에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저녁에 몰래 베어다 떼는 거야. 잡아다 처리할 도리가 없어요. 저녁에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정부에서도 눈감아 주는 거야.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싹 베었는데 저렇게 자란 거야.

면담자 선생님도 직접 나무 베셨나요?

최형수 그럼.

학교 진학과 군 입대

면담자 여기 와서는 학교는 그걸로 해서 끝났나요?

최형수 여기 종합학교라는 게 있었어.

면담자 어디요?

최형수 농대 안에 종합학교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한강 아래로 피란 나온 사람들이 임시로 전부 학교를 같이 다녔어. 서울고등학교니 경기고등학교니 해서.

면담자 무조건 피란민들이면?

최형수 응. 한동안 그걸 했어. 거기서 좀 다니다가 서울 가서 기공을 다녔어.

면담자 기공이 뭔가요?

최형수 경기공업고등학교. 저기 마포에 있는 거.

면담자 거기 다니셨어요?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셨네요.

최형수 많이 다녔지. 여기서도 또 어디 다닌 줄 알아요? 고려영수학원이라고 있어. 그때는 학교가 수원고등학교하고 농업고등학교밖에 없었는데 삼일고등학교가 생긴 거지. 수성학교 이런 건 없었어요. 도청 입구 있는 데에 수원여성회관인가 있지? 지금 문화원 밑에 내려오면. 거기 화성주유소인가 있어. 거기가 고려학교 자리야. 향교에서도 조금 배우고.

면담자 선생님이 장남이니까 공부하라고 시킨 건가요?

최형수 그렇지. 거기에 한 식구들이 사니까 가게는 뭐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없어도 되잖아. 그리고 학교나 학원이 시원찮아서 꼬박 5시간 6시간 하지도 않았지.

면담자 그럼 졸업장은 어디서 타셨나요?

최형수 서울에서

면담자 경기공업고등학교?

최형수 응.

면담자 그다음에 직장은요?

최형수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조금 다녔어. 어디라고 할 것도 없는 데를 댕기다가 여기서는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는 건설회사가 별로였거든. 그래서 장사하는데 도로 내려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다시 내려왔지.

면담자 그럼 수원 내려와서 장사하신 건 몇 살 때쯤 되신 것 같으세요?

최형수 장사한 거?

SRI 수원사회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건설회사 다니다가 수원 내려오신 거?

최형수 그때 (한참 고민하심) 몇 살 때냐.

면담자 그럼 결혼은 몇 살에 하셨나요?

최형수 29살.

면담자 서울에서 하신 건가요? 수원에서 하신 건가요?

최형수 수원에서 했지.

면담자 내려와서 하신 거네요.

최형수 내가 그때 군대를 안 가려고 기피를 했어요. 그러다가 4·19혁명이 날 때 그 전년도에 군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안 갈 수가 없어서.

면담자 그럼 59년도에 군대를 간 거네요?

최형수 참 4·19가 언제지?

면담자 1960년도에요.

최형수 60년이지? 59년도 되겠다. 그때 군대를 가가지고 그때 군대가 2년 6개월이었거든. 제도가. 그래서 62년도에 제대를 했다고.

면담자 군대는 어디로 가셨어요?

최형수 나는 5군단에 가서 위생병 생활을 했거든. 5군단 의무부대에 있다가 운천 탱크부대에 파견생활을 했어. 나는 군대 생활을 편하게 했어.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결성

면담자 황해도민회 활동하면서 보기에 수원의 월남민은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형수 그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지금도 모르겠어. 많았지. 수원이 수원읍이었다가 수원시가 될 당시에는 피란민이 참 많았어. 황해도에서 온 사람들 있지, 철원에서 온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뿐 아니야. 평남, 평북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

면담자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최형수 그때는 황해도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거야. (사무국장님에게) "사무국장님, 그때는 황해도 사람들이 제일 많았겠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황해도민회를 한번 하면 700~800명씩 모였거든.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없거든. 그걸로 봐서는 황해도민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 그러면 황해도민회는 아예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모임이 쭉 있었던 거죠?

최형수 그렇지. 여기 과정을 이야기해 줄까?

면담자 네.

최형수 황해도민회 전신이 '연우회'라고, 연우회는 연백군민회 친구들끼리 모임이라고 해서 연우회야. 연우회는 그때 여기 나온 경찰이라든가 연안에 살던 (이때 사무국장님이 황해도민회 연혁이 적힌 노트를 보여줌) "아! 이걸 이야기해 줘야겠구나."

면담자 네.

최형수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다 작고한 분인데, 살았으면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야. 여기 김종준 씨는 수원에 제일 처음 지은 어린이집이 중앙어린이집이라고 노란 버스를 운영하던 데가 있어. 연무동에 가면 경기도사회봉사회가 있다고. 이 양반이 연안 사람이야. 연백군의 읍사무소가 있는 중앙 소재지가 연안이거든. 거기서 나오신 분인데 이 김종준 씨라는 분이 수원에 나와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수원시청에 임병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록 씨라고 총무과장을 하던 분이 있어. 또 경찰서 경무과장을 한 최도현이라는 분이 있어. 전부 작고하신 분들이야.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

면담자 전부 황해도 출신인가 보네요?

최형수 그래. 이 양반들은 황해도라기보다는 연안 출신이야. 이 양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황해도민회를 만든 거야. 여기에 2대, 3대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몰랐어. 그러다가 연우회라는 게 조직이 되면서 이 양반들이 주축이 될 때 내가 거기에 가봤지. 그래 나는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양반들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야. 더 위야.

면담자 연우회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최형수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면담자 (수첩을 보며) 1958년 10월 20일인가 보다.

최형수 이게 황해도민회예요.

면담자 황해도민회가 5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연우회는 그 전부터 있었건 거라는 거죠?

최형수 그래서 나는 이건 잘 모르는데 대충 알기로는 어떻게 조직됐냐면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타향에 와서 사는데 우애 있게 살자 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그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봉급이 나오니까 좋았지만, 나머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황해도민회는 195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우리 조문선 회장이 다 이 기록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철두철미하게 한 거예요.

면담자 조문선 회장님이 정리하신 거군요.

최형수 다 그 양반이 하신 거야.

면담자 이런 기록이 있으면 너무 좋죠. 지금은 회장님이 몇 대인가요?

최형수 내가 16대로 되어 있네. (웃음) 조문선 회장이 내 윗대인데 오래 했네. 12대부터 15대까지 했네.

면담자 그럼 회장님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최형수 우리는 2년에 한 번, 우리 황해도민회는 중앙도 보면 대개가 2년에 한 번이야. 2년씩 해가지고.

면담자 조문선 회장님은 8년 하셨고, 회장님은 7년째 하시는 거고?

최형수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일하기가 참 좋았어요. 관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여유 있게 살았어. 그 전부터 참 괜찮게 살았거든. 못살았다고 해도 지금도 못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아. 가게 사람들은 보기만 좋지. 속은 텅텅 비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협조하면 매사 일이 잘됐어요. 지금도 그래.

면담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연우회가 꾸려져가지고?

최형수 여기 초대(회장) 보니까 이 사람이 수원지법 판사야.

면담자 이게 연백군민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최형수 아니, 이건 황해도민회를 이야기한 거고. 이 중에서 연백군민회가 또 조성이 됐어요. 이 안에서. 황해도민을 구성해서 이 양반들이 만나기만 했지 크게 뭘 못 했어. 활동을 많이 한 거는 조문선 회장이 맡아서 중앙회 부회장을 했거든. 이 양반이 우리 수원 지역에 도민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애썼지. 그런데 큰 행사는 다른 양반 대에 큰 행사를 800명씩 모인 행사를 한 거야.

면담자 벽성군민회는 따로 모임이 없나요?

최형수 중앙에 있지. 여기는 없어.

면담자 중앙에 있어요?

최형수 그럼. 크지. 벽성군민회가 왕십리에 있고, 연백군민회가 거기 무슨 동이냐?

면담자 군민회 자체는 중앙에 있네요. 지역별로는 없고.

최형수 군민회는 지역에도 더러 있기는 한데 현재 군민회는 서울에 있어요. 황해도만 해도 군이 많은데 서울에 다 군민회가 있어요.

면담자 군별로 다 있어요?

최형수 연백군민회는 거기도 있지만 인천이 커. 아주 활성화가 잘 됐어.

면담자 인천에 많이 사시겠네요. 저기로 많이 오니까.

사무국장 연백 사람이 가장 많은 데는 인천이에요.

면담자 그렇겠네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내려왔을 테니까. 그럼 수원에 애초에 피란민들이 모여서 배급을 피란민촌에 살던 사람들은 세류동 그쪽에 사셨고, 개별적으로 사신 분들은… 선생님은 개별적으로 사시는 케이스인 거죠?

최형수 그렇지. 우리는 집성촌에는 안 들어갔거든. 집성촌은 여럿이 모여 사는 데인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피란민수용소라고 해서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척했을 뿐이지 그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기 많이 모여 사니까 "아, 어디는 피란민수용소다."라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 확실히 정부에서 피란민수용소라고 해서 만든 건 없어.

면담자 형식적으로 피란민수용소라기보다는 그쪽에 많이 거주한다?

최형수 그런데 연무동에 철원민수용소라고 하는 데는 그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당시는 철원 사람들은 거기가 운동장이었어.

면담자 공설운동장요?

최형수 응. 거기다 하꼬방을 짓고 살게끔 그걸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수용소가 된 거지. 집을 쭉 지어서 김가 주고 이가 주고 그런 건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정부에서 지어준 건 아닐 거야. 그런데 자꾸 그걸 양성화시켜서 정부에서 나중에 허가도 해주고 시에서 불하도 받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됐지. 차차.

황해도 음식문화

면담자 그럼 황해도라고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다거나 지키는 풍습이 있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최형수 글쎄 나도 여기 올 때가 17살에 왔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북 음식이 뭐라는 것만 알지. 우리 특별하게 우리 고향에서 따로 해먹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북 음식을 따지면 은절미를 만들면 이렇게 크다는 것(주먹을 쥐시며).

면담자 은절미가 뭔가요?

최형수 찹쌀떡. 일본서는 앙꼬모찌라고 하잖아. 팥 들은 거. 그런데 우리 고향에 가면 떡을 만들 때 팥을 삶아서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찹쌀을 해서 떡을 만드는데 떡이 컸어.

면담자 한 마디로 찹쌀떡이네요.

최형수 은절미라고 하지. 그런 거하고 여기는 빈대떡이 순수 녹두빈대떡이 없었거든. 녹두빈대떡. 또 냉면도 사실 없었어요. 다 이북 음식이야. 그래서 엊그제도 이야기할 때 청단에 냉면 파는 집이 있었어요. 해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부터 있었던 가게거든. 누가 그 이야기를 비치더라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황해도 음식이 한두 가지 있지. 여기도 그때 냉면이 있었겠지? 근데 우리 집식구도 수원 사람인데 나보다 한 5년 차이인데 7년 차이인가. 몰라 따른 특별한 것이 있는가. 우리 어머니하고 살 때도 몰라. 여기(황해도) 음식이라고 해서 따로 없어.

어머님의 월남

면담자 어머니 아버님은 수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최형수 여기서 돌아가셨지. 내가 말했잖아. 휴전되는 날 어머니가 우리 여동생 둘 데리고 나왔다고. 휴전될 때 만난 거야.

면담자 어머님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뭐 타고?

최형수 그것도 얘기만 들은 건데, 우리 고향 청단이라는 데가 용매도라는 섬을 나가는 데까지가 면소재지를 거쳐야 되는데, 추화면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30리 돼. 흔히 지금은 바닷가에 놀러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바닷가에 놀러 가는 게 없거든. 조개 캐러 가는 건 먹고살기 위해 조개 캐러 가는 거고. 간혹 조개 캐다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개를 캐다 파는 거였죠. 그것도 시장에 많이 파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이 음식이 흔한 데야. 벽성군 지역하고 연백군이. 쌀은 연백군이 벽성군보다 더 많았고.

그랬는데 우리 청단에서 용매도 나가는 바닷가가 한 30리 그러니까 12㎞ 정도 되는데, 휴전이 되는데 우리(가족)가 다 (남쪽으로)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작은어머니는 못 나오셨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맡겨야 하니까. "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올 테니까 집은 자네가 맡아 보게." 하고는. 나하고 같이 백령도에 갔다는 작은아버지의 마나님이지. 우리 작은어머니가. 그분하고 사촌 2명을 남겨 놓고 걸어서 나와가지고 조개 캐는 것처럼 올라오다가, 용매도라는 섬으로 걸어 들어갔지. 용매도는 바다가 가물가물한데 물이 싹 나가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요. 물이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 거기 왔다가 용매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인천으로 가면 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우리 집안이 좀 낫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 대에.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 "아 누구네. 그러니까 인천 갔으니까 가라."고. 그때 면장이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어. 그래서 인천 와서 면장을 찾아갔대. 아 수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수원에서 만났지.

그런데 그때는 휴전이 되면서 미군이 수송선으로 인천으로 많이 실어다 주고, 또 용매도에 사는 어부들이 돈 걷어서 주면 중선을 가지고 인천까지 데려다 주고 그랬어. 나는 중선을 타고 가다가 도로 다시 왔어. 왜냐면 여기 심청전 알지? 거기서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용매도에서 인천에서 오는 길에 한백곶이라고 해서 물이 돌아.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잘못돼서 물이 들어올 때 뭐라 그럴까 물이 회전을 한다고. 섬이 있으면 그 섬을 쭉 돌아서 온다고. 그래서 배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물이 도는 데서. 그래서 물이 한참 돌 때는 배가 지나가질 않아. 도로 귀향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갔다고 돌아와서 그다음 날 인천으로 나갔지.

면담자 네. 그건 선생님 나오실 때 이야기인 거죠?

최형수 그렇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는 뭘 타고 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어. 분명히 그냥 중선 타고 나오셨을 거야. 목선 고기잡이배 큰 거를 중선이라 그랬거든.

면담자 그거는 돈 주고 타는 거죠?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미군에서 따로 수송하는 게 아니고?

최형수 그렇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면담자 그럼 어머니는 선생님을 찾으러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피란을 나오시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최형수 (가족을) 찾을 겸, 피란 나올 겸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면담자 하긴 휴전이 됐으니까요.

최형수 그렇지.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며칠이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나왔고 그 뒤에는 2~3개월이면 다 수복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1·4후퇴 전에 6·25 나고 압록강까지 들어갔잖아. 그때 나는 피란을 안 나갔지만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어. 그때 섬으로 피란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용매도 같은 데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1·4후퇴 때 쫓겨나온 거지.

월남민들의 경제활동

면담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경제활동, 돈 버는 것은 주로 뭘 하셨어요? 피란민들.

최형수 초창기에는 거의 다 장사했지. 장사도 여러 가지 했지. 잡화상도 하고.

면담자 주로 시장에서?

최형수 시장에서도 하고 골목에서도 하고. 우리 황해도민 중에도 시장에서 한 사람들이 꽤 있지.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장사 안 해.

면담자 이제 장사 안 하시고? 60~70년대에 장사하셨으면 괜찮게 사신 거죠?

최형수 (사무국장님을 가리키며) 저 양반들도 다 장사하던 분들이여. 전부 다. 그러다가 나이들이 많으니까. 내일모레 팔십이잖아. 그러니까 손 놓은 지가 한참 됐지. 그때는 다 장사했지.

면담자 장사하셔서 그때 당시 다 잘 사신 거죠?

최형수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북 사람들을 상당히 존경을 했어. 아주 생활력이 강하다고. 수원 사람보다 우리 이북 사람들이 잘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왜냐면 알몸땡이(알몸뚱이)로 나왔는데 자기가 움직여 뛰지 않으면 먹고살 수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버는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에 발뙈기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태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수원 친구들 만나면 "이 새끼들아 이북에서 피란 나온 사람들이 영동시장번영회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지. 니들이 우리 아니면 수원이 이만큼 됐냐."라고 농담을 한다니까.

면담자 (웃음) 그럼 그런 말 들으면 다 수긍을 하세요?

최형수 뭐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농담으로 하니까.

면담자 공직에 있던 분들 빼고는 다 장사하신 거네요?

최형수 그럼.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좋았어요. 누가 보증만 해주면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사를 들어가 보지 못했어. 어려서 나왔으니까 장사하는 데로 많이 붙었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동업도 하고, 조그만 회사 들어가서 심부름해주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편이야.

면담자 선생님도 장사하였나요?

최형수 그럼, 내가 학교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수원 와서 가겟집을 차렸지. 그 가게를 오래했어.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었어. 조그만 가게들이 많지를 않았거든. 그런데 요행이도 수원 양반들이 상공회의소 소장님도 그렇고 시장에 장사하면서 그 양반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럭저럭 남한테 쌀 꾸러는 안 다녔지.

면담자 계속 매산로에서?

최형수 그럼. 그 자리에서 참 오래 살았는데 지금도 3층에서 살아. 그 밑에는 세 주고.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행사

면담자 그럼 여기(황해도민회)는 월 1회씩 모임하나요? 대의원들 모임?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행사는 뭐가 있어요? 제일 큰 행사? 수원지구 황해도민회에서?

최형수 제일 큰 행사는 그거지 뭐. 중앙회 5월 5일 황해도민회 행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간혹 그거해요. 벽성군민회, 연백군민회가 중앙에서 하도록 하거든 그러면 거기를 가기도 하고 못 갈 데도 있고 그렇지 뭐.

면담자 벽성군민회날이 따로 있나요?

최형수 그렇지

면담자 언제예요?

최형수 몰라. 중앙에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같은 벽성군민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연백군민은 연백군민대로 마포 그쪽에서 늘 가고 그래요.

면담자 주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나요?

최형수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지. 황해도 도민이 각 군민체육대회가 있어요. 우이동에 무슨 학교인가 거기서 체육대회 하는 게 있어요. 군민체육대회를. 거기서 군 대표들이 가서 하는 거고, 황해도민회 체육대회는 단체들끼리 하는 거는, 과천 청사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10월 14일 날 효창공원에서 매년 5도민체육대회가 있어.

면담자 그것도 되게 큰 행사네요. 그럼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는 행사는 뭔가요?

최형수 그거는 황해도민의 날이야.

면담자 지금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참석 여부를 떠나서. 전체 관리되고 있는 회원 수?

최형수 지금 우리 임원 명부는 현재 거가 한 40명 되죠.

면담자 임원만?

최형수 그렇죠.

면담자 전체 회원 수는요?

최형수 전체 회원 수는 있을 수 없어. 그냥 그때그때 오는 사람마다 회원이 되니까. 그리고 참여율이 그전 같지가 않아.

면담자 통상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최형수 우리 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에게) 우리 제일 나이 젊은 사람이 75세 없죠?

사무국장 지태영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

최형수 그 사람이 지금 해방둥이일걸?

면담자 그럼 젊으시네.

최형수 바빠서 나오지 못해. 일을 해야 되니까.

면담자 그럼 통상 70대 중후반으로 보면 되나요?

최형수 통상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75세 이상으로 보면 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면담자 그러면 금강산 가보셨나요?

최형수 금강산은 못 갔지. 이번에 가야 하는데 맥혔잖아. 우리 고향에 있을 때는 나이가 어려서 못 갔고, 도로도 그때는 불편했고. 지금처럼 잘해 놓지 못했으니까 금강산은 못 갔어. 아마 간 사람 조문선 회장밖에는 없을 거야. 우리 회원 중에는.

면담자 그럼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한 번도 북에 가본 적은 없으시네요?

최형수 못 갔어. 갈 기회가, 내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봉사단체에서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 그때 평양 갈 때 돈을 좀 내라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평양에 돈 갖다주고 왜 가느냐 말야." 그래서 억지 부려서 안 갔지. 차라리 그때 갔으면 구경이나 하고 오는 건데. 그때 한동안 남북 교류할 때 김대중 때 그때 드나들었잖아?

면담자 그렇죠.

최형수 그때 평양에 회비들 걷어서 갔다고.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살아계실 때 통일이 된다 그러면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최형수 아유 지금도 가고 싶지. 말이라고 해.

면담자 고향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최형수 지금 할아버지가 사셨으면 120~130살 되셨는데 뭘.

면담자 지금은 작은댁 사촌들이 남아 있겠네요?

최형수 응. 개들이 있겠지.

면담자 그럼 친척들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최형수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이북 사람들이 서로 신청해서 만나고 그랬잖아.

면담자 네. 이산가족.

최형수 우리는 그거를 못해 봤어. 우리 직계들은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개들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재혼을 했거든. 개들(재혼한 작은아버지 아이들)이 그걸 한 번 해봤대. 안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해봐야 안 되는 것이. 월남 가족에 대한 것은 웬만해서는 없다고 하고 말지. 해주질 않아.

면담자 북에서?

최형수 북에서. 그러니까 다 알잖아. 그전에는 신청해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신청해 봐야 월남한 사람은 다 반역자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없다 이런 사람 없다고 하면 그만이야. 만약 여기서 그랬다면 공무원한테 달려들어서 "야 이 자식아 나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하겠지만, 거기는 못 그렇잖아. 없다고 하거나 당신 와 그러면 오고, 가봐 그러면 가고 그러니 모르는 거야. 일반 사회활동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있어. 이북에 지금 돈들을 보내. 가족들한테. 탈북자들 만남을 하고 있어요.

탈북자들과의 만남

면담자 그래요? 5도민회하고 같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최형수 아니 5도민회에서. 수원지구 5도민회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데 각 팀별로 되어 있어. 한 40~50명이 만나는데 우리 팀도 5~6명 돼.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재미가 없는 게 만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 자금 탈북자들은 두만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면담자 그렇죠.

최형수 그럼 함경도 사람이라고. 우리 황해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서해로 넘어와야 하는데 서해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 백령도 앞으로, 장산곶 앞까지 조그만 가면 경계를 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 봐야 압록강으로 가서 넘어와야 하는데 여권 없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함경남북도 사람들은 두만강으로 넘어오는데 여기 탈북자들은 2만 명이 넘는다는데 다 함경도 사람들이야. 평안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함경도 사람들이야. 그러니 재미가 없어. 우리 고향 사람이면, '한 다리 건너 천 리'라고 황해도 사람을 만나면 더 반갑거든. 같은 이북 사람이라도 함경도 사람은 그냥 그러고 마는데 황해도 사람 만나면 "아 그러오?" 하고 아주 친절하게 지내지. 그게 달라요. 그렇게.

면담자 신기하네요. (웃음) 그럼 1·4후퇴 때 넘어온 거는, 월남한 거는 북한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최형수 그렇지. 다 그렇게 된 거야. 월남한 사람들은, 물론 특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압제를 받고.

면담자 그럼, 북한에서 북한 당국에 핍박받을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최형수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조금 낫게 살았어요.

면담자 지주? 옛날 말로.

최형수 응. 그래서 뭐 그건 그렇지 않은데, 나오게 된 동기는 우리 아버지 먼저 나왔고 우리는 작은아버지 따라서 나왔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일 한 사람은 손을 한번 만져 보고 손이 껄끄러운 사람은.

면담자 노동자, 농민이면?

최형수 그렇지. 애국자요 그렇고, 매끈한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밥술 먹는 사람은 '나왔다가 3개월 있으면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다 나온 거지.

외가 식구

면담자 아버님,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최형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셨으면 99살이지. 우리 아버지는 생존하면 95살. 네 살이 아래야. 고향에서는 옛날에는 민며느리식으로 해서 여자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래. 신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연하인 게 맞대요.

면담자 여기 오셔서 연세가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아버님, 어머님은?

최형수 아버지는 76살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78살에 돌아가셨구나.

면담자 그럼 아버님 먼저 돌아가신 건가요?

최형수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지.

면담자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아버님, 어머님은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셨겠네요?

최형수 그렇지. 그 양반들이 더 그랬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리워해도, 우리 외가가 8·15해방 되면서 서울로 왔어요.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여기와 살아계셨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고 오셨는데 일찍 갈 줄 알았는데 못 가서 거기에 애착심이 있을 뿐이지 마음의 부담은 솔직히 시아버지 시어머니야 덜 하지, 친정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괜찮았다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삼촌

가족이 해방이 되면서 다 서울로 왔어요. 우리 작은외숙이 내과의사였거든. 의대를 나와서 의사였기 때문에 청단에서 병원을 차렸었어. 해방 전에는 원산에 도립병원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간호원과 결혼해서 청단 와서 병원을 차려서 2년을 하다가 남대문에 와서 또 병원을 차렸지.

면담자 선생님네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셨겠네요?

최형수 그렇지. 괜찮게 살았지. 그런데 6·25 때는 그것이 다 풍비박산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충청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인민군들이 거치고 왔다 갔다 한 데는 전부, 그리고 연백군이나 벽성군 지역은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데야.

면담자 왜요?

최형수 순환을 하면서 6·25 때 해서 올라갔지, 또 내려갔지, 1·4후퇴 때 또 내려갔지, 한 2~3번을 거치면서. 아, 이게 빨갱이 신분이라고 너는 북에 부역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넌 남쪽에 부역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해서 서로 그래서 많이 죽었지.

정치적 소회

면담자 선생님 집안에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가요?

최형수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피란을 나와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거기 부역을 해서 대부분이, 38선 이북에 내가 조금 살았으니까, 이남에 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은 인민군들이 6·25 때 나와서 아주 대우를 해 줬어요. 그 치안 관계를 경찰서 빨간 완장을 채워 준 사람들이 누구냐, 손바닥 험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시켜서 밀정처럼 시켜서 이래저래 얘기해 다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걔들이 5가구제라는 게 있잖아.

면담자 5가구제? 아! 5호 담당제?

최형수 그런데 우리는 살기 시작할 때 박 대통령 때 반상회를 처음 시작했잖아. 그런데 반상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도 많았었어. 그게 조직들을 만들어서 새마을사업이라도 잘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했는데 사실 그 덕을 많이 본 거야. 사실 난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강제로 억지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정치를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영을 못 했습니다. 중국이 저만큼 번영을 한 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하니까 저렇게 나가지 저거를 미국처럼 풀어 놓으면, 또 떼놈(중국인)들이 어떤 놈들이야 말도 못할 거야. 절대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박 대통령의 뜻만은 아로새겨야 해. 박 대통령이 매년 진흥청에 가서 모심기를 했잖아. 그때 진흥청이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데 박 대통령한테. 하여튼 그냥 젊은 사람들 정확해야 해. 지금 젊은 사람들 야당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게 도대체가 국가관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국가관이 없다니깐. 나 잘살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 잡동사니들만 모아가지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도대체 다 개판이야. 이조 말엽보다 더 난장판이야.

면담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 담 자	박현정(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면 담 일	2012년 9월 11일
면담장소	장안구 영화동 경기도이북도민연합회 사무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여덟 번째 이야기

황해도 연백 월남민 정창모



1928년(1세) 황해도 연백군 석산면 출생
1936년(9세) 석산소학교 입학
1951년(24세) 1·4후퇴 직후 피란
유엔 경찰 근무
1954년(27세) 휴전 후 유엔 경찰 해산
서울에서 세탁 일
1956년(29세) 수원에서 세탁소 운영 후 목수 일

인민군 징집을 피해 월남하여 유엔 경찰로 활동하다

일제강점기 학창시절

정창모는 1928년 황해도 연백군 석산면 구산리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창모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는데 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지었다. 집안 땅이 마을 곳곳에 많이 있었고,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구장, 해방 이후 이장을 맡아 고향에서는 넉넉하게 자란 편이었다.

정창모는 석산소학교를 다녔는데, 학년마다 한 반밖에 없었다. 당시엔 50~60명이 한 반의 기준이었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이 배웠고 여학생은 학년별로 다 합쳐도 한 반이 좀 못 되었다. 학생들은 매일 솔방울을 주워다 때고 그 관솔을 따다 기름을 짜서 배급으로 바쳐야 했다. 기름이 없어 소나무 관솔을 따다 불을 땠던 것이다. 학교 친구들이랑 솔방울을 따서 가마에 가져다주면 가마에서 관솔을 때서 기름이 내려오는 방식이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정창모의 고향 황해도 연백군

학교에서는 일본어만을 써야 했다. 학교에 옛날이야기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옛날이야기를 일본말로 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었다.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두시험도 봤다. 석산소학교 뒤에 신사(神祠)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이 신사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따라가 손뼉 치고 고개 숙였다.

아버지가 동네 구장이었는데 일제 말기에 마을 주민들을 징병과 징용 보내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작은아버지도 징용을 나갔는데, 정창모의 아버지가 구장이어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래서 고향 동네에서도 4명이 징용을 나갔다. 동네 사람이 징병을 나가면 국민학교 학생들이 연안읍 기차역까지 따라가서 배웅해 주었고, 어린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징용 길에 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일장기에 한자인 '력(力)'자를 천자(千字) 써서 두르고 나가면 살아 돌아온다고 하여 동네를 돌면서 력자를 받아 가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동네 면서기가 집마다 다니면서 유기그릇을 싹 긁어 가는데 나중에는 집을 뒤져서 가져가기도 했다. 면서기는 혼자 오지 않고 순사와 함께 와 집을 뒤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창모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아버지가 해방된 사실이 너무 좋아서 춤추듯이 동네에 들어오셨다고 한다. 그때 정창모는 해방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좋은 일이 생겼구나.' 정도만 알았다. 정창모의 아버지는 인심을 잃지 않은 덕에 해방 후에도 이장을 했다. 이장은 행정 시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일을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을 검사하러 다녔고 밀주(密酒) 단속도 했다. 가정에서 술 담그는 것을 금지하자 주민들은 술을 몰래 담가 놓고 감춰 두었다. 그렇게 숨겼다가 들키면 압수되었다.


정창모의 아버지

정창모는 국민학교 졸업 후 황해도 배천에 있는 농민복음학교로 진학하였다. 농민복음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기독교 학교였다. 옆집 형의 제안으로 농민복음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한 학년이 20명 정도로 전교생이 총 60명이었다. 새벽 6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 전교생이 3년 동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였기에 매일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즐거웠다.

길잡이와 함께 떠난 피란길

정창모가 농민복음학교(중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이 터졌는데 그의 집은 38선은 2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동네에 건지산이라는 꽤 큰 야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산에서 포 소리와 총소리가 밀려와서 전쟁이 터진 것을 알게 되었다. 연안읍은 전투 없이 바로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

정창모는 삼촌과 피란을 나왔는데 인민군들이 바닷가를 막고 있었다. 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연백에서 교동도를 거쳐 강화도로 피난한 정창모

는 한두 척뿐인데 경찰 가족을 먼저 태워 가니 민간인들이 도저히 타고 나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와서 방공호를 파고 숨어 있었다. 정창모는 붙들리면 인민군으로 전선에 투입될까 봐 옆집 선배와 함께 7개월 동안 방공호에서 숨어 지냈다. 조용할 때 장독대 아래서 햇빛을 잠깐 쏘이고 무슨 낌새만 보이면 얼른 들어가서 방공호를 막아 버렸다. 9·28수복 때 방공호에서 나왔지만, 한국군이 다시 밀려 내려와서 방공호 생활을 또 하게 되었다.

결국 정창모는 1·4후퇴 때 교동도 쪽으로 피란을 나왔다. 피란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를 사는데, 길잡이들은 한 번에 30명 정도씩을 데리고 내려왔다. 정창모는 삼촌과 길잡이를 따라 내려왔는데 피란민들은 일하는 인부인 척하려고 낫이나 호미 같은 농기구를 들고 나왔다. 큰길로 가면 붙들리니 논두렁으로 다녔다. 가다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엎드려서 일하는 척하였다. 밤에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길잡이가 교동도 앞벌 도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신호를 보내니 배가 2척이 왔다. 길잡이는 물 들어오고 빠지는 시간도 알아야 했다. 배를 오래 타는 건 아니었고 물이 빠지기 전에 잠깐 건너는 정도였다. 30명이 배 2척에 나눠 탔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

새벽에 교동도에 도착해 황해도에서 나온 치안대들에게 신원조사를 받았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인데 고향 사람들이니 서로 다 알아서 쉽게 통과되었다. 신원조사를 받고 나오면 각자 살 궁리를 찾아야 했다. 챙겨 온 쌀가루를 먹으면서 버텼는데, 곧 피란민으로 등록되어 안남미 쌀을 배급받았다. 교동도 주민에게 방 한 칸을 얻어서 사돈네 식구까지 7명이 같이 살았다. 농사일 거들어 주고, 산에서 나무도 해 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다. 얼마 후 배를 타고 다시 강화도로 건너갔다. 강화에 가서 방을 한 칸 얻었는데, 근처에 이북으로 투입되는 정보원들이 훈련받는 곳이 있었다. 그 정보원들이 북한 사람 흉내를 내고 다니며 이북 노래도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유엔 경찰(황해도 경찰대)로 활동하다

1951년 중반에 삼촌과 같이 유엔 경찰에 지원하였는데, 황해도 경찰대라고도 불렸다. 신원이 확실하고 몸이 건강하면 지원할 수 있었고 별도의 모집이나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줄로 지원해서 들어갔다. 정창모의 당숙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 황해도에서 경찰(경사)이었는데, 피란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54년 4월 26일 유엔 경찰 정창모(정창모 제공)

을 나오며 경사를 관두게 되자 남쪽에 내려와 유엔 경찰에 들어갔다. 그 사람을 통해 정창모와 삼촌은 유엔 경찰에 들어갔다.

황해도 경찰대는 영국 26사단 904정보처 소속으로, 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임진강 지나서 백학면 쪽에 위치해 있어 서부전선의 전방 순찰을 돌았다. 정창모는 미군 특무상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일반 보초와는 달랐다. 미군 특무상사가 순찰을 나가거나 정보를 들을 때 한 조가 되어 함께 나갔다. 운전하면 예상치 못한 적군의 등장이나 공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창모가 총을 들고 옆자리에 앉아 경호 역할을 맡았다. 특무상사와 함께 순찰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시간이 되면 라인선 근무, 경비를 섰다.

유엔 경찰은 외국 부대 소속으로, 군번을 받지 못하였다. 처음 모집할 때 신분은 경찰이었고, 6·25전쟁 휴전 후 유엔 경찰이 해산되며 그냥 민간인이 되어 버렸다. 외국 부대 소속이었기 때문인지 기록이 없어 이후 관련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 월급은 처음에는 2,040원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5,000원 이상 받았다. 2년 반 정도 꽤 긴 시간을 복무하였는데 6·25전쟁 참전이 증명되지 않았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가족을 찾아 온 수원, 그리고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활동

정창모는 걸어서 강화도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으로 왔다. 인천에 와서 이모네 집을 찾아다녔는데 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없어서 풍문으로 소식을 확인해야 했다. 결국 행방을 찾지 못하고 인천에서 서울로 넘어가 당숙 아저씨뻘 되는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세탁소에 들어가 2~3년 정도 일을 배웠다.



1962년 정창모의 결혼(정창모 제공)

1956년 즈음 고모가 있는 수원으로 내려왔다. 황해도 연백군청이 수원에 있어서 황해도 사람들이 수원에 많이 모여 살았다. 수원에 설치된 연백군청에서는 공출, 농지개혁 상환 등의 행정 업무를 했다. 정창모의 고모부는 경찰이었는데 황해도 출신이라 수원에서는 경찰로 근무할 자리가 없어서 소방서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다.

정창모는 수원에 와서도 세탁소를 했는데 힘들고 돈벌이도 잘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후 고모를 통해 1960년대에 한옥을 짓는 대목장(大木匠)을 소개받아 목수 일을 배웠다. 처음에는 심부름을 다니며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다. 이후 본격적으로 목수 일을 배워 목수로 살았다. 정창모가 일을 배울 때 지동에 있는 한옥을 뜯어고친 게 많았다. 북문상회와 올림픽가든은 정창모가 주도해 지은 건물이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는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총무를 맡았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회원들끼리 견학도 다니고 체육대회도 열었다. 도민들끼리 만나면 고향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좋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회원들이 죽다 보니 인원도 적어지고, 도민회 업무를 보는 사람도 없다. 더구나 보조금도 끊겨 임대료를 내기도 벅차 사무실도 없앴다.



1980년대 지동 주민 친목회(정창모 제공)



1990년대 처가 식구들(정창모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고향에서의 소학교 생활

면담자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정창모 연백이요. 연백군 석산면 구산리.

면담자 몇 년생이세요?

정창모 내가 1928년이야.

면담자 형제나 남매는 어떻게 되세요?

정창모 가족이 있는데 못 나왔죠.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면담자 아버님은 그때 농사지으셨어요?

정창모 그렇죠, 농촌이니까.

면담자 선생님 기억에 농사를 어느 정도 지었는지요?

정창모 좀 많이 짓는다고 지었어요.

면담자 중농 이상은 되셨나 보네요?

정창모 예. 중농, 그 정도는 하여튼 많이 짓는다고 지었어요.

면담자 그때 이제 논농사, 밭농사 다 지으셨던 거죠?

정창모 그럼요.

면담자 "밭 몇 마지기 지었다. 논 몇 마지기 지었다." 이런 말?

정창모 마지기 수로는 모르죠. 그냥. 여기저기 땅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면담자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지으셨으니까 넉넉한 편으로 성장하신 거네요?

정창모 그렇죠. 고향에서는 그렇죠.

면담자 학교를 들어가셨을 거 아닌가요? 소학교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정창모 석산국민학교죠.

면담자 그때 석산국민학교. 그게 면에 하나 있던 학교인 거죠? 몇 학년까지 다니는 학교였어요?

정창모 예. 하나죠. 5학년이요

면담자 5학년까지 있었어요. 그럼 한 학년에 한 반씩?

정창모 그전에는 한 반밖에 없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그때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숫자가?

정창모 한 교실에서 같이 배웠죠.

면담자 거기에 여학생들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정창모 여학생이 한 반이 좀 못 됐어요.

면담자 아, 그래도 꽤 되네요. 한 50~60명이 한 반이었을 텐데?

정창모 예.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도 8살에 학교를 들어가신 거죠?

정창모 9살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8살에 학교를 못 갔어요.

면담자 집에서 그 학교까지 거리가 좀 멀었어요?

정창모 10리는 되지요.

면담자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겠네요?

정창모 예.

면담자 학교 갔을 때, 처음에 학교 들어가셨을 때 기억이 좀 나세요?

정창모 처음 들어가도 뭐 왜정 때니까.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학교 다니는 것 재미있으셨어요, 그래도?

정창모 그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맨날 솔방울 주어다 때고. 소나무 그 관솔[1] 따다 기름 짜라고, 그거 배급 바쳐야 되고.

면담자 그런 걸 했어요?

정창모 학교에 이제 석탄이 별로 안 나오니까. 솔방울 주어다 난로를 땠어요. 이 야산에 소나무.

면담자 솔방울을 때다가, 기름이 없어서 그걸로 난로. 난방을 했다고요?

정창모 그렇죠. 그때 무슨 기름이 있어요. 왜정 때. 난방이 아니고. 교실에 난로. 석탄 때면서 솔방울 때고 그랬지.

면담자 나무나 이런 게 없고 석탄이 없으니까 솔방울을 가져다가 이렇게 땠던 거예요?

정창모 솔방울을 많이 땠어요.

면담자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반 친구들이랑 같이 산에 가가지고 같이 솔방울 따고.

정창모 그렇죠. 솔방울 주우러 다니고. 또 관솔 따다가 기름, 골탄 기름 짜는 데 갖다 줘야 되고.

면담자 골탄 기름이 뭐예요?

정창모 소나무 관솔에 불을 때서 기름을 내린다고요.

면담자 그렇게 하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정창모 에.

면담자 그럼 기름 가게 같은 데가 있는 건가요?

정창모 그때 왜정 때 기름이 없으니까.

면담자 그거를 가져다가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정창모 그렇죠. 학교에다 그걸 주면은 그걸 모아서 학생들이 짐을 지고 갖다 줬어요. 그거를, 10리가 넘는 데를. 기름 짜는 데가 있었어요.

면담자 기름 짜는 기계가 있는?

정창모 기계가 아니고, 이제 불 때는. 숯가마 모양으로 그런 데서 불 때서 기름이 내려오는 거지.

면담자 그런 형식이었던 거예요?

정창모 (하하하) 왜정 때 참 힘들었어요.

면담자 (일제) 기억나시는 건 뭐가 좀 힘드셨어요?

정창모 왜정 때는 유기그릇이라면 싸그리 그냥 다 이제 걷어 갔잖아요.

면담자 선생님 네 집에도 유기그릇 가져오라 그래서 갖다 줬어요?

정창모 그럼요. 학교에서도 가져 오래고, 동네에서도 내고. 유기그릇이라는 거는. 탄피가 없으니까. 일본에 쇠가 없어가지고.

면담자 유기그릇을 가져가, 공출해 가는 거죠?

정창모 그럼요.

면담자 선생님도 그럼 기억나세요. 공출해 갔던 기억들?

정창모 공출해 가는 거 기억나지요. 나도 집에서 노다지 그것도 내고, 동네에서도 내야 되고.

면담자 동네에서는 누가 와서 그걸 걷어가요?

정창모 그때 면서기나 뭐 이런 데서 와서 공출해 가고. 나중에는 유기그릇이 안 나오니까 집을 막 뒤졌잖아요.

면담자 선생님도 보셨어요, 그렇게 뒤져가는 걸?

정창모 그럼요.

면담자 그럼 사람들이 그냥 뒤지게 내버려 둬요?

정창모 그럼요, 어떻게 해요. 왜놈들이 앞에 섰는데. 왜놈들 순사가 와서 하는데 뭘, 누가 뭐래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뒤지는 것은 순사가 와서?

정창모 그럼요.

면담자 면서기와 같이요? 면서기는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정창모 예. 한국 사람이죠. 어쩔 수가 없지요. 지서에서 시키는데 안 할 수 있어요.

면담자 그럼 선생님이 학교 다니시고 그럴 때 계속 한국말을 쓰셨어요, 학교에서는?

정창모 한국말 쓰다가 왜정 말년에 들어 한국말을 못 쓰게 했죠. 한국말 쓰면 벌서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때 일본말을 조금 하시긴 하셨죠?

정창모 조금 했지요, 그때는.

면담자 그래서 한국말 안 쓰는 것 어렵지 않았어요?

정창모 근데 뒤에서는 다 쓰고, 학교에서만 안 쓰는 거지.

면담자 학교 교실이나 이런 그 안에서만?

정창모 학교 운동장에서만 안 쓰는 거지. 집에서야 다 쓰지요.

면담자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 없으세요. 교과 중에서?

정창모 내가 어려웠던 거는 일본말도 서툰데다가, 왜 옛날애기 시간에.

면담자 옛날애기 시간, 역사?

정창모 그렇지, 옛날. 옛날애기 시간이 있어요.

면담자 옛날이야기 시간이란 게 있었어요?

정창모 예. 일본말을 억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이야기를 일본말로 하라." 이 말이야. 그럼 참 난감하지요. 그것도 구두시험 봤어요.

면담자 시험을 봐가지고 못 보면 체벌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정창모 체벌은 안 하고, 점수가 이제 약해지지.

면담자 점수 같은 거. 선생님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꽤 있으셨나 봐요?

정창모 별루요.

면담자 그렇진 않으셨어요?

정창모 별로 공부 못해가지고.

면담자 그때 신사 같은 것도. 신사참배라든가?

정창모 그 신사는 학교 뒤에 있었어요.

면담자 학교 뒤에 신사가 있었어요?

정창모 예.

면담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사에 가가지고 하는 거는?

정창모 그때는 이제 손뼉 치고, 가서 고개 숙이고. 그때 어렴풋이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가는 거였나요?

정창모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면담자 한 달에 한 번씩. 교장선생님도 다 오고, 전교생이 다 가는 거예요?

정창모 그럼요. 학교 뒤에 조그맣게 신사 만들어가지고.

일제강점기 징용과 징병

면담자 그때 연백 쪽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정창모 그때는 독립운동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구장을 보는데도. 그런 걸 모르지. 내가 애들 때인데 뭘 알아.

면담자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구장님이셨으면 징용, 징병 같은 거 있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을 때. 할당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고민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

정창모 아이고, 그러믄요. 그거 때문에 어른들이 숨어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도 징용 붙들려 가가지고, 일본 가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면담자 셋째 작은아버님께서?

정창모 예.

면담자 같은 동네에 사셨던 분이세요?

정창모 우리 작은아버지인데, 셋째 작은아버지가 한동네 살았죠. 우리 집안이.

면담자 근데 아버님이 좀 이거 어떻게 도와주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창모 안 돼요. 그건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허허)

면담자 동네에서 그러면 몇 분이나 갔었는지 기억나시는 사람 또 있으세요?

정창모 동네에서 한 4명인가 갔을 거예요, 4명.

면담자 그 셋째 작은아버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얼마 정도 위였어요?

정창모 나보다 한 20년 위이죠.

면담자 그러면 40년, 나이가 마흔 살쯤 되었을 텐데 징용, 징병 가실 때?

정창모 그때는 마흔 살이 아니죠. 내 여기 나온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면담자 그니까 선생님이 1928년생이잖아요?

정창모 예.

면담자 그러면 1940년대 초반에 징용, 징병 있었을 때가 한 18살?

정창모 장가가서 애가 둘 있었으니까 아마 30대 넘었을 거예요.

면담자 한 30 정도. 선생님은 그때 징용, 징병 이런 거 관련될 나이가 아니었던 거죠?

정창모 아니요. 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면담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환송식 라든가 이런 게 마을에서 좀 있지 않았어요?

정창모 그거는 학교. 이제 동네에서나 면에서 누가 징병 끌려가면, 연안읍까지 기차 타는 데까지 가서 배웅해 주고 그랬잖아요.

면담자 동네 사람들이 그 역까지 가서?

정창모 학생들이.

면담자 국민학생들?

정창모 학생들이 가야지 그거. 학교에서 가자면 가야지 뭐.

면담자 그럼 가가지고 역에 가가지고 박수쳐 주고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정창모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태극기에다가.

면담자 일장기에다?

정창모 응, 일본 기에다가 석칼 '인(忍)'자, 힘 '력(力)'자. 그리고 천 장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요.

면담자 그 무운장구(武運長久)라고 쓰여 있는 그런 것 들고 가게 하는 거죠?

정창모 힘 '력'자. 이거를 천 사람한테서 이걸 받아가지고 가면, 무사하다. 개네들이 받는 거예요, 힘 력자 글자를.

면담자 그럼 그걸 다 써 주셨어요?

정창모 그럼 써 줘야지 그럼. 그럼 안 써 줘요?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지.

면담자 그럼 그 천을 역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창모 아니, 그건 자기가 군대에 가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면담자 그 전에 징병 간다는 소식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써달라고 이렇게 미리 해요?

정창모 다 힘 력, 그거 그전에 받죠.

면담자 그러면 천 개를 받으려면 주민 모두가 써야 되는 거예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정창모 근데 천 자를 다 받나요, 그거? 그게 그래도 천 자를 어떻게 다 써요?

면담자 그 얘긴 선생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정창모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면담자 선생님도 좀 써 주셨어요?

정창모 난 그때는 어리니까. 그런 거 안 하지.

면담자 주로 어른들한테 받은 거였나 보네요?

정창모 예.

면담자 근데 작은아버님은 징용을 어디까지 갔다 오셨대요?

정창모 구주(九州, 큐슈)에 있었대요. 탄광이죠,

면담자 한 몇 개월이나 1년, 그 기간이 있으셨을 텐데?

정창모 글쎄 확실한 건 몰라도 아마 근 1년 넘었을 걸요.

면담자 징병 가신 분들은 없으셨고요, 동네에서?

정창모 우리 동네에서는 없었어요.

면담자 다행이네요.

정창모 우리 학교 선생이 하나 갔지, 그때. 그래서 선생들도 기차 타는 데까지 가고 그랬지.

면담자 선생님도 가셨어요?

정창모 예.

면담자 일본 선생님이 아니고 한국 선생님이 가셨어요?

정창모 한국 선생이에요.

면담자 그러셨어요. 그분은 징병, 징용?

정창모 징병.

면담자 징병으로 그러셨구나.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일제시기 때 전쟁 소식이나 이런 것을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막판에?

정창모 전쟁은 못 듣고. 해방됐다고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냥 좋아서 그냥 동네에서 막 이렇게 하던 것, 그 생각은 나요.

8·15해방 후 사회 변동

면담자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정창모 예.

면담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모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정창모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해방됐다고, 그냥 좋아서 춤추듯이 동네에서 들어오더라고. 그때는 해방이 뭔지도 그때는 몰랐는데.

면담자 그때는 모르겠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정창모 그때 그렇죠. 해방됐다고 좋다고 이제 그냥. 뭔지도 몰랐지 뭐 해방.

면담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좀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건 좀 없었어요. 예를 들어 거기 일본인들이 좀 살았어요, 연백에?

정창모 우리 학교 교장도 일본 사람이었어요.

면담자 학교 선생님은 일본인이 안 계시고요?

정창모 예.

면담자 그럼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본으로 가셨을 것 아니에요?

정창모 갔는데 아마 고생하다가 간 것 같아요. 제대로 가지 못한 거 같아.

면담자 왜요?

정창모 그때 바로 해방되면서 또 그렇게 못 가게 막았잖아요? 일본인들 학대하느라고.

면담자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정창모 동네에서는 없고.

면담자 아버님이 구장이셨는데 해방되고 나서 좀 곤란한 일을 겪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고?

정창모 아니요.

면담자 그래도 아버님이 인심을 하나도 안 잃으시고?

정창모 해방되고는 이장도 했지.

면담자 이장은 뭐를 주로 하셨어요, 일제시기 때하고 해방되고 나서 이장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정창모 이장들 하는 게, 그때는 청소하는 것도, 검사 나오면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면담자 청소도요?

정창모 청소하는 거 이제 검사 나오고 그렇잖아요.

면담자 마을 청소?

정창모 네.

면담자 마을 청소를 아버님이 사람들 모아서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정창모 청소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청소하는데 이제 검사를 다니지.

면담자 아버님께서 직접 검사를 다니세요?

정창모 근데 그거 해방되고는 이제 안 하고. 왜정 때는 검사하러 순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면담자 위생검사 비슷한 거나? 청소검사.

정창모 그런 거, 술 같은 거.

면담자 밀주(密酒)!

정창모 예. 그런 것 검사하러 다니고.

면담자 그다음에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세금 영수증도 갖다 주고 그런 것도 하셨어요?

정창모 그건 몰라요.

면담자 청소. 그때, 마을에서 밀주라든가 이런 게 꽤 있었어요?

정창모 그럼요. 그거 숨겨놓고 있다가 들키면 또 뺏기고 그냥 그러는 거죠. 술을 먹어야 농사짓는데. 그 술이 일일양식인데. 하하하. 몰래 담가서 그냥 일할 때 주고 그러는 건데.

면담자 마을에서 흔한 일이었겠네요. 술을 담그는 것은 그때?

정창모 서로 감춰서 담갔어요. 담아서 감춰놔야 된다고. 따로따로 집집마다.

면담자 (하하하) 선생님 네도 술을 담그셨어요?

정창모 그래도 우리도 술 담갔지, 그럼요.

면담자 선생님 네는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하하하) 그랬군요. 이제 해방이 돼서 좋기는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것들 있잖아요. 청년단체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선생님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정창모 난 그런 건 모르고.

중학교 생활

면담자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중학교로 가셨어요?

정창모 예.

면담자 어디 중학교인 거예요?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정창모 배천이요.

면담자 배천으로 가셔가지고. 그럼 학교를 다닐 때 통학을 하신 거예요?

정창모 아니요. 거기서 기독교 학교를 다녀가지고. 합숙하고 있었어요.

면담자 기숙사가 있어서?

정창모 예. 학교가 걸기에 머니까, 30리도 넘는데.

면담자 그 학교는 무슨 중학교라고 하셨죠, 선생님?

정창모 농민복음학교에요. 신학교지. 장로교.

면담자 누가, 설립자가 누구셨는데요?

정창모 그때 교장이 그 교회 목사 했었는데. 이름은 몰라요.

면담자 어떻게 그 학교에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종교가 있으신 거예요?

정창모 종교는 우리 집은 본래 불교죠.

면담자 근데 그때 중학교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거기밖에 없었나요?

정창모 글쎄 어떻게 된 게 그때 복음학교를 갔어요. 우리 집 옆의 사람이. 거기 선배가 가자 그래가지고 간 거지.

면담자 중학교가 몇 년제였던 거예요?

정창모 거기 3년제지.

면담자 그럼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창모 학교가, 인원수가 많지 않았어요. 한 학년 한 20명인가.

면담자 그럼 전교생이 한 60명 정도인 상태였네요?

정창모 그렇지.

면담자 그럼 교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학교네요.

정창모 예. 그전에는 지금 모양으로 많지 않았어요.

면담자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교회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채플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정창모 새벽에 6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부터 먼저 하고. 거기는 첫째가 기도니까.

면담자 학교에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한국인 목사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정창모 그렇죠, 한국인 목사에요.

면담자 배우시면서 종교적인 게 차이가 있어서 힘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정창모 아니요. 그때는 재밌었어요. 애들도 있는데.

면담자 뭐 하는 게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그때?

정창모 하하. 이제는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면담자 그래도 그중에 친한 학생들 있잖아요, 기숙사 생활 밤 되면 같이 얘기를 한다든가 놀러도 다니고?

정창모 놀러 다니는 것은 학교 마치고 나면 항상 식당에서 밥 먹고, 기숙사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맨날 그거니까. 개인적인 생활은 별로 없어요.

면담자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중학교 들어가실 때 나이가 몇 살이신 거예요?

정창모 열여섯 살에.

면담자 중학교 들어가신 게 해방 전이시겠는데요?

정창모 해방되고지요. 내가 소학교 5학년 때 해방됐는데.

면담자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정창모 예.

면담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복음학교를 다니셨고?

정창모 졸업 못 했죠, 중학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6·25전쟁 발발과 1·4후퇴 후 피란 과정

면담자 2학년 다니시다가 한국전쟁이 난 거예요?

정창모 에. 졸업 못 했지요.

면담자 전쟁이 난 거를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막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정창모 우리 동네에 건지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집에서 38선이 한 20리밖에 안 돼요. 그 20리 길을 파출소는 내버려 두고 그냥, 질러서 연안읍으로 점령하러 내려온 거야. 그때는 군인도 몇 없고. 경찰도 몇 없었고.

면담자 그러면 38선 내려오자마자 연안읍으로 내려온 건가요?

정창모 연안읍으로 내려온 거지. 거기에 군 소속이 있으니까. 대항하는 전쟁도 안 했어요. 그냥 밀려 나오는 거지.

면담자 폭격 소리는 났지만, 전투도 없이 그냥 쭉쭉 내려온 거구나.

정창모 전투고 뭐고 할 사람이 있나. 군인들 다 휴가 보냈지. 그때 군인들도 전쟁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사지를 쭉쭉 뻗고 다녔다고 그때는 군인들이.

면담자 그러면 전쟁이 났다, 그전에도 전투가 38선 주변에 몇 번 있었잖아요, 작은 전투들이.

정창모 그냥 잠깐 내려와서 기수(낌새) 보고 들어가고 개네들이 그랬지요.

면담자 그런 거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투가 아주 전면전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정창모 전면전이, 전쟁이 난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여기 군인들은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거니까.

면담자 그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셨던 거네요?

정창모 몰랐죠. 군인들이 다 낙오된 거예요, 바다를 막으니까. 황해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바닷가를 점령을 하니까, 나올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사복 입고 그냥 도망 나갔어요.

면담자 그래서 도망 나와 가지고 숨겨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창모 근데 숨겨 달라는 시간도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밀려 내려가는 거지.

면담자 선생님은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전쟁 나자마자 피란을 오셨다는데. 선생님 네는 어떻게 됐었어요?

정창모 나는 피란 나오다가 인민군들이 바닷가를 막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배를 못 타잖아요? 배가 그때 뭐 있어요? 배 한두 척 있는 거. 그거 경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들 가족 태워가지고 가느라고. 일반인들은 도저히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면담자 전쟁 나자마자 선생님도 피란을 가려고?

정창모 바닷가에 왔다가 인민군들이 이렇게 겹 싸니까, 또 도망 들어가야지.

면담자 그때 피란 가려고 내려왔을 때 선생님 혼자 내려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정창모 아니요, 삼촌하고 같이 왔었죠.

면담자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정창모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방공호 파고 집 안에 숨어서 그냥. 하하.

면담자 왜 방공호를 파고 숨어 있으신 거예요?

정창모 그때 붙들리면 무조건 인민군에 가는 거야.

면담자 삼촌이랑 선생님이랑 누가 그 방공호 속에 있으셨다고요?

정창모 그 방공호는 나하고. 옆에 집의 선배하고 같이 숨어 있었지. 7개월 동안 방공호에 있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그러면 낮에는?

정창모 방공호 속에 있어야 돼요.

면담자 밤에는 어떻게. 밤에도 거기서?

정창모 밤에도 거기 있고. 이제 잠깐 조용할 때 이제 나와서, 장독대 아래서 햇빛 쐬느라고 나왔다가 무슨 낌새만 나면 얼른 들어가서 틀어막아 버리고.

면담자 7개월 있으셨을 때 동네에서 인민군들이 어쨌든 점령한 상태였잖아요? 그럼 그때 주민들 중에서 인민위원회 참여했던 주민들이 (있나요?)

정창모 우리 동네는 없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그때 인민위원회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정창모 근데 이웃 동네들, 바다 근처 빨갱이들이. 가다 밀려서 같이 다니는 사람 있었어요.

면담자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아요? 동네 분들이나 이런 분?

정창모 나는 그거는 모르지. 애들 때 뭘 알아.

면담자 그러면 어쨌든 전쟁 중에는 계속 숨어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정창모 그럼요. 나 집에 있는 걸 동네 사람도 몰랐어요.

면담자 근데 9월이나 10월쯤 되면 이제 수복이 되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숨어 계셨어요? 이제 9·28수복이 되잖아요? 전선이 위로 올라가는 게 10월이면.

정창모 그때는 나와 있다가, 또 1·4후퇴 도로 내려갔잖아요.

면담자 그러면 1·4후퇴 때 같이 피날 갈 생각은 안 가졌어요?

정창모 그때 내려온 거야. 강화로 나간 거지.

면담자 그때는 배를 구하셨어요?

정창모 길잡이 사가지고.

면담자 길잡이를 샀어요?

정창모 그럼요.

면담자 그걸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군요.

정창모 그럼요. 그 사람이 한 번 나오면 한 30명씩 데리고 나온다고. (허허허)

면담자 선생님도 그때 나오실 때 한 30명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정창모 그때 나온 거요.

면담자 그럼 선생님 가족 중에 선생님하고 누구랑 같이 내려왔어요?

정창모 삼촌.

면담자 그때 루트가 어떻게 돼요, 그럼?

정창모 그니까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삼촌이 처갓집에서 알음알음해서 길잡이를 사서 삼촌이 나오게 되니까 나도 데리고 나온 거지.

면담자 삼촌 댁으로 일단 갔다가?

정창모 삼촌 처갓집에요.

면담자 삼촌 처갓집도 어쨌든 연백 쪽이셨던 거죠? 그럼 거기에서 밤에 이제 모이셨을 거예요, 그죠? 30명이 모일 때.

정창모 낮에 모였어요. 낮에 어디서 모인 것보다도. 그때 이제 평민 모양으로. 지게 걸머지고, 무슨 일하는 모양으로 낮하고 이제 논두렁으로 다니는 거니까. 큰 길로 가면 이제 붙들리니까.

면담자 논두렁으로 이렇게 30명이 쭉 가는 거예요?

정창모 예. 좀 이상하면 엎드려서 일하는 척하고, 그래가면서 삼촌 처갓집까지 가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는 거지. 이제 밤에 길잡이가 나와가지고 길잡이 따라가면 된다고.

면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닷가 쪽으로 나오고?

정창모 예.

면담자 바닷가 쪽에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타시는 거예요?

정창모 바닷가에서 타죠.

면담자 그것도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창모 그럼요. 길잡이는 교동 앞벌 도랑에서 배가 왔다고 라이터로 신호를 해요. 길잡이는 물이 빠지는 시간을 다 알아요. 물 빠지면 이제 물이 얼마 없어요, 그때. 이리 잠깐 건너오지. 그리고 배 타고 건너오는 게. 10리도 안 돼요.

면담자 그럼 다 타시고 30명보다 더 많았어요? 아니면. 선생님 네 팀만 그 배를 탔어요?

정창모 우리 팀은 우리만 타는 거지.

면담자 3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였네요? 고깃배 같은.

정창모 아니, 배 2대로, 인사리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양쪽으로 가지요. 거기서 갈라 탄 거지.

교동도와 강화도에서의 피란 생활

면담자 갈라서. 그렇게 해서 교동에 도착하니까. 새벽인가요? 아니면 밤에 도착하셨겠네요?

정창모 아니, 새벽에.

면담자 새벽에. 그럼 교동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정창모 거기서 신상 조사 받았지요, 다. 조사는 황해도에서 나온 사람들이 치안대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그러는 거지.

면담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창모 응. 고향 사람들이니까 다 알죠.

면담자 황해도 사람들의 치안대가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보증을 해주고 나면 거기서 뭔가 안내를 해줘요?

정창모 안내는 아니고 이제 개개인이 불려 나가는데. 난감했죠.

면담자 그거를 거쳐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창모 예. 그럼.

면담자 사무실 같은 게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신분 확인하고?

정창모 조금 더 (조사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풀려 나가는 거지.

면담자 그럼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고 나면?

정창모 이제 어디 가서 제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담자 진짜 난감하셨겠네.

정창모 난감하죠. 먹을 거 있어, 뭐 해요.

면담자 그래서 도착하셔서 그날은 동네에서 신세를 지신 거예요?

정창모 신세 지은 게 아니라 그때 쌀가루 가지고 온 것 우선 먹으면서. 또 바로 등록이 배급 쌀이 나왔다고. 안남미 쌀.

면담자 그럼 배급표는 몇 개월, 일주일치, 한 달치?

정창모 한 달치인가? 아니 한 달치도 아니여. 그건 가끔 줬어요.

면담자 그럼 티켓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쌀 자체를 줘요?

정창모 쌀을 주는 거야 그냥.

면담자 그럼 (쌀도) 아까 등록하던 데서 받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데 이름이 뭐예요?

정창모 치안대가 그렇게 해서 내보내 놓으면, 거기에 황해도 정부의 무슨 단체가 또 있었어.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면. 이제 배급 쌀이 나오는 거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면담자 배급 쌀은 그 대략 한 사람당 성인이든 정해진 게 있어요?

정창모 조금밖에 안 나와요.

면담자 한 줌 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다가 선생님은 얼마 정도 교동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정창모 교동에 한 세 달, 네 달. 여기 나와서 사돈들 만나 교동 주민 집에 방 하나 얻어, 7명이 살았다고. 그래 거기서 일해 주고, 밥 얻어먹고. 그러면서 거기 사는 거야.

면담자 일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정창모 그 집의 농사일도 거들어 주고, 산에 나무하는 것도 거들어 주고 이제 그러면서 밥 얻어먹고.

면담자 근데 7명 중에 사돈집도 있고 삼촌도 거기 같이 계셨어요?

정창모 삼촌은 같이 안 있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사돈집 식구들만 좀 아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

정창모 모르는 사람들이지.

면담자 그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어린 축이었겠는데요?

정창모 그렇죠. 내가 제일 어리지 그때.

면담자 배급 쌀은 계속 받아 드시고?

정창모 배급 쌀 타 먹으면서 일해 주고, 밥 얻어먹고.

면담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창모 그다음에 강화로 건너갔죠.

면담자 강화로 건너가게 된 계기는 일자리 좀 얻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정창모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꾸 이리로 내려오려고. 강화 가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무슨 타이거. 거기에 이북 드나드는 훈련 받는 데가 있었어요.

면담자 강화도에 이북으로 군인들 투입시키는?

정창모 정보원이지. 교육받아 이북 갔다가 오면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해 오는 거지.

면담자 거기에 가셨어요, 선생님?

정창모 아니, 난 그 옆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었지. 그 사람들은 완전 이북 행색 하고 다니고, 길에서 막 이북 노래 부르고.

면담자 강화도에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북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다니고 그랬다고요?

정창모 그럼 길에서 막 다니는 거야. 그건 습관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허)

면담자 선생님은 그때 강화도에서 아시는 분 없이 혼자 계셨어요?

정창모 아니 그때도 친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인천으로 건너 왔죠.

면담자 그때는 걸어서 가신 거예요. 교동도에서 강화도 갈 때도?

정창모 그건 배 타야지.

면담자 배 타고. 그다음에 강화도에서?

정창모 걸어가는 거지.

면담자 인천으로는 가서?

정창모 김포로 해서 인천으로 갔고. 김포로 가면, 이제 바닷물 나가면 육로로 다녔어요. 저기 계양.

면담자 계양.

정창모 계양도 아니에요, 그것도? 갯벌에 물 나가면 갯벌이라고 그냥 걸어 다닐 정도예요.

면담자 강화도에서는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었던 거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정책연구센터

정창모 그때 무슨 일? 그때 무슨 일거리가 있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인천 가서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정창모 난 그런 생각을 못 했어.

면담자 그러면 인천에 와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정창모 인천에 와가지고, 이모네 집 찾는다고 용매도도 가보고, 찾지도 못하고. 친척 집으로 자꾸 의지하고 다녔어요.

면담자 그렇겠군요. 그럼 친척 집 찾으러 다니고. 주소나 이런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정창모 고향 사람들 자꾸 만나면 얘기 들어, 풍문에 소식을 듣는다고. 그래서 고모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수원 정착 과정

면담자 고모를 만난 건 인천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수원에 오셔가지고 만나신 거예요?

정창모 고모는 수원서 만났지요.

면담자 인천에 계시다가 인천에 자리를 좀 잡으셨어요, 아니면?

정창모 못 잡았지요.

면담자 이모도 못 찾고. 그래서 그다음에는요?

정창모 그다음엔 도로 서울에 아저씨벌 되는 집이 있어서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세탁소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일을 배웠지.

면담자 서울에 있는 세탁소에 들어가서 일을 좀 배우셨어요?

정창모 그래서 그거 하다가 또 수원에 와서 목수 일 배워서. 목수 일하고 이 수원서 산 거야 그냥.

면담자 수원에 내려온 게 언제쯤에 내려오셨는데요, 몇 년도쯤에.

정창모 수원에 온 게 56년인가 57년인가 됐을 거야.

면담자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정창모 서른다섯.

면담자 서른다섯, 좀 결혼을 늦게 하신 거네요.

정창모 많이 늦게 했지요. 장가갈 근저(기반)가 있어야지.

면담자 결혼을 그럼 여기 오셔서 했겠네요?

정창모 예.

면담자 그러면, 세탁소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정창모 세탁소에서 한 3년 했을 걸요. 아현동에 있다가, 효창동에 있다가, 마포에 있다가.

면담자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시게 된 계기는?

정창모 여기 수원에 고모가 있으니까.

면담자 고모가 뭐 하셨어요?

정창모 경찰. 고모부가 경찰이었어. (고모네는) 미리 수원에 와 있었지. 수원에서도 황해도 경찰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여. 그래서 소방서에 있었어요. 황해도 경찰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니까 이제 수원소방서에서 근무했다고.

면담자 그럼 고모네 집이 그땐 어디에 있었어요?

정창모 교동.

면담자 그럼 선생님도 그쪽 고모네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정창모 고모네로 와서 고모가 이제 (교동에) 세탁소 내줘서 그거 하다가, '에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아니다.' 그러고 목수 일을 배운 거지.

면담자 목수 일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정창모 목수도 고모가 대목(大木)에게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 심부름하면서 배운 거지.

면담자 대목이라고 하면 대목은 건축물 큰 뼈대나 이런 것들 이제 틀 잡고?

정창모 그게 한옥 짓는 사람들. 그게 대목이라고 그래.

면담자 그럼 선생님도 한옥을 주로 지으셨어요?

정창모 처음에는 한옥 지었지.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이 배우셔가지고 한옥을. 이때가 이제 60년대쯤이었는데?

정창모 거기서 일 많이 했어요, 목수 일 안 한 지 한 5년 됐나. 계속 목수 일해서 먹고살았지.

면담자 한옥을 어디서 많이 지으셨어요?

정창모 지동에.

면담자 그 한옥들 중에서 잘 짓거나 부잣집 한옥이나 기억나는 건축물 있으세요?

정창모 그때 한옥은 새로 짓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 헌 것 뜯어다가 맞추는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면담자 지동시장 뒤편에 있는 그 집들이요?

정창모 미나리광시장. 내가 지은 것은 아니고. 그때는 뒷일하면서 배운 거고. 수원 와서 여기 북문 대동상회. 그거 내가 지은 거고.

면담자 대동상회 주인은 누구였어요?

정창모 그때 주인, 이름은 몰라요.

면담자 대동상회. 이 건물은 지금?

정창모 지금도 있잖아요. 현대부품, 농협 앞에.

면담자 선생님이 지은 건축물이 남아 있는 건 아니죠?

정창모 아니, 그것도 내가 지은 건물이야, 그전에 크게 지은 것은 시청 앞 올림픽가든. 그거 내가 지은 거고.

면담자 그런 건축이 막 잘 됐, "돈 좀 벌었지." 했던 때가 있지 않아요?

정창모 근데 나는 바보라 돈 못 벌었어요. 내가 맡으면 일 품값도 안 돼.

면담자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랬나 보다.

정창모 그전에는 인건비도 싸고. 돈벌이도 안 됐어요, 지금 인건비가 10만 원 이상 20만 원대 막 올라가지만. 그때는 돈 몇 푼 주지도 않았어요.

면담자 맞아요. 비 오는 날도 못 하고 이러잖아요. 일을 맡아서 하신 건 없으시고요?

정창모 글쎄 나중에 집도 많이 맡아서 지었죠, 집 장사인들.

면담자 그렇죠. 그럼 좀 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정창모 그런데 맨 날 적자 보고.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활동

면담자 황해도민회 활동은 계속하셨어요?

정창모 황해도민회 총무 봤어요.

면담자 몇 살부터 황해도민회 활동을 하셨어요. 계속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하신?

정창모 중간에 했죠. 그전에는 내가 황해도민들 모임에 나갈 처지도 안 되고.

면담자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드시고 나서 하신 거예요? 몇 년에 일을 하셨어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정창모 그냥 나가다가 내 친구(허주원)가 총무 보다가 죽었잖아요.

면담자 선생님이 총무 하실 때 황해도민회가 사업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정창모 처음에는 도에서도 좀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회장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다 치웠어요.

면담자 그전에는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보조금 같은 게 좀 내려와서?

정창모 그럼요. 도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체 끊어진 거야.

면담자 주로 경기도 같은 데서 돈이 좀 나오고, 또 국가 쪽에서 돈이 좀 나와요?

정창모 국가에서는 안 나와요.

면담자 경기도 쪽에서 주로 도와주셨군요. 그럼 그거 가지고 행사 같은 걸 좀 하셨어요?

정창모 예. 행사도. 그니까 견학 같은 거 다니고. 체육대회 같은 데 그러는 것들 많이 했어요.

면담자 황해도민회 모임에 가면 그래도 좋으셨어요?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정창모 그전엔 좋았어요. 황해도민끼리 서로 만나면 얘기도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그래 괜찮았는데, 하나둘 죽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적어지고, 일 보는 사람도 시원치 않고, 결국엔 임대료를 못 내서 문 닫아 버린 거예요.

면담자 그러셨구나. 지금 고모나 이런 분들은?

정창모 다 돌아가셨죠. 이제 없어요, 나 하나밖에.

면담자 근데 형제분들은 못 내려오신 건가요?

정창모 예. 내려올 수가 없어요.

면담자 거기가 38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이북이 돼버린 거죠, 고향(연백)이. 이번에 그 강원도 올라가고 이거 내려온 바람에 거꾸로 됐지. 못 간다고. 하하.

면담자 가족들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정창모 아휴, 그 얘기를 하면 뭐해요, 지금도 외로운데.

면담자 지금도 외로우세요?

면담자 부인은 고향 분들이세요, 아니면?

정창모 아니야. 서울 여자.

면담자 (수원에) 왔을 때 황해도민회 분들이 주로 수원에서 같이 모여 살던 공간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세류동이라든가?

정창모 아니요. 세류동은 돈이 없고. 황해도 연백 사람들이 모이는 게, 황해도 군청이 수원에 있었어요. 황해도 연백군청이. 그래서 수원에 모이기 시작한 거야. 수원에 많이 모인 거야.

면담자 어디에 그게 있었어요?

정창모 군청이 사무실은 내가 모르는데, 삼촌이 그거를 알고 거기를 다녔어요.

면담자 황해도 연백군청이 여기 있었어요?

면담자 황해도 연백군청이 수원에 있었어요? 그럼 사무실이 있고?

정창모 사무실이 있었죠, 그렇죠.

면담자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창모 업무했었지요, 그전에 처음 나갈 때는 공출 낸 거. 그 증서들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받고 그랬잖아요?

면담자 공출이요?

정창모 그치, 농사짓는 거 이제 공출 내가잖아요.

면담자 그럼 행정 업무를 봤던?

정창모 수매한다고 하지, 수매.

면담자 농지개혁이 실시된 것 땅 상환하는 거?

정창모 상환도 하고, 그전의 농사지은 거.

면담자 공출도 했죠, 맞아요. 공매?

정창모 그거 한 거, 돈을 그때 못 받고. 여기 수원군청 와서 받은 거예요. (6·25) 난리가 나는 바람에. 쫓겨나는 바람에. (하하하)

면담자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정창모 삼촌이 그걸 받아가지고 쓰고, 나는 그때 김포에 있을 때, 그거 받는지도 몰랐죠, 삼촌이 받았었지.

면담자 삼촌은 미리 수원으로 내려오셨어요?

정창모 삼촌은 면서기로 있었으니까.

면담자 황해도 면서기로 계셨었던 거예요? 연백에서?

정창모 예. 근데 나는 고모 찾아 내려온 거예요.

면담자 그니까 선생님은 고모 찾아 내려오셨는데. 삼촌은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교동도로 내려오셔가지고?

정창모 이제 헤어지고.

면담자 수원에 연백군청이 있으니까 여기로 업무를 보러 오신 거예요?

정창모 그래 그 돈 찾으러 여기 왔었지.

유엔 경찰[황해도 경찰대] 생활

면담자 그러고 나서 삼촌은 수원에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정창모 아니요. 삼촌도 나하고 전방에 갔었지요. 삼촌도 유엔 경찰에 있었고, 나도 유엔 경찰에 들어가고.

면담자 선생님, 경찰에 들어가셨어요?

정창모 그전에 전방에서 유엔 경찰이라고, 황해도 경찰대라고 그랬어요. 서부. 휴전되기 직전이고, 휴전된 거죠.

면담자 어떻게 거기에서 활동하시게 되신 거예요?

정창모 내 아저씨 되는 사람이 고향의 경찰 주임, 경사였었는데. 여기 나와 가지고 경사를 그만두고 거길 들어갔어요.

면담자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유엔 경찰, 유엔 연백 경찰?

정창모 유엔 경찰이라고. 예전에 유엔 폴리스라고 그랬어.

면담자 그럼 여긴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정창모 그전에는 연줄로 해서 지원을 하면 들어갔어요.

면담자 들어갈 때 특별히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정창모 시험은 없고, 자기가 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하면.

면담자 선생님 그때 몇 살쯤에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정창모 그때 내가 20대인데.

면담자 그럼 거기 들어가서는 하는 일은 뭐예요?

정창모 주로 경비를 많이 섰지요. 이제 부대 경비 서고, 나는 서부전선의 영국 26사단 904라고 있어요. 정보처.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방 순찰 다니고 그랬지.

면담자 전방이면 지금 지역으로 어디쯤?

정창모 지금으로 보자면 임진강 지나서 백학면, 거기 저수지 있는 데가 최전방이었어요.

면담자 저수지 근방, 임진강.

정창모 임진강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죠.

면담자 지금은 북한 땅인 거예요?

정창모 아니죠, 지금도. 여기(남한) 땅이에요. 파주 그 위로. 임진강 건너서도 이남 땅이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북 땅이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거기 가서 순찰하고 그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정창모 그래 거기가 정보처니까.

면담자 보초 서는 것하고는 달라요?

정창모 그건 보초 서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이제 정보처 904에 싸진(sergeant, 상사)하고, 싸진 미조(sergeant major, 특무상사) 둘이 있었는데.

면담자 영국 상사 이름이 싸진 상사예요?

정창모 싸진 상사가 아니라 계급이 상사라고. 싸진 미조, 특무상사.

면담자 특무상사. 그 사람하고 같이 선생님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정창모 그 사람이 순찰 나갈 때 정보 들을 때 나도 따라가는 거지. 그 차 타고.

면담자 그게 매일 되는 거예요?

정창모 아니. 어쩌다가 자기네들이 공무(公務)로 뭐가 있으면 순찰 나가는 거지, 전방에.

면담자 순찰을 나가면 그 사람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정창모 전부 차 타고 가면서부터 이북을 이제 살피는 거지. 나는 그 옆에 총 가지고 앉아 있어, 전방에 가니까. 나는 칼빈(카빈총) 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권총이니까. 자기는 운전하니까 권총을 못 쏘잖아. 급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최전방이니까.

면담자 그래서 선생님은 총을 들고서 경호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정창모 그렇지. 권총을 날 주고, 칼빈 놔두고 권총을 날 주고. 수틀리면 쏘라는 거야, 그냥.

면담자 나머지 날에는 부대에서 뭐를 해요?

정창모 시간되면 경비 서는 거지. 근무서 같은 것 이런 거. 라인선 근무라고 하잖아, 라인선?

면담자 라인선 근무 같은 것을 하시고. 영국 부대에 소속돼가지고, 군번 같은 것도 받으신 거예요?

정창모 군번이 아니야, 그때는 군번도 없었어요.

면담자 그럼 신분이 그냥 경찰인 거예요?

정창모 처음에 모집할 때 경찰이었는데. 이제 나중엔 그게 해산되고 말았잖아. 휴전되고 얼마 있다가 해산되고 말았다고.

면담자 이게 켈로 부대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정창모 켈로하고는 다르지.

면담자 해산이 되고 나면 어떻게?

정창모 민간인이지 뭐. 못 들어가는 거지, 거기.

면담자 선생님은 그런데 군대 복무를 한 거잖아요? 군 복무나 이런 거는 아무런(혜택이나 군번)?

정창모 그런 거 없어요. 교동으로 처음 나올 때 치안대 하던 사람들은 군에 편입이 되어서 군번 다 받았지.

면담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전선에 가가지고.

정창모 서부전선으로 이 부대 속으로 외국 선으로 간 건 (기록이) 없어요.

면담자 그때 월급도 있었어요?

정창모 그때 처음에 2,040원 타다가. 5,500원인가 5,600원인가 타다가 그러고 말은 거지.

면담자 얼마 정도 거기 있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정창모 2년 반 정도 있었을 거여.

면담자 굉장히 오래 있으셨던 건데. 이게 약간 노무자 비슷한 신분으로 된 거예요?

정창모 노무자도 아니지.

면담자 아닌데 진짜. 2년 반이면 꽤 길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아카이브센터

정창모 이제 근무서 같은데 경비, 보초 서는데 같이 근무한 거여.

면담자 그러니까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6·25 참전이나 이런 것 증명도 안 돼요?

정창모 없어요, 안 돼.

면담자 그러면 휴전이 되면서 선생님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정창모 에.

면담자 나오고 나서 서울로 가신 거예요?

정창모 그럼, 그래서 나와서 세탁소 하다가. 목수 일 배워서 그냥 해먹고 산 거지.

면담자 에.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담 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 담 일	2020년 10월 24일
면담장소	정지동 자택

집 필 김현미 인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구술조사 박현정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현석이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자료정리 김미업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기획·편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학구술총서 4

경계를 넘어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발행일
2022년 12월 10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26
031-220-8058

디자인 및 인쇄
경인M&B

ISBN
979-11-6819-137-2 93300
979-11-90343-82-4 (세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